

2022년 여름 국어사학회 전국 학술대회

국어 음운체계의 연구 성과와 전망

일시: 2022년 7월 6일(수) ~ 7월 7일(목)

장소: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2호관 대강당·현석관

주최: 국어사학회 ·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주관: 국어사학회

2022년 여름 국어사학회 전국 학술대회 세부 일정

- 일시: 2022년 7월 6일(수)~7월 7일(목)
- 장소: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2호관 대강당·현석관

<7월 6일(수)>

일 시		발 표 및 내 용	사 회
개회식	12:30~13:00	등 록	김현주 (공주교대)
	13:00~13:10	개회사: 황선엽(국어사학회장)	
	13:00~13:20	학회 일정 및 공지	
주제 발표	13:20~14:00	[주제 발표 (1)] 발표 주제: 고대 국어 음운체계의 연구 성과와 전망 발 표: 신성철(순천대)	이래호 (강원대)
	14:00~14:40	[주제 발표 (2)] 발표 주제: 중세-근대 국어 자음체계의 연구 성과와 전망 발 표: 김지은(덕성여대)	
	14:40~14:50	휴 식	
	14:50~15:30	[주제 발표 (3)] 발표 주제: 중세-근대 국어 모음체계의 연구 성과와 전망 발 표: 김소영(광운대)	
	15:30~16:10	[주제 발표 (4)] 발표 주제: 중세국어 성조 체계와 율동규칙, 성조 방언과의 대비 발 표: 임석규(원광대)	
	16:10~16:20	휴 식	
종합 토론	16:20~17:30	좌장: 김유범(고려대) 토론: 이준환(전남대), 신우봉(제주대), 김아름(가천대), 박진혁(서강대)	

<7월 7일(목)>

일 시		발 표 및 내 용	사 회
개인 발표	09:30~10:10	[개인 발표 1] 발표 주제: 『음식방문나라』의 국어학적 연구 발 표: 오필애(제주대)·배영환(제주대) 토 론: 권미소(제주학연구센터)	김양진 (경희대)
	10:10~10:50	[개인 발표 2] 발표 주제: 『녀사소학』의 종합적 연구 발 표: 김태우(부산대) 토 론: 김봉국(부산교대)	
	10:50~11:00	휴 식	
	11:00~11:40	[개인 발표 3] 발표 주제: <토끼전>에 나타난 한자어의 표기 및 음운에 대 하여-필사 72장본을 중심으로 발 표: 런명지에(전남대) 토 론: 한수정(부산대)	
	11:40~12:20	[개인 발표 4] 발표 주제: 역문법화를 통한 품사 통용의 통시적 해석 발 표: 허원영(제주대)·최대회(제주대) 토 론: 이용규(서울대)	
폐회식	12:20~12:30	윤리교육	김현주 (공주교대)
	12:30~12:40	폐회사: 황선엽(국어사학회장)	

목 차

제1부 주제 발표

신성철 ▶ 고대 국어 음운체계의 연구 성과와 전망	7
김지은 ▶ 중세-근대 국어 자음체계의 연구 성과와 전망	27
김소영 ▶ 중세-근대 국어 모음체계의 연구 성과와 전망	42
임석규 ▶ 중세국어 성조 체계와 율동규칙, 성조 방언과의 대비	53

종합토론

이준환 ▶ “고대 국어 음운체계의 연구 성과와 전망”에 대한 토론문	67
신우봉 ▶ “중세-근대 국어 자음체계의 연구 성과와 전망”에 대한 토론문	69
김아름 ▶ “중세-근대 국어 모음체계의 연구 성과와 전망”에 대한 토론문	71
박진혁 ▶ “중세국어 성조 체계와 율동규칙, 성조 방언과의 대비”에 대한 토론문 ..	74

제2부 개인 발표

오필애·배영환 ▶ 『음식방문나라』의 국어학적 연구	78
권미소 ▶ “『음식방문나라』의 국어학적 연구”에 대한 토론문-	95
김태우 ▶ 『녀샤쇼학』의 종합적 연구	97
김봉국 ▶ “『녀샤쇼학』의 종합적 연구”에 대한 토론문-	131
런명지에 ▶ 토끼전에 나타난 한자어의 표기 및 음운에 대하여-필사 72 장본을 중심으로	133
한수정 ▶ “토끼전에 나타난 한자어의 표기 및 음운에 대하여-필사 72 장본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149
허원영·최대희 ▶ 역문법화를 통한 품사 통용의 통시적 해석	152
이용규 ▶ “역문법화를 통한 품사 통용의 통시적 해석”에 대한 토론문	164

국어사학회 연구윤리 규정 167

제1부

기획 발표

고대 국어의 음운 체계의 연구 성과와 전망

신성철(순천대)

1. 서론

이 글은 고대 국어의 음운 체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간략히 살펴보고 고대 국어의 음운 체계 수립 과정과 방법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음운론에서 다루어지는 고대 국어의 자료는 현대 국어의 자료와 아주 큰 차이점을 지닌다. 고대 국어의 자료가 우리 문자가 아닌 중국 문자인 한자를 차용한 차자 표기로 되었기 때문이다. 고대 국어의 연구는 한자음의 분석과 해독에서부터 시작된다.¹⁾ 그러나 고대 국어의 자료 목록, 자료의 성격, 자료의 분석과 해독과 관련된 과정과 방법, 연구 성과 등은 논의하지 않고자 한다. 또한 고대 국어의 개별 음운의 존재 여부나 개별 음가 등이 논의된 논저는 연구 성과의 검토에서 제외할 것이다. 오로지 고대 국어의 음운 체계, 즉 고대 국어의 자음 체계, 모음 체계, 성조 체계 즉 운소 체계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논의에 집중하기 위해서이다.

고대 국어의 음운 체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고대 국어는 어느 시기의 국어를 가리키는 것인지 기왕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면서, 고대 국어는 우리 역사에서 어느 시기에 해당되는지 점검할 것이다. 현대 국어에서 적용되는 음운 분석의 과정과 방법, 음운 체계의 기본 개념 등을 살펴볼 것이고, 고대 국어의 음운 체계의 연구 성과를 음운 체계의 하위 세 분야로 나누어 간략히 살펴보면서 음운 분석과 음운 체계가 원리와 개념에 맞도록 분석되어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국어 음운론에서 음운은 단어의 뜻을 구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며, 음운을 찾는 작업이 바로 음운 분석이 된다. 음운 분석에 의하여 음운 목록이 만들어지며, 음운들 사이에 맺고 있는 대립 관계가 무엇인지 찾아보아, 모든 대립 관계를 하나로 합친 전체가 음운 체계로 성립된다.

음운 분석과 음운 사이의 대립 관계 확인, 그리고 각각의 대립 관계를 하나로 합친 전체의 제시 등이 고대 국어에서나 현대 국어에서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변인은 보이지는 않는다. 음성과 음운을 구별하여 음운 목록을 나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음운 체계를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이나 방법이 고대 국어나 현대 국어에서 각기 달라야 할 특이점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고대 국어의 음운 체계에 관련된 논의 결과가 음운 목록의 제시이거나 음운 체계의 수립에 머물러야 한다는 한계점도 없어 보인다. 음운 목록과 음운 체계는 과거에도 바뀌어 왔고 현재에도 그러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자면, 고대 국어의 음운 목록을 제시하거나 음운 체계를 수립한 것으로 논의를 끝마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연구 결과물에 대한 이후의 효용 방법과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논의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1) 이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한자음에 대한 김무림(2015, 2016, 2017) 등의 종합적 연구나 향찰의 한자음에 대한 이준환(2011) 등처럼 종합적인 논의가 진행된 다양한 논저를 참조할 수 있다.

2. 시대 구분 및 음운 체계

2.1. 시대 구분

고대 국어는 일반적으로 고려 이전 시기를 가리킨다. 그렇다고 고대 국어의 하한선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나 한반도에 인류가 살기 시작한 구석기, 신석기 시대까지 올라가지는 않는다. 우리 국어의 역사가 역사학이나 고고학에 말하는 한반도에 인류가 살기 시작한 시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 실태를 살펴보기는 그리 쉽지 않다. 학문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연구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료 확보가 중요한데, 국내외의 문헌 등에서 국어의 일반적인 연구가 가능한 자료가 나타나는 시기가 대략 5세기 전후로 알려졌다.

※ 역사의 시대 구분 방법

- 정치 체제에 따른 시대 구분: 왕조별
- 경제 제도에 따른 시대 구분: 마르크스의 5단계설
- 시간 구성에 따른 시대 구분: 1000년, 100년, 30년(세대)
- 사건 구성에 따른 시대 구분: 삼국통일-고려건국-임진왜란-강화도조약/갑오개혁 등
- 기록 체계에 따른 시대 구분: 선사시대(구석기-신석기-청동기-철기), 역사시대(한자-훈민정음-한글)
- 논리 체계에 따른 시대 구분: 2분법(과거-현재), 3분법(고대-중세-현대), 4분법(고대-중세-근대-현대), 5분법(상고-고대-중세-근대-현대)

2.1.1 원시 국어와 고대 국어의 구분

국어사의 시대 구분은 연구자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기문(1961, 1972)의 ‘고대 국어 - 중세 국어 - 근대 국어 - 현대 국어’의 시대적 구분을 따른다. 이기문(1961:22-23)에서는 국어사의 시대 구분을 ‘고대 국어 - 중세 국어 - 근대 국어’로 구분하면서, 고대 국어에 대해 ‘古代的 南北 兩界의 言語가 포함된다. 資料가 매우 零星하고 대부분 漢字로 되어 있어 精確한 研究가 至難하여 우리의 智識은 斷片的인 데 만족할 수밖에 없다(이기문 1961:22).’고 하였다. 이때의 고대 국어는 신라어 중심의 백제어와 고구려어가 포함된 당시의 언어를 의미한다.

이기문(1961)에서는 고대 국어 이전 시대에 대해서 ‘古代國語 以前’이라고 부르고 ‘알타이 공통어 시대와 역사시대 이전 즉 국어가 문헌으로 기록된 고대 국어 시대 사이(이기문 1961:24)’로 설명한다. 고대 국어의 하한선을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세 나라가 맞서기 시작하던 4세기 초’로 한정되는 듯하다.²⁾

원시 국어에 대한 언급은 이송녕(1964)에서 보인다. 이송녕(1964:328)에서는 ‘알타이 공통기어에서 어떻게 분기되어 독립된 언어 단위로 형성’된 이때의 국어를 “원시 국어(또는 원시 한어)”라 칭한다. 이를 계승하여 김방한(1968:260-261)에서는 국어의 형성과정에서 먼저 부여어와 한어(1단계)로 나뉘고, 부여어는 ‘옥저어, 예어, 고구려어’ 등으로, 한어는 ‘진한어, 마한어, 변진어’ 등으로 세분(2단계)되었다가 ‘고구려어, 백제어, 신라어’로 합류(3단계)한 것으로 보았

2) 백제(B.C. 18 ~ 660), 고구려(B.C. 37 ~ 668), 신라(B.C. 57 ~ 935)의 건국 시기와 차이가 발생하는데, 건국 시기에도 세 나라의 언어는 형성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고대 국어를 연구하기 위한 현전의 언어 자료는 그 배경 시기가 이른 것은 4세기, 보통은 5세기부터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으며, 고대 국어는 2단계나 3단계에서 해당된 것으로 기술한다(김방한 1968:261). 전체 글에서는 고대 국어의 시작 단계가 고구려어, 백제어, 신라어가 성립된 단계, 즉 삼국시대의 성립 시기로 본 듯싶다. 김동소(1997:6)에서도 고대 국어의 시작을 국어 자료가 출현한 414년, 즉 5세기 초부터 설정하고 있는데, 왕조별이나 사건별 구분이 아닌 국어와 관련시킨 특징이 나타난다. 한편 도수희(1990:15)에서는 김방한(1968)의 2단계를 더 세분화하여, 고대 국어를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고 다시 각각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고 있다. ‘옥저어, 예맥어, 부여어’와 ‘진한어, 마한어, 변한어’로 구분하는 시기는 전기 고대 국어의 전기에 해당하고, 삼국 시대의 성립 시기는 후기 고대 국어의 후기, 통일 신라는 후기 고대 국어의 후기에 놓인다.

고대 국어를 시기 설정에서는 학자마다 이처럼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5세기, 즉 고대 국어의 하한선을 삼국 시대의 성립 이후로 수렴할 듯싶다.

2.1.2. 고대 국어와 중세 국어의 구분

고대 국어의 상한선도 연구자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기문(1961, 1972)을 따라 중세 국어가 고려 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기술한다.

이기문(1961:73)에서는 고려의 성립, 즉 고려 공통어가 형성된 뒤로부터 시작되며, 김형규(1962)에서는 통일 신라 이후 후삼국, 즉 신라, 후백제, 태봉 중에서 가장 늦게 고려에 망한 신라(935년)를 기준으로 ‘고대어’의 상한선을 설정한다. 최전승 외(2008:261)에서는 고대 국어를 ‘삼국 시대부터 통일 신라의 멸망(AD. 935년)’까지로 보는데, ‘차자 표기의 시대’라는 특징으로 설명한다.

고대 국어의 상한선을 더 올려 보는 견해도 보인다. 박병채(1971, 1989 등)에서는 고대 국어의 상한선을 ‘훈민정음’이 창제된 1443년까지로 규정하며, 김동소(1995:7)에서는 고대 한국어를 5세기에서 13세기 말까지로 설정하는데, 국어 자료의 출현 시기를 하한선으로, 몽고어와의 접촉 시기를 상한선으로 정한 것이다. 김무림(2004:70-71)에서는 삼국 시대부터 13세기까지를 고대 국어 시기로 보았다. 그러나 김무림(2004:70-71)에서 자음 체계의 변화를 기준으로 고대 국어를 전기 고대 국어와 후기 고대 국어로 세분하고 있는데, 전기 고대 국어 시기를 삼국 시대부터 통일 신라까지로 설정하고 있어서, 고려 이전까지 경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는 고대 국어를 고려 이전의 언어를 이르고 있는 일반적인 논의에 맞춰, 고대 국어의 상한선을 후삼국 시기도 포함된 고려 이전이라 기술하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통일 신라 시대까지로 한정된다. 또한 후삼국 시기의 언어를 사실상 확인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통일 신라 시대까지로 설정하여도 틀림이 없을 듯하다.

2.2. 음운 분석과 음운 체계

2.2.1. 음운이란

현대 국어의 중부 방언(또는 표준어)에서 자음 19개와 단모음 10개, 반모음 2개를 포함한 분절음, 즉 31개의 음소와 장단인 초분절음, 즉 1개의 운소로 구성된 32개의 음운을 갖는다. 현대 국어의 음운이 32개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진 음운의 정의와 그 분석 방법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음운은 단어의 뜻을 구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그리고 이때 사용되는 소리가 음운인지 아닌지 찾아가는 작업을 음운 분석이라 한다. 이때 사용되는 개념이 최소 대립쌍(minimal pair)과 상보적 분포(complementary distribution)이다. 전자는 주로 기능

(function)에 의존하는 것이며 후자는 주로 분포(distribution)에 의존하는 것으로, 어느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이 둘을 아울러 사용한다(이기문 외 1984:79).

기능(function)은 “동일한 환경에서 A와 B가 대립되어 의미의 분화를 결과할 때는 A와 B는 한 음소에 속할 수 없다.”는 기능적 원리에 따른 것이다(이기문 외 1984 79-80). 최소 대립쌍 또는 최소 대립어를 이용하여 음운 분석을 시행할 때 행해진다. 최소 대립쌍이란 오로지 같은 자리에 오는 하나의 음운만 차이가 남으로써 그 뜻이 구분되는 단어의 묶음을 말한다(이진호 2014:31). ‘물[水]:불[火]’ 또는 ‘달[月]:날[日]’에서 ‘ㅁ’과 ‘ㅂ’ 또는 ‘ㄷ’과 ‘ㄴ’의 대립으로 그 뜻이 구분되는데, 이처럼 최소 대립쌍을 만들어 주는 두 소리는 각각 독립적인 음운이 된다. ‘물, 불’ 이외에 ‘풀, 뽕, 굴, 줄’, ‘달, 날’ 이외에 ‘갈, 말, 발, 살’ 등처럼 여두의 소리만 달라지면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들이 많은데, 이들을 최소 대립어라 할 것이다.

분포(distribution)는 동일한 음운이 나타나는 조건에 따라 실현되는 음성이 다를 때 출현하는 소리와 환경을 조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한 음운의 변이음들은 출현하는 환경에 따라 달리 실현된 것이며, 이들은 나타나는 환경(또는 위치)에서는 겹쳐 나오지 않는 것을 상보적 분포 또는 배타적 분포(exclusive distribution)라 하는데, 서로 다른 소리가 상보적 분포를 이루면 이 두 소리는 같은 음운에 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처리한다(이진호 2005:29).

이문규(2015:55)에서는 기능과 분포를 적용하여 음운을 찾는 방법과 절차를 기술하였다.

- ① 변이음 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소리를 하나로 음운으로 통합한다.
- ② 상보적 분포 혹은 배타적 분포 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소리는 하나의 음운으로 통합한다.
- ③ 상보적 분포 관계에 있는 소리쌍이라 하더라도 음성적 유사성이 없으면 별개의 음소로 처리한다.
- ④ 최소 대립쌍을 형성하는 둘 이상의 소리는 각각 다른 음운으로 처리한다.³⁾

2.2.2. 음운 체계란

국어의 자음 19개와 단모음 10개, 반모음 2개 등을 ‘ㄱ ㄴ ㄷ ㄹ ㅁ …, ㅏ, ㅑ, ㅓ, ㅕ …, j, w’ 등처럼 나열하거나 언급한다면 이는 음운들을 단순하게 모아 놓은 음운 목록에 지나지 않는다(이진호 2014:53). 이문규(2015:61)에서도 ‘국어의 음운 목록’으로 ‘자음, 단순 모음, 반모음, 운소’ 등의 범주 아래에 음운 기호를 나열하였다. 이들 집합에서는 대립 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음운 체계라 일컬을 수 없다.

음운 체계란 프라그 학파에 의하면 어떤 언어에 있어서 음운론적 대립의 총체라고 정의한다(이기문 외 1984:94). 국어 음운론에서도 이러한 개념을 기본 바탕에 두고 음운 체계를 논의하고 있으며, 다양한 개론서에서도 이러한 정의가 확인된다.

어떤 한 언어의 음운 체계란 음운론적 대립의 총체를 말하는 것이거나(이기문 외 1984:89), 각 음운 사이의 대립 관계에 따라 맺어지는 음운론적 관계의 총체를 말하거나(이문규 2015:65), 음운들이 서로 맺고 있는 친소(親疏) 관계의 합을 음운 체계라고 하며, 이때 음운들의 친소 관계는 흔히 대립 관계라고도 한다는(이진호 2014:53) 기술 등에서 보듯이 음운론적 대립 관계를 밝힐 수 있어야 음운 체계라 할 것이다.

‘음운’이 서로 맺고 있는 대립 관계의 총체를 밝힐 수 있어야 음운 체계를 밝힐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대립 관계는 ‘음운’이 가지는 음성적 특징에 따라 확립된다. 즉 음운의 대립 관계는 어떤 음운이 가지는 고유한 음성적 특징이 다른 음운과는 공통적이지만, 다른 음운과는

3) 이 글의 용어에 맞추어 몇몇 어휘(예, 음소 → 음운 등)를 바꾸었으며, 나머지는 그대로이다.

구별되는 데에서 출발하며, 결국 음운은 홀로 존재하기보다는 다른 음운과 공통적인 속성과 차이 나는 속성을 지닌 채 관계를 맺으며, 하나로 합쳐진 전부 또는 전체가 바로 음운 체계인 것이다.

1 현대 국어의 음운 체계

음운 체계를 수립하려면 음운들 사이에 맺어진 관계를 살필 수 있는 분류 기준이 필요하다. 이기문 외(1984:95-6)에서는 자음에 대해 ① 조음점(point of articulation)과 ② 조음 방식(mode of articulation)을 변별적 특징으로 인식하였고, 모음에 대해서는 ① 間隔度: 입을 벌리는 정도, 즉 開口度, ② 位置: 입술 모양·혀의 위치, ③ 共鳴腔(口腔, 鼻腔)의 세 기준으로 구별하였다. 현대 국어에서 널리 사용되는 분류 기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일반적으로 자음 체계는 두 가지 분류 기준을 설정하여 자음의 대립 관계를 드러낸다. 자음의 조음 위치, 즉 공기가 방해 받는 위치와 자음의 조음 방법, 즉 공기의 방해가 일어나는 방식을 사용하여 자음들의 대립 관계를 규정한다(이진호 2005:39).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의 분류 기준에 따라 자음 체계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이진호 2005:48, 이문규 2015:65).⁴⁾

조음방법 \ 조음위치		조음위치		양순	치조	경구개	연구개	후두
		평음	유기음					
장 애 음	파열음	평음		ㅂ	ㄷ		ㄱ	
		유기음		ㅃ	ㄸ		ㅋ	
		경음		ㅍ	ㅌ		ㆁ	
	마찰음	평음			ㅅ			
		유기음						ㅎ
		경음			ㅆ			
	파찰음	평음					ㅈ	
		유기음					ㅊ	
		경음					ㅍ	
공명음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모음 중에서 단모음 체계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분류한다. 이기문 외(1984:95)의 기준과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혀의 높낮이, 혀의 전후 위치, 입술의 모양이 사용된다(이진호 2005:50, 이문규 2015:65).⁵⁾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ㅣ (i)	꺄 (y)	ㅡ (ɨ)	ㅜ (u)
중모음	ㅔ (e)	ㅚ (ø)	ㅓ (ʌ)	ㅛ (o)
저모음	ㅙ (ɛ)		ㅑ (a)	

이러한 10개의 모음 체계는 중부 방언의 노인층에서 확인되며, 지역과 세대에 따라 심한 차이를 보인다(박창원 1986:339).

4) 이진호(2005:48)에서는 ‘ㅎ’을 유기음으로 분류하나, 이문규(2015:65)에서는 평음으로 분류하는 차이가 있다.
 5) 이진호(2005:53)에서는 원순모음과 평순모음이 도표에 배치된 위치의 선후가 다르며, ‘위(ü), 외(ö)’의 발음 기호가 사용되었다.

모음 체계			
지역 방언	10 모음 체계	8(6) 모음 체계	6 모음 체계
중부 방언	노인층	젊은 층	
동남 방언		노인층	젊은 층

<표준어 발음법 제4항 붙임>에서는 ‘구, 귀’의 이중 모음 발음을 허용하고 있는데, 중부 방언의 젊은 층에서 8개의 모음 체계로 실현되는 추세가 반영된 것이다. 그리고 현실 발음에서는 ‘개, 𪎠’을 구분하지 못하고 ‘𪎠/E/’(또는 /ε/)로 실현되고 있어서, 7개의 모음 체계가 설정되기도 한다(이진호 2005:50, 이문규 2015:68-69).

또한, 모음 사각도와 모음 체계는 명확히 구별된다. 모음 사각도는 단모음의 음가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며, 어느 영역에서 발음되는지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모음 사각도는 모음이 조음되는 영역을 표시한 것이므로(이기문 외 1984:50), 모음 체계로 혼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운소 체계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운소는 지역에 따라 종류를 달리한다. 중부 방언과 전라 방언 등에서는 장단이 단어의 뜻을 구별하고 있으나, 경상 방언과 함경 방언 등에서는 고저(=성조)가 단어를 뜻을 구분하는 초분절음, 즉 운소로 설정된다(이진호 2005:58-59, 이문규 2015:71).

2 중세 국어의 음운 체계

중세 국어의 음운 대립 관계가 제시된 중요한 문헌 자료가 존재한다. 『훈민정음 해례본』(1446)이 바로 그것이다. 『훈민정음』에서는 당시의 자음 체계와 모음 체계, 운소 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훈민정음’이라는, 즉 ‘한글’ 문자의 제자 원리에 담긴 음운론적 정보에서 그 전모가 확인된다.

『훈민정음』에 언급된 17개의 초성 체계(‘[]’는 『동국정운』에서 나타난 23개의 자모 체계를 제시한 것임.)에서는 중국 음운학의 성모 체계와 관련된 용어를 차용하고 있는데, ‘牙音, 舌音’ 등의 유형과 ‘全淸, 次淸’ 등의 유형이 음운 사이의 대립 관계를 파악하는 분류 기준이 된다.

	牙音	舌音	脣音	齒音		喉音	半舌音	半齒音
全淸	ㄱ 君	ㄷ 斗	ㅂ 擘	ㅈ 卽	ㅊ 戌	ㅇ 挹		
次淸	ㅋ 快	ㅌ 呑	ㅍ 漂	ㅊ 侵		ㅎ 虛		
[全濁]	ㄱ 虯	ㅌ 覃	ㅍ 步	ㅊ 慈	ㅆ 邪	ㅎ洪]		
不清不濁	ㅇ 業	ㄴ 那	ㅁ 彌			ㅇ 欲	ㄹ 閭	ㄷ 穰

한편, 이기문(1972:130)에서는 15세기 문헌 자료를 검토하여 후기 중세 국어의 자음 체계(15세기 중엽)를 다음과 같이 재구한다.⁶⁾

- ㅂ(p) ㄷ(t) ㄱ(k) ㅈ(ʧ) ㅊ(s) ㅎ(h)
- ㅍ(pʰ) ㅌ(tʰ) ㅋ(kʰ) ㅆ(ʧʰ)
- ㅃ(pʰ) ㅌ(tʰ) ㄱ(kʰ) ㅆ(sʰ) ㅎ(hʰ)
- ㅃ(β)
- ㅁ(m) ㄴ(n) ㅇ(ŋ)

6) 발음 기호는 필자가 덧붙인 것이다.

ㄹ(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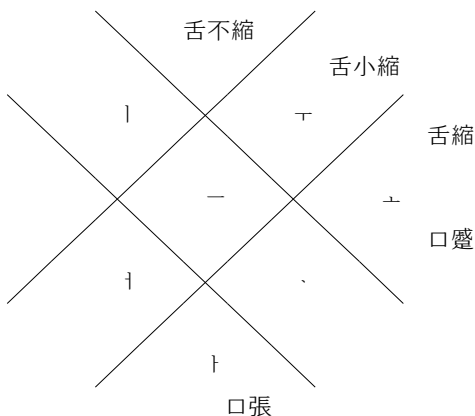
이 자음 체계를 현대 국어의 분류 기준에 맞춰 제시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조음위치		양순음	치음	치조음	연구개음	후음
조음방식						
파열음	평음	ㅂ		ㄷ	ㄱ	
	유기음	ㅃ		ㅌ	ㅋ	
	경음	ㅍ		ㅍ	ㅍ	
파찰음	평음		ㅈ			
	유기음		ㅉ			
	경음		-			
마찰음	평음		ㅅ			ㅎ
	경음		ㅆ			ㅎ
	유성음	ㅁ(β)	ㄷ(ʒ)			ㅇ(h)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중세 국어의 자음 체계는 이처럼 분류 기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훈민정음』에서 사용된 대립 관계를 중심으로 설정된 것이며, 다른 하나는 당시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 국어의 대립 관계를 중심으로 설정된 것이다. 고대 국어의 자음 체계를 수립할 때, 어느 것을 출발점으로 삼을 것인지 선택의 여지가 존재한다.

그러나 고대 국어의 자음 체계와 관련된 대부분의 논의를 보면 현대 국어의 대립 관계를 그대로 반영하여 결과물을 산출한다. 『훈민정음』에 사용된 자음 체계의 분류 기준이 중국 음운학의 성모 체계에서 나타나는 분류 기준이라는 점과 고대 국어의 문헌 자료, 즉 한자음의 성모 분석에서 성모 체계 등이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고대 국어의 자음 체계 논의에서 『훈민정음』에서 사용된 분류 기준이 실용되지 못한 듯하다.

『훈민정음』에서 언급된 중성 체계는 11개이지만, 이 중에서 현대 국어의 단모음에 관련된 중성은 7개뿐이다. 중국 음운학에서는 중성의 개념이 없어서 당시에 그 분류 기준을 독자적으로 설정하였다. 현대 국어의 분류 기준처럼 혀와 입술이 관련되며, 이 분류 기준으로는 당시 단모음의 대립 관계가 사선 체계였음을 알 수 있다.



『훈민정음』에서 사용된 분류 기준에 따라 중세 국어의 단모음 체계를 수평, 수직의 도표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다.⁷⁾

	舌不縮	舌小縮	舌縮
[+口蹙]		ㅍ	ㅑ
[-口蹙, -口張]	ㅍ	ㅑ	ㅑ
[+口張]		ㅑ	ㅑ

이기문(1972:137)에서는 15세기 문헌 자료를 검토하여 15세기의 모음 체계를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훈민정음』에 제시된 7개의 단모음 체계처럼 개수는 7개이지만, 현대 국어의 모음이 조음되는 방법과 음가에 대비하여 각 모음의 조음 영역에 따라 배열한 듯하다. 현대 국어의 모음의 조음 방법과 음가를 고려하면서 조음 위치를 설정하였으나, 모음 사이에 맺고 있는 대립 관계나 그 총체가 잘 드러나 있지 못하다.

ㅣ i ㅡ i ㅏ u
 ㅣ ə ㅓ o
 ㅣ a ㅕ ㅗ

중세 국어의 모음 체계와 관련된 논의에서 사용되는 분류 기준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훈민정음』의 분류 기준을 사용한 대립 관계가 그 하나이고, 현대 국어의 분류 기준을 사용한 것이 다른 하나이다. 『훈민정음』의 분류 기준을 적용한 고대 국어의 모음 체계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자음 체계에서처럼 현대 국어의 분류 기준을 주로 사용한다.

끝으로, 『훈민정음』의 운소 체계는 방점으로 표시한 성조였다. 저조(평성)와 고조(거성), 그리고 이들의 복합(상성)이 있어서, 무점, 1점, 2점으로 표시하였으며, 중세 국어의 성조는 저조와 고조의 평탄조로 이루어진 것이다(이기문 1972:143).

3. 고대 국어의 음운 체계⁸⁾

고대 국어의 음운 체계에 대한 검토는 김무림(1998, 2009), 박창원(2002) 등에서 이루어진 바가 있다. 특히 박창원(2002)에서는 이전의 국어사 기술 관점과 방법에 대한 비판과 극복을 위한 도전적 태도가 강하게 피력되었고, 김무림(2009)에서는 중세 국어의 자음 체계를 바탕으로 고대 국어 자음 체계에 대한 쟁점 항목을 주로 분석하였다.

박창원(2002:162)에서는 고대 국어 자음 체계 재구와 관련된 여러 쟁점 중에서 ‘유기음 계열의 존재, 유성음 계열의 존재, 후음 계열의 존재, 치음 계열의 음소 개수’ 등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였고, 김무림(2009:9)에서는 ‘경음 계열의

7) 2013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 ‘15번’ 문제에서 인용한 것이다.

8) 이미 현대 국어의 음운 분석의 과정과 방법이 고대 국어에 적용된 연구가 있다. 그러나 음운론적 대립의 총체라는 음운 체계의 수립에 있어서는 세밀하게 적용되어 있지 못한 편이다. 자료의 빈곤으로 인한 듯하다.

김무림(2017:15-16)에서는 현대 국어의 음운 분석법을 이용한 이승재(2013, 2016)의 연구를 기존의 연구와는 방법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소개한다. 상보적 분포와 최소 대립을 적용하여 음운 체계를 수립하고 있어서, ‘상보적 분포’와 ‘최소 대립’의 적용을 보면 기존의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어서, 기존의 연구와는 그 적용 양상이 파격이라고 하였다.

성립과 발전, 격음 계열의 성립과 발전, 순경음 및 반치음의 성립 여부, 유음 ‘ㄹ’의 음가, 마찰음 ‘ㅎ’과 파찰음 ‘ㅈ’의 음소 여부, 유성 장애음 계열의 성립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이유와 해석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위국봉(2017:228-270)에서는 ‘경음 및 유성 파열음 계열, 유기음 계열, 유성 마찰음 ‘ㄷ’과 ‘ㅇ[h]’의 존재 여부’와 ‘마찰음과 파찰음의 구별’ 등에 대한 쟁점에서 출발하여 그 해결책을 기술하였다.

박창원(2002:140-147)에서는 기존의 여러 논의에서 보이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연구 성과를 제시하였는데, 고대 국어의 모음 연구와 관련된 핵심 과제로 ‘ㅣ’에 대응되는 음소의 개수, 즉 두 개이나 하나인가, 그리고 ‘ㆍ’와 ‘ㅡ’의 존재 여부라고 기술하였다(박창원 2002:148). 김무림(2009:24-26)에서는 ‘ㆍ’와 ‘ㅡ’의 음가를 중심으로 연구 성과를 검토하였고, 위국봉(2017:276-314)에서는 ‘모음 조화’와 ‘모음 추이’ 등에 대한 쟁점과 해결책을 기술하였다.

이 글의 목적이 고대 국어의 음운 체계의 수립 과정과 방법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음운의 존재 여부나 개별 음운의 음가 등의 논의는 연구 성과 검토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유성음 계열의 존재 여부는 자음 체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음운 체계의 수립 과정과 방법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별 음운이나 계열의 존재 여부에 대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3.1. 자음 체계 관련 실제

유창균(1960)은 고대 지명의 자음 체계를 『삼국사기』 「지리지」의 신라 시대 지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유기음 계열은 나타나지 않으며, 유성 마찰음 계열이 제시되었다.⁹⁾

k	y	ŋ
t	r	n
p		m
s		
ts	dz	

이기문(1961:52)에서는 파열음과 마찰음에서는 ‘무기음 계열과 유기음 계열의 상관적 대립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설명한다. 된소리 계열은 음소로 정립시킬 수 없을 것으로 보았으며, ‘s, h, m, n, ŋ, r, l’은 자음 음소로 있을 것으로 보았다.¹⁰⁾

p	t	č	k
p ^h	t ^h	č ^h	k ^h
	s		h
m	n		ŋ
	r		
	l		

유창균(1980, 1983, 1991 등)에서는 특별하게도 삼국 시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의 음운 체계를 모두 제시하였다.

9) 한자음 분석에서 자음으로 분류하는 반모음 ‘j’는 현대 음운론의 분류에 따라 제외하였다.

10) ‘무기음과 유기음’의 대립만 도표로 나타난다. ‘무기음’과 ‘유기음’을 제외한 다른 자음 기호는 필자가 임의로 배열한 것이다.

<고구려어>는 12개의 자음 체계이다. 아래에 제시된 ‘·’는 후음이며 영모(影母)에 대응된 것이다. 이 자음 체계에서는 유기음 계열이 보이지 않으며, 유성음 계열이 확인된다(유창균 1991:281).

p	t	k	·
b	d	g	
	s		
m	n		
	r		
	l		

<백제어>는 11개의 자음 체계로 설명한다. 이 체계는 백제의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며, 유성대 무성의 대립은 백제 중기부터 사라지기 시작하여 후기에 이 대립이 없어진 것으로 설명한다(유창균 1991:342).

p	ʈ	t	k
b		d	g
	s	(r)l	
m		n	

<신라어>는 두 시기로 나누어 제시한다. 초기에는 유성음 계열이 있었고 r과 l의 대립이 있었으나, 중기로 오면서 사라지며, 새로운 ‘ʈ’가 나타난 것으로 설명한다.

- 舊層代音

p	t	k
b	d	g
m	n	
	s	x
	r	l

- 中層代音

p	t	ʈ	k
m	n		ŋ
	s	x	
		l	

박병채(1971ab, 1989)에서는 국어 한자음과 중국 절운음(切韻音)을 대비하여 자음과 그 체계를 11개의 자음 체계로 재구하였다. 특히 고대 국어의 자음 체계를 상관관계가 없는 무표 계열만의 단일 과정을 보유한 단선 체계로 설명하였다(박병채 1971a:67). 氣音化에 의한 음운론적 대립이나 喉頭化에 의한 음운론적 대립은 없으며(박병채 1971a:96), 알타이 공통어와 연계를 고려하였다.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
k/ŋ	t/n/r(l)	p/m	c/s	ʔ/h

김동소(1995:28)에서는 8개의 자음 체계를 주장하였다.¹¹⁾ 한국 전통 한자음과, 이두 글자의 전통적 독음 등을 중국의 상고음, 중고음 등과 대응하여 고대 국어의 자음 체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k, t, p, n, m, ŋ, r, s

‘h’는 11세기까지 음소가 아니었으며, 유기음, 경음이 존재하지 않고(김동소 1995:28), 또한 ‘ㅅ, ㅆ, ㅈ’의 구분이 없었으며(김동소 1995:32), 파찰음 ‘ㄷ’는 12세기 초를 지난 13세기 와서 음소로 확립된다고 기술한다(김동소 1995:34). 또한 파열음 및 파찰음 계열에 유기음의 존재를 말해 주는 자료는 전혀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다(김동소 1995:36).

박동규(1995:245)에서는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중심으로 몇 개의 고문헌에 수록된 고유 명사를 대상으로 논의하였다. 유성음, 유기음 계열이 존재하지 않으며, 후음 계열의 초성 자음도 그 존재를 부정하였다(박동규 1995:244).

	양순	치조음	연구개음
파열음	p	t	k
마찰음		s	x
비음	m	n	
유음		r	

최남희(2005:399)에서는 한자음에 나타난 음운 대응을 중심으로 고구려의 7개 자음 체계를 제시하였다. 『삼국사기』 권35, 권37의 구 고구려 지명, 특히 권37의 고구려 지명을 연구의 중심 자료로 사용한다. 고구려의 한자음을 중국의 상고음에서 중고음으로 넘어가는 후기 상고음이 기층임을 밝히고, 권37의 기록 연대를 5세기경으로 추정하였다. 이때 재구한 고구려어 어휘에 쓰인 획수를 중심으로 각 체계를 확인하면서 ‘ㅅ:ㅆ:ㅈ’의 대립이 형성되지 않고 ‘ㅅ’만 존재하였으며, ‘ㅎ(h)’는 ‘ㄱ(k)’에서 분화 생성되기 이전이고, ‘ㅇ(n)’이 생성되지 않았다고 기술한다.

	입술	혀끝	입천장	목청
터짐	ㅂ(p)	ㄷ(t)	ㄱ(k)	
같이		ㅅ(s)		
코	ㅁ(m)	ㄴ(n)		
흐름		ㄹ(r)		

이장희(2006:446-447)에서는 고구려어에 12개의 자음 체계를 제시한다. 『삼국사기』 권35, 권37의 고구려 지명 자료를 대상으로 자음 체계를 살펴보면, 대체로 7세기 무렵의 고구려어를 반영한 것으로 기술한다. ‘h, ŋ’은 존재하지 않았고, 폐쇄음과 마찰음의 유성음을 재구하였다.

k, t, p, ʈ, s, g, d, b, ʒ, r, n, m

11) ‘y’를 포함한 9개 자음 체계를 제시하였으며, ‘8개’는 ‘y’를 제외한 것이다.

정광(2011:423-442)에서는 북방계 언어인 고구려어를 한국어의 계통 연구 자료로서 다룬 것으로, 역사 비교 언어학적 방법이 사용되었다. 알타이 공통 조어와의 연관성이 반영된다.

고구려어의 자음으로 /p, b, t, d, ts, dz, s, z, k, g, s, m, n, ŋ, r, l/을 재구하였는데, 장애음에서 모두 유성 대 무성의 대립을 인정한 것이다. 특히 파찰음 /č, ts/와 마찰음 /s/에서도 각각 /j, dz/, /z/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h/를 포함한 어떤 유기음도 고구려어에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정광 2011:732-733). 문맥을 보면, 자음 목록에는 반복된 /s/ 대신에 파찰음 /č, j/이 들어가야 할 듯한데 그러하지 않으며, 정광(2011:442)에서는 /s, z/를 제외한 14개의 자음만을 나열하여 상호 일치된 모습을 보여 주지 않는다. 문맥으로만 보면 정광(2011:442)의 목록이 원래의 것인 듯하다.

이승재(2013)에서는 백제어 자료를 망라하여 백제어의 자음 체계를 살펴보았다. 일본의 『일본서기』나 중국의 『구당서』, 『당서』 등의 사서, 그리고 우리의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의 자료뿐만 아니라 최근에 해독된 백제 목간 자료와 ‘경흥’의 반절자까지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백제어 표음자는 모두 694(707)자이며, 聲母가 두 가지인 二反字가 13자 포함된 707자가 된다.

백제어의 자음은 모두 22(21)개이며, ‘21개’는 ‘경흥’의 반절자를 빼면 /k^h/는 제외된다. 이승재(2013:257)에서는 현대 음운론의 분류 기준에 맞춰 정리한 자음 체계를 제시하였다.¹²⁾

		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설음	치음			
폐쇄음	무성무기	p	t			k	ʔ
	유성무기	b	d			g	
	무성유기		t ^h			(k ^h)	
파찰음	무성무기			ts	tɕ		
	유성무기			dz			
	무성유기			ts ^h			
마찰음	무성			s	ɕ		
	유성			z	ʒ		ɦ
공명음	비음	m	n			ŋ	
	유음		l				

이 체계의 특징은 [유성음]이 계열을 이룬다는 것이다. 폐쇄음뿐만 아니라 마찰음, 파찰음에서도 음운론적 대립을 보인다는 것이다. 즉 유·무성의 대립쌍이 많이 나타난다. 또한 유기음 계열 존재도 중요하다. /t^h, ts^h, (k^h)/가 주로 7세기 자료에서 음운론적 대립을 보인다. 치조음의 /ts, s, z/와 경구개음의 /tɕ, ɕ, ʒ/도 음운 대립을 이루는데, 최소 대립쌍을 있어서 그 대립이 확인된다. 남부 방언에 구개음화가 먼저 일어난 사실을 참조할 만하다. /k/와 /h/의 미분화도 확인된다(이승재 2013:259~261).

이승재(2016)에서는 고구려어 해당 항목으로 금석문, 중국 사서, 『삼국사기』 『지리지』, 일본 사서, 당서,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의 일곱 가지 텍스트로 나누어 정리하여 중복된 것을 제외한 704자, 그리고 고구려의 표음자에서 제외될 14자를 뺀 690자를 전체 표음자로 선택하였다(2016:111-112). 다시 고구려 멸망 이후에 사용된 표음자를 제외한, 즉 멸망 이전에 기록

12) 이승재(2013:257)에서는 /j/를 자음으로 간주하는 한자음 분석에 따라 백제어의 자음 체계에 넣어 23(22)개로 제시하였으나,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현대 음운론의 분류에 따라 제외한다.

된 바가 있는 고구려어 표음자인 340자 실질적인 주요 분석 대상이 삼았으나, 690자도 논의 대상으로 포함하였다(이승재 2016:390). 고구려의 자음 체계는 15개의 순수 자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술한다(이승재 2016:399).

	양순	치조		연구개	후두
		설음	치음		
무성무기음	p	t	ts	k	ʔ
유성무기음	b	d		g	
무성유기음		t ^h			
마찰음			s		h
비음	m	n		(ŋ)	
유음		l			

유기음 계열은 ‘t^h’ 하나로 한정하며, 후대에 발달하였을 가능성으로 기술한다. 무성음과 유성음의 음운 대립이 나타나는데 이를 알타이 제어와의 관련성으로 설명한다(이승재 2016:399). 한편, 고대 국어의 자음 체계, 즉 고구려어에서 경구개 파찰음이 없는 것을 현대에 황해도 남부 방언에 그대로 이어진다는 가설로의 가능성을 주장하였다(이승재 2016:398).

위국봉(2017)에서는 한국의 전승 한자음을 중국 당나라의 장안음, 특히 장안의 상류 지식층에서 통용된 아음(雅音)에 대응하여 논의하였다. 경음 계열은 존재하지 않았고, 유성음 계열도 존재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z’만 한자어에 분포한 것으로 보았다. 유기음 계열은 치조에서 이미 존재했고, 양순음은 초기 단계이고, 연구개는 존재하지 않은 발달 과정에 놓인 것으로 설명한다.

	양순음	치조음	연구개음	후두음
파열음	p	t	k	
	p ^h	t ^h		
마찰음		s	x ~ h	
		z		
파찰음		ts		
		ts ^h		
비음	m	n	ŋ	
유음		l		

XU YE(2019:233)에서는 삼국 시대의 고대 한국어가 단일어인 韓系語라는 가정하에 논의를 진행하는데, 즉 삼국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유기음 계열과 유성음 계열이 존재하지 않으며, 아직 후음 ‘h’는 음소로 대립되지 못하였고, ‘ʔ’도 독립적인 음소가 아닌 것으로 설정한다.

	양순음	치조음	연구개음
파열음	p	t	k(k/h)
마찰음		s	
파찰음		ts	
비음	m	n	ŋ
유음		r(l)	

3.2. 모음 체계 관련 실재

유창균(1960:54)에서는 고대 지명의 모음 체계를 제시하나 모음의 조음 위치를 나타낸 듯하다. 『삼국사기』 「지리지」의 신라 시대 지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훈민정음』의 모음 체계에 비교하면 ‘으’와 ‘오’에 해당하는 모음이 없는 대신 /e/가 더 있어 수적으로는 훈민정음의 7개 모음 체계가 지명 표기의 용자(用字)에 비하여 1음이 더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유창균 1960:54).

```

i           u
  e  ə  o
    a
    
```

유창균(1980, 1983, 1991 등)에서는 신라, 백제, 고구려를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신라어>는 7개의 모음 체계로 제시한다(유창균 1991:500).

```

i  ǎ  u
e  ə  o
  a
  
```

<고구려어>는 6개의 모음일 가능성을 모색하며, ‘오’는 명확하지 않는데 ‘ə’와 혼용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유창균 1991:284).

```

i  ǎ  u
  a  ə  (o)
  
```

<백제어>는 6개의 모음으로 보았다. 또한 백제 초기의 모음 체계를 제시하였다.

```

i  ǎ  u
  a  ə  o
  
```

‘백제 초기’에는 ‘-ǎ-/-u-’와 ‘-ə-/-o-’의 대립 여부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모음 체계를 설정한 것이다.

```

i    u           i  ǎ  u
a    ə           a  ə  o
      혹은
  
```

김완진(1965)에서는 알타이 조어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7개의 모음 체계로 보았다. 이 중에서 ‘ü, ö, u, o’은 원순성을 가진 것으로 처리한다.

```

i  ü  u
e  ö  o
  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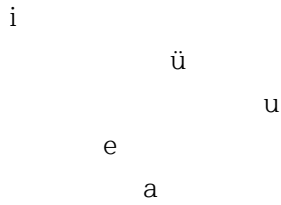
음성적인 모음 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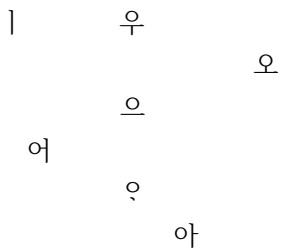
i  ü  u
  ö  o
  e  a
  
```

음운론적 모음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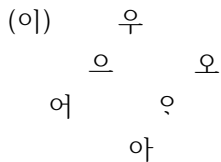
일정 영향을 끼친 것이다. 5개의 모음 체계를 재구하였다.



이윤동(1995)에서는 우리 한자음의 중국 중고음과의 대응 관계를 살펴보았다. 전설, 중설, 후설이나 저모음, 중모음, 고모음 등의 언급이 보이지만, 음운의 대립 관계가 아닌 모음 사각도의 발음 위치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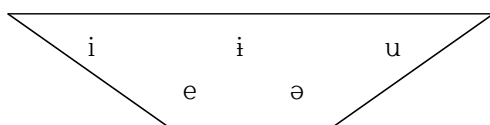
박창원(2004)에서는 한국 한자음과 중국의 중고음 비교하였다. 모음의 빈도수와 대응 관계를 이용하여 분석과 재구를 진행하였으며, 원순성과 개구도, 혀의 앞뒤 위치 등의 대립 관계를 기술하고 혀의 위치에 의한 대립쌍, 원순성에 의한 대립쌍 등에 대한 설명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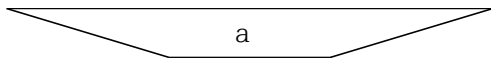


최남희(2005:400)에서는 한자음 대응 관계를 중심으로 고구려어를 6개의 모음 체계로 재구한다. 『삼국사기』 권35, 권37의 구 고구려 지명, 특히 권37의 고구려 지명을 연구의 중심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고구려의 한자음을 중국의 상고음에서 중고음으로 넘어가는 후기 상고음이 기층임을 밝히고, 권37의 기록 연대를 5세기경으로 추정하였다.

이(i)	우(ü)	오(u)
	으(ə)	
	으(ɐ)	
	아(a)	

정광(2011:443-456)에서는 고구려의 모음을 재구하면서, 단모음을 6모음인 /i, u, i, e, ə, a/로 보았다. 고모음 계열인 /i, i, u/, 전설 중모음에 /e/, 후설 중모음에 /ə/, 그리고 저모음에 /a/를 재구하였으며, 이를 모음 사각도로 제시하였다.





이 체계에서 ‘i > u’, ‘u > o’, ‘ə > ∅(소실)’의 변화를 고치면 고대 일본어의 모음 목록인 /a, i, u, e, o/와 동일하게 바뀐다고 설명한다(정광 2011:454).

이승재(2016:409-653)는 고구려어를 6개의 모음 체계로 재구하였다. 고구려어에서는 중세 국어의 설축을 기반으로 하는 사선 체계, 즉 대각 대립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high]를 기반으로 상하 대립을 이룬 것으로 보며, 고모음과 비고모음의 대립으로 설명한다(이승재 2016:646-647).

i	ə	u
e	a	o

위국봉(2017)에서는 한국의 전승 한자음을 중국 당나라의 장안음, 특히 장안의 상류 지식층에서 통용된 아음(雅音)에 대응하여 논의하였다. 위국봉(2017:288)에서는 8세기 후반-9세기 초의 모음 체계를 재구하였으며, 이는 9세기 초부터 15세기 국어까지 변화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았다. 원순성 대립, 전설성 대립, 고저 대립 등의 대립 관계를 살펴보았다.

ㅣ ㅡ(ㅏ)
 ㅑ ㅓ(ㅓ)
 ㅕ

3.3. 운소 체계 관련 실재

후기 중세 국어에는 초분절 음소, 즉 운소 체계는 고조(高調)와 저조(低調)의 성조 체계가 있으며 평판 성조라고 알려졌다.

김무림(1998:32, 2009:32)에서는 고대 국어의 자료에서 중세 국어에서 보이는 성조의 흔적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발견되지 않은 것이지, 고대 국어가 성조 언어가 아니었다는 증거 또한 나타나지 않으며, 단지, 성조의 일반적인 발달 과정에 비추면 중세 국어보다는 고대 국어에서 성조의 언어적 기능이 더 뚜렷했을 것으로 보았다(김무림 1998:32, 2009:33). 고려 시대의 『계림유사』의 언어가 성조 언어였다는 권재선(1974), 김완진(1991), 권인한(1991), 김성규(2004) 등의 논의를 고려하면 그 개연성은 짙어진다.

이승재(2016:223-267)에서는 고구려어에 성조가 존재하였다는 견해를 최소 대립쌍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성조에서만 차이가 나고 여타의 음운론적 요소가 모두 동일한 성조 최소 대립쌍이 모두 33쌍이며, 음가 차이를 성조나 여타의 음운론적 요소로도 기술할 수 있는 37쌍을 더하면 총 70쌍의 성조 최소 대립쌍을 논거로 삼아 고구려어에 성조 대립이 있다고 설명하였다(이승재 2016:259-260).

전체 70쌍 중에서 58쌍(27+31) 즉 전체의 82.9% 平聲과 仄聲의 대립이었고, 平聲은 낮은 음조이고, 仄聲은 높은 음조이다. 따라서 고구려의 성조 체계는 낮은 음조의 평성과 높은 음조의 측성이 대립하는 고저의 평판 성조 체계로 보았다(이승재 2016:260).

4. 결론, 앞으로의 전망

국어사 연구는 가치 있는 언어 현상을 선별하고 시간적으로 구성하는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대 국어의 음운 체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살펴보면, 시대나 가설에 따라 음운 체계를 기술하는 관점과 방법의 변화가 있었으며, 이전의 관점과 방법에 대한 비판과 극복을 위한 도전적 총횡도 수행되곤 하였다. 그리고 권위적인 방법이나 권위적인 해석이 지닌 위력을 절실히 느낄 수도 있었다.

현대 국어의 중부 방언(또는 표준어)에서는 총 32개의 음운 목록을 가진다. 자음 19개와 단모음 10개, 반모음 2개를 포함한 분절음, 즉 31개의 음소와 장단인 초분절음, 즉 1개의 운소를 합친 것이다. 특히, 단모음에 있어서는 연령과 지역에 따라서 6개로 이루어진 모음 체계가 수립되기도 한다. 그리하더라도 총 개수는 28개에 다다른다.

중세 국어의 『훈민정음』에서는 초성 17개(각자 병서를 포함하면 23개)이며, 단모음은 7개, 반모음 2개로 이루어진 26~32개의 음소와 고저의 성조, 즉 1개의 운소로 구성된 총 27~33개의 음운을 갖는다. 이기문(1972)의 논의를 따르면 자음 22개, 단모음 7개, 반모음 2개의 31개의 음소와 성조인 1개의 운소로 구성된 총 32개의 음운 목록을 갖는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고대 국어의 음운 체계 관련 논의에서는 자음과 모음의 목록 개수는 대부분 이보다 적게 제시된다. 자음 목록에 있어서는 항상 적은 숫자가 제시되며, 예외적으로 이승재(2013)에서만 백제어의 자음 체계를 22(21)개로 재구한다. 대부분의 논의에서 개수를 축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모음 체계의 논의에서도 현대 국어의 10개에 버금하거나 넘어서는 고대 국어의 모음 체계는 제기되지 않는다. 주로 4개에서 8개 사이에 편중되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음운 체계를 재구한 논의에서 음운론적 대립의 총체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결과물로 제시된다. 그리고 음운 체계로 제시된 결과물은 실상은 음가, 즉 조음 위치에 따른 배열이나 음운 목록일 경우도 확인된다. 최근의 일부 논의에서 음운 사이에 맺고 있는 대립 관계를 바탕으로 제시된 음운 체계가 제시되었으나, 그 세력은 그리 강해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논의에서는 기존 연구 방법을 그대로 답습한 듯한데, 아마도 권위적인 해석이 지닌 위력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삼국 시대에 각 지역을 다스렸던 신라, 백제, 고구려 시기의 음운 체계가 현대 국어의 해당 지역 언어 체계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모색되기도 하였다. 각 방언에 나타나는 음운 체계를 연구할 때, 일반적으로 현대 국어의 중부 방언의 음운 체계로 대응하거나, 아니면 중세 국어의 음운 체계로 소급하여 역사적인 변화 과정을 거친 것이라는 분석 과정을 진행하는데, 이와 다른 접근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승재(2016)에서 그 가능성을 확인하는데, 이승재(2016:652-653)에서는 고구려어의 모음 체계가 [high] 자질에 의하여 상하 대립이었는데, 중세 국어에서 舌縮 즉 [RT]의 사각 대립으로 변화였고, 현대 국어에서는 [\pm back] 자질의 수직 대립으로 바뀌었다고 기술하였다. 이 성과는 특히, 현대의 황해도 남부나 경기도 서북단의 방언을 대상으로 삼으면 이러한 변화 단계에 대한 설득력의 존재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모음 체계가 '상하 → 대각 → 수직'의 변화에 대한 순차적·계기적 변화가 적용되었을 것으로 기술하였다. 그런데, '상하 → 대각 → 수직'의 변화는 박창원(1986:340-342)에서 구개적 대립 관계에서 축의 대립 관계로 그리고 현대 국어로 변화하였다는 설명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참고문헌

- 권인한(2021), 「고대 한국한자음의 연구(IV) - 釋憬興撰 《无量壽經連義述文贊》의 音注를 중심으로-」, 『국어사연구』 32, 국어사학회.
- 權在善(1974), 「鷄林類事に 나타난 麗代 國語 聲調의 考察」, 『語文學』 30, 韓國語文學會.
- 김공철(1982), 「原始 韓日 두 言語의 母音體系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87, 국어국문학회.
- 김동소(1995) 「고대 한국어의 종합적 연구」, 『한글』 227, 한글학회.
- 김무림(1998), 「고대 국어 음운」,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고대 국어-』 3, 국립국어원.
- 김무림(2009), 「古代國語 音韻論」, 『국어사연구』 9, 국어사학회.
- 김무림(2015), 『고대국어 한자음』, 한국문화사.
- 김무림(2017), 「中世 및 古代國語 漢字音 研究의 成果와 課題」, 『우리말연구』 51, 우리말학회.
- 김무림(2019), 「고대국어 한자음의 기층에 대하여」, 『민족문화연구』 8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김성규(2004), 「《계림유사》와 15세기 국어의 성조 비교」, 『어문논집』 49, 민족어문학회.
- 김완진(1965), 「原始國語 母音論에 關係된 數三의 課題」, 『진단학보』 29, 진단학회(김완진(1971), 『국어음운체계의 연구』, 일조각 재수록).
- 金完鎭(1991), 「國語史 資料로서의『鷄林類事』의 性格」, 『진단학보』 71·72, 진단학회.
- 김형규(1962) 『국어사 연구』, 일조각.
- 도수희(1982), 「백제전기의 언어에 관한 연구」, 『백제연구』 17,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都守熙(1985), 「百濟前期의 言語에 關係된 諸問題」, 『진단학보』 60, 진단학회.
- 도수희(1986), 「백제의 언어자료」, 『백제연구』 17,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도수희(1990), 「변한(弁韓) 진한어(辰韓語)에 관한 연구 (1)」, 『동양학』 20-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 都守熙(2005), 『百濟語 研究』, 제이앤씨.
- 都守熙(2005), 『百濟語 語彙 研究』, 제이앤씨.
- 都守熙(2008), 『三韓語 研究』, 제이앤씨.
- 도수희·강현규(1996), 「백제의 전기판도와 그 언어자료」, 『백제연구』 26,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미즈노 슌페이(200, 『백제와 백제 한자음 백제어』, 역락.
- 박동규(1995), 『고대국어 음운연구 I』, 전주대학교 출판부.
- 박병채(1971a), 「古代國語의 音韻體系 再構試論 - 국어한자음의 분석을 중심으로 -」, 『민족문화연구』 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朴炳采(1971b), 『古代國語의 研究』, 高麗大學校 出版部.
- 朴炳采(1987), 「고대국어의 모음 음소체계에 대하여 : SK와 SV의 비교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2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朴炳采(1989), 『국어발달사』, 世英社.

- 朴炳采(1990), 『古代國語의 音韻比較研究』, 高麗大學校 出版部.
- 박창원(1986), 「국어 모음체계의 대한 한 가설」, 『국어국문학』 95, 국어국문학회.
- 박창원(2002), 『고대국어음운 I』, 태학사.
- 박창원(2004), 「고대국어의 모음체계 (2)」, 『우리말연구』 14, 우리말학회.
- 위국봉(2017), 『고대 한국어 음운 체계 연구』, 태학사.
- 兪昌均(1960), 「古代 地名 表記의 母音 體系 : 三國史記 地理志를 中心으로-」, 『어문학』 6, 韓國語文學會.
- 兪昌均(1960), 「古代 地名表記의 聲母體系 : 主로 三國史記의 地理志를 中心으로」, 『論文集』 3, 靑丘大學.
- 유창균(1991), 『삼국시대의 漢字音』, 민음사.
- 李基文(1961), 『國語史概說』, 民衆書館, 1972(改訂版, 민중서관), 1978(탑출판사), 1998(新訂版, 태학사).
- 이기문·김진우·김상억(1984), 『국어음운론』, 학연사, 2000(증보판, 학연사).
- 이문규(2004), 『국어 교육을 위한 현대 국어 음운론』, 한국문화사, 2015(개정판, 한국문화사)
- 이승녕(1964), 「한국방언사」, 『한국문화사대계』(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동아출판사.
- 이승재(2013), 『漢字音으로 본 백제어 자음체계』, 태학사.
- 이승재(2016), 『漢字音으로 본 고구려어 음운체계』, 일조각.
- 이승재(2017), 『木簡에 기록된 古代 韓國語』, 일조각.
- 이운동(1995), 「古代國語의 母音體系 研究 - 漢字音을 中心으로」, 『국어국문학』 113, 국어국문학회.
- 이장희(2006), 「고구려어의 자음체계에 대한 연구」, 『國語史와 漢字音』, 박이정.
- 이진호(2005), 『국어 음운론 강의』, 삼경문화사. 2014(개정판, 삼경문화사), 2021(개정 증보판, 집문당).
- 이준환(2011), 「향찰(鄉札) 표기자(表記字) 한자음(漢字音) 연구(研究)의 회고(回顧)와 전망(展望)」, 『구결연구』 26, 구결학회.
- 이토 지유키(2011), 『한국한자음연구』, 이진호 역, 역락.
- 정 광(2011), 『삼국시대 한반도의 언어 연구 : 고구려어의 역사비교언어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박문사.
- 정호완(2007), 『가야의 언어와 문화』, 보고서.
- 최남희 외(2006), 『國語史와 漢字音』, 박이정.
- 최남희(1999), 『고대국어 표기 한자음 연구』, 박이정.
- 최남희(2005), 「고대국어 흘소리 ㆍ의 존재에 관한 연구」, 『한말연구』 17, 한말연구학회.
- 최남희(2005), 『고구려어 연구』, 박이정.
- 최전승 외(2008:261), 『국어학의 이해』, 태학사.
- XU YE(2019), 「백제어의 자음 연구 : 한자음의 음운 대응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중세·근대 국어 자음 연구의 성과와 전망

김지은

1. 서론

본고에서 중세·근대 국어의 시기라 함은 10세기부터 19세기까지를 말한다. 이는 이기문(1961/1972)를 따른 것임을 밝혀 둔다. 국어사의 시대 구분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되도록 언어 외적인 기준을 배제하고 언어 내적인 기준을 따르는 것을 지향해 왔다. 이기문(1961/1972)의 논의는, 언어 외적 요소가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언어 내적 요소에 대한 지향을 보여 주면서도 “현재 널리 통용되는 시대 구분”(장윤희 2019)이므로 본고에서도 이를 따르기로 하였다. 이기문(1961/1972)의 시대 구분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다.

(1) 이기문(1961/1972)의 국어사 시대 구분

- 고대 국어: 신라, 통일신라
- 전기 중세 국어: 10세기~14세기
- 후기 중세 국어: 14세기~16세기
- 근대 국어: 17세기~19세기
- 현대 국어: 20세기 이후

전기 중세 국어는 대개 고려 시대에, 후기 중세 국어는 조선 시대의 첫 200년을, 근대 국어는 조선 시대의 첫 200년 이후 시기를 나누어 갖는다. 이는 가깝게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의 시기가 해당되지만 멀게는 지금으로부터 1000여 년 전의 시기까지도 해당되어, 본고에서 다루는 전체 기간은 900여 년이 된다. 이 긴 시간 중에서 국어사 연구의 핵심이 되어 왔던 시기는 후기 중세 국어, 그 중에서도 『訓民正音』이 창제·반포된 15세기 중엽이었다. 전기 중세 국어 시기는 그 자료가 양적으로 미미하며, 근대 국어 시기는 자료의 양이 방대하지만 중간본과 필사본이 많아 정제되어 있지 못하고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기에 상대적으로 해석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기 중세 국어 자료와 근대 국어 자료 모두 후기 중세 국어 시기의 자료와의 비교·대조를 통하여 해당 시기 언어의 해석이 이루어지곤 하였다.

중세·근대 국어 자음 연구의 성과에 대한 논의는 이미 김성규(2009)와 김주필(2009)에서 자세히 이루어진 바 있다. 중세 국어를 다룬 김성규(2009)에서는 ‘△, ㅼ, ㅇ, 합용병서’ 등 정음 문자들의 음가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꼽았고, 근대 국어를 다룬 김주필(2009)에서는 구개음화, 음절말 평파열음화 등의 음변화와 음운변화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이러한 시기별 쟁점의 선정은 후기 중세 국어 시기 자료, 그 중에서도 『훈민정음』(해례본)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국어사 연구의 성격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인다. 15세기 중엽은 각 음소-문자의 음가를 ‘확정’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대해서는 음가 연구를 하고, 이때의 음운 체계나 음가가 현대국어와는 다른 이유를 찾기 위해 근대 국어에서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진행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¹⁾

그런데 어떤 쟁점이든 하나의 시기에 갇혀 있지 않다. 가령, ‘△’의 음가 문제도 그 기원을 따지자면 고대 국어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그 변화의 종착점을 따지자면 현대 국어까지

1) 거칠게 말하자면, 죽은 언어 중에서 가장 확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후기 중세 국어 시기와 살아 있는 언어로 직접 관찰이 가능한 현대 국어를 두 축으로 놓고 그 사이를 탐구하기 위해 근대 국어에서는 변화를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된다.

내려올 수 있다. 음변화와 음운변화도 마찬가지다. 후술하겠지만, ‘ㄷ’ 구개음화는 대개 ‘ㅈ’ 구개음화를 전제하게 되는데 이때의 ‘ㅈ’의 음가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중세 국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에 본고에서는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 시기를 구분하여 성과와 전망을 제시하기보다는 중세·근대 국어 시기를 관통하는 쟁점 몇 가지를 종합적으로 되새겨 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선별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2) 중세·근대 국어 자음 관련 쟁점

- 음가: ‘ㄹ’의 음가, ‘ㄷ’의 음가, 합용병서의 음가
- 음운변화: ‘ㄱ’ 약화와 ‘ㄹ’ 약화(‘ㅇ’의 음가), 구개음화

본고에서는 위의 쟁점에 대한 논의들을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 검토해 보고자 한다. 각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면서 중점을 둔 사항은 세 가지이다. 첫째, ㉠정음 표기 해석의 전제에 대해 생각해 본다. 둘째, ㉡자료 해석의 보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셋째, ㉢음변화 혹은 음운변화의 종료에 대해 생각해 본다.

첫째, ‘음소적 표기’와 ‘음절적 표기’에 대해 생각해 본다. 위의 쟁점에 대한 연구는 모두 정음 표기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²⁾ 대개 정음 표기 해석의 ‘원칙’은 후기 중세 국어의 정음 표기가 ‘음소적 표기’이자 ‘음절적 표기’였다는 것(이기문 1961/1972)이었다. 그런데 이 ‘원칙’은 각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에서 종종 잊히고 ‘음성적 표기’로 해석하는 모습이 보여 흥미롭다.

둘째, 자료(해석)의 보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중세·근대 국어는 정음 표기 자료뿐만 아니라 외국어 전사 자료, 당대 학자들의 국어에 대한 메타언어적 기술 등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전기 중세 국어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편찬된 외국어로서의 국어 전사 자료가 중심이 되는데, 한어의 외국어 사용 원칙을 고려한다면 해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몇 가지 쟁점이 발견된다. 아울러, 『훈민정음』(해례본)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더라도 근대 국어 시기 당대 학자들의 국어에 대한 메타언어적 기술들이 다수 발견되는데 이들에 대한 활용 가능성도 모색해 볼 수 있다.

셋째, 음변화 혹은 음운변화의 종료에 대해 생각해 본다. 중세·근대 국어에서 음변화 혹은 음운변화가 시작된 원인에 대하여서는 많은 논의가 있으나 그것들이 종료된 원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설명을 찾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가령, ‘ㄷ’ 구개음화의 경우 그 변화가 시작된 원인에 대해서는 ‘ㅈ’의 조음 위치 변화로 설명하지만 ‘ㅈ’의 조음 위치가 그대로 유지된 현대 국어에서는 그 변화가 사실상 종료된 원인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2. 음가 연구의 성과와 전망

가. 순경음 비읍 ‘ㄹ’

순경음 비읍 ‘ㄹ’은 『훈민정음』에서 초성 17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제자해에서 그 음가에 대한 설명을 찾아 볼 수 있고, 용자례에도 구체적인 용례가 제시되어 있어 창제 당시

2) 이는 중세·근대 국어 시기의 녹음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 때문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이다.

국어에서 일정하게 부담하는 기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빙’은 15세기 문헌에서 두루 사용됨이 보이지만, 『능엄경언해』(1461)부터는 거의 찾아보기 이미 문자로서의 기능을 잃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빙’의 15세기 음가는 일반적으로 『훈민정음』(해례본) 제자해에서 “가벼운 소리로서 입술을 살짝 합하되 목구멍소리가 많다(以輕音乍脣合而喉聲多也).”라고 한 내용과 「翻譯老乞大朴通事凡例」에서 “‘ㅂ’을 하려고 입술을 합하려다가 합하지 않고 공기를 불어서 소리를 내면 ‘빙’이 된다(爲ㅂ之時 將合勿合 吹氣出聲爲빙).”라고 한 내용에 따라 유성양순마찰음 [β]으로 추정되어 왔다. 그러나 이외에도 ‘빙’이 “개정 한자음을 표기하거나 중국 운서의 체계에 맞추기 위해 만든 문자”라고 주장하는 한자음 반영설, “‘빙’이 특정한 음가를 가지지 않고 [b]와 [w]의 두 발음을 절충적으로 표기했다”고 보는 상징 표기설, ‘ㅂ’이 모음 사이에서 ‘오, 우’로 변해 가는 과정에서 임시적으로 [w]의 음가를 지니고 있었다고 보는 활음 /w/설, 양순유성파열음 /b/설, 양순무성마찰음 /ϕ/설, 순치유성마찰음 /v/설 등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현재로서는 유성양순마찰음 [β]설이 정설로 굳어진 상황이다.

㉔정음 표기 해석의 전제 다만, 15세기 당시의 음가는 동일하게 추정하더라도 음소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변이음 차원으로 바라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이렇게 ‘빙’을 변이음으로 보는 시각은 후기 중세 국어에 대한 논의들이 정음 표기가 변이음을 반영하였을 가능성도 열어 두었음을 방증해 준다. 이는 ‘빙’의 기원에 대한 가설과도 닿아 있는 쟁점으로서 /*β/ 기원설과 /*b/ 기원설의 입장에 선 논의들은 기본적으로 ‘빙’의 독립된 음소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반면, /*p/ 기원설의 입장에 선 논의들은 ‘빙’을 ‘ㅂ’의 변이음으로 상정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송녕(1948)을 필두로 하는 /*p/ 기원설의 논의들도 ‘빙’을 음소로 설정하기도 하였는데, 이때 ‘빙’은 ‘ㅂ’의 변이음에서 15세기 이전에 대립을 이루는 음소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였다가 당시 유성 마찰음의 수가 무성 마찰음의 수보다 많아졌던 체계상의 불균형, ‘빙’의 낮은 기능 부담량, ‘ㅂ’ 약화 규칙의 소실 등으로 인하여 15세기에 이르러 비음운화하였다고 보았다(김한별 2011).

㉕자료(해석)의 보완 가능성 15세기 정음 문헌에서 ‘빙’의 실현 환경은 모음과 모음 사이(사빅(蝦), 드빅(瓢)), /j/와 모음 사이(대범(大虎), 쇠벽르(淵遷)), /ㄹ/과 모음 사이(글밭(文), 말밭(藻)), /△/과 모음 사이(웃브-(可笑))로 제약되어 어중에만 출현하였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빙’이 ‘ㄱ, ㄷ, ㅈ, ㅅ’ 등의 무성음과 연결되면 ‘ㅂ’가 되어 종성 ‘빙’은 정음 문헌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이기문 1961/1972). 그런데 훈민정음 창제 이전 시기의 국어를 반영하는 문헌에서는 ‘빙’이 종성에서도 실현되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조선관역어에서는 ‘冷’의 고유어는 ‘尺卜大’로, ‘熱’의 고유어는 ‘得卜大’로 각기 적고 있어 어간의 종성을 ‘卜’로 첨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는데, 『華夷譯語』의 사음 규칙에 따르면 이 ‘卜’은 유성음 계열의 자음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김지은 2016, 김지은 2021).³⁾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빙’은 비음운화의 과정에서 그 음가가 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현 환경이 점차 제약되는 사정에 처해 있었다는 가설을 세워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좀 더 많은 증거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다.

㉖음변화의 종료 15세기에 이미 포착되는 ‘빙’의 비음운화의 방향은 일반적으로 *p>β>w’를 상정하여 그 소실의 과정이 설명되었다.⁴⁾ 이때의 쟁점은 대개 β>w’를 벗어나는 예들을 예외

3) 화이역어에서 첨기가 되기 위해서는 원천 언어의 음소가 유성음이거나 지속음이거나 외파되어야 한다(김지은 2021). 그런데 15세기 국어의 종성 ‘ㅂ’은 이미 불파화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이때의 ‘卜’은 양순음 계열의 유성음 혹은 지속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로서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것과⁵⁾ ‘ㅃ>ㅇ’에서 나타나는 불청불탁 후음 ‘ㅇ’의 음가에 대해 설명하는 일이 되었다. 불청불탁 후음 ‘ㅇ’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장에서 후술하겠다. 그런데 이때, ‘ㅃ>w’에 관하여 주목하여야 할 남은 과제가 하나 있다고 생각된다. 만약 앞서 살펴 본, /**p*/ 기원설을 채택할 경우에는 ‘**p*>*β*>w’의 변화가 일어난 셈이다. 이때, ‘ㅃ’이 ‘ㅃ’으로 약화된 까닭은 그 유성음 사이라는 환경에 따라 음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러한 변화가 왜 다른 동일한 환경의 /*p*/에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었는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나. 반치음 ‘ㄷ’

불청불탁 반치음 ‘ㄷ’은 그 출현 환경과 음가의 유사점으로 인하여 ‘ㅃ’과 묶여 논의되어 왔으나, 그 이전 시기의 자료에서부터 이미 그 존재가 확인된다는 점과 『훈민정음』에서 초성 17자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이송녕(1956)에서부터 그 음소로서의 지위는 비교적 공고하게 인정되어 왔다. 정음 창제 이전의 국어를 반영하는 『鷄林類事』와 『朝鮮館譯語』에서 모두 ‘ㄷ’으로 비교적 정치하게 일모(日母)로 적고 있던 것이다. ‘ㄷ’은 『훈민정음』 초성 17자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존속 기간이 짧고 15세기에 이미 ‘ㄷ~ㅅ’, ‘ㄷ~ㅇ’의 혼기 양상을 보여 준다.

㉔정음 표기 해석의 전제 ‘ㄷ’은 ‘ㅃ’과 비슷하게 유성음 사이의 환경에서 출현하지만 ‘ㅃ’과는 달리 어두나⁶⁾ 종성에서 여전히 실현되는 모습이 정음 문헌에서 보인다. 종성에서는 ‘앗이, 열의, 뵤아, 굽우믈’과 같이 모음과 불청불탁의 후음 ‘ㅇ’ 사이 또는 모음과 ‘ㅃ’ 사이의 환경에서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은 연구자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우선, 본래 팔종성법에 따라 ‘ㅅ’으로 표기되어야 하는 어형들이지만 현실 발음을 반영하였다는 해석(이기문 1961/1972)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종성 위치에서 ‘ㄷ’은 여전히 ‘ㅅ’과 어느 정도 변별적으로 실현되어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음절말 자음 체계는 실질적으로 9자음 체계라고 보는 셈이다. 그렇지만 이 해석은 음절말 위치에서 ‘ㅅ’과 ‘ㄷ’의 최소대립쌍을 찾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이승재 1990) 15세기 중엽 음절말 ‘ㄷ’은 음절말 ‘ㅅ’의 변이음을 표시하였다는 논의(김성규 1996)도 전개되었다. 15세기 중엽의 종성은 음성적으로는 9개의 소리가 있었지만 음운론적으로는 8개의 음소만이 변별적 대립을 이루었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입장은 음소적 표기가 아닌 음성적 표기를 전제하고 있는데, 그러한 원칙을 위배할 당위에 대한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㉕자료(해석)의 보완 가능성 ‘ㄷ’의 15세기 음가는 [ɟ]로 보는 견해(김명규 1961, 황희영 1979), [ɟ]로 보는 견해(박동규 1981), 한자음을 중심으로 [j]로 보는 견해와 같은 의견도 있었으나 이송녕(1956) 이후 유성치조마찰음 [z]로 보는 게 현재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ㄷ’의 음가를 [z]라고 하였을 때, 최근에는 그 변이음에 대한 논의가 보인다. 이때, 변이음 추정 근거는 정음 자료에서 찾기가 어려워 추론에 그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었다. /i/나 /j/ 앞에서의 변이음의 경우에는 ‘ㅅ’의 음운 변이와 관련지어 간단히 언급된 바 있는데(소신애 2012: 377), 특별한 근거는 들지 않은 채 구개적 환경에서 ‘ㄷ’이 [ɟ]로 실현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특정 자음 뒤의 자유 변이음에 대해서는 ‘손소, 몸소, *명실’ 등 비음 뒤에 후

4) 이때에 함께 문제가 되는 것은 ‘ㅇ’의 음가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하겠다.

5) 가령, ‘더러비’의 후대형은 ‘더러위’가 아니라 ‘더러이’가 되는데, 이는 부사형접미사가 /ji/였기 때문에 반모음이 두 개가 연속되는 /wji/라는 무리한 음절 구조가 생겨나 /w/가 탈락한 것으로 해석되었다(김완진 1964, 김완진 1972).

6) 다만, 고유어의 어두에서 출현하는 경우는 ‘숫(菰)’이 유일하고, 대개 ‘설설(水流貌)’과 같은 의성태어나 ‘솔(襦)’과 같은 중국어 차용어와 같이 제한적인 어종에서 발견된다.

행하는 ‘△>ㅈ’를 이해하기 위해 ‘△’의 자유변이음으로서 [dz]가 유성파열음이 수반된 [d], [b], [g]에 의한 파열적 요소가 /z/와 결합하며 만들어졌다고 상정한 바 있다(이준환 2021).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음 표기 자료 외에 근거가 될 수 있는 문헌들을 참고하여 논리를 보충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가령, 음성적 표기를 보이는 외국어 사음 자료를 논리의 보안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조선관역어』에서는 ‘△’이 구개적 환경에서 실현되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각기 다른 성모로 적고 있음이 발견된다. 구개성 모음 앞에서 ‘△’는 精母로 적히고 있고 비구개성 모음 앞에서 ‘△’는 日母로 적히고 있다. 『화이역어』를 기반으로 『조선관역어』의 사음 원칙을 재구해 보면, 이때의 精母는 [z]를, 日母는 [ʒ]를 적고 있음이 확인되어(김지은 2016) ‘△’ 또한 구개적 환경에서 [z]로 실현되었다는 근거로 들 수 있다.

◎**음변화의 종료** ‘△’는 15세기 중엽에는 그 음소로서의 지위가 비교적 공고히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고대 국어에서도 ‘△’가 ‘ㅅ’과 대립을 이루는 독자적 음소였는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입장(이기문 1961/1972, 최명옥 1978, 이장희 1994 등)과 그렇지 않고 유성적 환경에서 ‘ㅅ>△’의 과정을 거쳤다는 입장(이승녕 1956)으로 나뉜다. 전자의 입장은 후기 중세국어 이후 ‘△’의 소실 과정만을 설명하면 되지만 후자의 입장에서는 유성적 환경에서 ‘ㅅ>△’의 과정이 왜 종료되었는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해 보인다. 후자의 입장을 따라 ‘△’의 방언 반사형 중 ‘ㅅ’을 ‘ㅅ>△’ 변화의 비개신형으로 보기도 하는데(소신애 2012) 이러한 논의에서도, 현대 국어에서까지 “유성음 간 ㅅ이 유성음화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데도 그러한 변화가 이른 시기에 종료되고 ‘△’이 결국 음소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다. 합용병서

합용병서를 주제로 한 연구는 대개 15세기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음가론-자음군인가 된소리인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연구의 성과는 ‘ㅅ’계 합용병서와 ‘ㅆ’계·‘ㅈ’계 합용병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각각의 입장이 나름의 근거와 한계를 지니고 있어 이들 입장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1) ‘ㅅ’계 합용병서

‘ㅅ’계 합용병서의 된소리설은 이기문(1955)에서 처음 주장되어 지금까지 통설로 여겨지고 있다. 항상 된소리로 실현된다고 보는 입장(이기문 1955, 이기문 1972, 도수희 1971, 박병채 1973)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본음이 ‘ㅅ’이 잠재되어 있다가 일정한 환경에서 나타난다고 보기도(김민수 1955) 하였다. 이들의 논거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자료	해석
㉠ 그스->쓰스-, 땡->땡-, 빙->뽕 (변화)	‘ㅅ’이 삽입되어야 할 이유를 찾기 힘들. 된소리의 인상적 가치(격렬한 행동)로 설명.
㉡ 비빅-/뽀빅/, 두드리-/뚜드리- (공존)	
㉢ ‘ㅅ’장, ‘ㅅ’의 ‘ㅅ’ 사잇소리인 ‘ㅅ’의 역사적 인식. 향찰 ‘ㅅ’의 용법. (박병채 1973)	사이시옷은 후행 자음을 된소리로 발음시키는 기호 역할. 『용비어천가』, 『훈민정음』(언해)
㉣ 밧기/바기, 솟글/수글, 닷가/다까, 셋근/서근, 앓기-/아찌-, 깃브-/기쁘-, 웃듬/으뜸, 갓갈-/가갈-, 어딿던/어딿쎌, 엇데/어제, 붓그리-/부쓰리-, 잇브-/이쁘-, 숲기-/숨찌-, 닷기-/답찌-, 냇다-/넉찌- (공존)	두 가설의 자료로 해석 가능.

㉔ ‘ㅂ’계, ‘ㅃ’계 합용병서와 달리 ‘ㅅ’계 합용병서의 화석형 부재 (이기문 1955, 1972)

㉔자료(해석)의 보완 가능성 첫째, “硬音說의 가장 확실한 증거”(문병열 2005)로서 이들 어사의 어두에 15세기에 ‘ㅅ’계 합용병서와 평음이 혼기되면서도(㉔) 후자가 전자보다 먼저 나타나는 경우도(㉔) 있는데, 어두에 [s]이 첨가될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를 어두 경음화와 연관 지어 경음으로 해석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현대국어의 관점이 아닌가 한다. 15세기 중엽에는 현대국어에서와 달리 강한 느낌을 주기 위해 [s]을 첨가하였을 수도 있는 일 이거니와 현대국어에서도 어두 경음화가 일어나야 하는 체계적인 원인을 찾지는 못하였기 때문이다. 어두 경음화만이 강한 느낌을 줄 수 있는 필연성이 다른 경로를 통해 밝혀져야만 ㉔과 ㉔이 진정으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㉔정음 표기 해석의 전제 둘째, 15세기 중엽의 『龍飛御天歌』나 『훈민정음』(언해본)에서 ‘ㄱ, ㄷ, ㅂ, ㅍ, ㅎ’ 등이 사이시옷의 위치에 사용된 점으로 볼 때 사이시옷을 된소리 표지로 해석하고, 이 사이시옷이 내려와 쓰인 결과로서의 ‘ㅅ’계 합용병서(㉔)도 된소리였을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 이는 사이시옷이 ‘된소리의 표지’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논리이다. 그런데 이렇게 사이시옷의 음가를 해석하는 일은 나름의 문헌적 근거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음소적 표기’였다고 하는 당시의 표기가 음성적 표기를 넘어 자질적 표기를 하였다고 보는 입장으로서 또다시 ‘음소적 표기’라는 원칙에 위배되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사이시옷 외의 ‘ㅅ’말음 표기가 내려와 쓰인 결과로서의 자음군설과 경음설 모두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더하여, ‘음절적 표기’라는 표기의 원칙을 생각해 보면, ‘ㅃ’과 ‘ㄱ’을 연속하여 발음할 때나, ‘ㅃ’와 ‘ㅅ’을 연속하여 발음할 때나 소리가 같아야 할 텐데, 아직 음절말 ‘ㅅ>ㄷ’를 경험하지 않은 15세기 중엽의 음절말 음운 체계를 생각해 보면 이들이 경음설의 강력한 증거가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ㅅ’계 합용병서의 화석형이 부재하다고 하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사나이’(서울), ‘시더구’(평북), ‘시동’(제주) 등을 들 수 있어 강력한 근거가 되어 주지는 못한다(문병열 2005).

‘ㅅ’계 합용병서의 자음군설은 [s]로 시작하는 자음군으로 보는 경우(최현배 1942, 허웅 1953, 김차균 1984 등)가 대다수이지만, [tʰ]이 선행하는 복합음운으로 보는 경우(유창돈 1975), ‘ㅅ’을 [ç]로 불완전하게 조음한다고 보는 경우(권재선 1977, 권재선 1978) 등도 있다. 여기에서는 [s]로 시작하는 자음군으로 보는 경우의 논거와 그에 대한 비판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자음군설의 주요한 논거는 다음의 네 가지였다.

자료		해석
㉔	『삼국사기』 ‘角干’-‘舒發翰 或云 舒弗邯’	‘ㅅ’의 ‘ㅅ’
㉔	지역방언 ‘시더구’(평북), ‘시동’(제주)의 ‘ㅅ’	‘ㅅ’, ‘ㅆ’의 ‘ㅅ’
㉔	진언류 ‘ㅅ리드마, ㅅ나, ㅅ리다’의 ‘ㅅ’	범어의 /s/ 표기
㉔	『적보상절』 ‘ㅅ히’의 ‘ㅅ’	/s/를 선행시키는 자음군.

㉔자료(해석)의 보완 가능성 첫째, 『三國史記』에서 ‘ㅅ(角)’을 ‘舒發’ 혹은 ‘舒弗’로 표기하였다는 점이 자음군설의 논거로 사용되었다(㉔). 그런데 『삼국사기』의 자료는 15세기의 자료가 아니므로 15세기 중엽의 음가를 추정하는 데에는 적극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 자료만 가지고서는 『삼국사기』 시기에는 자음군이었던더라도 15세기 중엽에는 경음으로 변

화했을 가능성을 배제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자료는 적어도 고대 국어에서는 ‘스’계 어두자음군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큼을 보여 주고, 15세기 중엽에 ‘스’계 합용병서가 경음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원은 어두자음군이었음을 알려 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다.

둘째, 평북 지역에서 ‘씩’을 ‘시더구’라고 말하고, 제주 지역에서 ‘쑹’을 ‘시동’이라고 말한다는 점이 자음군설의 논거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 또한 별개의 방언에서 발견되는 소수의 산발적인 예이므로 논거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셋째, 진언류에서 범어의 ‘s’로 시작되는 어두자음군을 두고 ‘씩리드바, 썩나, 썩리다’와 같이 표기하였다는 점이 자음군설의 논거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는 마치 한자음을 표기하기 위해 별도의 수단을 마련하였던 것처럼 외국어를 표기하기 위한 별도의 표기 방법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자료(해석)의 보완 가능성 넷째, 『釋譜詳節』의 ‘사히’ 표기에서 경음화시킬 수 없는 ‘ㄴ’에 ‘스’이 선행하고 있다는 점이 자음군설의 논거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ㄴ’은 ‘ㄴ’과 음운론상 변별적 자질을 인정할 수 없”고(박병채 1973)7) “상징적인 것”이라는(도수희 1971) 비판이 있었다. 아울러, 일회성 표기로서 추가적인 근거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이것만으로는 자음군설을 지지하기는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다.

2) ‘ㄴ’계·‘ㅁ’계 합용병서

‘ㄴ’계·‘ㅁ’계 합용병서 역시 자음군설과 된소리설이 대립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자음군설이 된소리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근거 자료와 논리를 확보하고 있다.

㉣정음 표기 해석의 전제 ‘ㄴ’계·‘ㅁ’계 합용병서의 된소리설은 항상 된소리로 실현된다고 보는 입장(도수희 1971, 박병채 1973)과 본음가가 잠재되어 있다가 일정한 환경에서 나타난다고 보는 입장(김민수 1955)으로 나뉜다. 어떤 입장이든 음소적 표기라는 15세기 표기의 원칙을 고려하지는 않은 해석이다. 된소리설에 선 논의들은 특별한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널리 채택되지는 못하였다. 단순히 “기록 개시부터 오늘날까지 그 발전 과정이 경음으로 표시해 왔고 경음으로 남은 것”(도수희 1971)이라고 선언하는 데 그쳤다. 아울러, 항상 된소리로 실현된다고 보는 입장에 대해서는 ‘ㄴ’의 첨가가 통시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본음가가 잠재되어 있다가 일정한 환경에서 나타난다고 보는 입장에 대해서는 ‘ㅁ’계 자음군 음가 설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이 제기되었다(박창원 1991). 이때의 된소리설도 ‘스’계 합용병서의 된소리설과 같이 15세기의 음가가 된소리였다는 것이지, 그 이전 시기 ‘ㄴ’계·‘ㅁ’계 어두자음군의 존재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 놓고 있지 않았다.

‘ㄴ’계·‘ㅁ’계 합용병서의 자음군설에 선 논의들은 ‘ㄴ’의 음가에 따라 입장차를 보인다. 그 입장차는 [p]를 그대로 가진 자음군이라고 보는 입장(최현배 1942, 허웅 1953, 김차균 1984 등), [p]이 선행하는 복합음운이었다는 입장(이기문 1955, 유창돈 1975 등), 선행자음을 [w]로 불완전하게 조음하였다는 입장(권재선 1978)으로 정리할 수 있다.

자료	해석
㉠ 멍쌀, 접대 등	‘ㄴ’계, ‘ㅁ’계 합용병서의 화석형
㉢ 『계림유사』의 白米曰漢菩薩	15세기 ‘ㅁ’이 제1음절 모음 탈락으로 형성되었음.

7) 이기문(1955)에서 “ㅁ형을 당시 실제음가로 ㅁ는 ㅁ와 별반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박병채 1973:304 각주 242번)

㉞	‘ㅞ’, ‘ㅟ’의 존재	‘ㅞ8), ㅟ’의 경음화 불가. ‘ㅟ’도 제 음가대로 발음됨.
㉟	힘+ㅞ->힘스-, 거슬+ㅞ->거슬즈-	표면음성 제약. ‘ㅟ’도 제 음가대로 발음됨.
㊱	훈 ㅞ>훈씩	‘ㅟ’이 제 음가대로 발음되어 ‘ㅟ’이 ‘ㅠ’로 동화됨.
㊲	훈민정음에서 합용병서의 음가는 따로 설명하지 않음.	

첫째, ‘ㅟ’계 합용병서와 달리 ‘ㅟ’계와 ‘ㅞ’계 합용병서는 화석형이 남아 있음이 지적되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는 ‘좁쌀, 접때’와 같은 기본 어휘들이 ‘ㅟ’계 합용병서의 생성 연대로 추정되는 12세기 이후에 합성되었으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우므로 “현대 국어에서 ‘ㅟ’이 삽입되는 것처럼 보이는 단어들이 모두 실제로는 첫 음절의 모음이 탈락하기 전에 합성어의 자격으로 어휘부에 등록되어 있었던 것”(이동석 2004: 240)으로 봐야 한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이러한 반론의 근거가 되는 ‘ㅟ’계 어두자음군 생성의 연대는 ㉞에 근거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음을 후술하도록 하겠다.

㉞자료(해석의 보완 가능성) 둘째, 『계림유사』에서 ‘ㅟ’의 고려어 발음을 ‘菩薩’로 적고 있는 사실은 ‘ㅟ’계 어두자음군의 생성 이전의 모습 즉, “모음의 壓出”이 아직 일어나기 전 단계를 보여 준다고 주장되었다. 이는 이후 『조선관역어』에서의 표기와 비교하여 어두자음군의 생성 연대를 12세기 이후 15세기 이전으로 잡는 근거가 되곤 하였다. 그러나 어두자음군이 있었던 『西番館譯語』(티베트어), 『韃靼館譯語』(몽골어) 등에서 어두자음군의 표기를 첨기를 통해 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㉞은 이미 ‘ㅟ’계 어두자음군이 생성된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야 한다(김지은 2021). 그렇게 되면 ‘ㅟ’계와 ‘ㅞ’계 어두자음군의 생성 연대는 12세기 이전으로 잡게 되어야 하고, 이동석(2004)의 반론도 재고될 여지가 있다. ㉞음변화의 종료 더하여, 어두자음군이 제1음절 “모음의 壓出”을 통해 생성되었다면 왜 일부 어사에 대해서만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고, 이후에 어두자음군의 생성이 왜 멈추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㉞정음 표기 해석의 전제 셋째, ㉞의 경우에는 ‘ㅟ’계 합용병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이다. 이를 통해 본다면 ‘ㅟ’계 합용병서, ‘ㅟ’계 합용병서, ‘ㅞ’계 합용병서 모두 어두자음군으로 보아야 음소적 표기로서의 원칙에 충실한 해석이 될 터이다.

3. 음운변화 연구의 성과와 전망

가. ‘ㄱ’ 약화와 ‘ㄴ’ 약화

오늘날에도 ‘ㅇ’은 ‘이음’으로 불리며 쓰이고 있는 문자이지만 초성에서는 음가를 지니지 않는다. ‘ㅇ’은 『훈민정음』에서 초성 17자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불청불탁 후음으로 규정되어 오늘날과는 달리 일부 음가를 지녔을 것으로 판단되기도 한다. ‘ㅇ’과 관련하여 논의되어 온 주요 쟁점은 ‘ㅇ’의 음가와 그 기원이었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 ‘ㅇ’의 음가에 대한 논의는 ‘ㅇ’의 음가를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하는 입장과 어떠한 경우에도 ‘ㅇ’이 음가를 지니지 않았다고 보는 입장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최근의 논의들은 대개 전자의 입장을 따르고 있으며, 아직 남은 과제는 전자의 입장에서 ‘ㅇ’의 음가, 그 중에서도 ‘ㄱ’ 약화에 의해 발생한 ‘(ㄱ>)ㅇ’과 ‘ㄴ’ 약화에 의해 발생한 ‘(ㄴ>)ㅇ’의 음가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주로 ‘ㄱ’ 약화의 결과로서 만들어진 ‘ㅇ’의 음가에 대해 진행되어 온 주요 논의를 일부 정리해 보고, ‘ㄴ>ㅇ’의 음가에 대한 최근의 두 설명을 생각해 본다.

8) 이기문(1955)에서는 ‘ㅟ’계 합용병서가 현대어에 남아있는 흔적뿐만 아니라 알타이 공통어와의 비교 언어학적 고찰에 의해 어원성이 입증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ㅞ’를 기원적으로 만주어와의 대응에서 탄력적인 운동을 표시하는 하나의 원시적 어근 *p-t’-<*p-th-에서 분화하였다고 보았다.

‘ㅇ’의 음가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배영환(2011)에서 자세히 정리된 바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그간의 입장은 완전 무음가설, 결과적 완전 무음가설, 완전 유음가설, 부분 유음가설의 네 가지로 나뉘며⁹⁾ 이들 중에서 ‘부분 유음가설’이 현재의 통설이라고 보인다. 이들 중 완전 무음가설은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함을 표시하는 소극적 기능의 ‘ㅇ’만을 인정하는 입장이고, 결과적 완전 무음가설은 선행 말음의 연철을 저지하는 적극적 기능을 수행하는 ‘ㅇ’을 인정하되, 소극적 기능과 적극적 기능의 ‘ㅇ’ 모두 음가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완전 유음가설은 ‘ㅇ’ 자체를 음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연구로서 적극적 기능과 소극적 기능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는 입장이고, 부분 유음가설은 소극적 기능과 적극적 기능을 모두 인정하고 적극적 기능의 ‘ㅇ’만이 음가를 지닌다고 보는 입장이다.

통설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유음가설은 소극적 기능과 적극적 기능을 모두 인정하고 적극적 기능의 ‘ㅇ’만이 음가를 지닌다고 보는 입장이다(이기문 1961/1972, 이기문 1977 등). 이때 ‘ㅇ’의 음가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 이는 ‘ㅇ’의 기원이 ‘ㄱ’뿐만 아니라 ‘ㅍ’도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입장은 이기문(1977)에서 ‘ㅇ’을 유성후두마찰음의 [h]로 본 것으로서, “ㄱ 계통의 소리가 ‘ㄱ’, ‘ㄷ’, ‘ㅇ’과 모음 사이에서 [g] > [ɣ] > [h]의 변화를 입은 결과로 보았다. 이는 여러 근거로써 뒷받침되었는데, ‘ㄱ’ 계통과 이형태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과 조선관역어에서 見母로 사음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주목된다. 다만, ‘ㅍ>ㅇ’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하기에 이때의 ‘ㅇ’의 음가가 남은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김경아(1990), 김주필(2001), 배영환(2011)의 논의가 각기 다른 입장을 보여 주고 있다.

첫째, 김경아(1990)에서는 ‘β>hw>w’의 과정을 상정하여 ‘ㅇ’의 음가를 [h]로 통일하고자 하였으나, 하나의 분절음이 두 개의 분절음으로 변하였다가 다시 두 개의 분절음이 하나의 분절음으로 변하였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김주필 2001).

둘째, ‘β>w’의 변화를 상정하지 않고 ‘ㅍ’이 지니고 있던 자질과 후행하는 음소가 지니고 있는 자질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설명이 있었다(김주필 2001). 이 입장에서는 ‘치위(冷)’와 ‘더위(熱)’의 선대형을 ‘치뵈’와 ‘더뵈’(김완진 1964)가 아닌 ‘치뵈’와 ‘더뵈’로 잡고, 그 변화의 과정을 ‘ㅍ’이 지니고 있던 [+유성성][+순음성][+지속성] 중 [+순음성]이 후행 모음의 [+원순성]으로 인하여 잉여 자질이 됨으로써 [+유성성][+지속성]인 ‘ㅇ[h]’로 약화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김주필(2001)의 논리를 뒷받침할 근거는 ‘치뵈, 더뵈’에 그쳐 방언형이 유입된 결과였을 가능성이 있고, [+순음성]이 후행하는 모음에 영향을 준 후 잉여 자질이 되는 과정의 일반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김성규 2009) 아직 그 논의가 완결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④정음 표기 해석의 전제 셋째, 자질 차원의 설명이지만 ‘ㅇ’의 변화를 상정하고 [+지속성]이 아니라 [+마찰성]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는 배영환(2011)에서 이루어졌다. 배영환(2011)에서는 ‘β>w’의 단계에서 [+마찰성]을 넘겨주었다고 보고 남아 있는 [+마찰성]으로 인해 ‘ㅇ’이 분철되었다고 해석하였다. 변화의 과정에 있는 ‘β, γ, h’이 모두 공유하는 유표적인 자질이

9) 배영환(2011)에서는 ‘ㅇ’의 음가와 그 기능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입장을 ‘ㄱ. 두 기능을 분류하지 않고 두 기능 모두 음가가 없다고 보는 경우’, ‘ㄴ. 두 기능을 분류하지 않고 두 기능 모두 음가가 있다고 보는 경우’, ‘ㄷ. 적극적 기능을 분류하되 적극적 기능이 음가가 없다고 보는 경우’, ‘ㄹ. 적극적 기능을 분류하고 적극적 기능은 음가가 있다고 보는 경우’ 등 넷으로 구별하고 ㄱ에 대하여 ‘완전 무음가설’, ㄴ에 대하여 ‘완전 유음가설’, ㄷ에 대하여 ‘부분 유음가설’이라고 이름 붙였다. ㄹ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완전 무음가설로 볼 수 있는 논의”라고만 하고 따로 이름을 부여하지는 않았으나 본고에서는 ‘결과적 완전 무음가설’로 부르기로 한다.

[+마찰성]이라는 점에서 이 견해는 참고할 만하지만, 김경아(1990)와 김주필(2001)이 모두 ‘ㅇ’을 하나의 음소로 다루고 있는 반면, 배영환(2011)에서는 ‘ㅇ’을 음소로 인정하지 않고 일종의 변이음으로서 다루고 있는 인상을 준다.

㉠정음 표기 해석의 전제 한편, 음절적 표기라는 정음 표기의 원칙을 고려한다면 굳이 ‘ㅇ’에 음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적극적 기능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은가 한다. 완전 무음가설에서는 김완진(1964)에서는 일찍이 ‘ㅇ’을 “*junction phoneme*”으로 본 바 있는데, 이는 음절이라면 어디든 연접이 있으므로 무의미한 설정이라고 보기보다는(정연찬 1987) ‘ㅇ’에 선행하는 음소의 변이음을 달리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설정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국어의 관점에서는 ‘알오’나 ‘아로’나 발음이 동일하지만 음절적 표기였던 후기 중세 국어의 입장에서 본다면 ‘알오[al.o]’와 ‘아로[ar.o]’는 발음이 다르게 되기 때문이다.

㉡자료(해석)의 보완 가능성 ‘ㄱ’ 약화 현상의 시작의 상한은 13세기 정도를 잡아왔다(이기문 1977). 15세기 정음 문헌에서 특정 환경에서 ‘ㄱ’이 약화된 형태가 정치하게 적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15세기 문헌으로 추정되는 『조선관역어』에서 ‘ㅇ’이 모조리 尾母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두고 [ʏ] 정도의 음가를 지니고 있던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ㄱ’ 약화의 시기를 높이 잡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여겨 왔다(권인한 1998). 그러나 다른 역어에서 /y/는 대개 影母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추가적인 자료로서 참고한다면 기존의 논의에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김지은 2016).

나. ‘ㄷ’ 구개음화와 ‘ㅈ’ 구개음화

구개음화의 연구는 정음 문헌의 표기 중에서도 과도교정 현상과 당대 문인들의 국어에 대한 기술을 참고하여 그 연대를 추정하여 왔다. 구개음화는 16세기 자료에서부터 고유어와 한자어의 구별 없이 확인되며 19세기 자료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이준환 2007). 이때, 구개음화는 남부 지방에서 시작되어 평안방언을 제외한 대개의 방언에서 일어났다고 보고 있다. 최초의 구개음화에 대한 자료가 남부 방언을 반영하거나 남부(전라도)에서 간행된 것들이었고 평안방언은 아직도 구개음화를 모르기 때문이다. 구개음화는 “근대국어의 가장 현저한 음운변화”로서 구개음화가 어느 정도로 일어났는가를 통해 거꾸로 문헌의 연대나 근대 국어의 반영 정도를 확인하기도 한다(김주필 2009).

㉢자료(해석)의 보완 가능성 구개음화에 대한 중요한 증언은 아무래도 중앙 방언 화자였다고 생각되는 유희(1773-1837)의 『언문지』(1824)로서 구개음화가 발생하지 않은 시기와 서북방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ㄷ’ 구개음화가 완성된 시기를 알려주고 있다(안병희 1957). 유희와 같이 메타언어적인 기술을 보이지는 않지만 민간어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구개음화의 발생 여부를 짐작할 수 있기도 하다. 가령, 頤齋 黃胤錫(1729-1791)의 『華音方言字義解』에서 어원 분석에 구개음화를 활발히 고려하는 모습은 18세기의 서남 방언에 이미 ‘ㄱ’ 구개음화, ‘ㅎ’ 구개음화, ‘ㄷ’ 구개음화가 모두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을 방증해 준다(김지은 2020).

㉣음운변화의 종료 구개음화에는 대개 ‘ㄷ’ 구개음화를 대표로 하는데, 이는 ‘ㅈ’ 구개음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이기문 1961/1972). 『훈민정음』(해례본)에서는 ‘ㅈ’을 처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이었던 ‘ㅈ’이 적어도 /i/와 /j/에 선행하여서는 (경)구개음으로 소리 나야 하기 때문이다. 자음 체계상에서 ‘ㅈ’이 완전하게 구개 위치로 이동하여 체계상의 변화가 일어난 시기는 18세기 이후로 보며(이기문 1961/1972, 김주필 1985) ‘ㅈ’의 조음위치는 지금까지도 경구개음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ㅈ’의 음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구개음화가 왜 사실상 종료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아직 베풀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⁰⁾

4. 결론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정음 표기 해석의 전제, ㉡자료 해석의 보완 가능성, ㉢음변화 혹은 음운변화의 종료를 염두에 두고 중세·근대 국어 연구의 주요 쟁점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성과에 대해서는 앞서 정리한 내용으로 같음하고, 각각에 대해 본고에서 남은 과제로 제안한 바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	㉡	㉢
순경음비음	/*p/로부터의 변이음 ‘ㅃ’	종성 ‘ㅃ’의 존재	*p>β>w’의 종료
반치음	/*s/로부터의 변이음 ‘ㅆ’	구개성 변이음	‘s>z’의 종료
합용병서	종성 ‘ㅅ’과 ‘ㅆ’계의 음가	어두자음군 생성 시기	모음 압출의 종료
‘ㄱ’ 약화	‘ㅇ’의 선행 자음 변이음	‘ㄱ’ 약화 시기의 상한	-
‘ㅃ’ 약화		-	-
구개음화	-	민간어원 속 구개음화	‘ㄷ’ 구개음화의 종료

㉠정음 표기 해석의 전제에 대해서는 주로 음소적 표기가 아니라 음성적 표기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있는 지점들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음소적 표기’는 국어학자들이 사후적으로 붙인 원칙이기는 하지만 표기를 해석하는 데에 일관된 시각을 견지하는 일은 중요하다. 필요에 따라 음소적 표기가 아니라 음성적 표기라고 해석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당위가 충분히 해명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자료 해석의 보완 가능성 기준에는 정음 문헌의 표기들과 일부 외국어 사음 자료들을 대상으로 중세·근대 국어의 자음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비교언어학적 관점을 취하거나 문인들의 당대 언어에 대한 분석을 참고해 본다면 당시 언어 사실에 좀 더 근접하게 다가갈 수도 있음을 제안하였다.

㉢음변화 혹은 음운변화의 종료 음변화나 음운변화가 시작되게 된 동인에 대한 설명이 있다면, 음변화나 음운변화가 종료되게 된 동인에 대한 설명도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어떠한 동인이 변화를 촉발하였다면, 그러한 동인이 제거되었을 때에야 변화가 종료되어야 할 텐데, 동인이 유지되는데도 변화가 종료된 현상들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한다. 요컨대,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설명에 그치지 않고 ‘왜 중단되었는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0) ‘ㅆ’의 조음위치 변화가 구개음화를 촉발시켰다면, 그러한 조음위치가 변하지 않은 이상 구개음화의 세력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터이다.

※ 참고문헌

- 고경재(2022), <반치음 ‘△’ 음가 [j] 가설에 대한 검토: 주로 한자음의 관점에서>, 《국어사연구》 34, 196-241.
- 권재선(1977), <합용병서의 음가고>, 《영남어문학》 4, 43-68.
- _____(1978), <중세어 합용병서의 음가속론>, 《영남어문학》 5, 1-24.
- 권인한(1998), 《朝鮮館譯語의 音韻論的 研究》, 태학사.
- 김경아(1990), <활용에서의 기저형 설정과 음운현상>, 《국어연구》 94.
- 김민수(1955), <合用並書 音價論>, 《국어국문학》 13, 10-44.
- 김성규(2009), <중세국어 음운론의 쟁점>, 《국어사 연구》 9, 41-68.
- 김완진(1964), <中世國語 二重母音의 音韻論的 解釋에 대하여>, 《學術院論文集 : 人文·社會科學篇》 4, 大韓民國 學術院, 49-66.
- _____(1972), <다시 β>w를 찾아서>, 《語學研究》 8-2, 서울대학교 語學研究所, 51-62.
- 김주필(1985), <구개음화에 대한 통시론적 연구>, 《국어연구》 68.
- _____(2001), <빙의 [순음성] 관련 현상과 h로의 약화>, 《국어학》 38, 27-54.
- _____(2009), <근대국어 음운론의 쟁점>, 《국어사연구》 9, 69-122.
- 김중진(1996), <중세국어 유음표기 연구-‘ㄹㄹ’과 ‘ㄹㅇ’표기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37, 59-75.
- 김지은(2016), <華夷譯語의 寫音字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2020), <「華音方言字義解」에 담긴 頤齋의 음운론적 인식>, 《국어국문학》 193, 229-259.
- _____(2021), <외래어음운론을 통한 朝鮮館譯語 재고>, 《국어사연구》 33, 149-172.
- 김차균(1984), <15C 국어병서의 음운론적 연구>, 《한글》 183, 3~65.
- 김한별(2019), <‘음절말 /ㅅ/ 불파화’와 ‘용언 어간말 비음 뒤 경음화’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가설>, 《국어국문학》 189, 5-37.
- _____(2011), <순경음 ‘빙’에 대한 통시적 연구 -‘빙’ 약화 규칙의 어휘 확산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형규(1976), 《국어사개요》, 일조각.
- 도수희(1971), <各自並書 研究>, 《한글학회 50돌기념 논문집》, 69-104.
- 문병열(2005), <15세기 국어 “ㅅ”계 합용병서의 음가에 대한 재론>, 《冠嶽語文研究》 30, 27-47.
- 박병채(1973), 《고대국어의 연구: 음운편》, 고대출판부.
- 박창원(1987), <15세기 국어의 음절경계>, 《震檀學報》 64, 205-220.
- _____(1990), <並書>, 《國語研究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169-177.
- _____(1991), <국어 자음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배영환(2011), <중세국어 후음 ‘ㅇ’에 대한 몇 가지 문제>, 《언어학연구》 21, 161-185.
- 소신애(2012), <점진적 음변화로서의 ㅅ > △ >, 《국어국문학》 162, 45-83.
- _____(2012), <국어의 △ > ㅅ 변화에 대하여>, 《진단학보》 114, 51-84.
- 안병희(1957), <중간 두시연해에 나타난 t구개음화에 대하여>, 《일석 이희승 선생 송수기념논총》, 일조각.
- 유창돈(1961), <‘ㄹㅇ’形 語辭考>, 《인문과학》 6,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35.
- _____(1975), 《이조국어사연구》, 이우출판사.

- 이기문(1955), <語頭子音群의 生成 및 發達에 對하여>, 《震檀學報》 17, 187-258.
 _____(1961/1972), 《국어사개설》, 태학사.
 _____(1977), 《국어음운사연구》, 탑출판사.
- 이동석(2004), <『鷄林類事』를 통해서 본 ‘ㄴ’계 합용병서와 ‘ㄴ’>, 《국어사연구》 4, 235-253.
- 이명규(1974), <구개음화에 대한 문헌적 고찰>, 《국어연구》 31.
- 이문규(1995), <합용병서의 음가에 대한 연구사적 고찰>, 《문학과 언어》 16, 81-102.
- 이승녕(1948), <朝鮮語學概說>, 《朝鮮教育》 2-7, 조선교육연구회, 50-58.
 _____(1954), <脣音攷 -특히 脣輕音 『ㄴ』를 中心으로 하여->, 《서울대학교 논문집》(人文社會科學) 1, 40-76.
 _____(1956), <ㄷ音攷>, 《서울대학교 논문집》(人文社會科學) 3, 51-235.
- 이승재(1990), <子音體系 및 中和>, 《國語研究 어디까지 왔나 -主題別 國語學 研究史》, 서울 大學校 大學院 國語研究會 編, 동아출판사, 9-19.
- 이준환(2007), <고유어와 한자어 구개음화의 상관성>, 《국어학》 49, 33-68.
 _____(2021), <중세 국어 /ㄷ/(반치음)의 음성적 실현과 변화의 관계>, 《語文論集》 86, 73-110.
- 장윤희(2019), <한국어사의 시대 구분, 무엇이 문제인가?>, 《국어사연구》 29, 7-32.
- 정연찬(1987), <欲字初發聲을 다시 생각해 본다>, 《국어학》 16, 11-40.
 _____(1997), 《개정 한국어 음운론》, 한국문화사.
- 조운성(2013), <‘ㄷ’의 연구 성과와 과제>, 《국어사연구》 17, 119-132.
- 최현배(1942), 《한글갈》, 정음사.
- 허웅(1953), <竝書의 音價에 對한 反省>, 《국어국문학》 7, 9-15.
 _____(1959), 《國語音韻論》, 正音社.
 _____(1965), 《국어음운학》, 정음사.
 _____(1970), 《옛말본》, 과학사.

중세-근대 국어 모음체계의 연구 성과와 전망

김소영(광운대)

1. 들어가며

Jakobson(1931)은 음운 변화를 음소들 사이의 대립 관계의 변화로 이해하고, 음운화, 비음운화, 재음운화로 음운 변화의 종류를 규정한 바 있다. 음소의 가치는 다른 음소와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며, 음소들 사이의 대립 관계의 합이 체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체계를 기반으로 한 구조주의적 언어 연구 방법은 국어 음운사 연구에서 기본적인 틀이 되어 왔다. 이후 생성 음운론 등의 이론적인 수용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를 기반으로 한 언어 연구 방식은 음운사 연구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왔다고 하겠다.(정승철 2004)

특히 모음 체계는 모음의 역사적인 변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세 국어나 근대 국어¹¹⁾ 시기의 단모음 목록의 변화나 여러 음운 현상들의 발생 동기를 모음 체계상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모음 체계와 관련되는 중세-근대국어의 음운사 연구 현황을 되짚어 보는 것은 두텁게 축적된 국어 모음사 연구 성과들 내의 쟁점을 살피는 것이면서, 동시에 어떠한 모음사적 현상들이 모음 체계와 연동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고는 단모음 체계를 중심으로 중세, 근대국어의 모음 체계 및 모음 체계와 관련되는 쟁점들을 연구사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중세 국어의 경우 전기 중세 국어의 모음 추이 가설과 체계의 문제, 후기 중세 국어의 경우는 모음 조화와 모음 체계와의 관련성 및 ‘縮’ 자질의 해석 문제를 중심으로 살핀다. 근대 국어는 ‘으’의 비음운화, 하향이중모음화의 단모음화 등 단모음 체계의 변동 문제 및 움라우트, 고모음화, 원순모음화와 비원순모음화 등 근대국어 시기의 대립 체계 변화와 연관을 맺을 수 있는 음운 현상 몇몇을 살피고자 한다. 모음에 대한 논의에 있어 각 모음의 음가론, 이중모음 체계 등도 중요한 주제가 되겠으나, 단모음 체계에 대한 논의와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선에서만 언급할 것이다.

2. 중세 국어 모음 체계 연구

2.1. 전기 중세국어의 모음 체계

전기중세국어의 모음체계는 주로 알타이어와의 비교연구, 몽고어 차용어, <계림유사>의 검토를 통하여 설정되어 왔다.(이기문 1969, 1972, 강신항 1980¹²⁾) 훈민정음 창제 이전이기에

11) 국어사의 시대구분은 이기문(1961/1972)을 따른다. 10세기~14세기를 전기 중세국어 시기, 14세기~16세기를 후기 중세국어 시기, 17세기~19세기를 근대국어 시기로 간주한다.

12) 한편 강신항(1980)은 계림유사 자료를 통하여 모음 체계를 살폈는데, 이기문(1969)의 논의와는 다르게 ‘오’와 ‘우’의 음가가 구별되며, ‘우’를 후설 고모음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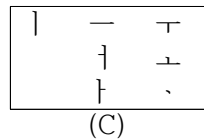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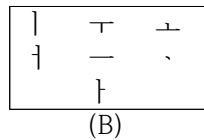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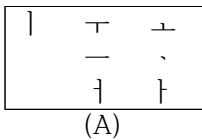
i	ㅓ	u
ə	e	o
a		

자료의 한계가 있으나, 고대 국어와 정음 창제 이후의 후기 중세국어를 이어준다는 점에서, 그리고 모음 체계의 변동과 관련될 수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주목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모음추이설과 관련되는 이기문(1969, 1972)을 대표로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13세기에 국어에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몽고 차용어와 그것에 대한 정음 표기를 대응하여 전기 중세 국어의 모음 음가를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중세 몽고어 ‘o, u’가 몽고 차용어 표기에서 모두 ‘o’로 대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중세국어에 후설 원순 고모음이 u 하나만 있었다고 추론해 내었다.

	1	2	3	4	5	6	7
몽고어	a	o	u	e	ö	ü	i
정음	아	오	우	어	워	우	이

이와 같은 대응을 바탕으로 하여 제안된 전기 중세 국어 모음체계는 아래의 (B)와 같다.



이러한 전기중세국어의 모음체계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체계에 대한 논의가 직접적으로 더 확대, 심화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기문(1969, 1972)에서는 (A) 또는 (B)와 같은 전기 중세 국어 모음 체계가 (C)의 체계로 변화를 겪는다고 보았는데, (A), (B)에서 (C)로의 이동은 ‘모음추이 가설’로¹³⁾ 설명된다. 이처럼 전기 중세 국어의 모음 체계에서 후기 중세국어의 모음 체계로의 이동 과정이 모음추이 가설을 기반으로 직접적으로 관여될 수 있기 때문에,¹⁴⁾ 모음 추이 가설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면 이에 연동하여 전기 중세 국어의 모음 체계를 다르게 이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모음추이 가설’은 14세기 경에 ‘어’의 중설화로 인하여, ‘으’가 상승하고, ‘우’가 후부로 이동하며, ‘오’는 ‘우’에 의하여 하강하여 ‘으’ 역시 하강하여 후기 중세 국어와 같은 모음 체계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가설이다(이기문 1972:117). 이 가설은 몽고어 차용어를 기반으로 하였다는 실체성을 갖추면서도 전기 중세 국어 체계에서 후기 중세국어 체계로 변화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함과 더불어, 이후에 비음운화되는 ‘으’의 불안정성에 대한 일련의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한 가설로 수용되고 있다.

그러나 모음 추이 가설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비판 역시 있어 왔는데, 대표적인 예로 김주원(1993:29-34, 37-63)을 들 수 있다. 김주원(1993)에서는 모음추이가설은 중설화, 후설화, 고모음화, 저모음화가 공존한다는 점, push-chain 만을 가정한다는 점, 모음 추이의 예외가 없다는 점 등에서 일반언어학적 관점에서 부자연스럽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이 모음 대응이

13) ‘모음추이 가설’은 Ramstedt(1949), Poppe(1950, 1960), 河野六郎(1961) 등에서 단초가 제시되었고, 김완진(1963)에서 훈민정음 제자해의 ‘舌縮’을 후설모음으로 해석하고자 모음의 이동을 가정함으로써 국어학계에 처음 소개한 바 있으나, 실증적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가장 본격적으로 제시한 것은 Lee(1964)라고 할 수 있다.(김주원 1993: 19-2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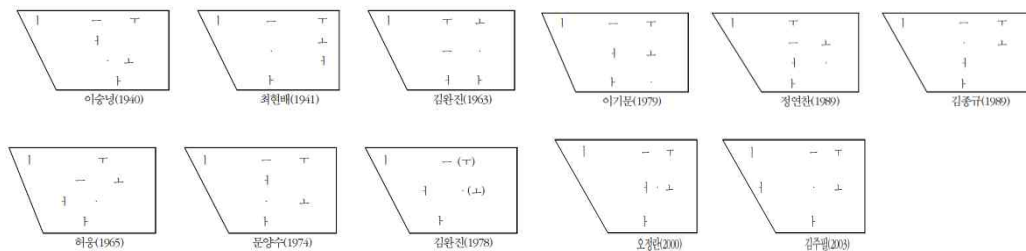
14) 모음추이가 15세기 이전 시기에 이미 완료되었다고 보는 입장은 이기문(1969), 15세기 이후에 일어났다고 보는 입장은 김완진(1963, 1978), 박창원(1986), 백두현(1992), 곽충구(1994) 등이 있다.

13~14세기 몽골어 차용어에 대한 15~16세기의 한글 기록을 바탕으로 하여 수립되었다는 점 등도 문제로 지적하였다.

모음 추이 가설의 실제성에 대한 재고도 이어졌는데, 김주원(1993)에서는 중세 몽골어에서 부터 이어져 내려온 현대 몽골어 어휘를 대상으로 음성 실험을 하여 <u>음이 [o]에 가까움을 보였고, 고경재(2016)에서는 <원조비사>에서 중세 몽골어의 <u>는 [ʊ] 정도의 음가([o]와 [u]의 간음)이며, <ü>는 [u] 정도의 음가를 지녔음을 보였다. 이러한 논의들을 수용한다면 중세 국어에서 /ɯ, ʉ/가 모음 추이를 겪었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이며, 몽골어 차용어 음의 대응을 기반으로 한 이기문(1969)의 전기 중세 국어 체계도 재론의 여지가 생긴다. 모음 추이 가설이 주요한 가설인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한 재고 역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2. 후기 중세 국어의 모음 체계

후기 중세국어의 모음에 대하여는 매우 다양한 모음도가 제시되어 왔다.(이진호 2017:204-205에서 재인용) 그런데 이러한 모음도는 이진호(2017:214)에서도 지적하였다시피, 모음의 음가를 기반으로 한 음성학적 성격에 가까우며, 모음 체계는 단모음들의 대립 관계를 바탕으로 한 음운론적인 성격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음 체계가 모음의 음성값과 아주 무관한 것이 될 수는 없으나, 체계의 관점에서 대립 관계를 기반으로 한 분석과는 어떤 면에서는 구별될 필요도 있다. 본고에서는 생략하겠으나 개별 모음론에서는 주로 ‘으’의 비음운화와 모음간의 음성 간격이 중요한 문제가 되어 왔으며 ‘으’와 ‘어’의 위치가 음가론의 관점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이진호 2017:215 참조)



‘체계’의 관점에서 본다면, 개별 모음의 음가 이상으로 이들이 어떠한 대립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특히 후기 중세 국어는 훈민정음의 모음에 대한 기술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후기 중세 국어의 대립 관계 파악은 훈민정음 제자들의 용어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와 맞물려 있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이에 ‘·舌縮而聲深/一舌小縮而聲不深不淺/ | 舌不縮而聲淺’의 구절에서와 같이 ‘縮’ 자질을 분석하고, 이를 모음 체계를 설정하는 것에 얼마나 적용할 것인가가 관건이었다. 이에 대립 자질로서의 ‘縮’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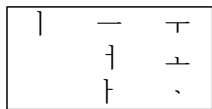
기존 연구의 ‘縮’ 자질 분석(오정란 2000:189-191 참조)

- 가. 혀의 전후 위치(이승녕 1949, 김완진 1963, 강신항 1978, 이근수 1984)
- 나. 혀의 전후 상하 위치(김방한 1964, 송기중 1991)
- 다. 혀와 조음점 사이의 좁힘관계(김영송 1977)
- 라. 혀뿌리의 긴장(최희수 1992)
- 마. 혀뿌리의 수축(김완진 1978, 김주원 1989, 박종희 1983)
- 바. 설근전진([+ATR], advanced tongue root, 박종희 2000)
- 사. 설근후축([+RTR], retracted tongue root, 김주원 1989, 1992, 고성연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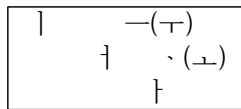
이에 대하여 이진호(2017:219)에서는 중세 국어 단모음 체계를 기술하는 변별적 자질 체계의 확립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는데, 후기 중세 국어 모음의 대립 체계 설정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점으로 보인다. 특히 ‘설축, 설소축, 설불축’이라는 훈민정음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세 개의 항목을 구별하기 위해서 변별적 자질은 두 개가 필요한 셈인데, 기존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그러한 관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하겠다.

한편 모음 조화와 모음 체계의 합치 문제도 중세국어 모음 체계에서 쟁점이 되어 왔다. 모음 조화에서 같은 부류로 작용하는 모음들이 모음 체계 내의 관계에서도 상호 관련성을 보일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고 하겠다.

대표적인 예로 이기문(1968ㄱ, 1968ㄴ, 1969)에서는 구개적 조화를¹⁵⁾ 보이는 터키 몽고 제어에서도 언어 변화가 모음 조화에 반드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들며 모음조화와 모음조화가 반드시 합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 반면, 김완진(1978)에서는 훈민정음 제자해의 ‘縮’을 조음 위치와 개구도를 포함한 ‘혀의 오므림’으로, ‘蹙’을 ‘입술의 둥글’으로 해석하여 모음 체계와 모음 조화가 사선적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기문(1969/1972)



김완진(1963, 1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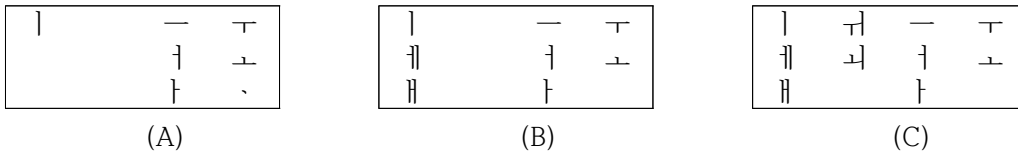
3. 근대 국어 모음 체계

3.1. 모음 체계의 변화

근대 국어 시기의 모음 체계는 대체적인 변화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곽충구 1999)

15) 모음조화에서 대립하는 두 모음 부류를 모음체계 속에서 살피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유형이 나타난다.

- ① 수평적 조화 : 고모음 - 저모음의 대립
- ② 구개적 조화(=수직적 조화) : 전설모음 - 후설모음의 대립
- ③ 사선적 조화 : 대각선에 의하여 나뉘는 모음간의 대립



‘으’가 비음운화¹⁶⁾ 하기 전의 중세국어 모음 체계가 (A)라면, (B)는 ‘으’의 비음운화 및 ‘에, 애’의 단모음화가 일어났으나, 아직 ‘외, 위’의 단모음화는 일어나지 않은 시기로 간주할 수 있다. (C)는 전-후설의 대립, 고저의 대립, 원순-평순의 대립 관계가 형성된 모음 체계로 현대 국어에서도 일부 방언에서는 (C)와 같은 10모음의 단모음 체계를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음 체계를 설정하게 되는 것은 각 단계에서 해당하는 모음이 언제 비음운화, 음운화를 겪었는지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으’의 비음운화 시기는 연구자에 따라 17~19세기로 다양하게 제안되어 왔으며¹⁷⁾, ‘에’와 ‘애’의 단모음화 시기 17세기 말~19세기 사이 정도로 제안되어 온 바 있다.¹⁸⁾ 이와 같이 ‘으’가 비음운화하여 단모음체계에서 소실되는 시점, ‘에, 애’와 ‘외, 위’가 단모음 체계에 편입되는 시점상의 차이가 있을 뿐, 체계 자체에 대한 이견은 없는 편으로 보인다.¹⁹⁾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근대 국어 시기에는 모음 목록의 변화가 상당히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으’의 비음운화를 비롯하여, ‘애, 에’와 ‘외, 위’의 하향이중모음이 단모음 목록에 시기를 달리하여 편입된 것이 그것이다. ‘으’의 비음운화의 경우 체계의 관점에서 살핀다면 중세 국어 시기의 모음 체계 상의 압력 등으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중세 국어 시기에 촉발된 변화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 더하여 ‘애, 에’ 등의 단모음화는 ‘으’의 비음운화에 따른 ‘어’의 후설화가 단모음 체계를 채우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고 언급하는 일이 많다.

직접적으로 체계의 문제는 아니나, 근대 국어 시기의 언어 연구는 문자 형태의 변동 없이 소리값만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근대국어 모음론에서는 표기와 음가가 서로 어떻게 일치하고 일치하지 않는지를 판단해 내는 것이 주요 과제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안병희(1957)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구개음화, 원순모음화, 움라우트 등을 비롯한 여러 근대 국어의 음운 현상들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발생 속도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김주필 2009) 따라서 이와 같이 변화의 시간차를 밝히는 것, 방언별 독자적인 체계 변화를 찾아내는 것 역시 연구의 흐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근대 국어는 중세 국어와는 다른 모음 체계를 보여주게 되는데, 음운 현상의 입력부나 출력부의 관계가 된다는 것은 이들 모음이 서로간에 대립에 의한 체계적 관계가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대 국어 시기에 새롭게 발생한 음운 현상들은 체계 만능주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체계 내적인 관계가 이들 현상을 촉발했을 가능성을 내재한다. 하지만 국어 모음사 연구가 상당 부분 구조주의적인 관점에 기반하고 있기는 하

16) 이기문(1969, 1972)에서는 /으/의 비음운화가 모음추이라는 모음체계의 변화에 의하여, 체계 내의 /으/의 불안정성에 의하여 비음운화 된 것으로 보았다. 김완진(1963)은 /으/의 제1단계 변화는 중화로, 2단계 변화 /·/ > /ㅓ/는 대립관계를 새롭게 이루다가 소멸하였다고 보았다. 백두현(1992)는 제1음절과 제2음절 이하의 위치에 따른 강도가 달라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고 보았다.
 17) ‘으’의 비음운화 시기 가설에 대한 정리는 김한별(2020:116-117)을 참조할 수 있다.
 18) 17세기 말기(허용 1952), 18세기(이승녕1954, 김완진1963), 18세기 초(김주원1984), 18세기 중기(홍윤표1986), 18세기 중엽 이후(백두현1992), 18세기 말(이기문1972), 19세기(허용 1965) 등
 19) 근대 국어 연구에서는 각 방언사 연구를 구축해 오고 있어서, 모음에 있어서 방언 개별적인 차이를 보이는 경우 그러한 특징은 모음 체계에 다르게 반영될 수 있다.

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또 그럴 필요도 없다. 다만 중세 국어를 거쳐 현대 국어의 모음 체계로 이행해 오는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근대 국어의 모음 체계가 중세 국어의 그것과는 차별성을 보이게 되므로, 그러한 모음 체계가 형성되게 되는 절차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중세 국어를 거쳐 현대 국어로 가기 전 전후, 고저, 원순-비원순의 대립 체계를 어떻게 형성하게 되는가가 논점이 된다고 하겠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대립 관계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어 온 움라우트 현상, 원순모음화와 비원순모음화, 고모음화 등을 간략히 살피고자 한다.

3.2. 대립 관계와 음운 현상

(1) 전후 대립과 움라우트

중세 국어의 ‘에, 애’ 등의 하향이중모음은 ‘/əj/>/e/, /aj/>/ε/’와 같이 근대 국어 시기에 단모음화 되어 단모음 체계로 유입된다. 이러한 하향이중모음의 단모음화는 ‘어’모음의 후설화로 인한 전설모음체계의 공백에 의한 것으로 이해되어, 체계의 관점에서 그 동기가 언급되는 것이 보통이다(김완진 1963). 김방한(1964)에서도 체계의 관점에서 단모음화를 다루어, ‘어’의 음가가 전설에서 중설을 걸친 넓은 음역에서 쓰였다고 보아, 이러한 것이 원인이 되어 ‘에, 애’의 단모음화가 일어났다고 보았다. 이처럼 전설모음계열이 모음 체계 내로 유입됨으로써 이른바 전후 대립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문자상으로는 변동이 없는 ‘에’와 ‘애’가 이중모음이 아닌 단모음으로 실현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이다. ‘애’, ‘에’가 하향이중모음에서 단모음으로 변화하였음을 기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든 바 있다.(김봉국 2010:44-47)

- ① ‘여(yə)>에(e)’의 변화(김완진 1963)
- ② 움라우트 현상(이기문 1972, 최명옥 1988, 도수희 1983)
- ③ 비어두음절에서의 ‘이, 애, 에’의 혼기(곽충구 1980)
- ④ 외국어 전사 자료에서 /ay/, /ey/ 등을 ‘애, 에’로 옮긴 것(허웅 1985) 등.

이 중 움라우트 현상은 ‘으’의 비음운화,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현상과의 선후 관계 문제를 따지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현상으로 언급되어 왔다. 일찍이 단모음 /e/, /ε/가 형성 이후에야 ‘익기는, 디리고’와 같은 움라우트 현상이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고 본 연구들이 적지 않았다(이기문 1961/1972, 김완진 1963, 이병근 1970_L 등). 근대국어에서 ‘아’, ‘어’의 움라우트 현상은 18~19세기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는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현상이 ‘으’의 비음운화와 ‘아’, ‘어’의 움라우트 현상 발생 사이의 시기로 생각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단모음 /e/, /ε/가 형성 이전에도 움라우트 현상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단모음 형성 전에는 움라우트 현상이 적용되면 ‘[əy], [ay]’로 실현되고, 단모음 형성 이후에는 단모음 ‘[e], [ε]’로 실현된다는 것이 그것이다.(최명옥 1980, 한영균 1980 등) 이와 같은 관점에서는 움라우트가 전설 단모음 체계의 확립의 증거로 사용되기가 곤란해 진다고 할 수 있다.

같은 현상에 대하여 최전승(1978)의 경우는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과정에서 활음이 삽입되고, 이 활음에 의하여 'ə>əʷ>e, a>aʷ>ε'와 같이 전설성 동화가 일어난 것이 이중모음의 단모음화가 일어나게 된 배경으로 이해하였으며, 신승용(2003) 같은 경우는 음소 확립 전에 음성층위에서의 움라우트가 가능하다고 보아, 움라우트를 전설 단모음 계열의 확립의 증거로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2) '외, 위'의 단모음화

'애, 에' 외에도 전설 단모음 체계로 유입된 '외, 위' 역시 단모음화의 과정이나 단모음화의 시기에 있어서 쟁점이 되었다. 이병근(1970:378-379)에서는 19세기 후기 모음체계를 논하면서 'o'와 'u'의 움라우트형인 'oi'와 'ui'는 두음이 '스, 썸, 즈, 츠, 디'일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아직 전설 단모음이 되지 못하고 전설적 변이음일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태도는 신승용(2003)의 입장과도 유사한데, 음소로 확립되지 못한 변이음 단계에서의 음운 현상의 성격 역시 이 논의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 위'는 단모음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은 이들의 단모음화 과정에 대한 것인데, 아래에서와 같이, 하향이중모음이 단모음으로 먼저 바뀐 후 상향이중모음이 된다는 입장과, 하향이중모음이 상향이중모음으로 바뀐 후 단모음이 된다는 입장이 공존한다. 이 경우 백두현(1992)에서와 같이 '외'와 '위'의 방향을 다르게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wi>ü, we>ö의 과정을 설정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가 현대 국어 방언에서 확인되기 때문이다. 하향이중모음의 변화 과정에 있어서 uy>wi의 직접 변화는 음운론적으로 부자연스럽다(백두현 1992, 정인호 2004) 등의 여러 근거들이 있으나 이 절차에 대하여는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uy>ü>wi, oy>ö>we : 최명옥(1982, 1986), 박창원(1983), 최임식(1984)
 uy>wi>ü, oy>we>ö: 서보월(1992), 최전승(1986, 1987), 한영균(1995)
 uy>wi>i, oy>ö>we: 백두현(1992)

이처럼 이러한 변화 과정 중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외', '위'의 단모음화 시기를 다르게 설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최명옥(1986)에서는 19세기 후기 서북방언의 'oi, ui'는 '[we].[wi]'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 이 방언에 단모음 /ö/. /ü/가 없고, 이들 모음의 단모음화는 19세기 후기보다는 더 이른 시기에 일어났다고 보았다. 물론 방언에 따라 모음 체계가 같지 않으며, 모음의 변화 과정이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나, '외', '위'의 단모음화는 그러한 추가적인 문제를 더 안고 있다.

(3) 고저 대립과 고모음화

고모음화는 중모음 '오, 어, 에'가 각각 고모음 '우, 으, 이'로 상승되어 두 모음이 합류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오>우'는 보통 비어두에서의 현상으로 16~17세기에는 '오~우'의 상호교체가 빈번하게 일어났으며(전광현 1967:86), 18세기 후기에 형태소 내부에서 '오>우'의 변화가 광범위하게 일어난다.(곽충구 1980:90-91) '어>으'는 음장을 가진 어두의 '어'에 적용되며 19세기 즈음의 현상이라고 알려져 있다.(백두현 1997:13) 이들 현상은 '고모음화'라고 통칭되나 각각의 현상이 모두 동일한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음체계상으로는 중모음에서 고모음으로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동

기가 고저 대립의 형성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경우는 고모음화가 고저 대립의 확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나, 그 성격을 더 분명히 할 필요가 보인다.

<p>모음 체계와 관련된다고 보는 입장</p>	<p>조창규(1996): ‘오~우’ 교체는 ‘으’의 비음운화로 인해 순음성을 상관징표로 하는 ‘으:오’ 대립 관계가 와해됨에 따라 대립쌍을 잃은 ‘오’가 동요함. 한영균(1990): 설축자질을 기반으로 한 상관적 대립이 약화된 결과 백두현(1992): ‘오>우’의 원인은 모음체계의 대립관계 재조정으로 인한 고저대립의 불안정성의 영향임. 유필재(2003): ‘어’와 ‘으’, ‘에’와 ‘이’가 대립쌍을 이루어 [고설성]에 의한 자연부류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 유소연(2018)</p>
<p>기타 원인으로 보는 입장</p>	<p>이병근(1970:379): ‘으’와 일정한 안전간격을 지키지 못하여 고성익(2003): 모음조화의 붕괴 강희숙(1999) 16~17세기 ‘오~우’의 상호 교체가 18세기에 비어두 위치에서 어휘 확산화됨. 정인호(2006): ‘오>우’의 변화는 제2음절 위치가 음성적인 모음상승과 관련</p>
<p>모음 체계+기타 입장</p>	<p>백두현(1997): 모음 체계의 변화와 조음의 후반부에 개구도가 좁아지는 음성학적 기제와 관련</p>

백두현(1994)에서는 고모음화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고저가 여러 모음들을 대립쌍으로 삼는 상관징표로서 확립되지 못하고, 모음체계상 제한된 지위에 머무는 데 그치게 된’다고 평가하였다. 고모음화의 음운론적 성격과 체계와의 관계성이 더 분명해지면 좋을 듯하다.

(4) 원순성 대립과 원순모음화/비원순모음화

원순모음화는 ‘물>물, 붉->붉-’에서와 같이 양순자음 아래서 ‘으>우’의 변화를 보이는 17세기의 음운 현상이다. 원순모음화는 ‘으’와 ‘우’가 후설고모음의 원순성에 의한 대립의 짝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흔히 이야기한다.

한편 원순모음화와 반대 방향인 ‘먼저>몬져’, ‘보리>버리’에서와 같은 ‘비원순모음화’ 역시 ‘어’와 ‘오’가 원순성에 의한 짝임을 의미한다. 이병근(1970L:387)에서는 ‘으’의 비음운화 이후 단모음 ‘어’의 이동에 따라 ‘으’와의 안전간격이 넓어지고, ‘오’와 원순성에 의하여 대립의 짝을 이루게 된 후에야 비원순모음화가 가능하였을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남부 방언에서의 ‘으>오’에 대하여 이러한 변화 역시 원순성의 대립으로 인한 음변화로 이해하는 것이 보통이다.(이승재 1977, 백두현 1992) ‘으’와 ‘우’가 원순성 대립에서의 짝이듯, ‘으’와 ‘오’도 그러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다만 ‘으>우’가 중앙 방언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난 것과 달리 ‘으>오’의 변화는 남부 방언 자체의 독자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하여 백두현(1992)은 ‘으>오 방언에서 원순모음화 규칙은 강한 규칙이고, ‘으>오’가 일어나

지 않는 방언에서 원순모음화 규칙은 상대적으로 약한 규칙'이라고 분석하였다.

4. 나가며

국어 모음사 연구 성과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축적되어 있어 그 면모를 다 살피기는 어려웠으나, 체계 중심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중세·근대 모음 연구에서 중요한 지점이 되었던 부분을 되짚어 보았다는 것을 의의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신항(1980), <<계림유사 고려방언 연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강희숙(1999), '오>우' 변화의 수행과 확산, 국어학 33, 국어학회, 99-123.
- 고경재(2017), 국어 모음추이의 시기와 원인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어학 75, 한국어학회, 45-74.
- 고성연(2010), 중세국어 모음체계의 대립 위계와 그 변화, 언어학 56, 한국언어학회, 87-118.
- 고성연(2020), 근현대국어 모음체계의 대립위계와 그 변화, 언어학 87, 한국언어학회, 3-33.
- 고성연(2020), 근현대국어 모음체계의 대립위계와 그 변화, 언어학 87, 한국언어학회, 3-33.
- 고성익(2003), 18세기 후기 경기 방언의 모음체계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 곽충구(1980), 십팔세기 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곽충구(1990), 원순모음화와 비원순모음화,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84-94.
- 곽충구(2003), 현대국어의 모음체계와 그 변화의 방향, 국어학 41, 국어학회, 59-91.
- 김방한(1964), 국어모음체계의 변동에 대한 고찰, 동아문화 2,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29-80.
- 김봉국(2010), 하향이중모음의 연구사, 정승철·정인호 공편, <<이중모음>>, 태학사, 33-52.
- 김성규(2009), 중세국어 음운론의 쟁점, 국어사연구 9, 국어사학회, 41-68.
- 김영진(1990), 모음체계,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55-67.
- 김완진(1963), 국어 모음체계의 신고찰, 진단학보 24, 진단학회, 64-99.
- 김완진(1971), <<국어 모음체계의 연구>>, 일조각.
- 김완진(1978), 모음체계와 모음조화에 대한 반성, 어학연구 14-2, 서울대 어학연구소, 127-139.
- 김완진(1985), 모음조화의 예외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 6,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22.
- 김주원(1993), <<모음조화의 연구>>, 영남대 출판부.
- 김주필(2003), 후기 중세국어의 음운현상과 모음체계, 어문연구 31-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5-30.
- 김주필(2009), 근대국어 음운론의 쟁점, 국어사연구 9, 국어사학회, 69-122.
- 김한별(2020), 19세기 전기 국어의 음운사 연구, 국어학총서 79, 태학사.
- 박종덕(2005), <<경상도 방언의 모음체계 변천사>>, 박이정.
- 박종희(1983), <<국어음운론 연구>>, 원광대 출판국.
- 백두현(1988), '으, 오, 으, 우'의 대립관계와 원순모음화, 국어학 17, 국어학회, 177-202.
- 백두현(1992), <<영남 문헌어의 음운사 연구>>, 태학사.
- 백두현(1997), 19세기 국어의 음운사적 고찰 - 모음론, 한국문화 20,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47.
- 석주연(1996), 중세국어 원순성 동화 현상에 대한 일고찰, 관악어문연구 21,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217-228.

- 송기중(1991), 이론적 측면에서 본 15세기 국어의 ㆍ음, 모음체계, 모음조화, 국어학 21, 국어학회, 79-101.
- 송민(1975), 십팔세기 전기 한국어의 모음체계, 논문집 6, 성심여대.
- 신승용(2003), <<음운 변화의 원인과 과정>>, 태학사.
- 오정란(2000), 중세 국어 모음체계의 대립과 조정양상, 한국어학 12, 한국어학회, 187-212.
- 유소연(2018), ‘어→으’ 고모음화의 발생에 대하여, 국어학 85, 국어학회, 333-367.
- 유필재(2003), 서울지역어의 음운변화 몇 가지, 서울말연구2.
- 이기문(1963/1998), <<신정판 국어사 개설>>, 태학사.
- 이기문(1968ㄱ), 모음조화와 모음체계, <<이승녕박사송수기념논총>>, 을유문화사.
- 이기문(1968ㄴ), 조선관역어의 종합적 검토, 서울대 논문집 14.
- 이기문(1969), 중세국어 음운론의 제문제, 진단학보 32, 진단학회, 131-150.
- 이기문(1972), <<국어음운사 연구>>, 탑출판사.
- 이기문(1979/1998), 중세국어 모음론의 현상과 과제, 동양학 9,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3-36.
- 이병근(1970ㄱ), 경기지역어의 모음체계와 비원순모음화, 동아문화 9,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151-167.
- 이병근(1970ㄴ), 19세기 후기 국어의 모음체계, 학술원논문집 9, 대한민국학술원, 375-390.
- 이병근(1976), 19세기 국어의 음운체계와 모음조화, 국어국문학 72·73, 국어국문학회, 1-14.
- 이승녕(1940), ‘ㆍ’음고, 진단학보 12, 진단학회, 1-106.
- 이승녕(1949), ‘예, 애, 외’의 음가변이론, 한글 106, 한글학회.
- 이승녕(1949), 모음조화 연구, 진단학보 16, 진단학회.
- 이승녕(1954), 15세기 모음체계와 이중모음의 Kontraktion적 발달에 대하여, 동방학지 1.
- 이승재(1977), 남부 방언의 원순모음화와 모음체계, 관악어문연구 2,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401-420.
- 이진호(2013), ‘으’의 음가론, 국어사 연구 17, 국어사학회, 133-164.
- 이진호(2017), 훈민정음의 모음, 관악어문연구 42,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5-238.
- 정승철(2004), 음운사 연구에서의 언어 변화 이론의 수용과 전개, 국어학 43, 국어학회, 407-428.
- 정연찬(1999), <<개정 한국어 음운론>>, 한국문화사.
- 정인호(2006), 제2음절 이하의 ‘으’ 변화에 대한 일고찰, 진단학보 101, 진단학회, 341-357.
- 조창규(1996), 18세기 중엽 이후 전남 방언의 모음 상승과 모음 중화, 국어국문학 116.
- 최명옥(1980), <<경북 동해안 방언 연구>>,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 최전승(1975), 중세국어에서의 이화작용에 의한 원순성 자질의 소실에 대하여, 국어연구 33, 국어연구회.
- 최전승(1978), 국어 i-umlaut 현상의 통시적 고찰, 국어문학 19, 전북대학교.
- 최전승(1990), 움라우트,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95-108.
- 최태영(1990), 모음조화,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68-76.
- 한영균(1990), 모음체계의 재정립과 ‘ㆍ’의 제2단계 변화, 애산학보 10, 애산학회, 85-109.
- 한영균(1994), 후기 중세국어의 모음조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한영균(1996), 모음조화의 붕괴 유인에 대한 재검토, 울산어문논집 11, 울산대 국문과, 113-142.
- 허웅(1965), <<국어음운학>>, 정음사.
- Jakobson, R.(1931), Principles of Historical Phonology, Keiler, A.R.(1972), A Reader in Historical and Comparative Linguistics, Holt, Rinehart&Winston, 121-138.

중세국어 성조 체계와 율동규칙, 성조 방언과의 대비

임석규(원광대 국어국문학과)

1. 들어가며

중세국어의 성조는 몇 가지의 큰 논점으로 정리된다.

- 1) 성조소 상성의 문제
- 2) 율동 규칙의 문제
- 3) 성조 소멸의 문제

중세국어 성조의 성격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이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대 방언에서 나타나는 성조 현상도 참고하기로 한다.¹⁾

2. 상성의 성조소 인정 여부

중세국어를 평판조(H, L)만을 가진 2성조체계를 보는 관점이 있고 상성을 포함해 3성조소체계(H, L, R)로 보는 관점이 있다. 주지하듯이 이 두 주장은 상성(R)을 기저성조로 인정하느냐와 인정하지 않느냐와 관련되어 있다. 두 가지 주장을 아래에 제시한다.

① 상성을 기저성조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저고복합조(하야육량 1951, 이기문 1960, 정연찬 1960, 김성규 1996)

하야육량(1951: 104-107)은 상성의 저고복합조설을 처음 제기하면서 14가지 예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 (1) 가. :그, 부:테·라, 그:디, 문:제·오, 다·아~:다²⁾
나. :덥-(더·븐³⁾)...

1) 중세국어 자료는 김완진(1973/1977), 김성규(1994), 차재은(1997/1999)에 의지한 것이 많고 방언 자료는 임석규(2007), 임석규(2019)에 의지한 것이 많다. 발표 준비가 늦은 관계로 논저들을 일일이 참고하지 못해 아쉬울 따름이다. 발표장에서 몇몇은 보완하기로 한다.

2) ‘다·아’는 월인석보에서 가져온 것이다. 福이 다·아 衰후·면(월석 1, 21b)

3) ‘:덥-’을 포함하여 율동적 상성의 예가 9가지 제시되어 있는데 ‘:갓·븐, :갓·갑고’를 통해 ‘:갓·븐→:갓’과 같이 저고복합조로의 변동을 간단히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차재은(1997/1999)는 활용어간에만 나타나는 율동적 상성과 달리 고정적 상성은 곡용 어간에도 나타나므로 상성을 기저성조로 인정하는 입장을 취한다. 이문규(2007)에서도 현대 여러 방언의 상승조의 음가를 토대로 상성을 기저성조로 인정한다.

주지하듯이 (1)에 제시된 예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 (2) 그+ㅣ → :긔
- 부터+ㅣ ·라 → 부:테·라

평성 어간에 주격 조사 또는 지정사가 결합한 ‘-이(X)’ 환경에서 평성과 거성이 결합하여 상성으로 실현되어 있다. 또 ‘가·히(평거)’가 현대 중부방언에서 장음 ‘개:’로의 실현도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기문(1960), 이기문(1977)에서는 해례 합자해의 ‘和而擧’를 통해서 용례 ‘부:테’, ‘막다·이>막:대’, ‘가·히>:개’ 등을 통해 저고복합조설을 주장하였다.⁴⁾ 정연찬(1960), 정연찬(1976)에서는 위에 제시된 부류를 포함해 ‘:제’, ‘:뉘’ 등 대명사류의 성조를 다양하게 검토하면서 저고복합조설을 주장하였다.⁵⁾

② 상성을 기저성조로 인정하는 경우: 허웅(1955), 김차균(1977/1980), 김무식(1993), 이문규(2017), 차재은(1997/1999)

김차균 교수의 여러 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상성이 모두 축약에 의한 것은 아니며, 상성이 평성에서 시작하여 거성까지 이르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전자는 재음소화 문제와 관련되는데, ‘놓+지’에서의 유기음화된 ㅈ에 근거하면 ‘치-’에서의 ‘ㅈ’도 ‘ㅈ+ㅎ’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⁶⁾ 후자는 상성이 ‘뭇 노푼 소리’까지 이르지 않는다는 것과 관계된다.⁷⁾ 축약에 의한 상승조가 이미 존재해 있던 상성의 음가와 비슷하기에 두 점을 짚은 것이며 하강조로의 축약은 하강조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불가능했다고 한다.

어떤 주장이 타당한지 적극적인 논거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이 현재 필자의 입장이지만 현대 방언으로 잠시 눈을 돌려 보기로 한다. 방언에서도 같은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남방언의 경우, 체언을 비롯한 형태소 내부에서는 중세의 상성 소릿값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활용에서 상성에 근접한(?) 소릿값이 확인된다.

- (3) 보+아도→바~도~바'도(HL)

함경도 방언에서도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상성에 근접한 소릿값을 확인할 수 있다.

- (4) 뛰고(LH), 똬~서

4) 김성규(1996)의 근거도 크게 다르지 않다.
 5) 김완진(1973/1977)에서는 상성의 음가에 대해 음운론적으로는 저고복합으로 볼 수 있지만 음성적으로는 저고 병치와 차이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또 최세진 훈몽자회 범례의 ‘기리 혀 나중 들티는 소리(원문: 厲而擧)에 대해 음운론적으로는 잉여적 장음이지만, 음성적으로는 의의 있는 기술임을 말하고 있다. 김차균(2010)에서는 ‘기리 혀 나중 들티는 소리’에 대해 상성 음가의 변화로 파악한다.
 6) ‘찌-’와 ‘짙+지→지찌’에서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7) 평성의 ‘뭇 노푼’이라는 표현도 고려하건대 상성을 ‘뭇 노푼 소리’에서 시작하여 ‘뭇 노푼 소리’까지 이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매고(LH), 매~서

이런 경우는 보상 작용으로 생겨난 저고복합조로 판단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거나 이 또한 만만치 않다. 그 소릿값이 저조에서 시작하여 고조까지 이르느냐의 문제가 다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형태소 내부에 그러한 소릿값이 없기에 이는 '바'도(HL)로 실현되기도 하고⁸⁾ 더러는 '하강하는 음조'로 실현되기도 한다.

경북방언의 경우 형태소 내부에서도 상성의 소릿값 '말~(馬)'이 확인된다. 물론 형태소 경계에서도 확인된다(봐~도). 이 경우가 중세어의 상성 실현과 일치한다. 이때의 소릿값을 저고복합조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일견 상승가락을 L·H 복합조로 파악하는 것이 간결한 기술일 수 있다.

(5) 가. 말(語)+이→마~리'(RH? L·HH?)

나. 말(斗)+이→마~리'(HH, 뽕틀형 고조: HH, HHL, LHH, LLHH, LLHLL 등)

cf. 말(馬)+이→마~리(HL, 봉우리형 고조: LHL, HL, LH, LHL, LLHLL 등)

(5나)에 제시된 둘째 음절의 고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R보다는 L·H가 나아 보인다. 상승가락 다음에도 고조가 놓이고 고조 다음에도 고조가 놓이는 것을 간결하게 설명하는 방식이 RH 배열제약과 HH(뽕틀형 HH) 배열제약을 묶는 방식이다.

그러면 성조 배열 제약이 (7)에서처럼 둘로 줄어들 수 있다.

(6) 가. H(봉우리형) 관련 제약 : - HL

나. H(뽕틀형) 관련 제약 - HH

다. R 관련 제약 - RH

(7) 가. H(봉우리형) 관련 제약 - HL

나. H(뽕틀형) 관련 제약 - L·HH, HH

봉우리형은 H가 하나인 반면 뽕틀형은 L·HH, HH에서 보듯이 H가 둘이다. 그러면 R 다음에 H가 배당되는 것은 그 R이 다른 아닌 저고복합조이되 이때의 고조는 뽕틀형 고조라는 것이다. 이상은 간결성을 추구하는 방식인바, 필자로서는 더 이상 명쾌한 방식을 내놓을 수 없는 실정에 있다. 다만 저고병치된 단음절은 저조에서 시작하여 고조(뽕 노푼 소리)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정도로 판단할 뿐이다.

중세국어의 거성불연삼 율동규칙을 설명하는 데에도 저고병치설은 유리하다. 먼저 상성이 없는 경우의 율동규칙 적용례를 보도록 한다.

(8) 마투리니(평거평거, 석보상절 19:16)

cf. 머그료(평거거, 석보상절 23:41)

8) 다른 관점으로 '바'도'의 표면성조를 이해할 수도 있다. '갔'다, '가'도'를 기준형으로 관련 동사(중세의 후의적 성조형 동사)의 성조 패러다임을 일치시킬 수도 있다. 그러면 '뻗'다, '뻗'도'로 실현되는 것도 이해될 수 있다.

‘마투리니’는 기저성조끼리 통합되면 LHHH가 예상되지만 여기에 거성불연삼 율동규칙이 적용되어 LHLH로 실현된다.

- (9) :업스·며(상평거, 월인석보 9:10)
- :어드·며(상평거, 월인석보 9:9)

(9)에 제시된 두 예는 기저성조끼리 통합되면 RHH가 예상되지만 RLH로 실현된다. 여기에는 R을 L·H로 파악하면 설명이 매우 간결해진다. 즉 어간 L·H에 어미 HH가 결합하면 세 거성이 올 수 없으므로 끝에서 둘째 음절이 평성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거성불연삼 율동규칙이 적용된 것이다.

- (10) 가. L·HHH → L·HLH
- 나. RHH → RLH

(10나)처럼 상성을 독립된 성조소로 파악할 경우, 상성(R)에 관한 율동제약을 간략하게 기술하기가 어려워진다. 셋째 음절이 H이면 둘째 음절은 고조여야 하고 셋째 음절이 저조이면 둘째 음절은 고조여야 한다는 식으로 기술해야 하니 다소 복잡한 기술이 요구된다 하겠다. 체언의 예를 들어 보자.

- (11) 가. :사·꺄미·며(석보상절 23: 25b)
- 나. :사꺄·미(석보상절 6: 21a)

(11가)의 RHLH(:사·꺄미·며)에서는 거성불연삼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다만 RLH(:사꺄·미)에서는 거성불연삼을 쉽게 인식할 수 없게 된다. 이를 병치된 L·H로 파악하면 L·HHH → L·HLH와 같이 거성불연삼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이상에서 중세국어의 성조 체계에 대해서는 변죽만 올렸다. 다만 김완진(1973/1977)의 언급을 재생산하여 음운론적으로는 저고의 병치, 음성적으로는 상승조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현대 방언에서 ‘다음(HL)~담(H·L, F)’이 음성적으로 일치하지 않음도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경상도 방언을 토대로 상성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도 있다. 문효근(1963/1974)에서는 상성을 중간 높이의 긴 소리로 파악한다. 그러면 경북 방언은 음장과 성조를 함께 지니는 것으로 파악해야 할 텐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⁹⁾ 현대 음장 방언은 비어두에 장음이 실현될 수 없지만 경북방언은 비어두에서도 장음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단지 하강의 가락만이 아니라 상승의 가락도 비어두에서 실현된다.

하강 가락이 비어두에 올 수 있다는 것은 일찍이 인정되어 왔다.

- (12) 막히^고, 바꾸^고, 다리^(다른+이), 그다^미(그+다음이)

이들 예는 모두 저조로 시작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상승 가락 또한 비어두에서 실현되는데

9) 상성이 장음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저조복합의 성조가 사라지니 자연스럽게 그 저고복합에서의 잉여적 장음이 남은 것이다(이기문 1977: 153).

이 또한 모두 저조로 시작한다.(임석규 2007).

(13) 퍼담~꼬', 가봐~라', 드리밀~고'

방언에서의 복합조의 문제를 바탕으로 중세국어의 상성에 접근해 보자. 하강 가락이 두 음절로 표기될 수 없음을 아래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고저복합조를 음운론적으로 단음절로 파악해야 한다는 근거이다.

(14)의 예, 각각에 상승조를 지닌 부사 ‘못’을 그 앞에 결합시키면 그 기식군의 표면성조는 (15)와 같이 나타난다. 저조로 시작하는 경우가 아니기에 상승조나 하강조는 비어두에서 실현되지 못한다.

- (14) 가. 산'다'(賈)
- 나. 산~다(生)
- 다. 째'다'(包, 尿)
- 라. 째^다(切)

- (15) 가. 모~째다(賈)
- 나. 모~째다(生)
- 다. 모~째다(包, 尿)
- 라. 모~째다(切)

하강조는 음성적으로는 약간의 하강을 보이는 음인 것이다. 고저병치나 저고병치를 음성적으로는 약간의 하강이나 약간의 상승으로 파악하고 음운론적으로는 고저나 저고가 병치된 단음절로 파악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중세국어의 상성도 ‘못 늦궂븐’에서 출발하여 ‘못 노뻘’에 이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3. 율동규칙

김완진(1973/1977)에서 종합된 중세국어의 율동규칙은 김성규(1994), 차재은(1997/1999)로 이어지면서 예외에 대한 설명이 다각도로 검토되었다. 율동규칙을 자세히 검토하기보다는 율동규칙의 강력한 영향 위주로 살펴보기로 한다.¹⁰⁾

율동규칙은 일반적으로 거성불연삼과 어말평성화로 대별된다.

김성규(1994)에서는 첫 거성의 위치만 알면 나머지 음절의 성조는 자동으로 예측된다고 하였다. 율동규칙 거성불연삼은 다음과 같은 논리이다.

- 거○○ → 거평거
- 거○○○ → 거거평거

10) 차재은(1997/1999)에서는 기존의 율동규칙을 보완하기 위해 중세국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네 가지 율동규칙을 마련하였다. 그들 율동규칙 간의 선후 관계도 제시하였다. 시간 관계상 발표장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 거○○○○ → 거평거평거
- 평거○○ → 평거평거
- 평거○○○ → 평거거평거
- 평거○○○○ → 평거평거평거
- 상○○ → 상평거
- 상○○○ → 상거평거
- 상○○○○ → 상평거평거

‘거○○○○ → 거평거평거’, ‘평거○○○○ → 평거평거평거’ 등을 통해서 말음절에는 거성이 그 바로 앞 음절에는 평성이 놓이면서 이른바 ‘풍당풍당’ 성조 연쇄가 보인다.¹¹⁾

아래에서는 율동규칙이 강력했음을 보여 주는 몇몇 예를 제시하기로 한다.

김성규(1994)에서는 율동규칙의 예외로 ‘뉘읏-’을 중요시하고 있다. ‘뉘읏치니이다’는 상성으로 시작하는 어사이기에 ‘상○○○○○ → 상거평거평거’가 기대되지만 ‘상평거거평거’로 실현된다. ‘뉘읏-’의 15세기 활용형을 고려할 때 둘째 음절은 고정적 평성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이 16세기 문헌에 이르면 둘째 음절에 거성이 확인된다. 이는 그만큼 율동규칙이 강력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의존명사가 결합된 구성은 일반적으로 율동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 (16) 뽕#씨라(거#거거, 훈민정음언해 3)
- 넝#씨니(상#거거, 석보상절 24: 2)

그런데 남명집언해에서는 ‘부릴시라(평거평거, 남명집언해 상 31)’, ‘업슬시라(상평거평, 남명집언해 상 23)와 같이 율동규칙을 따르고 있다.

같은 문헌 속에서도 율동규칙을 따르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 (17) 가. 어려우니라(평거평거거, 법화경언해 3: 29)¹²⁾
- 나. 어려우니라(평거거평거, 법화경언해 4: 141)

(17가)는 끝에서 둘째 음절이 거성이기에 율동규칙의 예외로 처리된 것이지만 (17나)는 율동규칙의 틀 속에 편입된 예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율동규칙이 강력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15세기의 ‘어마님은(거평상)’은 율동규칙으로 설명될 수 없다.¹³⁾ 둘째 음절이 고정적 평성이

11) 이를 현대방언성조와 관련지어 무점인 경우는 거성으로 보자는 연구자도 있었다. 거성 사이 음절을 모두 거성으로 본다면 ‘평거평거평거’인 경우 넷째 음절에 1점을 굳이 새길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12) 후자의 셋째 음절 평성에 대해서는 ‘#ㄴ#이라’와 같이 휴지를 재구하여 설명한다. 이렇듯 휴지를 통해 율동규칙의 예외를 설명하는 것으로는 ‘가시느니라’, ‘뫼우시리여’, ‘뫼스북니’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기원적인 동명사형 ‘-ㄴ’, ‘-ㄹ’ 뒤에 휴지를 재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뫼스북니’는 ‘-습-’의 기원적인 어간 ‘습-’의 성조와 관련짓고 있다. 이들은 하나의 어절 안에서 첫 거성이 주어져도 이후에 오는 형태소가 무엇인지 참조하지 않으면 그 기식군의 전체적인 성조를 예측할 수 없게 한다. 마치 경남 동부방언에서 보이는 나생이(LHL)+부터라도(HLLL)→나생이부터라도(LHHLLL)와 같이 3음절이 고조로 변동한 것은 후행하는 첫 고조의 위치가 참조되는 것과 비슷한 유형으로 보인다. 고조 사이의 음절이 고조로 바뀐다(저조로 시작하는 경우).

다. ‘어마’에서 비모음조화도 확인되는데 16세기 들어 ‘어머님(거거거)’, ‘어머님(거거상)’과 같이 실현되기도 한다. 더 이상 둘째 음절이 고정적 평성이라 할 수 없게 되었다. ‘어마님은’은 율동규칙에 따라 ‘거거평거’로 실현되기도 하는데 이는 단일어와 같은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고 한다. 율동규칙의 영향하에 들어온 것이다.

관형사형 어미가 포함된 음절의 평성화는 허웅(1955)에서 시작된바 그 본격적인 서술은 김완진(1963)에서 이루어진다. 초기한글문헌부터 어말평성화는 확인되고 그 이전 시기에 이미 어말평성화는 시작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아래의 자료는 이문규(2017)에서 가져온 것이다.

- (18) 다스롤(LHL) 마리며(RLH)(석보상절 19:24)
쏘신(HL) 살이(HH)(월인천강지곡 40)
골(L) 업슨(RL) 증을(RH) 중에(월인천강지곡 188)
도흐신(RHL) 相이시니(HHLH)(월인석보 2: 55)

관형사형의 말음절은 고조로 실현되어야 하나 저조로 실현되어 있다. 이런 관형사형에서 어말 평성화는 다른 환경으로 확대되었는데, 이에 대해 김완진(1973/1977)에서는 1480년대에는 어말평성화가 거의 모든 현상들에 적용되는 의무적인 규칙으로 승격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두 율동규칙은 성조 혼란을 불가피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4. 성조 소멸

주지하듯이 중세국어의 성조는 현재 중부방언에서 그 자취를 감추었다. 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큰 난제이다.

이기문(1972/1977: 152-153)은 번역소학이나 여씨향약언해에는 방점에 상당을 혼란을 보여 주고 이후 16세기 중엽에서부터 문온역이해방(分門瘟疫易解方)에서는 혼란이 극심해진다고 하였다. 이 시기 신증유합이나 석봉 천자문에는 방점이 표기되지 않았기에 성조는 늦잡아도 16세기 중엽에 소실된 것이라 하였다. 김완진(1973/1977)에서는 중세국어의 율동규칙이 여간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자료, 그래서 여간의 성조가 흔들리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한 성조 소멸 시기를 확정하는 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한다. 바로 이 단계가 있어야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는 것이다. 이른바 방점 표기 여부로는 성조 소멸 시기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어떤 논자는 중세국어는 성조 언어가 아니었다고 한다(최명옥 2020). 그 근거로 성조가 100년 사이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극로 선생의 100년 전 발화와 지금의 의령 말의 성조 체계 및 현상이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김차균 교수의 논의를 참고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인다. 허웅(1955)은 15세기부터 경상도 방언과 중부방언은 성조가 다르다고 보는

13) 어미에도 기저성조를 설정하고 중세국어를 설명할 수 있는 방식도 기대된다. 다음은 형태론적 정보가 필요한 예외형으로 설명한다(김성규 1994). 기저성조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조사의 기저형을 인정해야 하는 자료로 파악된다.

일마다(상상평, 용비어천가 1)가지마다(거평상거, 석보상절 6:30)

머끓 덜만덩(평거거상거: 월인석보 8:8)

cf. ‘우리돌히(거거거거)’, ‘나라돌해(평거거거)’를 통해 ‘들’ 앞에 휴지를 재구하기도 한다.

관점이다. 500년 사이에 고저를 가진 어사가 저고를 가진 어사로 바뀌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차균 교수, 이문규 교수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허웅(1955)와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이문규(2017)에는 중세국어와 함경방언을 한 부류로, 영동방언과 경상방언을 나머지 한 부류로 파악한다. 반면 중세국어에서 변화된 것이 현대 방언성조라는 입장은 램지(1974), 정연찬(1971), 김주원(2000)으로 이어지는데 어말평성화와 시소, 약센트추이, 예기받음 등의 유사한 개념이 동원되고 있다.

중세국어의 성조는 16세기초부터 체계의 변화를 겪는다. 여기에서는 16세기 자료의 성조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성조 소멸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어간의 성조 혼란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¹⁴⁾ 지방 간행 자료이지만 의미 있는 몇몇을 제시한다.¹⁵⁾ 이 부분은 김성규(1994)에 의지한다.

여씨향약언해 존경각본(경북 구미)의 특징은 상성의 상당수가 거성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¹⁶⁾ 7년 뒤 중앙에서 간행된 화산본에는 상성으로 되돌려진다. 화산본은 → 뒤에 제시한다.

(19) 사롭(거평→상평/상거), 삼고(거평→상거), 줄디니(거평평>상거평)

그 반대로 16세기 들어서면서 거성이 상성으로 기록된 예도 있다. 여씨향약언해 존경각본에는 일흠(평상: 18), 사흠(평상: 17)이 확인된다. 16세기 중앙 간행의 문헌에도 이런 현상은 나타난다(김완진 1973/1977).

여씨향약언해 존경각본에는 두 어절 이상의 단위가 하나의 기식군이 된 후 그 안에서 양쪽 끝의 거성은 놓아 두고 가운데만 편성으로 바뀌는 어중 평성의 확인이 일어나는데 이는 1510년대 경상도에서 간행된 문헌이 가지는 특징이다. 여씨향약언해 존경각본에는 ‘거평평’이 186회, ‘거평거’가 51회 ‘거거평’이 46회 등으로 실현되는데 ‘거평평’이 65%나 차지한다. 중앙 간행의 ‘화산본’은 거평평이 5.5%도 되지 않는다. 어말평성의 확산이 대단히 활발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김성규 1994).

이런 자료들이 많이 발굴되고 검토되어야 성조 소실에 대한 명확함이 드러날 것 같다. 울동규칙의 강력함에 의해 어간의 성조가 혼란을 겪는 것이 성조 소실의 핵심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경북 서부 방언을 중심으로 울동규칙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중세국어에 울동규칙이 있었기에 그 울동규칙을 현대 방언에서 찾아낸다면 성조 소실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중세국어 문헌에서 의식적인 발화로 인해 기식군이 줄어들게 된 이유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하늬#뽕’, ‘뽕#씨라’ 등과 같은 사이시옷 관련 어절, 의존명사 관련 기식군 등도 울동규칙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중세국어 자료는 매우 의식적인 발화로 규정될 수 있다.

김완진(1960)에는 ‘능엄경 御題跋’에 언해 과정에 대한 언급이 있다.

14) 훈민정음 해례 용자례에서는 거의 같은 수의 단어로 ‘평거’, ‘평평’ 등의 예를 제시하지만 ‘거거’ 유형의 성조를 실지 않고 있다(김성규 1994). 최세진이 관여한 번역노걸대, 번역박통사에는 거성으로 시작하는 2음절어 중 95%가 ‘거거’로 실현되어 있다(김성규 1994).
15) 존경각본은 경상도 구미에서 간행되었다. 이에 관여한 김안국의 본관은 의성이지만 어느 지역말을 구사했는지 의문이다.
16) 물론 두시언해 초간본에도 ‘알오’, ‘아느니라’에서 첫 음절 거성이 확인되며, ‘사르미(금강경삼가해)’에서도 첫음절이 거성으로 실현되기도 했다(김완진 1973: 114).

(20) 주상이 구결을 다시고 해각존자께 물으시거늘 정빈 한 씨 등이 소리 내어 읽어 가며 교정을 보니...(차재은 1999)

소리 내어 읽어 가며 교정을 보는 것은 唱準에 해당한다(원문: 貞嬪韓氏 등이 唱準호야). 소리 내어 읽을 때에는 의식적인 발화가 될 수도 있다. 또박또박 읽으면서 오탈자를 점검하는 의도가 우선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부차적으로 성조도 고려했을 수 있다. 다만 또박또박 읽으면 격식적인 발화로 치우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긴 기식군을 가진 단위, 6-7음절 이상의 빈도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훈민정음 언해 부분을 보더라도 ‘꺄꺄·찰·씨·니’, ‘·쌀·씨·라’와 같은 의존명사 결합형까지도 율동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소리 내어 읽은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현대의 자연발화에서는 10음절 이상도 연이어 하나의 기식군으로 발화하는 경우도 많다. 가장 길게 들은 14음절을 제시한다.

(21) 그소리물르라고그러능가보구만(LLLLLLLLLLLLLLHL, 경북 문경 제보자)

cf. 그소리(LHL), 물르라고(L·HHL), 그소리물르라고(LLLLLHL), 그러능가보구만(HLLLLLL)

중세국어에는 거성불연삼 율동 규칙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율동규칙 유형을 현대 방언에서 찾는 것이 필자의 우선 과제이다. 여기에서는 경북 문경 지역과 같이 음장 지역에 접해 있는 성조방언권의 몇몇 자료를 통해 그 해당 방언의 성조가 앞으로 없어지게 될지 고찰해 보기로 한다. 음장 지역 접경 말에서 보이는 성조 현상을 파악해 봄으로써 그 지역 말의 성조가 없어질 수 있는 가설 정도를 세워 보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경상도 서부 지역의 율동규칙을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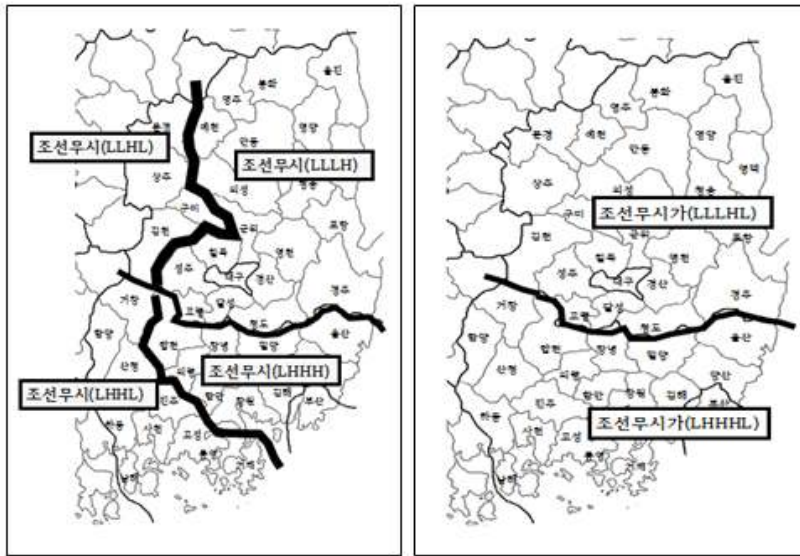
경북 서부방언과 경남 서부방언은 저조로 시작하는 경우 끝에서 둘째 음절이 의미가 있다.

(22) 경북 서부 방언 LHL, LLHL, LLLHL, LLLLHL...LLLLLLLLLLLLLLLLLLLLLHL

경남 서부 방언 LHL, LHHL, LHHHL, LHHHHL...LHHHHHHHHHHHHHHHHHHHHHL

이것이 바로 서부동남방언에서 확인되는 율동규칙인데 중세 국어와는 다른 방식이다.

참고로 율동규칙이 적용된 예를 제시하기로 한다. ‘무꾸’, ‘무수’, ‘무시’ 등을 편의상 무시로 통일하여 제시한다.



필자가 경북 서부 방언의 자연발화를 전사하면서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다.¹⁷⁾ 이 울동 규칙은 너무나 강력하여 저조로 시작하지 않는 어사까지도 저조형으로 만들어 버린다.

- (23) 저단지+에(LLHL)##가봐라(LL·HH)
- cf. 저단지(HHL)+에 → 저단지에(HHLL)

‘저단지+에’는 HHLL로 실현되는 것이 성조 규칙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 LLHL로도 나타난다. 저조로 시작하는 어사가 아닌데도 울동규칙이 적용된 것이다. 이런 발화가 자주 진행된다

17) 이후 서부방언의 울동규칙이 특특 튀어나움을 수시로 확인하였다. 이 또한 울동 규칙의 강력함이다. 이러한 울동규칙은 인구가 많은 대구를 중심으로 그 동쪽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증언도 있었다. 경상도 말을 흉내 내는 충청도 계룡 어린이는 모든 경우를 울동규칙화해서 발음한다. 그러면 다른 청자들은 경상도 사람이냐고 물어 볼 정도이다. 경상도 억양을 흉내 낼 때 이 울동규칙에 의지한다면 1/3은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다.

보면 어간의 성조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율동규칙이 강력하다 보면 그야말로 끝에서 2음절에 악센트가 놓이는 방언으로 바뀔 수 있다.

위에 제시된 율동 규칙이 정상적으로 구현된 예를 (24)에서 확인할 수 있다.¹⁸⁾

(24) 유리창'에(LLHL), 유리창에'서(LLLHL), 유리창에서'도(LLLLHL), 유리창에서라'도(LLLLLHL)

수의적으로 ‘유리창'에서(LLHLL)’, ‘유리창'에서도(LLHLLL)’, ‘유리창에'서도(LLLHLL)’도 확인된다. 몇 음절까지 발화할까가 의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의적으로 실현되는 표면형이다. 2음절에 악센트가 놓이는 방언이 다시 흔들릴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이다. 이런 유형에 의해 성조소멸이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부가적으로 준성조지역을 포함한 강원도 말에서의 율동규칙이 적용된 예를 제시하기로 한다. 먼저 (25)의 속초 말, (26)의 강릉 말을 참고할 수 있다.

(25) 머슴'이'라'그'러'지
 품'팔'이'라'그'러'지

(26) 포대'기 포대'기'라'하'고
 포대'기'라'고'하'나' 포대'기'라'고'마이씨지
 포대'기도'마이씨지

이런 유형은 한마디로 중간 음절 부분이 상당히 높게 실현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확한 통계치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정선 지역이 빈도가 다소 낮고 평창 지역은 빈도가 꽤 높아진다. 영월 지역은 너무나 수의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삼척 지역은 별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들 유형은 함경도 방언에서도 확인되는 듯하다(어렵'따'는'마'르는~어렵'따는'마'르는). 이런 유형은 성조 접경 지역인 제천, 단양 등에서도 확인되는 듯하다.

(26)에는 강릉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 ‘포대'기~포대'기’, 즉 LHL~LHH가 공존함을 알 수 있다. 이런 유형이 강릉 말의 특징이다. 율동에 의한 성조 혼란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율동이 남한을 중심으로 볼 때는 음장방언 접경지역에 분포해 있다는 것이 주목된다. 수의적인 발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조 동요도 심한 것이다. 중세국어의 율동규칙이 몇몇 보인다는 것이 성조 소멸의 열쇠를 쥐고 있을 것이다. 중세국어의 내적 근거도 확보하면서 현대 성조 지역의 성조 동요, 접경지대의 성조 현상을 고려해 보면 성조 소멸의 연구도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¹⁹⁾

18) 이러한 현상의 예는 김영만(1986:30), 이혁화(1994:51~52), 김주원(2000:108) 등에 제시되어 있다. Hyman(1975:204)에 의하면 폴란드어가, Katamba(1989:231)에 의하면 스와힐리어가 끝에서 둘째 음절(penultimate position)에 강세(stress)가 배당된다고 한다. 변광수 편(2003:533-588)에서는 폴란드어의 고정적인 강세에 대해, 공통슬라브어에서 자유이동형이었던 것이 언제 고정되었는지 불확실하다고 하였는데, 저조로 시작하는 성조군에서 끝에서 둘째 음절에 고조가 놓이는 문경지역어의 율동규칙과 연관지을 수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그 연관성을 조금이라도 인정한다면 폴란드어의 강세에 대한 역사적 연구가 문경지역어를 포함한 경북서부방언의 특이성조형 연구에 도움이 될 듯하다.

19) LHHHHHHL 유형과 LLLLLLHL 유형의 율동규칙은 청각적으로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후자 유형인 경북 서부 방언은 악센트가 오래 지속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5. 중세국어 성조의 성격

정연찬 교수는 여러 논저를 통해 중세국어는 물론 현대 동남방언을 word-pitch system으로 규정한다. 김완진(1973/77)은 정연찬(1969)의 word-pitch system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 바 있다. 중국어 모델도 아니고 일본어 모델도 아니라는 입장인바 후속 논의를 기대하는 어조이다.

관련하여 Pike(1949)의 견해를 가져오기로 한다.

Pike(1949: 3-4)는 중국어, 버마어, 인도어, 타이어와 아프리카의 몇몇 언어를 전형적인 성조 언어로 제시하면서 성조언어의 기본 특징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27) 음절마다 성조를 가지되(LHL, 복합조 포함) 그 각각의 성조는 대립이 되어야 하며 그것이 어휘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하고 발화에서 상대적인 높이를 가져야 한다. (lexically significant pitch, contrastive pitch, relative pitch, syllable pitch)

word-pitch system에 대해 9줄에 걸쳐 간략히 제시되어 있다(Pike 1949: 14-15).

(28) 특정 음절 위치에 강세가 놓이거나 장음에 강세가 놓이는 유형인데 북부 아메리카의 몇 언어를 연구하다 보면 그 정의도 바뀔 수 있는바 새로운 성조 언어 유형이 확인될 수도 있다.

일단 (28)과 같이 규정될 수 있는 하위 방언권은 확인할 수 없다. 경북서부, 경남서부 출신이라면 중세국어나 방언이나 모두 word-pitch system으로 파악하려 할 것이다. 그 동쪽 출신은 어미에도 기저성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방언권이 그만큼 다르기 때문이다. 이 또한 울동규칙 유무와 관계된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성조규칙에서 가장 안정적인 패턴을 보이는 경북 영주 봉화 지역의 성조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대립과 관련하여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 (29) 가. 가지(HH, 枝)
- 나. 가지(HL, 種)
- 다. 가지(LH, 茄)
- 라. 가지(RH, 가지래: 그게 다래)
- 마. 가지(FL, 강아지)

- (30) 가. 자란다(LHH, 잘#한다)
- 나. 자란다(HHL, 자라고(尺)#한다)
- 다. 자란다(HLL, 자라고(睡)#한다, 長)
- 라. 자란다(L·HHL 저#아이란다)
- 마. 자란다(L:HH, 부사 '잘'의 표현적 장음, 잘#한다)

바. 자란다(H·LLL, (실을) 자아내라고#한다)

음절마다 성조가 부여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3음절 성조형의 수를 환경을 폭넓게 고려하여 파악해 보기로 하자.

3음절인 경우는 다음의 11가지 성조형이 가능하다.²⁰⁾

(31) 가. H, L 평탄조로 실현되는 유형 5가지: HLL, LHL, LLH, HHL, LHH

나. 상승조 R이 각 음절에 나타나는 유형 3가지: RHL, LRH, LLR

다. 하강조 F가 각 음절에 나타나는 유형 3가지: FLL, LFL, LLF

(32) 가. H, L 평탄조로 실현되는 유형 5가지: HLL(구데기), LHL(지레기, 長), LLH(콩지름), HHL(뺨달이), LHH(임석규/김학수/파랏고/꺼멧고)

나. 상승조 R이 각 음절에 나타나는 유형 3가지: RHL(지:레이, 蜚), LRH(문재:인/잘가:라/가봐:라),²¹⁾ LLR(만두소:)²²⁾

다. 하강조 F가 각 음절에 나타나는 유형 3가지: FLL(맘:고상), LFL(쌍심:지, 니매:이), LLF(아랫마:, 바닷가:²³⁾)

참고적으로 4음절인 경우를 보도록 하자. 일단 이론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3) 가. H, L로만 구성되는 7가지 유형: HLLL, LHLL, LLHL, LLLH, HHLL, LLHH, LHHL

나. 상승조 R이 각 음절에 나타나는 경우 4가지: RHLL, LRHL, LLRH, LLLR

다. 하강조 F가 각 음절에 나타나는 경우 4가지: FLLL, LFLL, LLFL, LLLF

15가지가 가능하고 그것은 (3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자료를 폭넓게 관찰하다 보면 2음절 성조형은 7개, 3음절 성조형은 11개, 4음절 성조형은 15개임을 알 수 있다.

(34) 가. H, L로만 구성되는 경우 7가지: 이드레미(HLLL), 고등학조(LHLL), 도방구리(LLHL, 반진고리), 미루나무(LLLH), 오라바이(HHLL), 전라북도/시커멧고/새파랏고(LLHH), 해보드라/파랏지도/꺼멧지도(LHHL)

나. 상승조 R이 각 음절에 나타나는 경우 4가지: RHLL(위:아지매), LRHL(그후:로도/디밀:먼서/다등:꼬도), LLRH(만두소:가/가지마:고/떠나봐:도/들이밀:고/쓰다등:꼬), LLLR(부지런해:²⁴⁾)

20) 허웅(1955)에는 5개, 정연찬(1976)에는 4개로 제시되어 있다. 방언권의 차이가 간과된 채 비판되어서는 안 된다.

21) 곡용에서는 발견하기 쉽지 않은 聲調型이다. 이에 편의상 활용에서의 聲調型을 함께 제시한다. 3음절 또는 4음절 氣息群에서도 동일한 방식을 취한다.

22) 複合語의 일반적인 聲調 實現에 비춰 볼 때 ‘만두(LH)+소:(R)’는 LHL로 나타나야 하지만 LLR로 실현되는 것이 특이하다. ‘꼬추(LH)+장:(R)’이 ‘꼬추장(LHL)~꼬이장(LHL)’, ‘사냥(LH)+개:(R)’가 ‘사냥개(LHL)’로 실현되는 것과 대비된다.

23) ‘바닷가’는 HLL로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더러 LLF로도 실현된다.

24) ‘부지런해:도(LLLRH)’를 토대로 하여 ‘LLL(부지런해:)’을 제시하였다. 마찬가지로 ‘LRH(가봐:라)’, ‘LRH(가봐:도)’를 토대로 하여 ‘가봐:(LR)’를 확정할 수 있다.

다. 하강조 F가 각 음절에 나타나는 경우 4가지: FLLL(애:늪은이), LFLL(웃마:사람), LLFL(저탄매:이, 저 정도의 늪), LLLF(아래웃마:)

이렇듯 하나의 기식군을 이루는 성조형이 여럿 확인되는 한국어의 성조를 일본어의 성조와 유사한 유형으로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렇다고 중국어의 성조와 비견될 수는 없을 것이다. 중국어 2음절어와 비교해 보면 이론상으로도 차이가 확연하다. 중국어는 이론상 1성에서 4성까지가 각 음절에 놓일 수 있으므로 '4×4'만큼의 성조형이 기대된다. 실제로는 이보다 적은 성조형이 실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두 언어에서 확인되는 성조형 개수의 차이는, 형태소에 성조가 실리는가 아니면 음절에 성조가 실리는가에 기인한다. 중국어는 하나의 음절이 하나의 형태소(또는 단어)인 경우가 지배적이므로 성조 언어로서의 지위가 확고하다. 형태소(또는 단어) 단위로 악센트가 실리는 것은 중국어나 한국어나 같다. 그런데 한국어는 '아지랭이'처럼 하나의 형태소가 다음절이 될 수 있기에 중국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한국어도 형태소(또는 단어)가 한 음절이라면 중국어 성조와 같은 패턴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진혁(2014)는 탄탄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함경도 육진 방언을 성조언어라고 규정하였다. 비어두에서 상승조가 나타나는 중세국어야말로 함경방언보다 더 성조언어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어미의 기저성조를 인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²⁵⁾ pike(1949)에서의 word-pitch system과는 차원이 다르다.

6. 나오며

참고문헌

25) 중세국어의 성조군(기식군)이 너무 짧은 것이 아쉽기는 하다. '이', '그', '저'와 체언이 통합된 경우의 성조 변동 등을 알 수 있다면 어미의 기저성조를 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토론문: 신성철(2022), 「고대 국어의 음운 체계의 연구 성과와 전망」

이준환(전남대)

신성철 선생님의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고대 국어의 음운 체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 고대 국어의 음운 체계 수립 과정과 방법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주셨습니다. 실제 논의에서 여러 선배 연구자들의 연구 내용을 충실히 제시하면서 각 연구에서 어떤 점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은 연구 성과를 거두게 되었는지가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고대 국어 음운 체계 연구에 관한 전체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흐름을 살펴보는 데에 유익한 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대 국어의 음운 체계 수립을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이 한번 정리되면 좋을까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글에서 보면 선행 연구들에서는, 먼저 자음과 관련하여서는 후음의 존재, 파찰음의 존재, 유성 장애음의 존재, 격음의 존재 등이 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잘 드러납니다. 다음으로 모음에 관해서는 /·/의 정체, 대립 체계의 문제, 모음 조화의 문제 등이 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성조에 관해서는 고저의 대립을 축으로 하는 성조의 대립의 있는 언어였다는 것이 다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국어사의 시기 구분 문제를 다루셨는데, 고대 국어를 통일신라 때까지로 볼 것인지, 13세기 무렵까지로 볼 것인지, 15세기 훈민정음의 창제 무렵까지로 볼 것인지 등의 연구 성과가 있음이 소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발표 내용에 맞게 우리가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여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몇 가지 여쭙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자음 체계와 관련하여 유성 장애음의 존재는 이승재(2013, 2016) 등의 일련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고구려어와 백제어에서는 상당히 뚜렷하게 보이는 듯합니다. 특히 일본의 자료에 반영되어 있는 백제어의 모습을 보면 백제어에는 유성 장애음이 존재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생각을 어렵지 않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유성 장애음은 격음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 같습니다. 특히 비어두에서 격음의 발달은 변이음으로 나타나는 유성음과 분포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국어와 알타이제어 사이의 관련성이 있음을 전적으로 부인하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알타이제어의 특징을 보면, 알타이 제어에서는 무기음 대 유기음의 대립이 없는데 이와 달리 국어가 점차 무기음 대 유기음의 대립을 보이는 언어가 되어 가는 것은 유성 장애음의 존재 또는 소멸과 밀접하게 연관 지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점에 관하여 충분히 고려하시고 발표를 준비하셨을 텐데 선생님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모음 체계와 관련하여 /·/의 정체는 모음 조화의 문제와 연결이 되는 것이며, 이것은 고대 국어의 음운 체계가 어떤 대립을 축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것인지를 살피는 것과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창원(1983)에서 수립한 음운 체계에서 구개적 대립이 모음 조화와 일치함을 볼 수 있다든지, 이기문(1978, 1998)에서 “東京 明期月良<처용가>”에서 ‘明期’의 ‘期’가 후설모음적인 특성을 지닌 존재였을 것이라고

한 것 등은 모두 이에 해당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日本書紀』에서도 “* ㄱ불>ㄱ웁>고웁”에 대응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己富利(kopori>kofori>kohori)’와 ‘己富里(kopori>kofori>kohori)’가 보이는데, 여기에서 /ㄱ/에 대응하는 ‘己’는 ㄱ(ko)乙類에 속하는 것으로 중설중모음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이며, /불/의 초성과 중성에 대응하는 ‘富’는 ㅑ(o)列 乙類에 속하는 것으로 역시 중설중모음의 성격을 지닙니다. 이런 국어 내적, 국어 외적 자료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는 모음 조화, 모음 체계의 대립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다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에 관하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고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국어사의 시기 구분 문제에 관해서는 잘 정리를 해 주셨습시다만, 이 시기 구분이 음운, 형태, 통사, 어휘 모두에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별개의 것으로 갈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적지 않은 논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왕조 교체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면 고려의 건국이 고대 국어와 중세 국어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三國遺事』에 실린 신라 향가와 『均如傳』에 실린 고려 향가를 비교하여 보면 이 둘이 확연히 다르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표시하는 데에 쓰였던 구결자 ‘ㄹ(賜)’가 ‘= (示)’로 『大方廣佛華嚴經』에서 교체된 것을 보면 13세기에는 ‘賜*시>스’와 같은 한자음에서 모종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권인한 1997).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음운, 형태, 통사, 어휘 모두를 통합하는 시기 구분이 어려울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음운사 연구에서 우리가 시기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하는 것도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관한 선생님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학과의 일로 직접 참석하지 못한 채 서면으로만 토론을 하게 되어 결례를 범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세·근대 국어 자음 연구의 성과와 전망>에 대한 토론문

신우봉(제주대학교)

이 연구는 중세·근대 국어 자음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중세·근대 국어의 쟁점은 1) 소실 문자(ㅃ, ㅅ, 합용병서)들의 음가, 2) 음운 변화(‘ㄱ’ 약화, ‘ㅃ’ 약화, 구개음화)로 중세·근대 국어 자음 연구에 대한 다양한 쟁점을 종합적으로 재고찰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음 표기 해석의 전제, 자료의 보완 가능성, 음변화 혹은 음운변화의 종료’라는 세 가지 쟁점을 가지고 쟁점들을 분석함으로써 중세·근대 국어 자음 연구의 논의 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에 앞서 국어사적 지식이 부족하여 발표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발표문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으로 토론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1. ‘ㅃ’의 실현 환경의 변화 관련

이 연구에서는 훈민정음 창제 이전 시기의 국어를 반영하는 문헌에서 ‘ㅃ’이 종성에서도 실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화이역어』의 사음 규칙에 따라 『조선관역어』의 내용을 살펴보면 ‘ㅃ’은 유성음 계열의 자음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ㅃ’은 비음운화의 과정에서 음가의 변화뿐만 아니라 실현 환경이 점진적으로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자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가설에서는 ‘ㅃ’의 실현 환경이 왜 어중으로 줄어들게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2. ‘ㅅ’의 음변화의 종료 관련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소실 문자들의 음변화가 시작된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그것이 종료된 원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설명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즉, ‘ㅅ’의 음변화와 관련하여 유성적 환경에서 ‘ㅅ>ㅆ’의 과정을 거쳤다는 입장에서는 왜 이러한 과정이 종료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연구 중에서는 방언 반사형 중에서 ‘ㅅ’을 ‘ㅅ>ㅆ’ 변화의 비개신형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러한 논의에서도 이 변화 과정의 종료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이어지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유성적 환경에서 ‘ㅅ>ㅆ’ 변화가 이른 시기에 종료된 이유와 관련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ㅅ’의 변이음과 관련하여 소신애(2012: 377)에서는 구개적 환경에서 ‘ㅅ’이 [ʃ]로 실현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생님께서는 음성적 표기를 보이는 외국어 사음 자료를 논리의 보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고, 『조선관역어』에서의 ‘ㅅ’의 실현 양상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신애(2012)에서의 변이음 실현은 ‘ㅅ’ 동요기(‘ㅅ’의 비음운화 시기)에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선관역어』의 시기와 ‘ㅅ’ 동요기는 동시대로 보기에 시간 차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3. 자료의 보완 가능성 관련(『조선관역어』의 활용)

이 연구에서는 중세 국어 자음과 관련된 쟁점들과 관련하여 자료의 보완을 위해 『조선관역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연구들과 달리 『조선관역어』를 15세기 국어의 음가를 재구하는 데에 강력한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간략한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15세기 국어의 음가 재구 외에 『조선관역어』를 통해서 추가로 논의할 수 있는 연구 주제들을 무엇이 있는지 소개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4. 본 발표의 논의에는 없으나, 구개음화 현상과 관련하여 김주필(2009)에서는 동일 시기의 문헌이더라도 구개음화의 확산이 다르게 나타났음을 논의하였습니다. 즉, 김주필(2009: 100)에 따르면 사역원 간행의 한학서류와 왜학서류를 비교한 결과, 동일 시기로 놓고 빈도를 비교하면 구개음화 빈도는 한학서보다 왜학서가 전체적으로 높게 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빈도의 차이는 한자음, 고유어 어휘형태소, 문법형태소, 형태소 경계 등 모든 환경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학서에 반영된 언어에서 한학서에서 보다 구개음화가 빨리 확산된 이유에 대해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중세-근대 국어 모음체계의 연구 성과와 전망” 토론문

김아름(가천대)

김소영 선생님의 발표문 잘 읽어 보았습니다. 전기 중세국어 시기부터 근대국어 시기까지의 모음사와 관련된 쟁점들을 세밀하게 정리해 주셔서, 제가 미처 고민하지 못하였던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듣고 배운 것이 많지 않아 발표문을 읽으면서 궁금했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점들을 크게 세 가지 정도 여쭙는 것으로 지정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 전기 중세국어 시기 모음추이 관련

전기 중세국어 시기의 모음추이와 관련하여, 김주원(1993)의 몽골어 음성 실험 결과 및 고경재(2016)의 중세 몽골어 음가 추정 결과 등을 근거로, 중세국어 시기의 /ɔ, ɾ/가 모음추이를 꺾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음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김현(2004)에서는 어떤 모음이 인접한 모음을 밀어내고, 밀려난 모음이 인접한 다른 모음을 밀어낸다는 추진쇄(push chain)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논의에서는 추진쇄의 첫 번째 변화는 이후 여러 음들의 연쇄적인 변화를 촉발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의를 지니며, 추진쇄는 비어 있는 조음영역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음소가 조음되고 있는 영역을 침범함으로써 의사소통의 장애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에, 이 변화에는 더욱 더 타당한 원인과 방향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추진 변화에 있어서의 원순성의 역할에 집중하여, 평순모음과 원순모음의 조음영역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거나, 영향을 준다고 하여도 그 정도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조음영역이 어느 정도 중복된다고 하여도 합류되거나 혹은 합류를 피하여 추진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이기문(1969, 1972)에 제시된 /ə/가 /ü/를 밀어내는 과정은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볼 수도 있을 듯합니다.

여러 관점이 대립하는 주제이기는 하나, 추진쇄를 비롯한 모음추이의 가능성에 대한 발표자 선생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2) 고저대립의 형성과 고모음화 관련

근대국어 시기에 나타난 고모음화 현상과 관련하여, 이 현상을 모음체계 내의 고저 대립 관계와 유관한 것으로 해석하는 입장과, 체계의 문제로 해석하지 않는 입장을 나누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중 전자의 논의에서는 ‘으’의 소멸로 시작된 ‘ɔ>ɾ’가 ‘ɨ>ㅡ’를 유도하고, ‘ɨ>ㅡ’가 연쇄적으로 ‘ɛ>ㅣ’를 유도하는 것으로 간주하거나, 모음체계의 대립관계 재조정으로 인한 고저대립의 불안정성의 영향으로 중모음들의 연쇄적인 상승이 일어난 것으로 해석하는 듯합니다.

주지하다시피 고모음화는 모음체계 내의 중모음 즉 /ɛ/, /ɨ/, /ɔ/가 현상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고모음화는 어두 위치와 비어두 위치에서 모두 나타날 수 있으며, 상승을 겪는 모음이 장음일 수도 있고 단음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휘 형태소에서뿐만 아니라 문법 형태소에서도 고모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현상의 실현 양상 및 지리적 분포는 음운적·문법적 조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이를 보입니다.

구 분	고모음화											
	장모음의 고모음화			단모음의 고모음화								
	ㅏ: > ㅓ:	ㅓ: > ㅣ:	ㅣ: > ㅡ:	ㅏ > ㅓ			ㅓ > ㅣ			ㅣ > ㅡ		
				어두	비어두		어두	비어두		어두	비어두	
			어휘	문법	어휘	문법	어휘	문법	어휘	문법		
중심지역	중부	중부 남부	중부	×	전국	중부	남부	남부	△	△	전국	전국
실현여부	○	◎	◎	×	◎	◎	○	○	△	△	○	○

<고모음화 현상의 유형별 실현 양상> (김아름 2008: 2)

위와 같이 고모음화 현상의 각 유형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각 현상은 변화의 시기와, 현상이 적용되는 단어 내 위치 및 형태소의 종류, 실현 지역이 상이한 변화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ㅏ>ㅓ’는 (현상의 발생 시점에서는) 주로 단(短)모음일 때, ‘ㅓ>ㅣ’와 ‘ㅣ>ㅡ’는 장모음일 때 적용된 현상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음체계와의 관련성 속에서 고모음화를 해석하는 입장과 같이, ‘ㆍ’의 비음운화와 관련된 대립체계의 변화가 고모음화 현상들 중 가장 이른 시기에 나타나는 ‘ㅏ>ㅓ’를 촉발하는 것으로 본다면, 단(短)모음에서부터 시작된 현상인 ‘ㅏ>ㅓ’가, 주로 장모음에서 실현되는 ‘ㅓ>ㅣ’, ‘ㅣ>ㅡ’를 견인한 것으로 서술하게 되는데, 대립관계의 변화로 인한 현상이 특정 운율적 조건을 지닌 분절음에만 영향을 준다고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모음체계와의 관련성 속에서 고모음화 현상 전반을 해석한다면, 현상의 세부 양상과 괴리가 생기는 듯합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 선생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3) 원순모음화·비원순모음화 관련

발표문에서는 원순·비원순 대립의 형성을 주로 근대국어 시기에 있었던 원순모음화·비원순모음화 현상과 관련지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석주연(1996), 김주필(2003)에서는 15세기부터 원순모음화와 비원순모음화 현상이 활발히 존재했음을 아래와 같은 예들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 (1) 흥녀고론(月印釋譜 2:45), 흥 빼 계도록(月印釋譜 7:9), 우호로(杜詩諺解 初刊本 8:28), 나조히 못도록(杜詩諺解 初刊本 10:20), 외쁘로(金剛經三家解 1:11a) 등
- (2) 聖人이 나시노소니(月印釋譜 2:51), 나오리로소이다(月印釋譜 2:51), 곧도소이다(月印釋譜 7:12), 아니토소이다(月印釋譜 25:11a), 모로스벌리(月印釋譜 7:49)
- (3) 돌-(助): 도으리며(內訓 3下:62), 도은(南明集諺解 上:65)
 굴-(麗): 고으니로(法華經諺解 2:140), 고아며(法華經諺解 2:73)
 굴-(炙): 구은 그르시(杜詩諺解 初刊本 15:32), 구으니와(救急方諺解 上:1)
 놀-(臥): 누으며(金剛經三家解 2:23), 누을제(救急方諺解 上: 57)

김주필(2003)에서는 위의 예들을 15세기에 ‘ㅏ, ㅓ’와 ‘ㆍ, ㅡ’가 [원순성]에 의해 대립되는 자연부류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와 같은 논의에 따르면 원순·비원순 대립 형성의 시기를 ‘ㆍ’ 소멸과 무관하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듯합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 선생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여기까지입니다. 지정 토론문을 준비하면서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에 발표자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논저

김아름(2008), 국어 고모음화 현상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주필(2003), 후기 중세국어의 음운현상과 모음체계, 어문연구117, pp. 5-30.

김현(2004), 모음추이의 원인과 음운 자질, 《관악어문연구》 29, pp. 69-187.

석주연(1996), 중세국어 원순성동화 현상에 대한 일고찰: 동화주가 원순모음인 경우를 중심으로, 《冠嶽語文研究》 21, pp. 217-228.

‘중세국어 성조 체계와 울동 규칙 및 방언 성조와의 대비’ 토론문

박진혁(서강대)

임석규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성조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 온 저의 입장에서 중국어 성조의 사적 변화와 관련한 주제는 다룰 엄두를 내기 어려운 것이어서, 처음 이 논문에 대한 토론 의뢰를 받았을 때 조금 주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비교적 일정한 성조 변동 양상을 보이는 함경도 방언에 비하여 경상도 방언의 성조 및 표면 음고 배열 양상은 중방언권에 따라 편차가 큰 편이어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중세국어와의 통시적 관계를 다루어야 한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 논문에서 제시된 여러 쟁점이나 관련 기술을 읽으면서 저 역시 여러 가지로 배운 바가 많았기에 이 논문의 논의에 대하여 선불리 몇 마디나마 보태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아래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선생님께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려 합니다.

1) 이 논문의 3장, 4장에서는 중세국어의 울동규칙 중에서 전형적인 예들을 중심으로 그 사적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규(2009:8~16)에서도 이미 다룬 바와 같이 적어도 일부 파생어 및 문법 형태소가 울동규칙(거성불연삼)을 따르지 않는 예외가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표면 음성 실현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조 변동과 울동규칙의 상관성에 대한 문제도 다룰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울동규칙이 결국 표면 음성 실현 과정에서의 성조 배열과 관련한 규칙이라면 그에 관여하는 여러 음운론적 조건들을 살펴야 울동규칙의 음운론적 이해는 물론, 현대국어 성조 방언의 표면 성조 배열 양상과 비교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2) 함경도 방언의 어절 단위 성조 배열에서 일견 표면 고조처럼 들리는 경우는 그 음운론적 해석에 다소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선생님께서 4장 말미에 함경도 방언의 사례로 소개하신 ‘어렵다는말(語)은’의 경우, 어떤 말의 뜻풀이를 위해 사용하는 ‘OO하다는 말으느/OO라는 말으느’의 형태가 기식군으로 가장 흔하게 간취됩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에서는 전체 기식군의 표면 고조 중에서 ‘말’의 고조만 남고 나머지는 저조로 전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拙稿(2014:102~105)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관형어 수식 구성에서 피수식 명사가 속한 곡용 어절의 고조만 남고 관형어 어절의 고조는 저조로 교체되는 현상에 따른 것입니다.

물론 음성적으로 간취할 때에는 ‘어렵다는말으느[LLLLHLL]’의 ‘렵다는’에서 어두의 ‘어’보다 음고 조치(調值)가 약간 높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제가 拙稿(2018:19)에서 소개했던 전학석(1993/1998:115)에서도 ‘고사리르[LLHL]’의 둘째 음절 ‘사’가 첫 음절 ‘고’에 비해 기계적으로는 약 30~40Hz 높게 나타난 것과 연계하여 이해한다면 음운론적으로는 표면 고조로 기술하기 조심스러운 경우입니다. 제가 2003년 여름에 중국 연변대학교 사범대학 음성

실험실에서 전학석(1993/1998)과 동일한 기기를 통해 기계적으로 분석해 본 바에 따르면, 함북 경흥 지역어 노년층 남성 화자의 경우는 기저 저조, 고조의 표면 음성 실현 조치 차이가 어사에 따라 약 30~40Hz 차이가 나고 노년층 여성 화자의 경우는 50~70Hz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조와 고조 사이에 저조 연쇄가 이어지는 경우 표면 음성 실현 단계에서는 남성 화자의 경우 약 10~15Hz 정도의 조치 상승이 관찰되고, 여성 화자의 경우는 30~40Hz 가량의 상승이 보입니다. 또한 이들을 기저 고조가 그대로 표면 고조로 실현되는 음절의 조치와 비교하더라도 역시 비슷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저 저조인 음절들이 음성 실현 과정에서 조치가 상승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여 이런 대상들을 표면 고조로 보고 울동규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온당한 처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3)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중세국어와 현대국어 개별 성조 방언의 비교는 결국 울동규칙의 사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만 3장, 4장에서 다루고 있는 울동규칙은 그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한 대상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울동규칙 전반에 걸친 검토 결과를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설명해 주시면 중세국어와 개별 성조 방언의 비교를 통한 성조의 사적 변화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2부

개인 발표

<목차>

1. 서론
2. 서지적 특징
3. 국어학적 특징
4. 결론

1. 서론

본고는 충남 홍성의 양주 조씨 사운고택에서 전해오던 고조리서 <음식방문나라>를 소개하고, 책의 내용을 통해 서지적, 국어학적 특징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음식방문나라>에 나타난 서지적 특징을 외형적 특징과 내용적 특징으로 나누고, 국어학적 특징을 표기법과 음운적, 형태적, 어휘적 특징 등으로 나누어 논의하도록 한다.

<음식방문나라>²⁶⁾는 19세기 말에 순 한글로 필사된 조리서로, 사운고택의 종손 조환웅 선생님의 의해 발견된 후, 송철의(2013)에 의해 원문이 해제되었고, 이후 조환웅(2020)과 이덕종부 최금숙(2020)에 의해 소개된 적이 있다. 조환웅(2020)은 <음식방문나라>에 실린 69가지 음식을 재현하는 조리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국어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국어학적인 부분은 송철의(2013)에서 밝히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후 관련 연구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19세기 충남 지역을 대표하는 조리서인 <우음제방>이나 <주식시의>²⁷⁾와는 달리 <음식방문나라>는 아직 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음식방문나라>는 향후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될 필요성이 있겠다.²⁸⁾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음식방문나라>에 나타난 서지적 특징 및 국어학적 특징을 살피고, 책의 가치를 학계에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19세 충남 지역을 대표하는 고조리서들을 비교 분석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

<음식방문나라>는 내용 구성 방식과 표기상에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내용 구성에 나타나는 특징과 관련해서는 2장 서지적 특징에서 자세히 다루고, 표기상에 나타난 특징에 대해서는 3장 국어학적 특징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26) <음식방문나라>는 학계에 알려진 <음식방문>과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책이다. <음식방문>은 한글 필사본 음식 조리서로 현재 3권이 전해지고 있는데, 안동 김씨 가문에서 전하는 것, 동국대 소장본, 개인 소장본이 있다. 이 책들도 이름만 같을 뿐 수록된 항목에는 차이가 있다(김영, 2020:2535).

27) 이에 대해서는 배영환(2012) 참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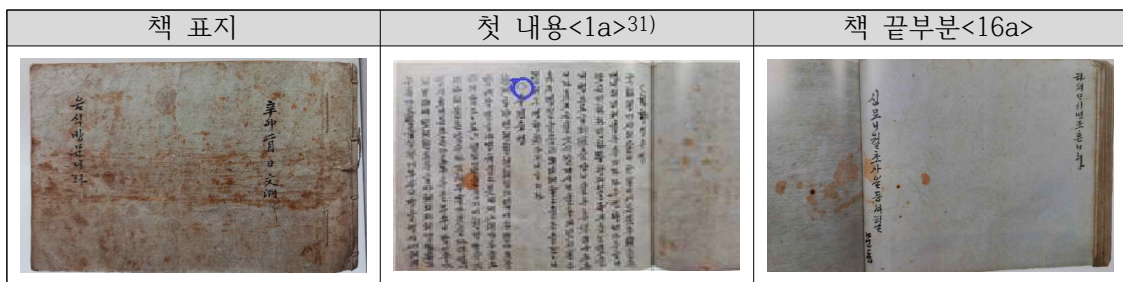
28) 본 연구를 위해 조환웅(2020)과 최금숙(2020) 두 자료를 보내주시고, 필요한 정보를 전화와 문자를 통해 자세히 알려주신 사운고택 조환웅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 서지적 특징

2.1. 외형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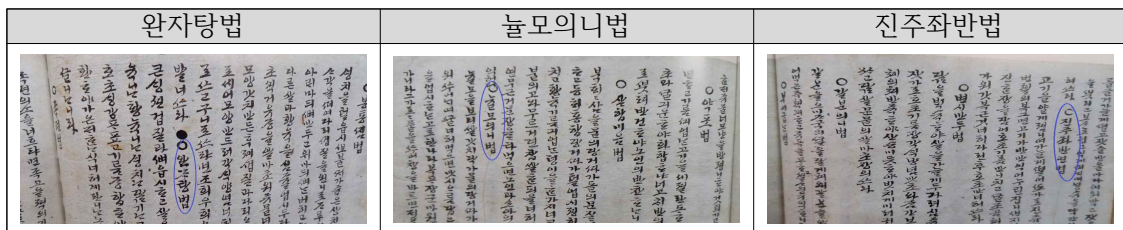
<음식방문나라>의 책판 크기는 가로 30.3cm, 세로 21.5cm로, 아래의 <사진1> ‘책 표지’와 같이 4침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한지에 순 한글로 정갈하게 써 내려가고 있다.²⁹⁾ 총 16장(32면)의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고, 책의 1면은 16행이며 한 행의 글자 수는 글자의 크기에 따라 18~24자로 일정하지 않다. 책의 표지명은 ‘음식방문나라’이고, 편목³⁰⁾을 따로 표기하지 않고 바로 내용이 전개된다.

<사진1> <음식방문나라>의 표지와 내용



<음식방문나라>에는 69가지의 조리법을 설명하고 있다. 조리명은 대부분 위의 <사진1> ‘첫 내용’에서처럼 한 칸 내려 동그라미(○)로 새로운 조리명임을 표시한 후, 줄을 바꿔서 조리 방법을 적고 있다.³²⁾ 그러나 <완자탕법>, <울모의니법>, <진주좌반법>의 3종류는 아래의 <사진2>와 같이 ‘○’ 표시 후 조리명을 적고는 있으나, 앞의 조리법에 이어서 적고 있어 줄 바꾸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진2>



그 밖의 특징으로 새로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아래의 <사진3>과 같이 9곳이 보인다.

<사진3>

29) 조환웅(2020:14) 참조.

30) 한 권의 책 안에서 그 내용이 일정한 큰 단락으로 나눌 때, 각 단락의 제목(표준국어대사전).

31) <사진1>에서 확인되듯 이 책의 첫 장의 첫 면은 공백으로 되어 있어 첫 장의 좌측부터 글이 시작됨.

32) 『규합총서』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조리명과 조리법을 표기함.

감흥법	혼돈법	석탄병법	원소병법	죽편법	갈분의니법	그굽난법	삼칠주법	잠절주법	ㄱ(원소병법)

위의 <사진3-ㄱ>의 수정한 글씨체를 자세히 살펴보면 원본의 글씨체와 동일한 필체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9곳의 수정한 부분은 필사자인 전의 이씨가 직접 수정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³³⁾

이 책의 필사기는 <사진1>과 같이 책의 앞표지 부분과 맨 뒷장에서 기록하고 있으며, 책 앞표지에는 ‘辛卯二月日 文洞’이라고 한자로 기록하였고, 책 맨 뒷장에는 ‘신묘니월초사일 등서필 문동’이라고 한글로 기록하고 있다. 이 필사기를 통해 아래와 같이 이 책과 관련한 몇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첫째, 이 책의 작성 시기와 관련된 ‘신묘’는 필사자의 출생과 사망 시기(1867-1938)를 근거로 1891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책은 1891년 2월 3일에 필사가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둘째, 책의 뒷부분에 나타난 ‘등서’라는 기록을 통해 다른 책을 베껴 옮겨 적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음식방문나라>와 『규합총서』의 조리법은 상당 부분 같거나 비슷하다.
- 셋째, 필사자와 관련된 정보로 ‘文洞’을 기록하고 있다. ‘文洞’의 ‘洞’자가 ‘고을’을 의미하는 한자라는 점에서 ‘文洞’은 지명과 관련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³⁴⁾

2.2. 내용적 특징

조선 중기 이후에는 철저한 가부장권 대가족생활을 하였으며, 유교 이념에 따른 가례 준칙과 가례 음식의 규범이 엄격했다. 집안의 부인들은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양주와 병과류를 위시한 주찬음식 조리법을 익혀나갔으며, 이 과정을 통해 한국 식생활문화의 격조와 고유한 전통이 정비될 수 있었다(박혜인·홍형옥, 2015:289). 이런 사정으로 지역마다 혹은 집집마다 특색있는 조리법을 하나씩은 갖고 있었으며, 각 집안의 음식 관련 비법은 구전되기도 했지만, 한글을 깨우친 여성들에 의해서 기록으로 남겨져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집안 대대로 전수되었다.³⁵⁾ 그 결과 오늘날까지 종손 집안에서는 관련 자료들이 보관될 수 있었다.³⁶⁾

<음식방문나라>의 69가지 조리법은 대체로 주류, 병과류, 주식류, 찬류의 순서로 수록되었

33) 고조리서 가운데는 여러 사람에 의해 필사되거나, 혹은 후대에 수정된 사례들이 있지만, <음식방문나라>는 전의 이씨 한 사람에 의해 완성된 필사본임을 알 수 있다.

34) ‘문동’이라는 표기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조환웅 선생님과 직접 통화를 해서 여쭙본 결과, ‘文洞’은 현재의 ‘사운고택’이 위치했던 옛 지명이라고 하셨다. 원래 지명은 ‘元文洞’ 혹은 ‘원골’이며, 숙부인 전의 이씨의 묘비에도 ‘元文洞’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음식방문나라>에서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元文洞’에서 ‘文洞’만을 취하여 닙호로 사용했다고 한다.

35) <음식디미방>의 권말 필사기에 저술자 안동 장씨는 “출가한 딸들은 이 책을 가져갈 생각일랑 하지 말고 베껴 가라”고 써 놓았다. 이런 조치는 원본을 종가에만 보존하여 조리법을 집안에 전수하려 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백두현, 2006:290).

36) 특정 가문에서 발견된 조리서들을 모두 그 가문의 조리 비법이라 보기는 어렵다. 조선 말기에 가면 집필된 고조리서들이 널리 읽히면서 다른 가문의 비법을 필사한 서적들도 많기 때문이다.

으며, 이 가운데 59가지가 『규합총서』의 조리법과 일치하거나 비슷하다. 이런 이유로 이 책의 내용적 특징은 『규합총서』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아래의 <표1>은 <음식방문나라>에 실려 있는 조리명을 원본의 순서와 표기법대로 정리한 것이다.

<표1> <음식방문나라>의 목차

1. 화향입주법	19. 왜면	37. 부어굽는법	55. 송니찜법
2. 두견쥬법	20. 실과병법	38. 부어찜법	56. 다스ㄹ튀각법
3. 소국주법	21. 혼돈병법	39. 열구즈탕법	57. 동화선법
4. 감홍주법	22. 토란병법	40. 승기약탕법	58. 동침니법
5. 송절주법	23. 감즈병법	41. 편포법	59. 동화석박지법
6. 송순주법	24. 잡과병법	42. 약포법	60. 장집치법
7. 과하쥬법	25. 석니병법	43. 삼합미음법	61. 삼칠쥬법
8. 삼일쥬법	26. 복영도화고법	44. 놀모의니법	62. 팔선쥬법
9. 약과ㅎ는법	27. 빅설고법	45. 전복침치	63. 삼오쥬법
10. 별약과법	28. 진전병법 ³⁷⁾	46. 그젓	64. 녹타쥬법
11. 약밥법	29. 뉴즈단쥬법	47. 쇼곰긱젓법	65. 선표향법
12. 두죽법	30. 원소병법	48. 그굽는법	66. 미화쥬법
13. 진주죽과자죽법	31. 신검치단쥬	49. 그찜ㅎ는법	67. 잠(감)절쥬법
14. 두텃떡법	32. 석탄병법	50. 봉통찜법	68. 외국쥬법
15. 디초조약법	33. 증편법	51. 완즈탕법	69. 보리슈단법
16. 화점법 ³⁸⁾	34. 진주좌반법	52. 죽편법	
17. 화면법	35. 변시만두법	53. 증구법기찜	
18. 난면법	36. 갈분의니법	54. 칠향계법	

<음식방문나라>는 69가지의 조리법을 수록하고 있는 단행본이다. 반면 『규합총서』³⁹⁾는 빙허각 전서의 3부 11책 중 1부 5책에 해당하며(이광호, 2001:9), <음식방문나라>는 『규합총서』의 1부 1책(권지일)인 酒食議⁴⁰⁾ 부분을 필사한 것이다.

『규합총서』의 내용 서술 형식은 11책의 목차에 따라 편목을 설정한 후 해당 항목을 정리하는 체계성이 보인다. 반면 <음식방문나라>는 음식에 관한 내용만을 담고 있어 따로 편목이 없어 조리명들이 같은 유별로 정리되지 못했다. 이 점은 필사자가 『규합총서』를 보면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 필사해 가는 과정에서 누락 된 부분을 추가한 결과로 추측할 수 있겠다. 아래의 <표2>는 위의 <표1>을 유별로 재분류한 것이다.

<표2> <음식방문나라> 유(類)별 재분류⁴¹⁾

조리명	분류	조리명	분류	조리명	분류	
1. 화향입주법	주(酒)류 (15종)	9. 약과ㅎ는법	병과류 (19종)	37. 부어굽는법	구이	찬류 (23종)
2. 두견쥬법		10. 별약과법		48. 그굽는법		
3. 소국주법		11. 약밥법		38. 부어찜법		
4. 감홍주법		14. 두텃떡법		49. 그찜ㅎ는법	찜	
5. 송절주법		15. 디초조약법		50. 봉통찜법		
6. 송순주법		16. 화점법		53. 증구법기찜		
7. 과하쥬법		20. 실과병법		54. 칠향계법		
8. 삼일쥬법		21. 혼돈병법		55. 송니찜법	탕	
61. 삼칠쥬법		22. 토란병법		39. 열구즈탕법		

37) 권전병법의 오기로 보임.

38) 화전법의 오기로 보임.

39) <음식방문나라>와 『규합총서』는 책의 성격상 < >와 『』로 구분하였으며, 『규합총서』는 정양완본이다.

40) 『규합총서』 원본에는 '쥬스의'로 기록하고 있다.

41) 조환웅(2020:15-16)을 참고하여 재분류함.

62. 팔선주법			23. 감조방법		40. 승기약탕법	
63. 삼오주법			24. 잡과방법		51. 완조탕법	
64. 녹타주법			25. 석니방법		46. 기젓	젓갈
65. 선표향법			26. 복영도화고법		47. 쇼곰기젓법	
66. 미화주법			27. 빅설고법		34. 진주좌반법	
67. 잠(감)절주법			28. 진전방법		41. 편포법	반찬류
35. 변시만두법	만두		29. 뉴즈단조법		42. 약포법	
12. 두죽법	죽 응이 미음	주식 류 (8 종)	31. 신검치단조		56. 다스 무튀각법	
13. 진죽죽과죽법			32. 석탄방법		52. 족편법	편
36. 갈분의니법			33. 증편법		57. 동하선법	선
43. 삼합미음법	면		17. 화면법 ⁴²⁾	음청류(4 종)	45. 전복침치	김치류
44. 놀모의니법			30. 원소방법		58. 동침니법	
18. 난면법			68. 외국숙법		59. 동화석박지법	
19. 왜면	69. 보리슈단법		60. 장침치법			

** <표2>의 조리명 앞 숫자는 책에 실린 순서를 표기한 것으로 이를 통해 품목에 따른 필사 순서가 잘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위의 <표2>를 통해 <음식방문나라>에는 『규합총서』 ‘주사의’에서 가장 먼저 설명하고 있는 ‘장’과 ‘식초’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추정해볼 수 있겠다. 필사자 전의 이씨(1867-1938)는 양주 조씨의 23대손인 조용호(1870-1941)의 숙부인으로 남편보다 세 살 많다. 혼인 연도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음식방문나라>의 필사가 완성된 1891년을 기준으로 하면 당시 전의 이씨는 24세였고 남편 조용호는 21세였다. 조선 시대 평균적인 결혼 연령이⁴³⁾ 16세 전후인 점을 감안할 때 이 책은 전의 이씨가 결혼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기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조선 시대 대표적인 조리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삶의 연륜이 묻어나는 50대 이후에 집필되었던 점을 감안하면⁴⁴⁾ <음식방문나라>의 저자는 24세라는 꽤 젊은 나이에 이 책을 필사했다는 특징이 있다.⁴⁵⁾ 따라서 ‘장 담그기’와 같이 집안의 비법이 요구되는 조리법은 시어머니가 주관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필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음식방문나라>에는 『규합총서』에 없는 조리명도 10가지 정도 있다.

아래의 <표3>은 <음식방문나라>와 『규합총서』 조리명의 일치 여부⁴⁶⁾를 나타낸 것이다.

<표3> <음식방문나라>와 『규합총서』와 조리명 일치 여부

음식방문나라	규합총서	음식방문나라	규합총서	음식방문나라	규합총서
1. 화향입주법	●	24. 잡과방법	●	47. 쇼곰기젓법	●
2. 두견쥬법	●	25. 석니방법	●	48. 기굽논법	●

42) 화면법은 조리명만 봤을 땐 면류일 것 같지만, 조리법으로 보면 음청류로 분류된다.

43) 조선 시대에는 원칙적으로 남자 15세, 여자 14세 이상이면 혼인을 할 수 있었고, 양쪽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숙질이 있거나 50세 이상이면 12세 이상도 가능하였다. (한국민속대백과사전).

44) 현존 최고(最古)의 한글 조리서인 <음식디미방>은 1670년경 장계향(1598~1680)이 후손들을 위해 70세가 넘어서 지은 조리서이고, <규합총서>는 빙허각 이씨의 나이 50세에 저술한 책이다.

45) 전의 이씨의 남편 조용호는 1885년 증광시에 급제하였으며, 이후 1902년에 중추원의관이 되기 전까지 규장각 검서관을 지냈다. <음식방문나라>가 완성된 1891년에는 규장각에서 근무했으므로(최금숙, 2022:9), 『규합총서』 목판본을 입수하여 그의 부인에게 필사하도록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6) 조리 방법이 일치하거나(기젓), 한자표기로(진자죽) 조리명이 다른 것, 그리고 오기로(녹타주, 감홍주) 볼 수 있는 것은 같은 조리명으로 분류하였다.

3. 소국주법	●	26. 복영도화고법	●	49. 기썸흔는법	●
4. 감홍주법	●	27. 빅설고법	●	50. 봉통썸법	●
5. 송절주법	●	28. 진전병법	●	51. 완조탕법	●
6. 송순주법	●	29. 뉴조단조법	●	52. 죽편법	●
7. 과하썸법	●	30. 원소병법	●	53. 증구법기썸	●
8. 삼일썸법	●	31. 신검치단조	●	54. 칠향계법	●
9. 약과흔는법	●	32. 석탄병법	●	55. 송니썸법	●
10. 별약과법 ⁴⁷⁾	×1	33. 증편법	●	56. 다스모튀각법	●
11. 약밥법	●	34. 진주좌반법	●	57. 동화선법	●
12. 두죽법	×2	35. 변시만두법	●	58. 동침니법	●
13. 진죽 ⁴⁸⁾ 과자죽법	●	36. 갈분의니법	●	59. 동화석박지법	●
14. 두텁떡법	●	37. 부어굽는법	●	60. 장침치법	●
15. 디초조약법	●	38. 부어썸법	●	61. 삼침주법	×3
16. 화접법	●	39. 열구조탕법	●	62. 팔선주법	×4
17. 화면법	●	40. 송기약탕법	●	63. 삼오주법	×5
18. 난면법	●	41. 편포법	●	64. 녹타주법	●
19. 왜면	●	42. 약포법	●	65. 선표향법	×6
20. 실과병법	●	43. 삼합미음법	●	66. 미화주법	×7
21. 혼돈병법	●	44. 놀모의니법	●	67. 잠(감)절주법	×8
22. 토란병법	●	45. 전복침치	●	68. 외국슈법	×9
23. 감즈병법	●	46. 기젓	●	69. 보리슈단법	×10

위의 <표3>에서 일치하지 않음을 표시하는 ‘×’ 표시⁴⁹⁾는 10가지이다. 따라서 총 69가지의 조리명 가운데 59가지가 <음식방문나라>와 『규합총서』에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음식방문나라>와 『규합총서』에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책의 뒷부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규합총서』 외의 다른 조리서를 참고하여 추가하였거나, 아니면 저자의 시집인 양주 조씨 가문의 비법 또는 필사자의 나이를 짐작해 볼 때 출가 전 친정에서 알아 온 비법 등을 수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음식방문나라>와 『규합총서』의 대조를 통해 조리명이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조리명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도 있었다. 가령 ‘녹타주법’과 ‘기젓’의 경우 송철의(2013)과 최금숙(2020:24)에서는 『규합총서』에 없는 조리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녹타주법’은 <우음제방>⁵⁰⁾에서도 『규합총서』와 같이 ‘녹파주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을 볼 때, 녹타주는 ‘녹파주’의 오기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음식방문나라>의 ‘기젓’은 『규합총서』의 ‘계 오래 두는 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⁵¹⁾ 똑같다는 점에서 같은 조리명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식방문나라>의 ‘녹타주법’과 ‘기젓’을 『규합총서』의 ‘녹파주’와 ‘계 오래 두는 법’과 같은 조리명으로 분류하였다.

아래의 <표5>는 <음식방문나라>와 『규합총서』의 조리명이 같은 것 중에서 각각의 조리 방법을 비교하여 설명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부분과 대체로 일치하는 부분 그리고 거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하나씩 사례를 들어 정리한 것이다.

47) 최금숙(2020:24)에서는 ‘별약과법’을 “동시대를 비롯하여 그 이전 조리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 이름 그대로 특별한 약과 하는 법”이라 하였으나, <주식시의>에는 ‘별약포법’이 있다. 여기서 ‘별(別)-’은 ‘다른’ 정도의 의미를 갖는 접두사로, <음식방문나라>의 ‘별약과법’은 약과를 만드는 또 다른 조리법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다.

48) 『규합총서』에서는 개암죽(榛子粥: 진자죽)으로 표기. (榛: 개암나무 진)

49) 『규합총서』의 조리명 대신 ‘●, ×’로 일치 여부만 표시함.

50) 대전 지역에서 발견된 19세기 고조리서로서 이 책에서도 녹파주법이 실려 있어 함께 비교해보았다.

51) “수유를 누르는 가운데 넣어 두면 해가 지나도 모래가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두 책 모두에 나타난다.

<표5> <음식방문나라>와 『규합총서』의 조리 방법 일치도 비교

조리명	조리법 설명		일치도
	음식방문나라	규합총서	
화면법	두견화를 씻슈염 읍시하고 물의 적셔 녹말을 고르게 잠간 데쳐 오미즈 국의 술 타고 잣 쓰여 씨 ⁵²⁾ 라	두견화 여히 읍시 하고 물의 적셔 녹말을 고로 "무쳐 술 마 오미즈국의 잣 띄워 썩노니라.	高
두견주법	한 제 후라면 정월 첫 히일의 빅미 두 말 가웃술 빅세 작말하야 넘슈을 고붓지게 쓰려 가루을 소리의 담고 "로" " 쓸는 물을 풍기여 흰색 반죽갓치 하되 물은 쌀수와 갓치 두 말 가웃술 쓰려 염미 읍시 초겨든 조흔 가로누룩을 무수니 밤이슬 맞쳐 브라여 빗치 흰도록 하야 체의 치되 쌀 칠흡의 누룩가로 칠 흡식 석겨 무수니 방을 읍시 썩쳐서 항의즈미와 날물니 읍시하냐 술밋 너허 단"니 쓰미여 공석으로 독을 쓰미여 음기 양기 아니 빗치는 디 두엇다	한 제 후라면 정월 첫 히일에 빅미 두 말 빅세하야 작말하고 물을 썰 되인 되로 슈를 갓치 되야 촉박 띄히 고붓지게 쓸히 가로레 고로 퍼부어 쥬격으로 기여 호로 밤 지와 밋까지 어름가치 삭은 후 국말을 무수히 이슬 마쳐 브린여 빗치 보희도록 하야 겁체에 뇌야 되 서 흡을 너코 진가로 칠 흡 너허 고로 버올려 항을 정히 올엿다가 공석으로 싸고 집불 살은 우히 업허 항 속의 집니가 즈 옥혈 제 니룩켜 불되는 정히 씻고 연기는 인는 디로 술밋 너허 돈돈이 불히고 화기와 양기 업는 디 두엇다가	中
토란병법	토란을 익게 살마 계피와 찰가로 석겨 쓰여 썩 민드러 진뉴의 지 "느니라 화전 처로 지 "느니라	연현 토란을 급히 쓰셔 녹논이 살무되 썩에 여지 말고 술모니아 거퍼하고 소창이로 만이 썰너 술에 너허 잠긴 후에 술몬 밤 가로느 빅즈 가루을 못쳐 쓰라	下

위 <표5>의 일치도에 대한 기준은 문장을 읽었을 때 ‘화면법’처럼 어휘 몇 개만 차이가 날 뿐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것은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토란병법’처럼 조리법의 내용이 많이 다를 때는 일치도가 낮음으로, 그리고 조리 방법의 핵심은 같으나 조리 과정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보통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69가지의 조리법 가운데 31가지⁵³⁾의 조리법을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3. 국어학적 고찰

19세기 말에 필사된 <음식방문나라>의 내용을 살피는 과정에서 서울 출신의 빙허각 이씨가 19세기 초에 저술한 『규합총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는지, 아니면 자신의 말투로 바꿔서 옮겼는지에 따라 이 책이 갖는 국어학적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⁵⁴⁾

<표6> 화양입주법

52) ‘씨라’는 ‘씨라’의 오기로 판단.

53) 31가지에는 ‘화양입주법, 두견구법, 소국주법, 과하주법, 감향주법, 송절주법, 송순주법, 갈분이의법, 백설고법, 두텁떡법, 대초조약법, 화전법, 감자법, 유자단자법, 석탄병법, 신경채단자법, 진청병법, 진주좌반법, 붕어굽는법, 붕어찜법, 승기약탕법, 편포법, 약포법, 전복김치, 계젓, 소금계젓법, 계 굽는 법, 계찜하는법, 붕통찜법, 칠향계법, 동화석박지법, 왜면법’ 등으로 판단하였으나, 이 부분은 개인적인 기준을 근거로 한 것이기에 연구자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54) 『규합총서』와 <음식방문나라>는 저자의 출생지(서울과 전의 이씨는 충남으로 추정)도 다르고, 필사 시기(19세기 초와 19세기 말)도 다르다.

<음식방문나라>(1891)	『규합총서』(1809)
국화 성기시의 술니 한 말니어든 <u>꽃</u> 두 되을 주머니의 너허 술독 속의 <u>다</u> 라 두면 향니 가득하니 <u>꽃</u> 순 미화와 년화 등 향기 있고 독이 <u>옴</u> 는 <u>꽃</u> 술 <u>니</u> 법으로 <u>허</u> 되 <u>꽃</u> 출 만니 술 <u>우</u> 흔 뿌리야 <u>조</u> 흔니라 유즈는 <u>술</u> 맛시 쓸 거시니 술독의 <u>너</u> 치 말고 유즈썩질을 <u>썩</u> 치의 너허 달고 술독을 단〃니 <u>덜</u> 허 두면 향취가 <u>괴</u> 니 ⁵⁵ 니라.	국화 성기시의 술의 <u>허</u> 말니어든 <u>꽃</u> 두 되을 주머니의 너허 술독의 <u>드</u> 라 두면 향니가 <u>그</u> 득하니 미화, 년화등 향의 있고 독이 <u>업</u> 순 <u>꽃</u> 순 <u>다</u> 의 법을 쓸 거시오 <u>꽃</u> 출 <u>우</u> 의 뿌려도 <u>도</u> 허디 유즈는 <u>술</u> 맛시 실 거시니 술 속의 <u>너</u> 치 말고 유즈썩질은 <u>썩</u> 치에 너허 들고 술독 <u>우</u> 흔 <u>돈</u> 〃이 <u>덜</u> 허 <u>너</u> 이면 향취가 <u>괴</u> 이니니라.

위의 <표6>은 ‘화향입주법’을 설명하고 있는 두 책의 내용이다. 이를 보면 『규합총서』와 <음식방문나라>의 설명 내용에서 표기법이나 음운론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필사자는 『규합총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기보다 본인의 말투로 필사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음식방문나라>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는 가치가 있다고 본다.

고서들의 국어학적 특징을 살피는 과정에는, 필사본의 특성상 표기법에 오기가 많다든지 불규칙적으로 표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지만, 비슷한 환경에서 일정한 유형으로 실현되는 양상을 보인다면 이는 단순한 표기상의 문제가 아닌 당시 언어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소한 특징들까지도 논의해보고자 하였다.

3.1. 표기법의 특징

근대국어의 표기에는 연철 표기에서 분철 표기로 옮겨가는 과도기적 성격이 나타나고 있다.⁵⁵⁾ <음식방문나라>에서도 연철, 중철, 분철의 혼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연철 표기의 경우 용언과 달리 ㅅ 말음 체언 외에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ㄱ. 아니할 거시니 <1b>, 거술<12a>
 ㄴ. 그릇의<9a> c.f. 꽃일도록<2b>
 ㄷ. 것술<3a>, 맛술<2a>, 그릇시<2b>, 팓술< 8b>, 꽃술<1a>
- (2) ㄱ. 불을 썬 <1b>, 두견은<1b>, 뫼밥은<1b>, 밤의<1b>, 흰물의 썩을 < 2a>, 칠 흡을<2a>
비눌을 거스려 <10a>, 밭은 두다려 <12a>, 집을 니어 <12a>, 썩질을 윈니로<12b>
썩으로 쓰고 <12b>, 털을 막으<13a>, 더운 김의 조곰식 <14a>, 속의 너코 < 14b>
 ㄴ' 열음이어든<14a>

위의 (1)은 ㅅ 말음 체언에서의 연철과 분철, 중철의 표기 양상이다. (1ㄱ) ‘것’의 경우는 거의 연철 표기가 일반적이고, 부분적으로 중철의 양상을 보여준다. ‘것’의 이러한 모습은 19세기의 일반적인 표기 양상으로 볼 수 있다. (1ㄴ)의 분철 양상은 ‘그릇’ 정도만 나타나고, ‘꽃’ 역시 분철의 양상을 보인다.⁵⁶⁾ 특히 이 자료에서는 ‘이’(i)와 반모음 ‘y’ 앞에서 ‘ㄴ’첨가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이,야,여,유,요’를 ‘니,냐,녀,뉴,뇨’로 표기하는 특징⁵⁷⁾이 있다. 이로 인해

55) 광충구(1980), 홍윤표(1987) 등은 근대국어 표기법상의 특징 중 하나로 어간에 대한 인식을 들고 있다. 이로 인해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는 분철 표기가 많이 채택되었으며,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분철표기는 용어보다 체언에서 먼저 나타난다고 하였다.

56) 다만 ‘꽃’의 경우는 말음이 ‘ㅅ’으로 재구조화되었다면 말음을 ‘ㅅ’으로 볼 수 있다.

57) 이 특징의 예로, ‘술니(술이)’, ‘반죽하냐(반죽하야)’, ‘녀름(여름)’, ‘오일니뇨(오일이요)’, ‘뉴자(유자)’ 등을 들 수 있다.

주격 조사 ‘이’가 ‘니’로 표기된다든지 ‘야’가 ‘냐’로 실현되는 양상이 있어 연철의 환경을 일부 차단됨으로 인해, 체언에서는 연철 표기가 분철 표기보다 훨씬 적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어간 말음이 ‘ㅅ’인 경우는 (1ㄷ)과 같이 중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맛, 그릇, 팻(팻), 쫓(쫓)’처럼 체언의 어간 말음이 ‘ㅅ’일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면 어간을 고정하여 표기하고, 어미 부분에는 실제적인 발음을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⁵⁸⁾ 다만, ‘ㅅ’ 외의 다른 말음의 환경에서는 중철 표기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⁵⁹⁾

위의 (2)는 이 자료에 나타나는 체언의 분철 표기 양상으로 대체로 말음이 비음이나 유음일 때 출현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2ㄴ’)의 ‘열음’은 ‘여름(夏)’의 과도 분철로 이해된다.

용언의 경우 연철 표기가 일반적인 양상이지만, 일부 어형에 따라 분철 표기도 확인된다.

- (3) ㄱ. 두견은 수염업시<1b>, 만히 씨쳐<1b>, 동의로 버든<2a>, 너흔<2a>
 고로 " " 석거<3b>, 씨셔<3a>(cf 씨쳐<11b>)⁶⁰⁾, 고로 " " 석거<3b>
 복거 줍치의<4b>, 만드려<4b>, 쓰린 물<5a>, 불근 팻<6a>, 아라<6a>
 싱놀 치듯 싹거<8b>, 조홀 뜻하다<11b>, 글근 증을<12a>, 조흔 비을<14a>
 속의 너코<14b>, 살무 건져<16a>, 늘근 노각을<16a>
- ㄴ. 식은<3b>, 미들의 갈어<5b>, 냥지의 말여<7b>, 쓸여<6a>
 썬어 먹은<9b>, 부리를 막어<12a>, 썰어<11b>(cf 썬어<6b>), 담아다가<14a>
 물의 불여<14a>, 알게 점여<16a>.

위의 (3)은 용언에서 연철과 분철이 나타난 사례들이다. 용언의 경우 체언과 달리 (3ㄱ)의 연철표기가 (3ㄴ)의 분철 표기보다 출현 횟수가 대체로 많았다.

한편 어중 유기음 표기의 양상은 근대국어 표기법의 중요 특징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이 자료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⁶¹⁾

- (4) ㄱ. 것틱<11a>, 덜퍼<2b>, 밋틱<3a>
 ㄴ. 술밋희<2a>, 것슬 덜허 썬고<13b>, 뱃희 노와<14a>
 ㄷ. 밤이슬 맞쳐<1a>, 좇치 아니하니<1b>, 체의 밋치고<2a>, 어름갓치<3a>, 꺾쳐 복다가<9b>
 잠잠 댕치고<14b>, 뱃치논 디<1b>, 꺾치지 아니하며<10b>, 못쳐 쓰라<13a>

위의 (4)는 어중 유기음의 표기 양상이다. 근대국어 어중 유기음의 표기는 대체로 세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자료에서는 부분 중철의 모습과 재음소화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4ㄱ)은 부분 중철의 양상으로, ‘겉, 덜-, 밋’의 어간 말음은 7종성법에 맞게 ‘것, 덜-, 밋’으로

58) 이익섭(1993:5-7)에서는 중철 표기는 15세기까지는 없었던 표기법으로 16세기 초의 문헌인 <이륜행 실도>(1518) 등에서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분철이 정착한 이후에도 중철 표기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9) 이에 대해 김소연(2011:225-226)에서는 16세기 이후부터 19세기 말까지 중철표기에서 ‘ㅅ’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ㄷ’과 ‘ㅅ’의 중화로 인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중철표기 방식은 어간 형식 보존과 발음 정보를 나타내 주는 효율적인 대안이었기 때문으로 지적하고 있다.

60) ‘씻어’의 연철표기가 ‘씨셔’와 ‘씨쳐’로 나타나고 있는데, ‘씻-’은 ‘씻-’의 총칭, 전라 방언이다.

61) 어말 자음의 표기는 음운론적으로 ‘ㅅ’과 ‘ㄷ’이 중화되어 7자음으로 제한되었는데, 이러한 제한과 분철표기의 경향 속에서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연결될 때 합리적인 표기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것이 이 시기의 표기법을 복잡하게 한 요인이 되었다(곽충구, 1980:14).

표기하였으며, 어미 부분은 실제로 발음되는 대로 표기한 것이다. (4ㄴ)의 유형에 대해 곽충구(1980:16)에서는 역학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기 방식으로, 유기음 계열의 자음들을 ‘ㅎ’이 합성된, 즉 음운론적으로 재음소화⁶²⁾의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 표기법이라고 하였다. 이 책에서는 ‘밧희, 덩허, 벧희’의 3가지 예만 나타나고 있다. (4ㄷ)은 어중 유기음이 ‘ㄷ’인 경우에 나타나는 표기 방법으로 부분 중철의 양상으로 나타났다.⁶³⁾

어두 합용병서의 경우 <음식방문나라>에서는 ‘ㅂ’계는 단 1회 나타나며, 거의 ‘ㅅ’계로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표7> 어두 합용병서 표기 사용례

어두	구분	
	체언	용언
ㅅ	꽃(花), 껍질(皮), 꿀(蜜), 기름식, 씨소금	끓논(煮), 찌쳐, 써지논(消), 깔고(布), 쓴너(切), 싹거(推), 물솜, 쉼여(串)
ㅅ	떡(餅), 또(再), 저(時), 싹지(蓋)	뜨도록(浮), 살마짜가(煮), 뜰어(澁), 썰러지거던(落), 짜려(煎), 풀니지(穿), 짜셔(摘), 물엿짜가
ㅅ	쌌(骨)	뿌리아(撒), 썩지거든(消), 쏘불(拔), 썰고(拔), 쌀어(洗)
ㅅ	쌀(米), 쓰러지, 썩(艾)	쓰느니라(用), 썩미여, 쓸어, (불을)썰, 달곰쌌살, 썩어(熬), 썩고(涌), 썩고(苦), 썩셔(cf, 쓰셔, 썩쳐, 썰쳐)洗), 썰고(掃), 썩우고(蓋)
ㅅㅅ ⁶⁴⁾	세쪽(三片), 쪽직기, 짠마시(鹽), 썰(蒸)	썰(蒸), 썰면(烤), 썰계(鹽), 썰기여(分), 썰노코
ㅅㅅ		뿌려(散)

위의 <표7>을 보면 예외적으로 ‘ㅂ’계의 ‘뿌려<2a>’가 있지만, 어두 합용병서가 ‘ㅅ’계로 고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에 나타난 종성 표기는 7종성법⁶⁵⁾ 표기를 보이며,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표8> 종성 실현 양상

말음	구분	
	체언	용언
ㄷ/ ㅌ	밧(底)→밧, 솥(鼎)→솥	걸-(除)→걸-, 굳-(固) →굳-/ 같-(同)→같-, 붙-(附)→붙-, 흘-(散) →흫-
ㅈ/ ㅊ	꽃(花)→꽃/ 국(羹)밧(色)→국밧 겻(表)→겻, 꺾/꺾(小豆)→꺾 ⁶⁶⁾	맛-(正)→맛-, 밧-(造) →밧-
ㅎ		녕-(方)→녕-, 좋-(好) →죗-

62) 재음소화란 근대국어 표기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유기음 ‘ㄱ, ㄷ, ㄷ, ㅍ’을 ‘ㄱ, ㄷ, ㄷ, ㅍ+ ㅎ’으로 분류하려는 인식을 의미한다.
 63) 곽충구(1980:16-17)에서는 어중 유기음 표기에서 선행 음절에 ‘ㅅ’을 첨가하는 것은 음성적으로 파열음을 발음할 때 생기는 폐쇄 지속음을 표기하려 한 것으로 보았다.
 64) ‘ㅅ’의 된소리는 중세국어에는 없었으나, 17세기에 ‘ㅅㅅ’이라는 글자가 출현하였으며, 이는 ‘ㅅ’계 합용자가 된소리의 표기에 널리 쓰였다는 사실과 관련된다(곽충구, 1980:22).
 65) 8종성법이 7종성법으로 확립된 시기는 <박통사언해>(1677)에서이며, 20세기 초 ‘언문철자법’에서 까지 이어지고 있어 근대국어 표기법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다(이익섭, 1993:13-15).

표	닻(葉)→ 닻	
ㄱ67)		깎-(削) →삭-, 닦-(修)→닥-, 볶-(焦) →복-, 섞-(混) →석-
ㅅ/ㅆ		없-(無) →업-/ 두었-(放) →두엇-, 있-(有) →잇-, 세웠-(立) →세윳-
ㄴ/ㄴᄂ/ㄴᄃ/ ㄹ/ㄹᄂ/ㄹᄃ	여덟/여덫(八)→여덜	얻-(添)→언-/ 많-(多) →만-, 끊-(切) →끈-/긋- →글-, 맑-(淸) →말-, 붉-(赤) →불-/삶-(烹) →살-, 삼-/쥘-(澀) →쥘-, 얇-(薄) →얇-/끓-(煮) →쥘-, 뚫-(穿) →쥘-

위의 <표8>은 7종성법에 의해 종성의 ‘ㄷ, ㅌ, ㅈ, ㅊ, ㅎ’이 ‘ㅅ’으로 표기되었고, 겹받침들이 대표 자음으로 단일화하여 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래의 (5)와 같이 특이한 표기를 보이는 것들도 있다.

- (5) ㄱ. 뷘툼~~없~~시<9a>
 ㄴ. ~~닻~~을 푹속~~ㅎ~~야<9b>, ~~닻~~ 살문 물의<9b>, ~~닻~~기~~ㅎ~~<12b>

위의 (5ㄱ)은 종성에 겹받침 ‘ㅅ’의 표기 사례이며 이 책에서는 단 1회 나타난다. (5ㄴ)은 ‘닻’을 ‘달’으로 표기한 것으로 ‘닻’의 표기는 나타나지 않고, 3회 모두 ‘달’으로 표기하고 있어 이는 ‘닻’의 오기가 아닌 필사자가 ‘닻’을 ‘달’으로 인식한 결과로 볼 수 있겠다.⁶⁸⁾

3.2. 음운적 특성

3.2.1. 자음

구개음화는 비구개음이 [i], [j] 앞에서 구개음으로 변하는 모음에 의한 자음의 위치 동화 현상으로,⁶⁹⁾ 대체로 남부지방에서 먼저 시작하여 중부지방으로 확대된⁷⁰⁾ 근대국어의 대표적인 음운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19세기 말에 필사된 이 책에서는 ㄷ구개음화가 완전히 고착되었으며⁷¹⁾, 아래의 (6ㄷ-ㄷ)에서처럼 ㄱ구개음화와 ㅎ구개음화⁷²⁾의 사례도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방언의 특징으로 볼 수도 있다.

- (6) ㄱ. 우흔 썩리아 ~~조~~흔나라<1a>, 잠감 ~~뎡~~치고<14b>.

66) 겹(表)<월석>, 꺾/꺾(小豆)<구방>의 어원은 표준국어대사전을 참고함.
 67) 18세기가 되면 종성의 ‘ㅅ’은 ‘ㄱ’으로 나타나며, 주로 체언보다 용언에서 먼저 실현되는 모습을 보인다(곽충구, 1980:52-53).
 68) ‘닐고’<동국신속삼강행실 효 5b>, ‘뉘 올 제’<상동, 효 49b>, ‘글을 닳으매’<삼강행실도 총 24b> 등에서도 ‘ㄱ’의 받침 사용이 보인다(홍윤표, 1987:32).
 69) 최윤현(1983:403)은 중세국어에서는 ‘ㄷ>ㅌ’은 [i]나 [j] 앞에서는 모두 적용되었으나, 현대에는 형태소 경계의 [i]나 [j] 앞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임을 지적하고 있다.
 70) 배영환(2020:139)은 남부지방의 구개음화가 중부지방으로 확대된 요인에 대해 혼인을 통한 인적 교류에 주목하였다.
 71) 좋다(好)와 찌다(蒸)의 경우 『규합총서』에서는 ‘도-/조-’, ‘찌-/찌-’처럼 혼기 양상이 보이고 있어, 『규합총서』에서는 ㄷ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72) ㄱ구개음화는 16-17세기 경 남부방언의 자료에서 보이기 시작하고, 함경방언, 중부방언의 일부 지역에서 나타났지만, 대부분의 중부방언이나 평안방언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ㅎ구개음화도 16세기 경 남부방언에서 시작하여 광범위하게 확대되지만, 서북방언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으며, 중부방언에서는 일부 어휘에 한정되어 나타났다(김주필, 1999:186-187).

- ㄱ. 반죽ㅎ야 테에 보즈 쌀고<5b>
- ㄴ. 흰물의 씩을 손짐<2a>, 뉴즈정단<8a>, 장짐치법<14b>,
 - 곰팡니 만나 씩실거시니<음식방문 2b>
- ㄷ. 심지의 불을 씩<1b>, 심줄 업시ㅎ고<9b>

위의 (6ㄱ)은 ㄷ구개음화가 실현된 사례들로 ‘동-(好)’가 ‘조-’으로, ‘땃치고’는 ‘데티-<월석>’가 ‘데치-’로 구개음화 된 것이다. (6ㄱ)은 ‘체→테’의 표기로 ‘체’의 과도교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책에서는 1회 나타났다. (6ㄴ)은 ㄱ구개음화의 사례로 ‘김→짐⁷³⁾, 경단→정단, 김치→짐치⁷⁴⁾, 껌→씩’로 표기하였고, (6ㄷ)은 ㅎ구개음화 사례들로 ‘힘→심, 혀다→씨다⁷⁵⁾’로 표기하고 있다.

‘ㅎ’은 어말이나 어두의 위치를 제외한 형태소 내부에서는 유성음 사이에서만 나타난다. 이는 ‘ㅎ’이 무성음과 연결되면 유기음이 되는 음소 배열의 제약으로 인한 것이다. 유성음 사이에서도 ‘ㅎ’이 약화되어 탈락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실제 발음에서는 ‘ㅎ’이 나타나지 않지만, 표기의 보수성으로 ‘ㅎ’이 나타나는 사례들도 있다. 이 책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다.

- (7) ㄱ. 노ㅎ되<5b>, 너흔<5b>
 - ㄱ. 노와<5a>, 너어<5b>, 조은나라 <12a>, 쓸년<2b>, 쓸니지<12a>
 - ㄴ. 후현(후엔)<2b>, 식훈(식은)<3b>, 저현(저어)<3b>

위의 (7ㄱ)은 형태소 내부에서 어말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후행 음절에 연결된 사례들이다. (7ㄱ)은 유성음 사이에서 어말 ‘ㅎ’이 탈락한 사례들로 실제 발음을 표기한 것이다. ‘쓸-/쓸’은 어간 ‘쓸-/쑹-’의 음절 말 자음군 ‘ㅎ’이 이어지는 비음 어미에 의해 ‘ㅎ’이 탈락한 것이다. (7ㄴ)은 ‘ㅎ’의 과도교정 표기 사례들로 볼 수 있겠다.

유음 표기는 어중에서 ‘ㄹㄹ’이 ‘ㄹㄴ’으로 표기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이는 근대국어의 특징이기도 하며, 이러한 표기의 전통은 1933년 한글맞춤법 통일안이 나오기 전까지 이어졌다.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다.

- (8) ㄱ. 쓸는 물을<1a>, 늘녀가며 담어<1b>, 결녀 체의<2a>, 씩거 말니워<8b>, 계란을 풀늑<10a>
 - 기름장 발늑<10a>, 훈디 쥬물녀<11a>, 돌의 문질녀<11a>, 쓸니지⁷⁶⁾<12a>
- ㄴ. 절노 씩지늑니<13a>
 - ㄴ. 물니<1a>, 불니<1b>, 겨울니<3a>

위의 (8ㄱ)은 형태소 경계에서 ‘ㄹ-ㄹ’이 ‘ㄹ-ㄴ’으로 표기된 사례들이고, (8ㄴ)의 ‘절노’(自)는 형태소 내부에서 ‘ㄹ-ㄹ’이 ‘ㄹ-ㄴ’으로 표기된 것이다.⁷⁷⁾ (8ㄴ)은 체언에 주격 조사가 결

73) 이 책에서는 ‘김’이 단독으로 사용될 때는 ‘김니’와 같이 표기되었지만, 합성어로 사용될 때는 ‘손짐’처럼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난다. ‘손짐’이나 ‘심’은 전북방언으로 볼 수도 있다.
 74) 『규합총서』에서는 ‘김치, 침치’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75) 『규합총서』의 <두견주>에서는 ‘심디에 불을 혀’로 표기하고 있다.
 76) ‘똥다’는 ‘똥다>똥다>쑹다>쑹다>쑹다’의 과정을 통해 어간 재구조화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정윤자(2007)을 참고할 수 있다.

합한 것으로 유음 표기와는 무관한 것이다. 『규합총서』에서는 ‘ㄹㄹ’과 ‘ㄹㄴ’이 혼기 양상을 보였으나, 이 책에서는 ‘ㄹㄹ’의 표기는 나타나지 않았다.

3.2.2. 모음

국어에서 고모음화 현상은 중모음 ‘에, 어, 오’가 각각의 고모음 ‘이, 으, 우’로 변화되는 현상을 말하며, 중부방언의 특징 중 하나로 각각의 실현 양상은 환경이나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배영환, 2019:182). 이 자료에서 활발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어두에서 ‘어>으’의 변화이며, ‘에>이’에 의한 고모음화는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다.

- (9) ㄱ. 독괴 읍논<1a>, 수염 읍시<3b>, 잘게 쓸고<5a>, 건시는 쓸어<5b>
 ㄱ'. 송향니 엷도록<3b>, 토질을 엷시하^ㄴ논<11a>, 기름씩 엷논 고기을<11a>
 ㄴ. 호초<5a>, 고초장<13a>

(9ㄱ)은 ‘어>으’의 고모음화의 사례들로 ‘읍-(엷), 은-(연-), 들(덜), 쓸-(썰-), 쓸-(뺨-)’이 보이며, 총 8회 나타난다. (9ㄱ')은 고모음화가 실현되지 않은 사례로, ‘엷’이 총 26회 나타나고 있어, ‘읍’의 출현 빈도보다 높았다. (9ㄴ)의 ‘호초’(胡椒)와 ‘고초’(苦椒)는 ‘오>우’의 고모음화를 겪지 않은 표기로 이들은 20세 이후에야 ‘후추’와 ‘고추’로 표기된다.

전설고모음화는 19세기 대표적인 음운 현상(78) 치찰음 ‘ㅈ, ㅉ, ㅊ, ㅅ’ 밑에서 ‘으 >이’의 현상이다. 치찰음 자체가 [i]나 [j]를 포함하는 구개음이기 때문에 ‘으’에 영향을 주어 ‘이’로 나타난 결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 책에 표기된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0) ㄱ. 질도 되도<1b>, 니월집 <2a>, 집의 <5b>, 찌언지면<9a>, 서리 마진<14a>, 겁질<16a>
 곱팡니 만나 썩질<2b>, 읍신니<5a>, 죽여 썩지 말고<13a>
 뿌려시라<5a>, 썩져시니<10b>
 ㄱ' 썩청니<4b>, 강썩<4b>, 썩어<5a>, 썩즐<6b>

위의 (10ㄱ)은 ‘ㅈ/ㅅ’ 뒤에서 모음 ‘으 >이’의 전설모음화 사례로 ‘썩>집’, ‘썩>짐’, ‘썩>질’, ‘썩>실’, ‘스>시’, ‘쓰>씨’로 표기되었으며, ‘즈>지’가 ‘스>시’보다 표기된 횟수가 많았다. (10ㄱ')은 전설모음화가 실현되지 않은 사례들로, (10ㄱ-ㄱ')의 혼기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으’는 비음운화된 이후에도 문자의 보수성에 의해 계속 사용되었다. 즉 ‘으’의 경우 문자는 있으나 자신의 음가를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표기상의 혼란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었다.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다.

- (11) ㄱ. 쌀<1a>-쌀<1a>, 호로밤<2a>-하로밤<2a>
 ㄴ. 다라<1a>-ㄷ라<1a>, 반죽 하야<5a>-반죽 하냐<6b>

77) 여은지(2008:50)에서는 ‘ㄹㄹ>ㄹㄴ’의 표기 변화에 대해 ‘ㄹㄴ’표기는 16-17세기 경 나타나 18세기에는 ‘ㄹㄹ’과 대등한 위치에 있었으나 19세기에 이르러 ‘ㄹㄹ’을 누르게 되었다고 하였다.

78) 성희재(2002:576)는 전설모음화가 나타난 시기에 대해 ‘스>시’의 변화는 18세기 말에 나타나지만, ‘즈>지’는 19세기 말에 보여 ‘스>시’가 ‘즈>지’보다 이른 시기에 나타났음을 지적하고 있다.

위의 (11ㄱ-ㄴ)은 체언과 용언에서 ‘으’와 ‘아’의 혼기가 표기된 사례로, 이 책의 필사 시기가 19세기 말인 것을 감안할 때 비교적 늦은 시기까지 ‘으’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⁷⁹⁾

18세기 후반에 들어서면 ‘으>어’의 변화도 상당수 나타나기 시작한다.

- (12) ㄱ. 불긋 " " 현 <2a>, 돈후현<2b>, 진히계<3b>, 독현<3b>, 방정현<4b>, 조청의 히면<5a>, 수비현<5b>, 반죽현<5b>, 유익히리 <11a>
- ㄴ. 슬년<2B>, 붓년나라<2B>, 찬합 넛덧<10B>

위 (12)의 사례들은 비어두에서 ‘으>어’의 표기 사례로, (12ㄱ)의 ‘히-’(爲)는 19세기 윤음(綸音)에서 많이 나타났다(곽충구, 1980:20). (12ㄴ)은 ‘넛>년’과 ‘덧>덧’으로 표기된 것이다. 어미 부분에서 ‘으>어’의 변화는 19세기 충청 방언의 한 특징이기도 하다(배영환, 2009:120).

3.3. 형태적 특징

형태적 특징으로는 주격, 처격, 대격 조사들에서 아래와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 (13) ㄱ. 물니<1a>, 불니<2b>, 술니<3b>, 봄니<3a>, 겨울니<3a>, 송향니<3a>, 비각니<3a>
향취가<1a>, 청주가<2a>, 즐기가<5b>, 감조가<7a>, 고기가<9b>, 모리가<11b>
- ㄴ. 성기시의 술니<1a>, 주머니의 너히<1a>, 속의 다라 두면<1a>, 함기<13b>
군중의도, 디풍의도<11a>/ 노인과 소아의게<11a>
- ㄷ. 조청을 반식<5a>, 토질을 업시<11a>/ 디초 속를<9a>, 다스 를 물의<14a>
- ㄷ'. 두견화을 솟슈염<6b>, 녕슈을 고붓지계<1a>, 일곱 가지을<13a>

위의 (13ㄱ)은 주격 조사 ‘이/가’가 사용된 사례이며, ‘이’의 경우 ‘니’로 표기되는 특징이 있다. (13ㄴ)은 처격 조사 ‘-에/에게’가 ‘의/의게’로 표기된 것으로, ‘-에’의 표기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32ㄷ)은 대격 조사 ‘을/를’이 사용된 사례다. 사례 중 ‘속를’은 ‘속을’의 오기로 볼 수 있다. 이는 이 책에서는 대격 조사가 대부분 ‘을’로만 사용되고 있으며 ‘를’이 나타나는 것은 단 2회뿐이기 때문이다. (13ㄷ')은 앞 음절에 종성이 없음에도 대격 조사 ‘을’을 표기하고 있어 음운론적인 환경과 무관하게 대격 조사로는 ‘을’만 사용하는 특징이 나타난다.⁸⁰⁾

3.4. 어휘적인 특징

<음식방문나라>에 나타나는 어휘적인 특징으로는 아래 (13)과 같이 전북과 충남 방언의 흔재를 들 수 있다.

- (14) ㄱ. 줌치, 버담(보담), 만콩, 비츠, 꽤, 소당, 허다, 만치, 씨쳐, 소라기(소라이)-(전북 방언)

79) 역사적으로 ‘ㆍ’는 15세기에는 발음뿐 아니라 표기에서도 의미가 변별되어 ‘허다(爲)’와 ‘하다(多)’가 구분되어 사용되었으나, 16세기에는 비어두 음절 ‘으>어’의 변화에서 시작하여 18세기 후반에는 어두 음절에서 ‘으>아’의 변화를 끝으로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여긴다(이철기, 2015:40).

80) 『규합총서』의 주격에는 ‘술이, 향니가’처럼 ‘-이/가’가 사용되었으며, 대격에는 ‘두 되를, 마술 보아, 출발을’처럼 ‘-을/를’과 ‘-을’의 표기가 나타난다. 그러나 처격에서는 ‘주머니의, 술독의, 속의’처럼 <음식방문나라>와 같이 ‘-의’의 형태만 나타났다.

ㄴ. ㅈ에, ㅊ거, 무수, 비츠, ㄱ, ㅈ, 소당, 만치, 처로(처럼)-(충남 방언)

충남 방언 구획과 관련하여 도수희(1987), 한영목(2008), 박숙희(2010) 등에서는 ‘홍성’을 전북 방언과 관련지어 분류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홍성에서는 전라 방언이 함께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 책에서 (14ㄱ-ㄴ)과 같이 충남 방언과 전북 방언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은 ‘홍성’의 지리적 위치와 일면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4. 결론

본고는 충남 홍성 고운사택에서 발견된 고조리서인 <음식방문나라>의 내용을 통해 이 책의 서지적 및 국어학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앞서 논의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서지적 측면에서 살펴본 <음식방문나라>는 책판의 크기가 가로 30.3cm, 세로 21.5cm로 4침의 형식이며, 한지에 순 한글로 필사되었다. 필사기에 기록된 ‘文洞’은 사운고택의 옛 지명인 ‘元文洞’에서 ‘文洞’만 발췌하여 필사자의 덕호로 사용한 것이며, ‘신묘년’은 1891년 숙부인 전의 이씨가 24세 때이다. 책에는 수정한 곳이 아홉 군데 있는데, 수정한 글씨체가 필사자의 필체와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필사자가 직접 수정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69가지의 조리법이 수록되어 있었는데, 『규합총서』의 조리법과 비교한 결과 59가지에서 내용이 비슷하거나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사본의 특성상 표기법에 오류가 많아 국어학적 특징을 정확히 밝히기 힘든 점도 있었으나, <음식방문나라>에 나타난 국어학적 특징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표기법에서는 연철, 중철, 분철의 혼기가 나타났다. 체언의 경우 음절 말 자음 ‘ㅅ’을 제외하면 연철표기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용언의 경우는 어간 말 자음이 ‘ㄹ’일 때 연철과 분철 모두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그 밖의 특징으로 종성 표기는 7종성법을 따르고 있고, 어두 합용병서가 ‘ㅅ’계로 통일되어 나타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음운적 특징으로는 ㄷ구개음화가 고착되었고, ㄱ구개음화, ㅎ구개음화의 사례도 보였다. 고모음화와 전설모음화의 경우 실현과 미실현의 혼기 양상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어 과도기적인 음운 현상으로 판단하였다. 형태적 특징으로는 주격 조사 ‘이’가 ‘니’로, 처격 조사 ‘에’가 ‘의’로 예외 없이 사용된 점과 대격 조사가 앞 음절의 종성 유무와 상관 없이 대체로 ‘-을’로 사용된 점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휘적 특징은 홍성의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충청 방언과 전라 방언의 혼재를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음식방문나라>는 구체적인 필사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과 홍성 지역 양반가의 식문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19세기 말 홍성 지역의 표기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이다. 이 책은 아직은 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아 관련 연구가 미미하지만, 향후 연구가 진전된다면 19세기 충남 홍성을 대표하는 고조리서로 매우 가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자료>

- 곽충구(1980), “十八世紀國語의 音韻論的 研究”, 『국어연구』 43,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소연(2011), 「근대국어 중철표기의 유형 검토」, 『우리말연구』 28, 우리말학회, 205-231.
- 김영(2020), 「우리한글박물관 소장 음식방문의 특징과 문화사적 의미」, 『인문사회21』 11,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533-2546.
- 김주필(1999), 「구개음화」, 『새국어생활』 9, 국립국어연구원, 181-191.
- 남광우(2008), 『고어사전』, 교학사.
- 대전역사박물관(2012), 『조선 사대부가의 상차림』, 월간 토마토.
- 도수희(1987), 「충청도 방언의 특징과 그 연구」, 『국어생활』 8, 국어연구소, 88-101.
- 박숙희(2010), 「굴절의 음운 현상으로 본 충남 방언의 특징」, 『어문학』 109, 한국어문학회, 145-168.
- 박혜인·홍형욱(2015), 『한국가정생활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배영환(2009), 「청주지역어에서의 고모음화와 중모음화」, 『방언학』 10, 방언학회 119-148.
- (2012), 「19세기 대전 지역 음식 조리서의 국어학적 연구」, 『언어학연구』 25, 한국중원언어학회, 107-132.
- (2019), 「영동 송병필가 한글편지에 나타난 19세기 충북방언-모음 음운론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15,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75-201.
- (2020), 「17세기 충북 방언의 구개음화 연구-우암의 한글 편지를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60, 동아시아고대학회, 121-146.
- 백두현(2006), 「조선시대 여성의 문자생활 연구: 한글 음식조리서와 여성 교육서를 중심으로」, 『어문논총』, 45, 한국문학언어학회, 261-321.
- 성희제(2002), 「자음에 의한 순행적 모음동화현상 연구」, 『한국언어문학』 49, 한국언어학회, 565-584.
- 여은지(2008), 「근대국어 ‘ㄹㄴ’ 표기의 음운론적 해석」, 『한국언어문학』 64, 한국언어학회, 45-76.
- 이익섭(1993), 「근대국어 표기법의 성격과 특징」, 『한국학』 16, 한국학중앙연구원, 3-17.
- 이철기(2015), 「소멸위기 언어 보전의 관점에서 본 지역방언 교육의 방향 -제주방언 말소리 아래아(,)를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 18,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9-52.
- 정양완(2008), 『규합총서』, 보진재.
- 정윤자(2007), 「‘똥다’의 어간재구조화 고찰」, 『동양고전연구』 26, 동양고전학회, 185-220.
- 조환웅(2020), 『사운고택 고조리서 음식방문나라』, 교문사.
- 최금숙(2020), 「양주 조씨 사운고택 문화유산의 활용방안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윤현(1983), 「구개음화의 연구-구개음화의 원인과 시기에 대하여-」, 『文湖』 8, 건국대학교, 403-415.
- 한영목(2010), 『충남 방언 문법』, 집문당.
- 홍윤표(1987), 「근대국어 표기법」, 『국어생활』 9, 국어연구소, 25-37.

“<음식방문나라>의 국어학적 연구” 토론문

권미소(제주학연구센터)

이 글은 『음식방문나라』를 크게 서지학적, 국어학적 특징으로 나눠 살펴본 것입니다. 필사자, 필사 시기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자료임에도 국어학적으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글의 가치가 크다고 봅니다. 좋은 자료를 소개해 주시고, 꼼꼼히 기술하신 글을 읽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토론이라기보다는 발표문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을 여쭙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음식방문나라』와 『규합총서』를 비교했을 때 국어학적으로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여쭙습니다. 발표문만으로는 『규합총서』와 내용적 특징만이 비교, 제시된 듯합니다. 선생님께서도 『음식방문나라』의 필사자 전의이씨가 『규합총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는지 아니면 자신의 말투로 바꿔서 옮겼는지에 따라 이 자료가 가지는 국어학적인 가치가 다르다고 하셨는데요. 필사본의 경우 대체로 필사자의 방언 사용 양상, 표기 습관, 언어 의식 등이 반영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규합총서』와 큰 차이를 보이는 국어학적, 방언학적 특징 등은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식방문나라』와 『규합총서』의 조리법 가운데 일치도가 높은 것이 약 31가지나 된다고 하셨는데 그 가운데 음운, 어휘, 문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예를 들어 보여 주시면 더욱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덧붙여 제시하신 예들 가운데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표 5> ‘화면법’, ‘두견주법’, ‘토란병법’의 내용만 비교해 보더라도 『규합총서』에서는 ‘가로[粉]’만, 『음식방문나라』에서는 ‘가로’, ‘가루’가 혼용됩니다. 또한 두 자료의 원순모음화의 차이(물/물, 살무되 등)도 두드러지는 듯합니다. 어간 내부, 형태소 경계에서 원순모음화가 반영된 예들을 향후 논문에 함께 밝혀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음식방문나라』에서는 ‘ㄱ>ㄴ’의 충청도 방언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고모음화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배영환(2021)에서 충청도 방언의 ‘ㄱ>ㄴ’ 고모음화는 대략 19세기 후반에 실현되며 다른 지역의 자료에서는 잘 확인되지 않는 음운 현상이라고 지적한 바 있고, 그 예 가운데 『음식방문나라』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9)에 따르면 ‘업-’이 ‘읍-’의 출현 빈도보다 높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기술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발표문을 봤을 때 이 시기 다른 자료에 비해 고모음화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의견인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시하신 예들에 대한 것입니다. 제 지식이 얕아 지엽적인 것을 여쭙게 되는 점 양해 구합니다. 1) 먼저 ‘ㅣ’나 반모음 ‘y’ 앞에서 ‘ㄴ’이 첨가되는 예가 많은 것과 연철 표기가 적게 나타나는 것이 어떤 상관 관계를 갖는지요? 발표문에 제시한 ‘반죽하냐, 녀름, 오일니뇨, 뉴자’ 등의 예로 연철 표기와의 관계성을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2) 또 다른 예의 문제인데요. ‘고초’, ‘호초’ 표기가 고모음화와 연관이 있는 것인지요. 3) (10ㄱ)의 ‘겹질’ 또한 전설고모음화의 예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 서론

이 글의 목적은 20세기 초 경남 창녕 지방의 방언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 『녀사쇼학』을 소개하고, 이 책의 국어학적 가치를 검토하는 것이다.

『녀사쇼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녀사쇼학』은 『小學』에서 여성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여 만든 여성 수신서이다. 『小學』을 기초로 한 여성 수신서는 『내훈』, 『여소학』, 『규범』, 『여사수지』 등이 있다. 『녀사쇼학』은 분량으로 보았을 때 가장 많은 이야기를 『小學』에서 가져온 책이다. 『내훈』에 인용된 『小學』의 고사는 최대로 잡으면 82개인데 『녀사쇼학』은 그보다 많은 91개의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2.1.에서 후술).

둘째, 『小學』의 번역을 다시 하였다. 『녀사쇼학』은 당시 『小學』의 언해본 중 정본이라고 할 수 있는 1744년 영조 연간에 간행된 『어제소학언해』를 기본으로 하여 만들어진 책이다. 그런데 한문의 분구나 구결은 『어제소학언해』의 것을 따라가고 있으나 단어는 많은 부분 교체되었다. 교체된 단어 중에는 현재 경남 방언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많아 당시 창녕 방언의 어휘와 음운 상태를 잘 관찰할 수 있다(2.2, 2.3, 4, 6장 참조).

셋째, 『녀사쇼학』에는 각각의 이야기 뒤에 한 줄 내려쓴 주석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중 70% 정도는 『소학제가집주』의 주석이다. 『소학제가집주』는 조선 시대에 언해된 적이 없기 때문에¹⁾ 주석 부분은 선대 판본의 영향을 받지 않은 당대의 문법과 어휘가 잘 드러나 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2.2, 5장 참조).

넷째, 20세기 초기 경남 방언이 완전한 문장으로 반영되어 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영남 지역에서 간행된 문헌은 그 수가 많아 방언사를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 시기의 경남 방언을 반영한 문헌은 을유본 『유합』(이상규 2013), 『여사수지』(백두현 1992), 『수경옥낭좌전』(박창원 1992, 김정대 1992), 『역대전자문』(홍운표 1985), 『동몽수독천자문』(백두현 2007), 『계몽편』(김영진 1987) 등이 있는데, 이 중 『여사수지』나 『수경옥낭좌전』을 제외한 나머지 문헌은 모두 한자 학습서이다. 따라서 어휘 연구나 어휘에 반영된 통시적 음운 변화의 연구에 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문법 형태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에 반해 『녀사쇼학』은 문장으로 되어 있어 문법 형태들을 선명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앞선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녀사쇼학』의 체제와 구성상의 특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녀사쇼학』의 표기의 특성을 다루고, 제4장에서는 『녀사쇼학』에 드러나는 20세기 전반기 경상남도 창녕 방언의 음운론적 특성을 보일 것이다. 제5장과 제6장에서는 각각 『녀사쇼학』의 문법적 특성과 어휘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제7장은 결론으로 『녀사쇼학』의 의의를 다시 한 번 음미한다.

2. 책의 체제와 특징

* 이 발표문은 『『녀사쇼학』 주석의 번역 양상 연구』와 『『녀사쇼학』의 국어학적 연구』라는 제목으로 쓰고 있는 두 개의 논문을 합친 것이다.

1) 주석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소학언해』와 마찬가지로 『어제소학언해』에서 주석은 본문의 언해에 직접 반영되는 형태로 삽입되어 있다.

2.1. 책의 저자와 형태

『녀사소학』은 1930년 청강 하재승(淸岡 河在丞, 1904 ~ 1972)이 저술하고 직접 자필로 쓴 것으로, 청강 선생의 외손자인 창녕 우포늪 생태관 관장인 노용호 씨가 소장하고 있던 것이다. 노용호 씨는 창녕에 소재한 청강의 서당이 화재로 소실된 후 외가의 친척이 보관하고 있던 외조부의 저술들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율재 이한걸의 『여자소학』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2021년 이 책의 저자인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김주원 교수에게 복사본을 제공하였다. 이 복사본이 김주원 교수를 통해 필자의 손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후 필자는 노용호 씨를 직접 만나 『녀사소학』의 원본을 확인하였다. 표지의 안쪽에는 ‘河季香’이라는 이름이 연필로 적혀 있는데, 이는 청강의 셋째 딸의 이름이다.

청강은 진양 하씨 사직공파의 30세손으로 창녕 모전리 출신이다. 6세에 학당에서 전통 학문을 공부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퇴산 강신철(退山 姜信喆, 1879-1949)에게 고연정(高淵亭)에서 공부를 배우게 된다. 퇴산은 극기재(克己齋)에서 입문한 소눌 노상직(小訥 盧相稷, 1855-1931)의 초기 문인으로, 그를 통해 청강은 소눌의 문인이 된다. 소눌의 입문 제자들의 문인록인 『자암계첩』의 乙丑(1925) 3월 강회에 참여한 인물 중 창녕 대합 모전(大合 茅田; 현재의 대합면 모전리) 출신의 하재승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정석태 2019:264). 청강은 이곳에서 3~4년 정도 수학한 것으로 보인다.²⁾ 이후 그는 창녕으로 돌아와 후학을 양성하고 학문을 닦다가 1972년 세상을 떠났다. 그의 문하생들의 모임인 청강회(淸岡會)가 1929년부터 존재했다.

이 책의 표제명은 ‘녀사소학(女士小學)’이고 ‘병술이월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다. 병술년은 1946년인데 이는 후에 책을 장정할 때 적은 날짜로 보인다. 서문의 끝에 ‘경오년 춘삼월 십오일에 학산생 하재승은 권슈에 쓰노라’라고 되어 있고 권말에 연필로 ‘1930년 지음’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쓰여진 시기는 경오년인 1930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세로 27.3cm, 가로 18cm의 필사본으로, 서문 3장, 본문 57장으로 이루어진 오침안의 선장본이다. 본문 옆 장에 ‘著述者 河在丞’이라고 적혀 있고 여섯 편의 제목이 들어가 있다.

권두서명은 ‘녀사소학’으로 되어 있다. 본문의 마지막 장인 57b에도 ‘녀사소학 종이라’라고 되어 있고, 그 뒤로 2장이 더 배접되어 있다. 이 중 한 장은 뒷표지와 배접되어 있다.³⁾ 한 면에는 대략 12~13행이 들어가 있고 한 행은 25자 내외로 대략 15,000어절, 27,000음절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은 『小學』에서 여성의 수신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여, 教子, 舅姑, 夫婦, 衣服, 飲食, 立教의 여섯 편으로 나누어 편집한 것으로, 『小學』과 마찬가지로 여섯 편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각각의 편의 명칭이 다르다. 각각의 편에 포함된 고사는 <표 1>과 같다.

『녀사소학』의 구분을 기준으로 총 93개의 고사가 포함되어 있다. 같은 고사가 분할되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한 분절 속에 두 개의 고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 실제 인용된 고사의 종류는 90종이다. 이 중 「立教」편에서 4종, 「明倫」편에서 24종, 「敬身」편에서 12종, 「稽古」편에서 9종, 「嘉言」편에서 16종, 「善行」편에서 26종을 발췌하였다.⁴⁾ 이들은 고사를 그대로 가져온 것도 있지만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가져온 부분도 적지 않다.⁵⁾

2) 소눌은 이익(李瀾)·안정복(安鼎福)·황덕길을 이은 기호 남인의 거두인 허전(許傳)의 제자이다. 따라서 소눌은 물론 그의 제자인 퇴산, 그리고 이 둘을 평생의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청강 또한 퇴계의 학풍을 계승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안쪽 면으로 글씨가 있는데, 이 부분은 서문과 같은 내용이지만 부분부분 표기와 단어 사용에 차이가 있고, 최소선으로 지워진, 최종 서문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3행 가량 있다.

4) 『小學』에 포함된 전체 고사의 수는 「立教」 13편, 「明倫」 107편, 「敬身」 46편, 「稽古」 47편, 「嘉言」 90편, 「善行」 81편이다.

5) 舅姑에 포함된 한 고사는 출처가 불분명하다. 『소학』은 물론이고 『예기』의 「곡례」편에도 아래와 같은 문구를 찾을 수 없다.

教子	舅姑		夫婦	衣服	飲食	立教	
1a~10b	11a~28a		29a~36a	37a~38b	39a~43b	44a~57a	
立教①	明倫①(略)	嘉言⑩	明倫⑦(略)	敬身③	敬身④	立教⑦	嘉言④
立教②-1	明倫⑤	善行⑨	明倫⑨(略)	敬身③	敬身④	明倫⑦(略)	嘉言④
立教②-2	明倫⑥(略)	善行⑩	明倫⑥	敬身③	敬身④	明倫⑦(略)	嘉言④
立教③	???	善行⑪⑭	稽古②	善行⑦	善行⑦	明倫⑧⑭	嘉言⑤
立教②-3	明倫⑪	善行⑬	明倫⑨	善行⑧	善行⑦	明倫⑧	嘉言④
明倫⑥	明倫⑫	善行⑭	稽古②		善行⑧	明倫⑩(略)	嘉言⑤
稽古①	明倫⑬(略)	善行⑮	稽古③			敬身②(略)	嘉言⑥
稽古②-1	明倫⑰	善行⑰	嘉言④(略)			敬身④	嘉言⑦(略)
稽古②-2	明倫⑱	善行⑱	善行⑲			敬身⑤(略)	善行③
稽古④	明倫⑲	明倫⑲	善行⑲			敬身⑥	善行④
嘉言④	明倫⑳	嘉言⑲(略)	善行⑳-1			敬身⑧	善行⑤(略)
善行②	明倫㉑	嘉言㉑(略)	善行㉑-2			敬身⑨	善行⑥
善行③	稽古⑫	嘉言㉑(善行⑯)	善行⑳			嘉言⑰	善行⑦(略)
	稽古⑭	明倫㉑					
	稽古⑯(略)	嘉言㉑(略)					
13	30		13	5	6	26	

<표 77> 『녀사쇼학』에 포함된 고사 목록

이 책의 간행 경위는 서론을 참고할 수 있다.⁶⁾ 일부만 인용하면 (1)과 같다.

- (1) (...) 녀자쑤 칠 세부터 효경과 론어와 려녀전 갓탄 글을 날겨 마음을 열고 hing실을 배와 (...) 그 집이 말미암아 성하더니 이지 세디가 다러고 가라침이 갖지 아니하여 고가의 규슈와 사민의 현부인도 배하고 보난 거시 고디 쇼설과 신편 가조와 굿친 서사에 지너지 못하고 향간 필부와 촌락말녀는 란 속에 관습되고 악타에 양성되야 남에 집 길고 씨름를 해언하야 맛차니 허물을 더하고 가인에 올코 그림을 닷토와 날노 싸흠이 떠나지 아니하야 맛차니 가도를 혈쳐 바리고 룬리를 쓴어 멀하나 사람이 적지 아니하니 이는 가라쳐 길음이 넷날 성인을 범받지 아니하고 배와 쏜바덤 이어지지 아니하야 사람의 근본 즉 귀한 오륜을 허망에 일어 밭이고 도로여 몸을 천히 함이라 (...) 다맛 민속의 마음과 상호의 감탄으로 몽미한 너히 녀식을 경계하야 당부인의 효성과 쇼군의 순덕과 경강의 교도를 비와 쏜밭고저 하야 선현의 망찰한 허물을 싱각지 안코 수이 알기 위하야 감히 쇼학의 부인문과 경계의 법되난 말삼을 모와 국문으로 룬편을 멩가라 너히게 주니 엇지 다 알고 괴록함이리오 너히들은 쇼설과 일체로 한 앓춤 여가와 한 전역 등하에 보와 지너지 말고 너히 지분을 인하야 한날 밧 주 한 달 밧 편을 배와 익기 날그디 사람의 hing지 엇지오 하야 립교편을 살피고 엄식과 의복을 엇지오 하야 엄식편 의복편을 보와 살피며 얼운을 심기고 군자를 밧잡고 아히 가라치는 도리 엇지오 하야 구교편 부부편 교자편 등을 살피 비와셔 익김이 성품을 더부려 일우면 귀하다 일온 오륜에그에 잇서 밧고소원 한 편을 이에 어더 영영하리라

곡례에 같오디 엄식 장만할 지 반다시 부뭇기 뭇자와 가라침심을 밧자와 할 거시오 감히 스스로 한정하야 못할 디나라 <12b>

6) 『晴岡遺稿集』에는 한문본 『녀사쇼학』 서문이 실려 있다.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나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같다.

간단히 요약하면, 여성들이 수신서보다는 소설·시조(노래) 등을 더 즐겨 읽는 폐단이 있어, 본인의 여식들에게만이라도 수신서의 이치를 쉽게 알게 하기 위해 『小學』의 부인문과 경계하는 글들을 모아 여섯 편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쉽게 알게 하기 위해’라는 것은 번역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어제소학언해』에서 어려운 단어들을 쉬운 단어로 수정하고, 내용이 어려운 부분은 부연 설명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2. 구성

『녀사쇼학』이 가진 구성상의 가장 큰 특징은 주석서의 주석까지 번역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 『소학언해』, 『어제소학언해』는 주석의 내용을 따로 번역하지 않고 본문의 언해에 직접 포함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정호훈 2014 참조). 이후에 나온 여러 후대본에서도⁷⁾ 『어제소학언해』의 언해 양식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기 때문에 주석이 따로 언해된 예는 없다. 그런데 『녀사쇼학』에서는 이러한 틀을 처음으로 깨고 『小學』의 본문이 번역되고 바로 다음 줄에 한 줄을 내려 쓴 주석이 이어진다. 이 주석은 율곡의 『소학제가집주』의 주석의 언해와 청강 본인의 자주(自註)이다.⁸⁾

다시 말해 『녀사쇼학』은 ‘『小學』 본문 - 『소학제가집주』 주석(또는/그리고 청강의 자주)’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小學』의 언해서들의 체제를 따랐다가보다는 『소학제가집주』의 체제를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소학제가집주』에서 필요한 고사와 주석을 발췌하는 과정에서 본문의 언해는 『어제소학언해』를 참고하고 주석은 『소학제가집주』의 것을 번역하거나, 본인의 의견을 첨가한 것이다. 이처럼 『소학제가집주』의 주석이 직접 번역된 『小學』의 언해본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녀사쇼학』에 포함된 『소학제가집주』의 주석은 청강이 직접 번역, 또는 이 집안에서 내려오던 번역일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주석의 번역을 실은 이유는 『小學』 본문 해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일 것이다.

『녀사쇼학』에 인용된 『小學』의 본문 번역이 『어제소학언해』를 따랐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예들을 통해 알 수 있다.

(2) 立教 ②: (...) 女子十年不出姆教婉婉聽從 (...) 禮相助奠.

가. 겨집이 열 히어든 나든니디 아니하며 스승 어의 ㄱ꺾치를 유순히 드러 조츠며 <小學諺解 1:7a>

가'. 겨집이 열 히어든 나든니디 아니하며 姆 유순히 드러 좃츠며 (...) 禮로 도와 버리기를 도움을 ㄱ꺾칠 띠니라<御製小學諺解 1:7b>

가". 녀자 나히 열히어든 나단이지 아니하며 어진 부인을 가리 스승을 삼아 녀자이 일을 가라치되 유순히 드러 쫘치며 (...) 례을 살피 비호기 할 띠니라 <3b>

立教 ③: 曲禮曰 幼子常視毋誑 (...) 不傾聽

나. 曲禮에 ㄱ로디 어린 ㅈ식을 상네 소기디 말오모로 뵈며 (...) 기우려 듣디 아니케 흘 띠니라 <小學諺解 1:8a>

나'. 曲禮에 곶오디 어린 ㅈ식을 상해 소기디 말며 (...) 기우려 듯디 마름으로 뵈 띠니라 <御製小學諺解 1:9a>

나". 곡례에 곶오디 어린 아히을 항상 쫘기지 말며 (...) 들을 지 머리를 기우리지 말기 가라칠 띠니라

7) 『小學』의 언해본의 계통에 대해서는 신정엽(2009) 참조.

8) 『소학제가집주』에 포함되지 않은 주석 중 전거를 알 수 있는 것은 다음의 두 주석이다. 「舅姑」편에서 明倫②의 주석(23a-24b)에는 『五倫行實圖』의 「黔婁嘗糞」가 인용되어 있다. 또 「舅姑」의 嘉言③의 주석 부분에는 善行⑥의 본문이 들어가 있다.

<2a>

敬身 ④: 曲禮曰 (…)共飯不澤手 (…)다. 曲禮에 곁오디 (…)헛가지로 밥 먹을 제 손에 썸 잇게 아니함며 <小學諺解 3:22b>다'. 曲禮에 곁오디 (…)헛가지로 밥 먹을 제 손 적시디 아니함며 <御製小學諺解 3:25b>다". 곡례에 곁오디 (…)함씨 밥 먹을 제 손 적시지 아니함며 <39a>

(2가")은 『녀사소학』에서 상당한 의역이 가해졌지만 ‘姆教’의 분구 방식이 『어제소학언해』와 같다. (2나")은 ‘常視’가 문장의 끝까지 걸리는지 ‘毋誑’까지만 걸리는지에 대한 것으로 『녀사소학』에서 ‘視’를 ‘가르치다’로 의역하긴 했으나, 역시 『어제소학언해』 계통의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2다")은 『어제소학언해』를 번역할 때, 『소학제가집주』의 주석을 따라 ‘不澤手’의 해석을 달리한 것으로(정호훈 2014:308) 『녀사소학』에서도 이를 따르고 있다.⁹⁾

2.3. 번역 양상

『녀사소학』의 번역은 기본적으로 의역이다. ‘알기 쉽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이다. 2.2.의 (2)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확인한 바와 같이 『어제소학언해』의 문장 구조를 참고하면서도 어렵거나 맥락에 잘 맞지 않는 단어들은 쉬운 단어로 수정하였다.

(3) 立教 ②: (…)九年이어든 教之數日이니라 (…)

가. 아홉 히어든 날 헤기를 7루칠 띠니라 <어제소학언해 1:5a>가'. 아홉 히어든 하러 여를 보름 한달 그 날 헤아리기를 가라치며 갑을병정 그 룯갑을 가라칠 디니라 <3b>

善行 ③: 京兆尹第五琦 | 嘉其貞烈하야 奏之하대 詔旌表其門閭하시고 永錫其家丁役하시다

나. 京兆尹 第五琦 | 그 貞烈함을 아람다이 녀겨 연즈온대 詔하샤 그 門과 只을홀 族表하시고 영영히 그 집 스나히 구실을 더르시다 <어제소학언해 6:69a-b>나'. 경조 고을에 윤 비살에 잇는 사람 데오기 그 정렬함을 아람답기 여겨 나라에 알린디 도서하샤 그 문과 마알을 정표하시고 그 집 요역을 더르시다 <35a>

明倫 ④ 晏子 | 曰 君令臣共하며 父慈子孝하며 (…)

다. 晏子 | 곁오디 님금은 7결하고 신하는 공순히 하며 아버는 어엿비 너기고 조식은 효도함며 <어제소학언해 2:82a>다'. 안자 곁오디 인군은 령호되 어기지 아니함며 신하는 공순하디 두 가지로 아니함며 아버는 어엿씨 여겨되 가라치며 아달은 효도하되 간함며 <45b>

『어제소학언해』에 있는 한자어를 풀어서 설명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직역을 풀어서 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구결과 언해는 일치시키고 있어 문장 구조 자체는 동일하다. 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는 본문에 부연 설명과 같은 내용이 추가된 것도 있다.¹⁰⁾ 이처럼 『어제소학언해』의 언해를 수정한 것은 역시

9) 『녀사소학』에는 영조 시기 『소학제가집주』를 수정한 『선정전 소학훈의』의 주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10) (3다')은 『소학제가집주』의 주석을 참고하여 내용을 더한 것이다.

君以出令為職 要必不違於理然後 人心服而令行 臣之事君以恭為本 然必忠誠不二然後可貴 父慈而不能教 則敗其子 子孝而不能箴 則陷父於不義 (…)(『소학제가집주』 2:48b-49a)

이 책의 저술 목적인 ‘알기 쉽게 함’과 관련된 것일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수정이 가해진 부분은 저본의 영향을 벗어나 조금 더 자연스러운 저술자의 언어가 반영되어 있을 것 또한 예상할 수 있다.

주석 또한 본문과 마찬가지로 의역에 가깝게 번역되어 있다.

- (4) 가. 경강이 써 흐되 사람이 비살에 이서 편함을 구하면 망하는 장본인 고로 이미 넷 법을 차례로 말
 하야 그 아달씨 고흐고 다시 이를 말하야 써 꾸지시니 그 경계함이 깃프도다 (8a[稽古④], 『소학
 제가집주』 4:23b: 敬姜以為居位 而苟求安逸敗亡之道也 故既歷陳古制 以告其子而復言此以責之
 其警之也 深矣)
- 나. 장손부인이 죽얼 지 얼운과 아히를 다 모와 그 자부의 효도를 칭찬호고 원컨디 니 죽언 후에 또
 자손이 다 자부에 효도 갖타면 엇지 최시 가문이 성하지 안니호리오 (20b[善行⑩], 『소학제가집
 주』 6:14b: 長孫夫人臨沒 聚長幼稱其子婦之孝 願後子孫皆克似之 孝子錫類 其族屬隆盛 可知也)
- 다. 말 제어넌다 함은 요망한 말을 제어함이오 빅성을 요란키 혼다 흠은 사도를 가지 빅성을 씨겸이
 라 (44b[立教⑦], 『소학제가집주』 1:12b: 造言造為妖妄之言也 亂民挾邪道 以惑民也)

직역의 양식을 취하고 있으나 의역된 부분이 많이 보인다. ‘而苟求安逸敗亡之道也’가 ‘편함을 구하면 망하
 는 장본인 고로’로, ‘願後子孫皆克似之 孝子錫類 其族屬隆盛 可知也’가 ‘원컨디 니 죽언 후에 또 자손이 다
 자부에 효도 갖타면 엇지 최시 가문이 성하지 안니호리오’ 등으로 의역이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청강의 자주는 이보다 더 자연스러운 당대 방언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문의 의역이나 주석
 의 번역은 한문 구조의 영향을 받았으나, 자주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5) 가. 디저 사람의 집 형데가 부모의 혈기를 함씨 바다 나서 어릴 지 부모는 하나 갖치 사랑하야 왼손
 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안으며 압프로 옷깃을 짚고 되허로 옷깃을 잇글며 밥 먹으면 상을 함씨
 호고 <8b>
- 나. 남녀간 미가최 전애 누을 만나 부부 아니 되리오 마는 레로써 맞지지 안코 담을 넘어며 텀을 타
 서 서로 만나면 먼저 니 몸을 욱되기 한 후 사람이 짜라 천히 여겨느니 두 시의 두 쌀이 살기를
 구치 안코 한 번 죽기를 쾌히 여김은 이를 위함이라 그런즉 남녀 서로 레로 만나 부부되며 레로
 써 사라 섬겸이 사람에 도리니라 <35a>

(5)에서처럼 본문과 주석의 번역 부분에서 많이 나타나는 전이어 등이 보이지 않는다.

『녀사소학』의 주석 중 『소학제가집주』의 주석이 아닌 것은 전체의 20~30% 정도이다. 이들 중에는 필자
 가 과문하여 전거를 들기 힘든 것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실제로 청강이 쓴 것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2.1.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강은 소놀과 퇴산에게서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이러한 주석들은 『小學』에 대한
 남인의 해석을 담고 있을 것임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현재로서는 필자의 능력을 벗
 어나는 일이고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므로, 여기에서 언급해 두는 것에 그치기로 한다.

2.4. 교정

본문과 주석의 언해에는 총 세 종류의 교정 표기가 들어가 있다. 하나는 목서로 된 취소선과 교정이고,
 다른 하나는 주서(朱書)로 된 취소선과 교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홍색으로 된 취소선과 교정이 있다. 각
 각의 색은 중요하지 않고, 선후 관계를 드러내지도 않는다. 다만 주서로 된 교정은 글씨체가 조금 다르다.

그러나 모든 색의 교정에서 내용 교정과 언어 교정이 보인다.

내용 교정은 잘못 쓴 단어를 고치거나 내용을 더하거나 더는 것으로, 그 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

- (6) 가. 부인의 할 도리는 조심하야 그 식부모을 밧들며 조심하야 그 자아바(→가문)을 이어는 디 잇느니 <5a>
(婦之道在敬身以承其夫: 『소학제가집주』 2:31a)
나. 설표 후애(→설포 그 뒤에) 부모 거상을 입어 과히 실희 하니라 <18b>
다. 이럼무로 례애 일오디 질병이 이시면 오사에 제사하야 빌나 ~~하얏거늘 이 말은 침상에 헛된 꿈으~~
~~로 싱각두교(→시니 이는 자식 정성 맞당히 할 바어늘 지금 그럿지 아니하고)~~ <23b-24a>

(6가)는 『소학제가집주』의 ‘夫’를 직역하였다가 이해를 돕기 위해 의역한 것으로 보인다. (6나)는 『어제소학언해』의 언해를 그대로 따랐다(가¹¹) 조금 더 쉽게 언해하였다. (6다)는 청강의 자주로 보이는데, 내용에 큰 수정을 가한 것이다.

이 외에도 문법 관계를 수정하였다거나, 소제목을 고쳤다거나, 주석의 위치를 대문의 앞에서 뒤로 옮긴다거나 하는 등의 내용 교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교정은 책 출판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싶다. 또는 원본을 보고 다시 필사해 가는 일이 있을 때 참고를 위한 것이었을 수도 있다.

그 외에 대다수의 교정은 표기를 교정한 것이다. 표기법의 교정은 음운론적 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풍부하게 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3. 표기

개별 음소의 표기는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제4장 ‘음운’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표면적인 표기 양상만을 다루기로 한다.

『녀사쇼학』에는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표기법이 사용되었다. 즉, ‘·’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며 경음의 표기에는 주로 ‘ㅅ’계 합용병서가 사용된다. 일부 ‘ㅅ’계 합용병서는 각자병서로 교정되어 있다. ‘ㅅ’계 합용병서의 교정은 ‘ㅅ’ → ‘ㅆ’를 제외하고는 모두 분홍색으로 되어 있다.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교정으로 추정된다.¹²⁾

- (7) ‘ㅅ’계 합용병서
 ㅅ: 쓴어(序2a), 낫끼(1b), 꾸져(2b)
 ㅆ: 쫓쫓한(序1a), 녀자쫓(序1a), 쫓(1b), 쫓(16b)
 ㅆ: 쏘(序2a), 쏘(1b), 쏘리(2a), 어여쑤(19a), 쑤(39a)
 ㅆ: 쑤난(序1b), 쑤흠(序2a), 쑤기지(3a), 쑤거(4b)
 ㅆ: 쑤림(序2a), 안쑤(1a), 쑤며(3b), 밧쑤올(48a), 쑤차(49a)

- (7) ‘ㅅ’계 합용병서의 교정
 쌀 → 딸(1a), ㅅ → ㅆ(2b), 안ㅅ → 안ㅆ(3b), 밧고 → ㅆ고(11b), ㅅ → ㅆ(12a), ㅅㅅ기 → ㅆㅆ기(12b), 가 → 일까(18a), ㅅ → ㅆ(32b)

11)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대로 따른 것은 아니다. 『어제소학언해』에는 없는 ‘설표’라는 주어는 『녀사쇼학』에서 첨가한 것이다.

12) 경음 표기에서 ‘ㅅ’이 음절말 위치에 가 있는 예들이 더러 보인다. 단순한 오자로 보인다. 솟기(3a) [‘쏘기’로 수정됨], 어마시긋(6b), 너닷려(7a), 부인긋(9a), ㅅㅅ지(16b), 굿지(53a) [‘꾸지’로 수정됨], ㅅㅅ(54a) 등.

‘ㆍ’은 ‘ㆍ, ㅣ’ 등의 표기에 쓰이는데, 이 중 ‘ㆍ’은 ‘ㅎ-’와 조사 ‘은, 는, 을, 를’, 어말어미 ‘-는, -거늘’, 선어말어미 ‘-느-’ 등 일부 형태소에서만 사용된다. 반면 조사 ‘은’은 거의 보이지 않고 대부분 ‘은’으로 쓰여 있다. ‘가느ㅎ면(9b), 안하느(14a), ㅎ날(23a), 스느(27b; 수정됨), 미천ㅎ느(50a)’ 등의 예외적 표기도 관찰된다. 이러한 예외적 표기에 나타나는 음절이 모두 ‘ㆍ’가 사용되는 형태소의 음절과 동일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잇난야(16b), 남아난야(16b)’가 ‘잇느냐, 남아느냐’로 수정된 것도 참고된다. ‘ㅣ’는 ‘*개, *ㅣ’ 표기에 모두 쓰인다.

어중 음절 표기는 대체로 분철을 택하고 있다. ‘전역(序2b), 빈여(4a), 어만임(7a), 아니한요(7b), 지압이(21b), 나단이지(26a)’ 등의 과잉 분철 표기도 보인다. 분철의 기준은 형태소 경계로 보인다. 이는 연·분철의 교정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8) 연·분철의 교정

- ㄱ. 연철 → 분철: 가로디 → 갈오디(2a 외 다수), 가라칠 → 갈아칠(2a), 일우더니 → 이루더니(4b), 거날이 → 거나리(4b), 그러므로 → 그림으로(7a, 51b), 이리나 → 일어나(11a), 가리와 → 같이와(11a), 가루지 → 갈우지(26b; 蔽), 바들 → 밧을(45a), 이리나라 → 일이니라(46a), 오름 → 올음(46b; 是), 드런 → 들연(47a), 오를 → 올을(47b), 드럽피지 → 들업피지(49a), 바를 → 발을(49a), 짜름 → 짤음(52a), 허물 → 험을(53b), 거슬 → 것을(55b), 이시되 → 잇어되(56a)¹³⁾
- ㄴ. 분철 → 연철: 열을 → 여를(3b: 十日), 험을 → 허물(5a), 물엿 → 무럿(4a), 일어난 → 이러한(13a), 날을 → 나를(16a), 일어- → 이러-(23a: 至), 일아지 → 이라지(30b: 言),
- ㄴ' 분철 → 연철: 길울 → 기룰(6a)

(8ㄱ, ㄴ)은 연철과 분철을 교정한 예이다. 이들 예를 통해 필자가 형태소 경계로 인식한 부분에서 분철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8ㄱ)의 ‘같이와’는 ‘가렵다’를 분철한 것으로, 어원적인 ‘ㅣ’를 분석해 낸 것이다.¹⁴⁾ ‘갈아칠’은 ‘갈-’을 하나의 형태소로 분석한 것으로 ‘갈오디’ 표기와 연관해서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철을 분철로 교정한 예는 두 번째 음절의 두음이 ‘ㄹ’인 용언에서 많이 보이는데, 이것이 형태소 경계의 인식과 관련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8ㄴ)은 분철되어 있던 것을 연철로 돌린 것인데, 여기에서도 ‘ㄹ’을 분철하려는 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형태소 경계를 인식 방식에 따라 (8ㄴ')과 같이 올바르게 분철되어 있던 것을 잘못 연철하기도 한다.

드물게 중철 표기도 보인다. 단, 유기음이 개음절 뒤에서 음절초에 있을 때는 중철(또는 음소를 재분석한) 표기가 선호된다.

- (9) ㄱ. 맛슬(1a), 옷옷슬(3b), 모친이신니(5b), 옷깃슬(8b), 쫓슬(18a), 갈로디(21b), 함물며(23a), 전녁(23b), 이럼무로(23b), 날룰(29a), 나단니지(30a) 등
- ㄴ. 밧출(1a), 익킴(3a), 낫타나-(6a 등), 꺾터(6a), 붓터(6b), 갑피(7a), 입피느니(7b), 낫출(8a), 갖치(8a), 솥프리고(12a), 밧트며(12a), 막킨(18a), 쫓차년(18b), 갖탄(25b), 잇기시니(32b), 갖치거늘(35b), 좃찰키(38b), 닷토와(42a), 눅프고(45b), 빙프(54b) 등

13) ‘잇어되’는 실제 발음을 표기한 것이 아니라 ‘시’가 전설모음화에 의한 것이라 판단하고 ‘어’로 잘못 돌려 쓴 것으로 보인다.

14) 이에 대해서는 이현희(1987) 참조.

ㄴ'. 겻히(16b), 직히더니(31b)

ㄷ. 입부ᄃᆞ며(4a), 익기ᄃᆞ니(8b), 잇서(10a), 부뫼기(12b), 각거치(13a), 맛당히(15a), 맛씨(28a), 짝가(33a), 각가운(37b), 밧씨(37b), 뫼ᄃᆞ지(42a) 등

(9ㄱ)은 평음¹⁵⁾ 계열에서 중절 표기가 나타난 것인데, 일반적이지는 않다. (9ㄴ)은 어중 유기음에 대한 일반적인 표기이고 (9ㄴ')은 유기음을 재음소화한 표기이다. (9ㄴ')과 같은 표기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직히더니'은 '지키더니'로 수정되어 있다.¹⁶⁾ (9ㄷ)은 어중 경음 표기인데 분철하여 표기하는 것을 선호한다. 대체로 앞음절을 폐음절로 표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겠다.

음절말 'ㄷ'은 'ㅅ'으로 표기된다(10ㄱ). 앞 음절이 개음절이고 음절 초성이 'ㄷ'일 경우에도 'ㅅ'으로 표기된다(10ㄴ).

(10) ㄱ. 뫼지(1a), 밧(序2b), 밧고(7a), 밧고(30b), 궂(34b), 궂기(48a), 뫼지(48a) 등

ㄴ. 밧어 ᄃᆞ(33b), 밧을(45a), 궂음(49a), 궂음(51b) 등

이 중 '밧을', '궂음' 등은 '바들', '거들'을 수정한 것이다.

어중의 유음 표기는 대체로 'ㄴ'으로 되어 있다.

(11) 날노(序1b), 달나(1b), 일노(2b), 물너(6a), 진실노(6a), 흘나(6b), 호열노(10a), 벌니고(14a), 절노(19a), 말나(49a) 등

계사 '-이-'가 모음으로 끝나는 음절 뒤에 연결될 때, 이를 앞의 글자에 합쳐 쓰는 의고적 표기도 보인다. 따라서 이 표기를 'ㄴ'과 'ㄴ'이 이 시기에 하향 이중모음이었다는 논의의 근거로 쓸 수는 없다.

(12) 뫼니(某+이니; 5b), 지다(者+이다; 6a), 비니(바+이니; 6a), 연과라(緣故+이라; 7b), 디뫼니(大夫+이니; 46a), 궂오(표+이오; 50a)

19세기 이후 문헌에서 많이 보이는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 목적격 조사 '를' 대신 '을'로 표기하는 경향도 보인다.

(13) 아히을(1a), 차례을(2b), 지게을(8a), 시짜기을(17a), 가화을(29b) 등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과 목적격 조사의 결합은 308회 보이는데, 이 중 '을'이 결합한 것은 198회, '를'이 결합한 것은 110회로¹⁷⁾ 오히려 '을'이 결합한 예가 더 많다. 이와 같은 표기가 음운론적인 'ㄴ' 약화/탈락을 반영한 실제 발음 표기라는 견해도 있으나(김정대 1992, 김한별 2021 참조), (다른 문헌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지만) 『녀사쇼학』에서는 표기에 국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우선, 다른 단어에서 'ㄴ' 약화/탈락 현상이 적용된 예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¹⁸⁾ 그렇다면 'ㄴ' 약화/탈

15) 편의상 'ㅅ'도 평음으로 기술한다.

16) 반면 (12ㄴ)의 '잇키시니'는 '익히시니'로 교정되어 있다.

17) '을'은 전체 933회 보인다. 이 수치는 교정을 반영한 이후의 것이다.

18) '어일(幼)'이 두 차례, '드을 지어다'가 '드를 지어다'로 수정된 예가 한 차례 보인다. 후자의 것은 기계적으로 '을'로 쓰

락은 ‘를>을’에서만 일어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를>을’에서 아주 활발한 변화가 다른 단어에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 만약 실제로 ‘을’로 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음변화로 보기보다는 형태론적인 변화, 즉 ‘을’로 단일화했다는 설명이 더 그럴 듯해 보이게 하는 지점이다. 물론 빈도 등 여러 가지 부가적인 원인을 들 수는 있겠으나 증거가 불가능하고 그 자체로 설명에 부담을 준다. ‘ㄹ’이 실제 발음에서 탈락한 예가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표기에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둘째, 현대 경남 방언에서 ‘를>을’의 재구조화를 겪은 방언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러 방언에서는 음절말의 ‘ㄹ’이 탈락하는 쪽으로 변화한 결과물들이 관찰될 뿐이다. 따라서 구어에서 나타나는 ‘를’의 어두 ‘ㄹ’ 탈락은 형태론적으로 명확하게 인식되지 못하는 단계에 있고, 이 탈락이 표기에 다량으로 드러나는 것 또한 있음직하지 않다.

셋째, 김한별(2021)은 방언에서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 ‘를>을>ㄹ’을 겪은 형태가 있다는 근거로 하강 성조가 실린 체언들을 들었다. ‘를’이 저조이기 때문에 고조의 체언과 결합할 때 음절 축약에 의해 하강 성조가 형성되지만, ‘ㄹ’이 결합한 것이라면 그러한 성조 변동이 관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김한별 2021:219). 문제는 모음으로 끝나는 고조 체언의 목적격 조사 결합형의 성조는 언제나 ‘HL(F)’이라는 점이다. 성조를 통해 ‘ㄴ’에 ‘를’ 또는 ‘을’이 결합한 것인지, ‘ㄹ’이 결합한 것인지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근대 후기 표기에 따라) ‘ㄴ’의 어두 ‘ㄴ’은 탈락을 겪지 않았다고 보았는데, ‘ㄴ’ 또한 고조의 체언과 결합할 때 하강 성조를 형성한다는 사실은 목적격 조사 ‘ㄹ’과 동일하다. 같은 논리라면 ‘ㄴ’의 어두 ‘ㄴ’도 탈락을 겪은 것이어야 한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하강 성조는 ‘를’이 약화되었다는 근거가 되기 힘들다.

마지막으로 『녀사쇼학』에서는 모음 체언 뒤의 ‘을’을 ‘를’로 교정한 예가 여럿 보인다.

- (14) 빨기을 → 빨기를(12a), 바을 → 바를(13a), 도리을 → 도리를(14b), 도을 → 도를(22b)

이처럼 모음 뒤에 오는 ‘을’을 ‘를’로 수정한 예는 10회 정도로 전체 개수에 비해서는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나 ‘를’을 ‘을’로 교정한 예가 전혀 없다는 것은 ‘을’이 표기상의 변이임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¹⁹⁾

4. 음운

4.1. 모음 관련 현상

4.1.1. 모음 중화·합류

4.1.1.1. — ~ ㅓ

영남 방언 자료에서 ‘—’와 ‘ㅓ’가 혼기되는 양상은 18세기부터 보인다(김주원 1984ㄱ). 이와 같은 혼기는 비어두에서 시작되어, 어두에서 혼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19세기 후기부터이다(김태우 2022). 『여사수지』와 『수경옥낭좌전』에서 소수의 예가 보이고,²⁰⁾ 어두에서 혼기가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동

다가 나타난 실수를 고친 것이 아닐까 싶다.

19) 비부러기를(39b)의 경우, ‘을’에서 ‘를’로 수정된 것인지, ‘를’에서 ‘을’로 수정된 것인지 판별이 되지 않는다.

몽수독천자문』이다(백두현 2007:74-75 참조). 『동몽수독천자문』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지역에서 간행된 『녀사쇼학』에는 어두와 비어두를 가리지 않고 ‘ㅡ’와 ‘ㅣ’의 혼기례가 많이 나타난다.²¹⁾

(15) *ㅡ > ㅣ

ㄱ. 어두: 엇덤(序1a)~엇듬(5a), 엄식(3a 外), 거런(7a), 터렴ㅎ며(12a), 건심(14b, 23b), 언혜(16a), 혈림이라(17b), 거러다(18a), 건치지(18b), 덤을기(20b), 혈니더라(20b), 겁흙(22b), 열(25b[乙]), 칸(27b), 써어(33a), 텃(35a), 찌지(39a), 헛터지느니(49b), 험모ㅎ야(50b)

ㄴ. 비어두:

매개모음: 제어시고(序1a), 이열(4b), 늘거면(15a), 무러디(22b), 지어디(29b) 등

非매개모음: 그림(序2a), 어거럽고(2a), 무럿(4a), 다엄(5b), 이억고(6b), 그럿(13b), 거젓(17a), 부더러이(17b), 감영ㅎ시느(23b), 무선(52b)

(16) *ㅣ > ㅡ

ㄱ. 어두: 굿친(序1b), 묵거든(2a), 크서(2b), 드(7b), 음숙ㅎ터시니(8a), 드부러(9b), 금운고(23b), 문저(25b), 드을(37a), 쯔저(39a), 드럽다(42a), 늑늑기(53a), 믹검아(56a)

ㄴ. 비어두: 엇든(1b), 무듬(6a), 비호시그늘(6a), 어드(7a), 뚫든니(8a), 수근(13b), 실프도(25a), 여기든(27a), 여들(44b), 뚫트운(52a)

‘*ㅡ’를 ‘ㅣ’로 적은 경우는 어두보다 비어두가 수적으로 훨씬 많다. 이는 비어두에 분포하는 매개모음에서 ‘*ㅡ’를 ‘ㅣ’로 적은 예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개모음이 아닌 경우에도 ‘*ㅡ’를 ‘ㅣ’로 적은 예가 많이 보인다. ‘*ㅣ’를 ‘ㅡ’로 적은 예 또한 어두와 비어두를 막론하고 많이 보인다.

‘ㅡ’와 ‘ㅣ’의 혼기는 고빈도 어휘의 경우 하나의 우세한 표기가 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먹-’의 경우 90회 이상 출현하는 어휘인데, 대부분은 ‘*먹-’으로 적혀 있으나 2예에서 ‘*먹-’(먹이고저[6b], 먹지[24b])이 보이고, ‘*음식’ 또한 48회 보이는 어휘인데, 단 2예에서 ‘음식’이라는 표기가 보이고 그 중에서 한 예는 ‘엄식’으로 교정되어 있다. 문법형태소인 ‘*-더라’의 경우 ‘-더라’가 31회, ‘-드라’가 2회 보인다. 반면 저빈도 어휘의 경우 ‘더욱(4회) ~ 드욱(3회)’, ‘드불-(10회) ~ 더불-(4회)’, ‘수건(1회) ~ 수근(1회)’와 같이 혼기 양상이 뚜렷하다.

한편, ‘*ㅣ’를 ‘ㅡ’로 적은 예들은 후에 교정된 예가 더러 보인다. ‘음히(2b)’, ‘음숙ㅎ사(5b)’, ‘그만한(5b)’, ‘뚫든니(8a)’, ‘저근(9a)’, ‘음숙함(9a)’, ‘드부러(10a)’ 등은 주서로 모음이 모두 ‘ㅣ’로 수정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본래의 ‘*ㅡ’를 ‘ㅣ’로 잘못 고친 ‘적어나(5a)’, ‘거런(7a)’, ‘저건(9a)’, ‘일적(9b)’ 등의 예도 보인다. ‘*ㅡ’를 ‘ㅣ’로 적은 예들을 수정한 것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는다. ‘은혜(16a, 20b, 21a)’가 수정된 예가 몇 예 보일 뿐이다.

이러한 예들을 볼 때, 『녀사쇼학』에 반영된 1930년경의 창녕 방언에는 ‘ㅡ’와 ‘ㅣ’가 완전히 합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1.1.2. ㅈ ~ ㅊ ~ ㅊ

20) 『여사수지』에는 ‘처매(裳:18a)’의 한 예가 보이는데 이는 ‘치마’로부터 전설모음화의 과도교정으로 ‘츠마’가 된 후 모음의 합류로 인해 ‘처매’로 적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수경옥낭좌전』의 제1음절 ‘ㅡ’와 ‘ㅣ’의 혼기에 대해서는 박창원(1992:50-51) 참조.

21) 1929년에 간행된 것으로 알려진 『계몽편』에는 어두의 혼기례가 관찰되지 않는 듯하다(김영진 1987/2001 참조). 필자는 이 책의 내용을 보지는 못하였고, 김영진(1987/2001)에서 제시한 예들을 참고하였다.

현대 창녕 방언에서는 /계/와 /개/가 구별되지 않는다(김영송 1963:970, 박정수 1999:223).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3:317)에는 창녕 지역이 /계/와 /개/를 구별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다. 김영송(1963), 박정수(1999)는 음성적으로 [e]와 [ɛ]를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3)은 어휘를 조사한 것이므로 이 둘의 결론이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3)에서 “*개”[e]의 발음을 [i]와 [ɛ]([ɛ]) 두 가지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계/가 고모음화를 겪었거나(i) 약간의 음가 변화는 있으나 /개/와 대립하고 있음([ɛ])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20세기 초에 태어난 창녕 지역 화자의 일부는 “*개”의 고모음화로 인해 체계상에서 “*개”가 사라져, 결과적으로는 /계/와 /개/를 음성적으로 구별하지 못하는, 또는 구별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녀사쇼학』의 화자가 이러한 화자인 것으로 보인다.

『녀사쇼학』에서는 대부분의 “*개”가 고모음화를 경험하였다(4.1.2. 참조). 이 때문에 『녀사쇼학』에서 ‘개’라는 표기는 처격 조사와 관형격 조사 ‘에’, 부사형 어미 ‘개(에)’, 여격조사 ‘의개’, 2인칭 주격 ‘네’, 숫자 ‘세, 네’ 등에서만 주로 보인다. 이들도 처격조사와 관형격 조사를 제외하고는 ‘i’와 혼기된다.²²⁾ 따라서 ‘개’와 ‘개’의 혼기는 처격 조사와 관형격 조사 정도에서만 관찰될 뿐이다(17ㄱ). 한편, “*개”의 표기에는 ‘i’를 주로 사용하는데 더러 ‘개’가 쓰이기도 해, 일부 어형은 (17ㄴ)과 같은 혼기가 나타난다.

- (17) ㄱ. 형데에 우이(9a), 마암애(10a), 어는 곳애(12b) ~ 모친에 태중교육(10a), 바날애(12a), 귀애(14b) 등
 ㄴ. 제(1a) ~ 지(1a), 비호(51a) ~ 배호-(51b), 아히(56a) ~ 이해(43a), 히히-(40a) ~ 해하-(43b), 맹갈-(序2b) ~ 밍갈-(56a) 등

4.1.2. 고모음화

4.1.2.1. *개 > i

경남 방언에서 “*개>i”의 고모음화는 19세기 말의 『여사수지』, 을유본 『유합』, 『수경옥낭좌전』 등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한다.²³⁾ 대부분의 예는 15세기의 “*개”가 변화한 것이지만 “*개(i)”로부터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도 더러 있다. 을유본 『유합』의 ‘빅빅할 밀(密)’이라든지, 『동몽수독천자문』의 ‘밋살 킁(粳)’ 등이 그러하다. 『녀사쇼학』에서도 ‘개(i) > i’로 볼 만한 예가 관찰된다.

- (18) ㄱ. *개 > i
 이지(序1b), 익기(序2b), 업찌(5a), 함찌(8b), 씨어리/씩얼이²⁴⁾(13a), 비(13b), 압피서(35a), 씨우지(47a), 지기(47b), 결리(50a), 비플(51b)
 ㄱ'. *i > 개
 제어사(28a), 계정밥(39b)
 ㄴ. *개(i) > i

22) /계/가 상승하여 ‘i’로 표기되기 때문에 /개/와의 혼기가 잘 보이지 않는 양상은 『동몽수독천자문』과 동일하다. 백두현(2007:75-76) 참조.

23) 백두현(1992:146)은 영남 방언에서 “*개>i”의 고모음화가 19세기 중엽 이전으로 소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 시기의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

24) ‘씩얼이’는 ‘계얼이’로 수정되어 있다.

비긱(11b)~비기(38b), 붓치질(20a), 가비아온(33b), 쫘미지(37a)

ㄷ. *ㅅ > ㅣ

밋(서2b), 심기고(서2b), 피지(서3a)²⁵⁾, 어리(려)식고(1b, 55a), 미날이(2b), 가라치싯다(5b), 비살(7a), 기을(7b), 가리와(11a), 피며(12b), 히(39a), 썸(39a), 지지(42a)

ㄷ'. *ㅣ > ㅅ

여겸(序2a), 썸(썸)겨-(29a, 31b), 끈썸(49b), 어려식-(55a, 55b)

ㄹ. *ㅈ > ㅣ

형지(序1b), 시슈(11a), 기신(11a), 시 변(25a), 압시워(34b), 퇴피함(42a), 히알나(55b)

ㄹ'. *ㅣ > ㅈ

제운(1a), 혜룡(17a), 여계며(21b)

ㅁ. *ㅊ > ㅣ

비힘(33a)

*ㅈ>ㅣ'의 예의 많은 수는 부사형 어미 '-게'에서 보인다. 이와 같은 표기는 『수경옥낭좌전』에서도 잘 관찰되던 것이다. 『수경옥낭좌전』 이후의 경남 방언 문헌은 모두 자서류이기 때문에 문법 형태소인 '-게'와 관련된 표기는 보이지 않았으나 『녀사쇼학』에 드러나고 있다. *ㅣ>ㅈ'의 표기는 '제어사(製)'와 '계정법'이 있다. '제-'는 이 문헌의 다른 곳에서는 '제-'로 나타난다. *ㅈ(ㅣ)>ㅣ'로 볼 만한 표기도 몇 개 보인다(18ㄴ). 다만 이 중 '붓치'는 중세어의 *붓체'로부터 온 것이라면 *ㅈ>ㅣ'의 예로 보아야 하고, '가비아온'과 '쫘미지' 또한 15세기를 기준으로 하자면 비어두 음절의 *ㅈ'와 관련된 것이므로 *ㅈ>ㅣ'의 변화를 겪은 것일 수 있다. '함쌔' 또한 *ㅈ>ㅣ'의 변화로 볼 수도 있으나, 『여사수지』에 '함쌔(10b)'가 보이므로, *ㅈ>ㅣ'의 변화로 보아 둔다.

*ㅅ>ㅣ'(18ㄷ)는 역사적으로는 *ㅅ>ㅈ>ㅣ'의 연쇄 변화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녀사쇼학』에는 *ㅅ>ㅈ(ㅣ)'의 예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해석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다. *ㅅ>ㅣ'는 『여사수지』, 『수경옥낭좌전』 등 19세기 말의 문헌에서부터 보이는 것으로 『동몽수독천자문』에도 현저하다. *어리석-'은 19세기 중엽 이후에나 나오는 단어이므로 실제 발음이 'ㅣ'였다면 이는 *ㅅ>ㅣ'의 변화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²⁶⁾ 그러나 『녀사쇼학』에 많이 보이는 ㅣ' 말음 어간에 연결어미 '-어'가 결합한 것은 'ㅅ>(ㅈ>)ㅣ'의 변화로 보기보다는 'ㅣ' 모음에 완전 순행 동화된 것으로 보는 편이 나아 보인다(4.1.8. 참조).

'역표기형은 *ㅣ>ㅅ'도 몇몇 보인다(18ㄷ'). 이 역표기형은 그 숫자가 많지도 않고 그 예가 '썸겨-, 여겨-, 어려식-'에 대부분 국한되므로 『녀사쇼학』의 'ㅅ'라는 표기가 'ㅣ'라는 발음을 나타냈다고 보기는 이 어형들에서만 'ㅣ'라는 발음을 표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19a의 '여겨지'는 '여기지'로, 27b의 '썸계기'가 '썸겨기'로 수정되어 있다는 사실도 참고된다. '며날이(8a)'라는 표기도 한 번 보인다.

*ㅈ>ㅣ'(18ㄹ)는 *ㅈ>ㅈ'의 변화와 관련된 것이다. 『녀사쇼학』에서 *ㅈ>ㅈ'는 'ㄱ' 뒤에서 일어난 예들밖에 보이지 않지만 이 변화는 'ㄱ, ㅈ, ㅍ, ㅎ' 뒤에서 보인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ㅈ'가 사용된 표기가 아주 적고 21b에서 '여계며'가 '여기며'로 수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녀사쇼학』에서 'ㅈ'는 'ㅣ'라는 발음을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ㅅ>ㅣ'의 예인 '비힘'이 있다. 이는 *ㅅ'가 움라우트를 겪어 *ㅈ'가 된 후 일어난 변화이다.

이처럼 『녀사쇼학』에서 *ㅅ, *ㅈ, *ㅈ'는 'ㅣ'로 적힌 것도 있고, *ㅣ'가 'ㅅ, ㅈ, ㅈ'로 적힌 것도 있어

25) '파-'는 고모음화에 의한 변화인지, 어간 재구조화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 힘들다.

26) 이렇게 본다면 'ㅅ' 뒤에서 전설모음화의 과도교정 이후 '-어'와 'ㅣ'의 중화·합류로 인한 표기라고 볼 수 있다.

‘ㄱ, ㅋ, ㆁ, ㅣ’가 모두 [ㅣ]라는 음가를 나타내는 것인지, 각각의 문자가 나타내는 독자적인 음가가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녀사쇼학』 시기 ‘*ㄱ, *ㅋ, *ㆁ’에 소급하는 모음이 [ㅣ]로 변화하였거나,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이다.

4.1.2.2. *ㄱ(꺄) > ㄱ

(19) ㄱ. *ㄱ > ㄱ

귀로움(13b), 위우니(23a), 니위(31a), 위로운(32a), 쇠고(腐; 40a)

ㄱ'. *꺄 > ㄱ

윗기(2b), 쪼(2b 등), 되예(3a),²⁷⁾ 쪼놀며(6a), 쇠하다(26a), 횃싸람(31a), 가쇠(35a), 회젓지(39b), 쉰(五十; 54b)

ㄴ. *꺄 > ㄱ

귀(11b), 쪼여(12a), 위여(47a)

ㄷ. *ㄱ > ㅣ

아린(29a), 비(32b), 비압고(32b)

(19)는 ‘*ㄱ(꺄)’의 고모음화를 보여주는 예들이다. ‘쪼미지(37a), 쪼미시되(38b)’ 등을 통해 이 문헌에서 ‘*ㄱ’와 ‘*꺄’는 상향이중모음으로 같은 음가를 나타내고 있는 표기임을 추정할 수 있다. (19ㄱ')는 역표기의 예로 실제 발음이 [꺄]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상향 이중모음이든 하향 이중 모음이든) [꺄]를 모음으로 가진 적이 없다. 현재 경남 방언에서는 [꺄] 또는 [ㅣ]로 발음되는 어휘들이다. 예를 들어 ‘웃다’의 경남 방언형은 [웃다, 윷다, 잇다] 등이고, ‘뒤’의 경남 방언형은 [뒤, 디]이다. ‘웃다’가 표제어로 실려 있는 『경남방언 사전』에서 [윷다]는 밀양, 진주의 방언형으로, [잇다]는 경남 전지역의 방언형으로 되어 있다. [윷다, 잇다]가 고형이고 ‘웃다’가 신형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19ㄱ')이 나타내고 있는 음가는 [꺄]나 [ㅣ] 정도로 볼 수 있다. ‘쪼여(19a), 괴로이(35a)’ 등의 훈기레가 있다는 점, 현대 어떤 방언에도 [꺄]로 반사된 형태가 없다는 점, 『녀사쇼학』에서 ‘쪼, 쪼, 쉬, 휘’ 등의 표기가 아주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 수 있다. ‘쪼’는 ‘쪼여’에 한 차례 보이고 ‘쪼’는 아예 보이지 않는다. ‘휘’는 한 차례 보이는데 ‘후’ + 계사 ‘이-’를 표기한 것으로 쓰기 전통에 기인한 표기라고 볼 수 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중자음 ‘ㄷ(ㄷ), ㅈ, ㅎ’ 뒤에 ‘꺄’를 표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꺄’로 표기된 예들 중 일부가 ‘꺄’로 교정된 것을 들 수 있다.²⁸⁾

(20) 쪼 → 쪼(2b 등), 쇠함으로써 → 쪼함으로써(41a), 쇠하야 → 쪼하야(54a)

‘쪼’는 [ㅈ]를 적은 것으로 보인다. ‘꺄 > 꺄’의 고모음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함께 고려할 때, 일부 자음 뒤에서는 ‘꺄’를 적으나 ‘꺄’를 적으나 나타내고자 하는 소리는 동일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일부 자음 뒤에서 ‘꺄’보다는 ‘꺄’를 적는 경향이 있어 (20)과 같은 역표기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꺄>꺄’의 변화를 겪은 예 중 일부는 단모음화를 겪어 (19ㄷ)과 같이 ‘ㅣ’로 나타나기도 한다.

27) ‘되(後)’는 ㅎ 말음을 가진 ‘되ㅎ’로 나타나기도 한다. “되허로(8b).”

28) ‘쇠하-’(38a)가 ‘쪼하-’로 수정된 예도 보인다. 또 ‘되’가 ‘디’로 쓰인 ‘이어디, 모라치디’ 등의 예도 보이는데, 이는 『녀사쇼학』의 ‘쇠, 되’ 등의 음가를 암시하는 수정이다.

4.1.3. 이중모음의 탈락과 삽입

4.1.3.1. 하향이중모음 탈락

- (21) 가. *꺠 > ㅈ: 구신(8b)
 나. *꺠 > ㅊ: 모서(45b)

이는 공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통시적으로 탈락한 형태가 굳어진 것이다.

4.1.3.2. 상향이중모음 탈락

(22) /j/ 탈락

- 가. *ㅈ > ㅈ: 공부흐사(6b), 다사리사디(8a), 업서사(34b)
 가'. *ㅈ > ㅈ: 학교(序1a), 쇼학(序1a), 향상(9b), 세상(9b), 상중하기(10b), 학문(18a)
 나. *꺠 > ㅈ(ㅈ): 시워사(序1a), 미어하며(序2a), 먹이고저(6b), 가라쳐(8a), 가져다가(9b), 오히려(15a),
 어려움(26b), 안해짜러(32b), 구터(33a), 두러햐(33b), 모서(45b)
 나'. *꺠 > ㅈ: 저혀(8a), 드려(8a), 저혀햐(8b), 겸소흙(8a), 법할(9a), 밧드려(9b), 천성(9b), 험호고
 (18a), 실혀(18b), 더부려(18b), 허락(21b)²⁹⁾, 효험(24a), 징험(29a), 우러려(38b), 이려
 허더라(42a)
 나". *ㅈ > ㅈ: 그력(3a), 형정햐(6a), 조현(9b), 박령(9b)
 다. *ㅈ > ㅈ: 없음
 다'. *ㅈ > ㅈ: 설표(18b), 치표(37a), 갈표(37b), 표육(40a)
 라. *ㅈ > ㅈ: 룬리(30b), 인룬(30b)
 라'. *ㅈ > ㅈ: 하품햐(12a), 퓨지(12a), 성품(19a), 당마류(24a), 숨을(25b), 품속(26b), 풀을(35a)

/j/ 탈락은 자음의 음가를 고려하였을 때, ‘ㅈ, ㅈ’ 뒤의 표기와 그 외의 자음 뒤의 표기를 구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ㅈ, ㅈ’은 경구개음에 가까운 위치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j/가 있는 표기와 없는 표기의 발음이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에, 이 혼기는 중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 ‘ㄹ, ㅅ, ㅌ’ 등에서 /j/가 탈락한 표기인 ‘어려움, 안해짜러, 구터, 두러햐, 공부흐사’ 등에서 /j/의 탈락은 영남 방언의 특징적인 음운 현상인 점을 고려할 때, /j/가 탈락된 발음을 반영한 표기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³⁰⁾

독특한 것은 /j/가 첨가된 표기이다. /j/가 첨가된 표기는 다양한 자음 뒤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이 문헌만의 특징은 아니다. 19세기 후기 영남 방언과 전라 방언을 반영한 문헌에는 이와 같은 표기가 나타난다(최전승 1986: 61-64, 백두현 1988:96-97, 백두현 1998:704).

- (23) 가. 을유본 『유합』: 부들여울 유, 거렴, 쪼려질 낙, 여려 빈, 머리 등

29) ‘허락’으로 수정되어 있다.

30) 영남 방언에서 ‘ㅅ’은 전설모음 앞에서는 [j]에 가까운 소리로 실현된다. 이 소리를 확인할 수 있는 표기는 ‘세’와 ‘세’ 표기 정도인데, 『녀사쇼학』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표기를 찾기 힘들다.

- ㄴ. 『여사수지』: 길겨워, 시러곰, 먹이고져, 베티 등
- ㄷ. 『수경옥낭좌전』: 먹고, 묘시고, 뱀풀 등
- ㄹ. 『역대전자문』: 어리만질 뉘, 밤 야, 벼술 경, 썰일 탕 등
- ㅁ. 『계몽편』: 독겁이 섬, 터력 발 등
- ㅂ. 『영남삼강록』: 신병균, 먹이니, 결이어, 효험 등
- ㅅ. 『국한회어』: 기력이, 무렵씨고 등

(23)은 영남 방언 문헌에서 보이는 /j/ 첨가 표기로, 위의 문헌들에서 /j/가 첨가된 표기는 ‘ㄹ, ㅁ, ㅂ’ 등 뒤에서 주로 보이고 ‘ㄱ’ 뒤에서도 더러 보인다. 유기음 뒤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데, 『역대전자문』에 ‘썰 일 탕, 힐 효’³¹⁾ 등이 있다. 『녀사쇼학』에서 특징적인 것은 다른 문헌에서는 보이지 않는 유기음 뒤에서 /j/ 첨가 표기가 현저하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j/ 첨가 표기에 대해 백두현(1988, 1998)과 최전승(1986:62)는 /j/가 첨가된 발음이 실제로 존재하였던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들 중 일부는 /꺄/를 표기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최전승 1987:436-439, 백두현 1988:97, 박창원 1992:63). 그러나 현대 영남 방언이나 호남 방언에서 /j/ 첨가가 일어난 방언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문제이다.³²⁾ 이런 점에서 이를 /j/ 탈락의 단순한 역표기로 보는 것이 더 온건한 처리일 수 있다. 『녀사쇼학』에는 여러 /j/ 첨가 표기 중 ‘표’로 표기된 ‘*포’가 모두 ‘포’로 수정되어 있다. 이는 /j/ 첨가가 표기상의 문제, 즉 과도교정에 의한 역표기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 준다. 『녀사쇼학』에서 ‘*꺄’는 상당수 ‘꺄’를 거쳐 ‘ㅣ’로 변하였는데 여기에서는 ‘꺄’만 보이고 ‘꺄’나 ‘ㅣ’는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도 참고된다.

한편, /j/ 첨가 표기의 확대(‘ㄹ’ → 변자음 → 유기음)가 /j/ 탈락의 시간적 순서를 보여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w/ 탈락의 예는 /j/ 탈락의 예보다 훨씬 적다.

(24) /w/ 탈락

- ㄱ. *나 > ㅏ: 자시고(12a)
- ㄴ. *꺄 > ㅓ: 없음
- ㄷ. *꺄 > ㅣ: 수리(55b)
- ㄷ'. *ㅣ > ㅓ: 갈위움(38a)

‘수리’는 ‘*술위’로부터 변화한 것이라고 보면 /w/ 탈락의 예이고, ‘수레’로부터 변한 것으로 보면 모음 상승의 예가 된다. ‘갈위움’은 ‘가리움’(蔽)의 역표기로 보인다.

4.1.3.3. 상향이중모음 삽입

- (25)
- ㄱ. *ㅏ > ㅓ: 모와(序2b), 조화ᄃ며(18a), 보와(46b), 쏘와(54a)
 - ㄴ. *ㅓ > ㅓ: 거두워(29b), 두워(53a)
 - ㄷ. *ㅓ > ㅓ: 되여시며(16a), 히여져(19a), 위여(47a)

31) 엄밀히 이야기하면 /ㅎ/은 유기음이 아니지만, 편의상 유기음과 함께 설명한다.
 32) 비슷한 시기 함북 행영 방언에서는 ‘머리’라는 형태가 조사된 바 있다(오세준 1933:371).

(25)의 /w/ 삽입 표기와 /j/ 삽입 표기는 실제 발음을 반영한 표기일 것이다. 다만 ‘니’의 음가가 상향이중모음 [we]를 표기한 것이라면, /j/ 삽입의 설명은 조금 어려워진다. 따라서 ‘되여시며’라는 표기는 ‘되’의 실제 음가는 고모음화를 겪은 [twi] 정도였을 것을 보여주는 표기라고 해석하는 것이 나아 보인다. 현대 창녕 방언에서 ‘되다’가 ‘데다’ 또는 상향이중모음 ‘뉘다’로 발음된다는 『방언조사자료집』의 조사 결과가 참고된다.

4.1.4. 움라우트

『녀사쇼학』에서 나타나는 움라우트의 예는 개재 자음 제약을 지키고 있다.

- (26) 가. *ㅏ(·) > ㅑ(·): 익기늬니(8b)
 나. *ㅓ > (ㅕ) > ㅣ: 비힘을(33a)
 다. *ㅜ > ㅛ: 원기지(11b)
 라. *ㅜ > ㅠ: 윗고(23b), 췌미시되(38b), 쉬기고(48a)
 마. *ㅡ > (ㅟ) > ㅣ: 씨리- (39b, 40b)

피동화음으로는 ‘ㅏ, ㅓ, ㅜ, ㅜ, ㅡ’가 모두 관찰된다. ‘비힘’은 움라우트와 고모음화를 모두 겪은 어형이고, ‘윗고, 췌미시되’ 등의 ‘ㅛ’ 표기는 [ㅠ]를 나타낸 것임을 4.1.2.2.에서 다룬 바 있다. ‘ㅡ’는 ‘ㅟ’를 거쳐 ‘ㅣ’로 나타난 ‘씨리-(燙)’가 보인다. 또한 아래 4.1.5.의 중자음 뒤 전설모음화의 예들 중 일부는 움라우트에 의한 변화로 볼 만한 것들도 있다.

4.1.5. 중자음 뒤 전설모음화

『녀사쇼학』에는 중자음 뒤 ‘ㅡ’가 전설모음 ‘ㅣ’로 변한 어형이 많이 보인다. (27)은 한 단어에 대해 하나의 단어형만 든 것이다.

- (27) ㄷ: 업딤리지(47a), 되룸(7b)
 ㄹ: 가리치시미(5b), 짜리논(26b)
 ㅅ: 실프다(序2a), 잇시니(2b), 업시나(3a), 거시리지(13a), 죽어시면(15a), 실혀(18b)
 ㅆ: 씨난(序1b), 췌기(19a)
 ㅈ: 안질(1a), 질거치(9a), 징명하지(9b), 마질(17b), 진역(23b), 차지니(35a), 지지(市場; 42a)
 ㅊ: 꺼칠고(19a)

‘ㅅ, ㅆ’과 ‘ㅈ’ 뒤에서 ‘*→ㅣ’의 변화를 겪은 예가 많이 보인다. ‘진역(夕)’은 ‘전녁’으로 교정이 되어 있는데 ‘ㅈ’의 구개음화로 인해 실제 발음은 ‘ㅡ’ 또는 ‘ㅣ’일 것이다(4.2.2. 참조). ‘전역(序2b)’도 보인다. 따라서 이것은 ‘ㅣ(ㅡ)’가 ‘ㅣ’로 전설화된 예로 볼 수 있는데, 이는 ‘ㅣ’와 ‘ㅡ’의 중화와 전설모음화 사이의 선후 관계를 알려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반드시 ‘ㅡ’가 아니더라도 ‘ㅣ’로 전설화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지지’와 ‘져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그에 비해 ‘ㅆ, ㅊ’은 어원적으로 ‘ㅡ’가 결합한 어형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앗춤(序2b)’이 보이는데 이는 의고적 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조사와의 결합형으로 ‘낫춤(8a), 빗춤(11b), 췌춤(38a)’ 등이 보이는데,

이는 조사의 형태가 확고하기 때문에 전설모음화가 저지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ㄷ’ 뒤에서 ‘*ㅡ’가 [ㅣ]로 나타나는 예들은 후행 음절에 ‘ㅣ’가 있기 때문에 움라우트의 예로 보아야 할 수도 있다.³³⁾ ‘가리치-’도 움라우트의 예로 볼 수 있으나(최전승 2020:285-286) ‘짜리논, 썩리느니라, 짜리기, 짜리리라’ 등으로 나타나는 ‘짜리-’는 움라우트의 환경이 아니므로 순수한 전설모음화의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환경에서 이미 재구조화된 어간이라든지, 어간말에 언어 외적인 이유로 ‘이’가 첨가된 것이라는 논의(최전승 2020:317-327)를 적극적으로 반박할 자료는 없다.³⁴⁾

4.1.6. 원순모음화

- (28) ㄱ. *ㅡ > ㅏ: 그러무로(7a), 검은(7b), 길물(8a), 이러무로(14b), 절물(19a), 검은식(37a), 모우지(42a), 드므니(50b)
 ㄱ': *ㅏ > ㅓ: 덤을기(20b)
 ㄴ. *ㅣ > ㅓ: 입부흐며(4a), 목이나나라(6b), 여러 분(45b), 고루고(52b)
 ㄴ': *ㅓ > ㅓ: 숨얼(38a), 무어(41b)

『녀사쇼학』에서는 원순모음화의 피동화주는 ‘ㅡ’와 ‘ㅣ’이지만 결과는 언제나 ‘ㅏ’이다. 이는 『녀사쇼학』에서 ‘ㅡ’와 ‘ㅣ’가 중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어쩌면 ‘*ㅡ’와 ‘*ㅣ’의 중화가 원순모음화보다 먼저 일어났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중화 이전에 원순모음화가 일어났다면 ‘*ㅣ’가 원순모음화한 결과는 ‘ㅓ’가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³⁵⁾ 역표기형도 보인다. 일부 원순모음형은 ‘그러무로 → 그러므로(7a), 길물 → 길믈(8a), 숨얼애 → 숨얼애(38a)’로 수정되어 있다. 이 수정의 결과는 ‘ㅡ’이지 ‘ㅣ’인 것은 없다.

한편, 동화주는 주로 원순 자음 ‘ㄹ, ㅂ’이지만 원순 모음인 예도 보인다. ‘모우지’와 ‘고루고’는 선행하는 원순모음의 영향으로 원순모음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4.1.7. ‘ㆍ’의 변화

어두의 ‘*ㆍ’는 거의 예외없이 ‘ㅏ’로 나타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비어두 음절의 ‘*ㆍ’도 ‘ㅏ’로 변한 예가 다수라는 것이다. 그 수는 오히려 ‘*ㆍ’가 ‘-(ㅣ)’로 나타나는 단어보다 더 많다. 이는 ‘*ㆍ’가 ‘ㅡ’로 반사되는 중앙어의 일반적인 경향과 대비를 이룬다.

- (29) ㄱ. *ㆍ > -(ㅣ): 다리고(序1b), 앓춤(序2b), 바라(1a), 조헌(1b), 나힘(2a), 모리고(2b), 하리(3b), 만어니(4b), 움늬다(12b), 안어로(27a), 짜림이나라(29b), 갓터니(42b), 비야허로(56b) 등

33) 19세기 후기에서 20세기 초기에 소위 개재자음 제약에 구애를 받지 않는 움라우트형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최전승 1989, 광충구 1994).

‘되름(7b), 되루지(47a)’은 『소학언해』와 『어제소학언해』에서 ‘드림’으로 언해된 것으로 ‘드리다(垂)’의 파생명사이다. 현재 경남 방언형은 ‘디루다, 디라다’ 등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어근 ‘되루-’는 ‘드리우-’의 방언형으로 보이는데, [뒤루-] 또는 [디루-]를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34) 단, 최전승(2020:324-325)에서 ‘ㆍ>ㅓ’ 변화의 예로 들고 있는 것들은 사동접미사 ‘-오-’가 결합한 예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밝혀둔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윤희(2002) 참조.

35) 박창원(1992:61-62)은 ‘*ㅣ > ㅓ’는 원순모음화 현상과 무관한 것이라고 보고, 원순모음화가 ‘*ㅡ’와 ‘*ㅣ’의 중화(‘개구도 합류’) 이전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실 박창원(1992)의 가정처럼 ‘*ㅓ > ㅓ’의 변화가 원순모음화 이후에 일어났다면 ‘*ㅣ > (ㅓ) > ㅓ’의 순차적 변화를 상정할 수 있어, ‘*ㅣ > ㅓ’를 원순모음화와 무관한 현상으로 볼 필요도 없다. 『녀사쇼학』에는 ‘*ㅓ > ㅓ’의 변화가 거의 보이지 않는데 ‘얼굴’ 정도가 거의 유일한 예로 보인다.

ㄴ. *·>ㅏ: 잇난(序1a), 가라치지(序1a), 반다시(序1a), 말삼(序2b), 아달(1b), 하늘(1b), 다사리(4b), 거나리고(5a), 비살(7a), 마암(7a), 갓타니(9a), 맞참내(9b), 일쌀(10a), 기참(12a), 바날(12a), 다란(13a), 나잔(15b), 오날(17a), 마알(19b), 다샛(25a), 짜람이니라(29a), 이라지(30b), 아람다운(32b), 거산(41a), 쏘차며(46a), 모단(56a) 등

‘*·>-(ㅏ)’의 예는 ‘ㅡ’보다는 ‘ㅏ’로 적힌 것이 많다. 이를 ‘*·>ㅏ’의 직접적인 변화의 예로 볼 것인지, ‘*·>ㅏ’의 변화, 즉 ‘ㅡ’로의 변화 이후 ‘ㅏ’와 중화되었다고 볼 것인지는 판단이 어렵다. ‘*·’가 ‘ㅏ’로 표기된 예는 제2음절 아래에서만 보인다는 점에서 ‘*·>ㅏ’의 변화로 보아 둔다.³⁶⁾

특징적인 것은 (29ㄴ)의 ‘*·>ㅏ’의 예이다. (29ㄱ)의 많은 예가 매개모음과 관련된 것이라면, (29ㄴ)은 다양한 단어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표기에 대해 백두현(1992:80-81)은 이를 19세기 후기를 지나며 일반화되는 ‘*·’를 ‘ㅏ’로 기계적으로 바꿔 적는 경향(최전승 1989/1995:404-411)에 의한 것일 뿐, 실제 발음은 아니라고 보았다. 반면 최전승(1989/1995)는 서남 방언에서 보이는 이와 같은 표기가 실제 발음을 반영하고 있을 수 있다고 보았는데,³⁷⁾ 본고 역시 조사가 아닌 단어에서 보이는 ‘*·>ㅏ’는 실제 발음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입장에 있다.

우선 영남의 일부 방언에서 ‘하날, 반다시, 오날, 아달, 마암’ 등 2음절에서 ‘*·>ㅏ’를 겪은 어형들이 보인다(김영태 1975, 최전승 1989/1995:413). 주로 1음절이 ‘ㅏ’이기 때문에 2음절 모음이 완전동화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오날’ 같은 경우는 ‘날(日)’에 유추되었다고 볼 수도 있어 애매하지만 2음절이 ‘ㅏ’로 변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흥미할 만하다. 또 자료의 제약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ㅏ’의 변화를 겪은 어형이 거의 대부분 치조와 경구개음 아래에 있다는 사실도 참고된다. 『한국방언자료집』에서도 ‘*·>ㅏ’가 반영된 어사는 대부분이 전설자음이다(오종갑 2009/2021:33). 2음절 이하에 위치하던 ‘*·’가 일부 자음 아래에서 모종의 이유로 ‘ㅡ’로의 변화가 저지되고 ‘ㅏ’로 변화했을 수 있는 것이다. ‘*·’를 ‘ㅏ’로 적는 경향이 치조 자음 아래에서 강했다는 사실도 함께 참고한다면(송민 1986:30-32, 백두현 1992:66-71), 전설 자음 아래에서 ‘*·’의 1단계 변화(이기문 1977)가 저지되었을 수 있다.³⁸⁾ 마지막으로 ‘갓타니~갓터니, 다리고~다란, 짜람~짜람’ 등 혼기가 보인다는 점이다. ‘*·’를 ‘ㅏ’로 기계적으로 바꿔 적는 표기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표기가 많다.

4.1.8. 기타

(30)과 같이 일부 모음 뒤에서 모음이 완전 순행 동화를 일으킨 예도 보인다.

- (30) ㄱ. 익기(序1b), 살피(序3a), 가리(3b), 자싯거든(11b), 발키(29b), 어리서뵈터(34b), 바리서(53b) 등
ㄴ. 싸며(6a)

36) 어두 음절에서 ‘바리-’(6a)가 한 번 보인다(‘바리-’는 18번 나온다). 이 외에는 어두 음절에서 ‘*·’가 ‘ㅏ’로 반사된 예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37) 본래부터 ‘*·’였던 어휘는 비어두음절에서 제2단계 변화(*·>ㅏ)를 수행한 것으로 보았고, 본래 ‘ㅡ’를 가지고 있던 어휘가 ‘ㅏ’로 나타난 것은 ‘*·’를 ‘ㅏ’로 적는 표기 경향에 따른 철자의 변화와 ‘*·’를 ‘ㅏ’로 발음하던 철자 발음(spelling pronunciation) 때문으로 보았다.

38) 유소연(2022)은 20세기 초기의 자료인 『초학요선』에서 [-설정성]의 환경에서 ‘*·’ 표기가 잔존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설정성] 환경에서 ‘*·’의 변화가 먼저 일어났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 점은 송민(1986:138-140)과 같다. 그러나 백두현(1992:70)은 치조음 아래에서 ‘*·>ㅏ’의 변화가 더 활발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주로 ‘ㅣ’로 끝나는 용언 어간이 ‘-어’계 어미와 결합하는 예에서 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예는 『수경옥낭좌전』에서도 잘 보인다. 이 예는 ‘ㄱ>ㄷ>ㅣ’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모음 순행 동화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를 결정하는 데는 경남 방언이 참고된다. 현대 경남 방언에서 동일한 환경에서 ‘-어’계 어미는 장음으로 실현되기 때문이다(최명옥 1976:66-68, 김정수 1999:102-109).³⁹⁾ 이는 ‘-어’가 선행하는 모음 ‘ㅣ’에 완전 동화하여 보상적 장음화를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어간말음의 성조가 고조일 경우 이 ‘ㅣ’는 하강조로 나타난다. 이를 완전 순행 동화로 보는 견해는 최명옥(1976:75), 김정수(1999:108) 등에서도 찾을 수 있다.

비록 『녀사쇼학』에서 장음 표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기에 보상적 장음화가 일어난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현대 방언을 고려했을 때 이를 장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선 모음 ‘ㅣ’와 ‘ㅓ’가 결합하였을 때, ‘ㅣ’로 적히거나 ‘ㅓ’로 적힌 예는 보이지만 ‘ㄱ, ㅋ’ 등으로 적힌 예는 보이지 않는다.⁴⁰⁾ 『녀사쇼학』에서 ‘ㅣ, ㅓ, ㅓ’가 나타내는 음가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들이 교호적으로 사용되고, 어느 정도 형태론적 배려가 이루어진 예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ㄱ, ㅋ’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시사적이다. 둘째,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경남 방언에서 ‘ㅣ’는 장음으로 나타난다. 만약 『녀사쇼학』에서 ‘ㅣ’가 ‘ㄱ>ㄷ>ㅣ’를 겪은 것이라면 단모음으로 실현되었을 텐데, 이것이 다시 장모음화한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변화이다. 셋째, 형태론적으로 보았을 때,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어’가 사라지는 것은 부담이 크다. 이런 점을 보았을 때, 이 예들은 완전 순행 동화를 겪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0ㄴ)은 ‘築’의 번역어로 ‘쌓으며’를 ‘싸며’로 표기한 것이다(6.2. 참조). ‘ㅓ’가 완전 순행 동화를 일으킨 예는 이 예 하나만 보인다. 다른 모음들은 완전 순행 동화로 볼 만한 예들이 없다.

어미의 음성모음형이 나타나야 할 자리에 양성모음형이 나타난 예도 더러 보인다. 반대의 예는 보이지 않는다.

- (31) 비와셔(序2b), 어질아셔(1b), 가리와(癢: 11a), 미жат더니(19a), 기우라진(19a), 썸사(45a), 믹엄아(56a) 등

4.2. 자음 관련 현상

4.2.1. ‘ㅓ’과 ‘ㅕ’의 구별

『녀사쇼학』에서는 대체로 ‘ㅓ’과 ‘ㅕ’이 구별되어 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⁴¹⁾ 다만 일부 단어에서 ‘*ㅓ’이 어두에서 경음화한 예가 있고, ‘*ㅕ’이 ‘ㅓ’으로 적힌 예들이 보인다.

- (32) ㄱ. 썸지(3a: 썸김(24a)), 썸기시고(13a), 썸치(14a), 썸기(孩: 17a), 썸(17b: 썸(39a)), 썸어(腐: 26b), 썸거(混: 45a)

39) 경북 방언에서도 마찬가지이다(백두현 1984:110-113 참조).

40) 김정대(1992:91-94)는 『수경옥낭좌전』에서 나타나는 같은 현상을 ‘ㄱ>ㄷ>ㅣ’의 변화로 보았다. 그런데 『수경옥낭좌전』은 이 환경에서 ‘ㅣ’, ‘ㅣ’와 함께 ‘ㄱ, ㅋ’ 등으로 적힌 예가 있기 때문에 ‘ㄱ, ㅋ’ 등의 표기가 없는 『녀사쇼학』와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 그러나 『수경옥낭좌전』의 ‘ㄱ, ㅋ, ㅋ’가 실제로 음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ㅣ]의 이표기인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녀사쇼학』과 동일한 상황일 수도 있다.

41) 현대 창녕 방언은 ‘ㅓ’과 ‘ㅕ’를 구별하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는 듯하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3)에는 창녕이 ‘ㅓ’과 ‘ㅕ’를 구별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박정수(1999:222)에는 구별하지 않는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김영송(1963:980)에서도 조사한 모든 지역에서 ‘ㅓ’과 ‘ㅕ’가 구별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ㄴ. 말삼(序2b), 려시(9a), 십고(23b), 섯거든(54a)

어두경음화가 ‘씨하-’ 중 일부는 ‘쇠하-’로 수정이 되어 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녀사쇼학』에서 ‘ㅅ’과 ‘ㅆ’은 독자적인 음소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4.2.2. 구개음화

ㄷ 구개음화는 당연히 완료된 상태이다. 이는 굳이 단어를 들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표기상으로는 전설모음 앞에서 ‘ㅈ’을 ‘ㄷ’으로 수정한 표기가 여러 차례 보인다.

- (33) 제일 → 데일(2a), 정혀거니와 → 덩혀거니와(2a), 제사 → 데사(4a), 제기 → 데기(6a), 자제 → 자데(8a), 형제 → 형데(8b), 도적 → 도덕(8b), 갓지 → 갓디(8b), 지물일진던 → 지물일딘던(10a), 제자 → 데자(14b) 등

이 수정은 대체로 주서와 묵서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 시기에 구개음화 규칙이 적용되었다고 해석할 수는 결코 없고, 의고적인 표기로 되돌린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뒤에는 ‘도덕 → 도적’(53a)의 수정도 보여, 이 표기들이 모두 구개음을 나타낸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ㄱ 구개음화를 보이는 예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34) ㄱ. 절워(爭; 8a), 좃집-(26b), 맞지-(35a)
ㄴ. 기니-(4a), 길겁-/길거혀-(14a 외)

(34ㄱ)은 ㄱ 구개음화가 일어난 형태고 (34ㄴ)은 과도교정형이다. ‘맞지-’는 ‘말디-’의 ㄷ 구개음화형으로 보이고 ‘기니-’는 ‘지내-’의 과도교정형으로 보이는데, 경남 방언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ㅎ 구개음화의 예는 보이지 않는다. 이 시기에 ㄱ 구개음화와 ㅎ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들고, 의고적인 표기를 지향하는 『녀사쇼학』의 저자가 중앙어형으로 바꾸어 쓴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구개음화와 관련하여 주서로 수정된 것 중 흥미로운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는 ‘ㅈ’ 아래의 /j/계 상향이중모음과 단모음을 수정한 것이다.

- (35) 종쇼 → 종조(7a), 만저 → 만저(11a), 종자 → 종자(16a), 종족 → 종족(16a), 촉탁 → 촉탁(21b), 축슈혀되 → 축슈혀되(23b), 문중자 → 문중자(38a), 종족 → 종족(52b), 존절이 → 존절이(53a) 등

무슨 기준에 의해 수정이 이루어진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역시나 의고적 표기를 지향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표기는 ‘ㅈ’의 구개음화로 인해 /j/가 들어간 모음과 그렇지 않은 모음이 같은 발음으로 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표기의 혼란을 잘 보여준다.

이와 관련된 표기의 수정으로 ‘ㅅ’ 아래 /j/계 상향이중모음과 단모음의 수정이 있다. 이 수정 역시 주로 주서로 이루어져 있고, 의고적 표기를 지향한 것으로 이해된다.

- (36) 설표 → 설포(18b), 상ㅎ얏더라 → 상ㅎ얏더라(21a), 수자리 → 슈자리(21b), 슈일 → 수일(23b), 상사 → 상사(24b), 상인 → 상인(24b), 초상 → 초상(24b), 순비 → 순비(42a) 등

4.2.3. 어두 경음화

어두 경음화도 현저하다. 4.2.1.에서 살펴본 ‘*스’의 어두 경음화를 제외한 나머지 자음들을 제시하면 (37)과 같다.

- (37) ㄱ: 쓸사오며(11a), 쫓디(11b), 씨어리(懶: 13a), 읊언(19a), 꺼칠고(19a), 쓴치지(34a), 썸운(38a), 한짜지(一種: 56a)
- ㄷ: 짱기고(8b), 짝고(11b), 따리(33b)
- ㅂ: 썸(序2a), 뵈고(11b), 썰건식(37a), 뿌시지(39a)⁴²⁾
- ㅅ: 씨럼(序2b), 쫓차옴(9b)

위의 어형 중 ‘곱고(4a), 빗고(11a), 검은식(37a)’과 같이 혼기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4.2.4. ㄴ 첨가

‘ㄴ’은 두 가지 환경에서 첨가된다. 한 가지는 파찰음 ‘ㅍ’ 앞에서 선행 음절의 음절말에 ‘ㄴ’이 삽입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음 ‘ㅣ, ㅑ’ 앞에서 음절초에 삽입되는 것이다.

- (38) 근치-/건치-/쓴치- (斷: 18b 등), 곤치-(修: 31b 등)

‘건치-/근치-’와 ‘곤치-’는 파찰음 ‘ㅍ’ 앞에서 ‘ㄴ’이 첨가된 방언형이다. 단, ‘ㄴ’이 첨가된 어형은 영남 방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견되며(소신애 2010 참조), ‘ㄴ’이 파찰음 앞에서만 삽입되는 것도 아니다(김소영 2013, 이진호 2013 참조).⁴³⁾

- (39) ㅣ 앞: 니- (載: 32b), 니(齒: 39b 등), 널거기(讀: 54a 등)
- ㅑ 앞: 녀식(2a 등), 녀자(11b 등), 녀려(13b), 녀질(24b)

엄밀히 이야기하면, (39)의 예들은 ‘ㄴ’이 삽입된 것이 아니라 중세어의 ‘ㄴ’이 탈락하지 않은 것이다. 그 중에는 본래 ‘ㄴ’을 어두에 가지지 않았음에도 ‘ㄴ’이 들어와 있는 ‘이-’와 ‘염(染)’도 있다. (39)의 ‘ㄴ’들은 실제로 발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즉, ‘ㅑ’ 앞에서 일어난 ‘ㄴ’ 삽입은 한자어의 두음 법칙과 관련된 과도 교정이고, ‘ㅣ’ 앞에서 일어난 ‘ㄴ’ 삽입은 이들이 2음절 이하의 구에서 나타날 때 ‘ㄴ’이 발음되는 사실에 유추된 표기로 보는 것이다.

42) ‘너허지’로 수정되어 있다. 중세어의 ‘너흘-’의 방언형 ‘너헐-’이다.

43) 이를 삽입으로 보지 않고 원래 있었던, 하지만 중세어에서는 탈락한 ‘ㄴ’이 여러 방언에서 탈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Vovin 2003). 이를 ‘ㄴ’ 첨가로 보고 음성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려 한 시도는 소신애(2010), 장하연·김태우(2020) 등을 들 수 있다.

4.2.5. 자음군 단순화

‘ㄹ’계 어간말 자음군이 자음 앞에서 어떻게 발음나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표기들이 있다.

- (40) ㄱ. ㄹ: 달(鷄: 13b 외), 밧고(明: 23a), 맑고(淡 ; 32b 외), 늑늑니/늑고(老: 15a/55a)
 ㄴ. ㄹ: 밧고(踏: 11b)
 ㄷ. ㄹ: 밧듬(奉: 12b), 점고(少: 33a), 민듬(45a)

‘ㄹ’, ‘ㄹ’은 자음 앞에서 ‘ㄹ’이 남는 쪽으로 발음이 난다는 것을 표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맑고’라는 표기와 현대 경남 방언에서 ‘ㄹ’과 ‘ㄹ’의 경우 ‘ㄹ’ 쪽이 남았을 때 후행하는 평음을 경음화 시키지 않는 방언은 조사된 바가 없다. 따라서 위의 표기는 첫 음절에서 ‘ㄹ’이 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후행하는 어미를 경음화 시키지 않는다고 이해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ㄹ’은 ‘ㄹ’ 쪽이 남는다고 이해되는데, 이 때 뒤에 오는 평음을 경음화 시키지 않는 방언이 있어 여기에서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4.2.6. 기타

다음과 같은 표기를 통해, 양순음화와 연구개음화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 (41) 인금(5b), 섬비(7b), 깃거치(13a), 신기닌(仕: 24b), 짓키지(29b), 잇키시니(32b), 함 번도(45b), 향갈갓디(53a)

‘인금’은 [잉금]의 표기인 듯한데 『녀사소학』에서 ‘임금’을 일관되게 ‘인군(人君)’으로 언해하고 있어 확신하기는 어려우나, 다른 예들에 의해 연구개음화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 가능하다.

‘ㅎ’ 탈락을 반영하는 표기도 보인다.

- (42) 일어(失: 序2b), 열을(3b), 너의(5a), 오련(7b), 만어며(10a), 실어ㅎ지(40a) 등

‘ㄷ, ㅈ’ 앞에서 음절말 ‘ㄹ’ 탈락을 반영한 표기는 다음과 같다.

- (43) 우지(17a), 다다(甘: 23b), 아지(27b), 다지(縣: 30a), 부지(31a)

5. 문법

5.1. 조사와 어미

『녀사소학』는 전체적으로 의고적인 문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 문법 형태는 근대어의 것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어제소학언해』에서 드러나지 않는 몇몇 문법 형태와 변이형들이 보인다.

먼저 주격 조사 ‘가’가 보인다. ‘가’의 출현은 『어제소학언해』의 영향을 받아 『小學』의 본문에서보다 주석

에서 더 잘 드러나는 듯하다. 관형격 조사는 주로 ‘의’와 ‘이’가 나타나지만 더러 ‘에’가 보인다. ‘부모에 얼 굴’(1b), ‘어진 스승에 교육(10b)’, ‘자부에 효도(20b)’ 등. 처격 조사로는 ‘애’, ‘이’, ‘에’가 사용되는데, ‘애’는 관형격 조사로 사용된 예는 없다. 모음의 복잡한 표기 때문에 관형격 조사와 처격 조사가 당시 어떤 음가를 가지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의~에] 정도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며, 고모음화에 의해 때로는 [이]로 발음나는 것도 있지 않았을까 짐작해 본다.

영남 방언 일부 지역에서 여격 조사 ‘-에게’는 ‘-에게/으께’ 정도로 발음 나는데, 『녀사쇼학』에 이 형태의 선대형으로 보이는 예들이 다수 나온다. ‘맛미날이씩(15a), 저에씩(21b), 사람애씩(22a), 상의씩(33a)’ 등. 이 형태는 존칭의 여격 조사 ‘-씩/씨’와 혼효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시 ‘-씩/씨’에 영향을 주어 비존칭 체언에도 연결되게 된다. ‘아달씨(8a), 친형씨씩(14a), 맛미날이씩(15a), 안히씩(46b)’ 등.

여격 조사 ‘-에게/의게’의 선대형인 ‘-에그에’가 보인다. ‘오름에그에(序2b)’. 서문 부분이라 다른 언해의 영향을 받았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의고적인 문체를 따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장소를 뜻하는 ‘그’가 보인다. ‘공명과 부귀가 그에 잇서(10a)’. 이는 중세어의 “궁”과 연결시키기는 힘들어 보이고, ‘거기’의 축약형인 ‘거’가 ‘ㄱ~’의 혼기에 의해 ‘그’로 적혀 나온 것일 것이다.

중세어의 ‘ㄷ려’에 소급하는 ‘짜려/짜러’가 보인다. ‘데리-’의 맥락에서는 ‘ㄷ리/다리-’로 나타나는데, 여격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짜려/짜러’로 나타난다. ‘안해짜러(32b), 령녀짜러(33b), 아달짜러(52a), 흥짜러(54a)’. 언제나 ‘ㅈ’로 쓰이는 것으로 보아 ‘짜리다(從)’와 혼효를 일으킨 형태가 아닌가 싶다. 경음화를 겪은 또 다른 조사로 ‘도’가 있다. ‘녀자또(序1a), 하낫도(4a), 아이또(34b)’ 등이 있는데, 이 외의 대부분의 예는 ‘도’로 나타난다.

보조사 ‘마다’의 방언형인 ‘마장’이 한 차례 보인다. ‘날마장(54b)’. 『경남 방언 사전』에 따르면 ‘마장’은 마산, 울산, 진주, 진해, 창원에서 사용되고, ‘마당’은 남해, 마산, 밀양, 산청, 울산, 진주, 진해, 창녕, 창원 등지에서 사용된다고 하고 있다. ‘마당’은 ‘마다’와 ‘마장’의 혼효형인 것 같다.

부사형 어미 ‘-게’는 모두 고모음화 하여 ‘-기’로 나타난다. 의도의 ‘혀려/혀라 혀-’에 대응하는 ‘히려 혀-’도 보인다. ‘이웃 집에 돛 잡음은 무어 흘러 혀나 혀나잇가’(6b). 『어제소학언해』에는 ‘므슴 흘려 혀노고(4:5a)’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중앙어의 ‘-려’에 대응하는 ‘-라’는 ‘히알나(53a)’라는 형태가 존재하는 것으로 음운론적인 변동으로 보인다. 그 외 눈에 띄는 어미는 없다.

5.2. 사동 접미사

『녀사쇼학』에서는 사동 접미사 ‘-우-’의 사용이 눈에 띈다.

- (44) 죄우- (← 찍이-), 바루- (← 正히 혀며), 되루- (← 드리디우-), 가루- (← 가리우-, ㄱ리오-)
 나수- (←드리-), 기루- (←길우-, 치-), 모루- (←매 마좁)

사동 접미사 ‘-주-’가 사용된 ‘빠주-(46a)’도 보인다. 이는 중앙어의 ‘-뜨리-’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조 용언 ‘지-’와 사동 접미사 ‘-우-’의 축약형으로 보인다. 이것은 ‘빠지기 함’으로 수정되어 있다.

5.2. 추측의 ‘-(으)ㄴ 같다’

- (45) 명을 엇지 못혀거든 다시 부모가 주심을 밝는 갖치 길거히 밧자와 간슈할 디니라 <13b-14a>

(45)는 明倫^②의 ‘如更受賜’를 언해한 것으로 『소학언해』와 『어제소학언해』에는 모두 ‘다시 주심을 받잖는 단시 ㅎ야’로 언해되어 있다. 즉, 일종의 비유 구문인데, ‘빛는 것 갖치’가 아니라 ‘빛는 갖치’라고 되어 있어 ‘것’이 빠진 것이 특징이다. 단 한 번 나오는 예이기 때문에 단순한 탈자로 볼 수도 있으나, 이를 영남 방언 문법의 특성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김주원(1984L)에서는 대구 방언에는 ‘사람들이 많은 걸다’, ‘비가 그칠 걸다’와 같이 추측 구문을 이루는 ‘-(으)ㄴ/ㄹ 것 같다’ 구문에서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익섭(2021)에 따르면 추측의 ‘-(으)ㄹ 걸다’ 구문은 강릉 방언에서도 들을 수 있다고 한다. 김주원(1984L), 김태엽(1990) 등은 이것이 ‘-것 같다’가 문법화 하면서 탈락 또는 축약⁴⁴⁾을 겪어 나타난 구문으로 보고 있다. (45)의 ‘빛는 갖치’ 또한 같은 구문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다.

한 가지 문제는 (45)는 추측의 의미가 아니라 비유의 의미라는 점이다. 음운 형식의 축약이 의미의 변화와 관련된 것이라면, (45)는 ‘비유>추측’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예이기 때문에 ‘빛는 갖치’는 단순한 탈자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예가 ‘것 같-’과 관련된 구문이라면, ‘거 같-’에서 같은 음절의 중복으로 인한 탈락이라는 김주원(1984L)의 설명이나 ‘추측’ 의미의 중복으로 인한 ‘거 같-’의 축약이라는 김태엽(1990)의 설명은 모두 불완전한 것이 된다. 음절초 자음이 동일하여 일어난 탈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3. 목적어를 표시하는 ‘로’

『한국방언자료집』에 따르면 동해안과 경북 남부, 경남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목적격 표시로 ‘을/로’가 사용된다. ‘을’은 자음 뒤에서, ‘로’는 ‘ㄹ’과 모음 뒤에서 나타나는 이형태이다. 이는 ‘를 > 르 > 로’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이기갑 2003:44-46).⁴⁵⁾ 이 형태는 문헌어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녀사쇼학』에서 다음과 같은 예가 보인다.

- (46) ㄱ. 씨를 기로 썬저 주지 말며 <39a>
 ㄱ'. 개를 썬 더더 주디 말며 (母投與狗骨 ㅎ며) <어제소학언해 3:26a>
 ㄱ". 손 질가 씨을 썬저 기를 주면 <39b>
 ㄴ. 다맛 디로한 교자를 타고 두 청의로 거림히 짜리기 ㅎ더라 <55b-56a>
 ㄴ'. 오직 대교즈를 타 두 프른 옷 님은 이 거러 씨 좇더라(二靑衣 | 步履以隨 ㅎ더라) <어제소학언해 6:111a>

(46ㄱ)은 같은 문장 구조에 조사만 ‘로’로 바뀐 것인 데 반해, (##ㄴ)은 문장의 구조를 사동문으로 바꾸면서 ‘로’를 사용하였다. (46ㄴ)은 사동문이므로 ‘로’를 목적격 조사의 반사형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 예 이외에도 ‘금은고로 길기며(23a), 죽으로 권 ㅎ면(24b), 잔치로 길기지 못할 디니(26a)’ 등 ‘를’로 바꾸어도 별 무리가 없는 예들이 있으나, 이들은 중앙어의 ‘로’와 용법이 거의 동일하므로 확신할 수 없다.

5.4. 기타

44) 김주원(1984L:59)에서는 ‘것(거)’가 탈락한 것으로 보았고 김태엽(1990:195-196)은 ‘거 같’의 축약이라고 보았다.

45) 이 ‘로’는 방향과 도구를 나타내고 때로는 목적어도 표시하는 ‘(으)로’와는 전혀 다른 조사이다(김태우 2019 참조).

‘그러하-/그렇-’은 현대 한국어에서는 형용사의 용법만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하-/그렇-’은 20세기 초까지 드물기는 하지만 동사의 용법으로도 사용이 되었다(송철의 2004/2008:178-179). 『녀사쇼학』에도 동사로 사용된 ‘그러하-’가 몇 차례 보인다.

- (47) ㄱ. 니 었지 공경치 아니하리오 만일 그렇치 아니하면 부모를 열찌 흠이오 욱되기 흠이라 <15a>
- ㄴ. 질병이 이시면 오사에 제사하야 빌나 하얏시니 이는 자식 정성 맛당히 할 바어늘 지금 그렇지 아니하고 <23b-24a>
- ㄷ. 귀신 잘 신기는 사람은 복을 감당치 못할 거시오 그렇치 아니헌 이는 병과 화을 면치 못할 거시어늘 <24b>

오히려 동사로 사용된 ‘그러-’가 잘 보이지 않고, ‘그리하-’도 보이지 않는다.

- (48) ㄱ. (….) 우리 선비를 이얼 사람이니 네 덤덤함을 두라 아달이 답답하야 가로디 그러하오리다 <4b>
- ㄴ. 네 길거이 우리 모친을 공양하실짜 효부 디답하야 가로디 그러하오리다 <21b>

(48)의 ‘그러하’로 대답된 부분은 모두 『어제소학언해』에서 ‘그리하-’로 되어 있다.

‘들어가-’의 영남 지역 방언형인 ‘드가-’가 수차례 보인다. ‘드가-’는 ‘들어가-’의 축약형이라기보다는 ‘들-’과 ‘가-’의 비통사적 합성어로 보는 것이 형태 변화를 이해하기에 적합해 보인다.

- (49) ㄱ. 남자 안애 드가 횡빠람 부지 아니하고 손으로 가라치지 아니할 디며 <31a>
- ㄴ. 지기 뵈찌 두 신이 잇고 말삼이 들니거든 드가고 말삼이 들니지 아니거든 드가지 아니하며 <47b>

‘들(擧)니(出)-’(55b)와 ‘줏(拾)집(補)-’(26b)도 보인다.⁴⁶⁾ 2인칭 의문어미가 보이는데, 용법이 특이하다.

- (50) ㄱ. 네 길거이 우리 모친을 공양하실짜 <21b>
- ㄱ’. 네 즐겨 내 어미를 효양할짜 <어제소학언해 6:57a>

2인칭 의문어미는 평칭 어미이므로 중세어에서는 ‘-시-’와 함께 나타날 수 없다. 『어제소학언해』의 의고적 문체를 잘못 흉내낸 것이다.

‘절대로’는 현대어에서는 부정극어로 사용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제약이 없이 사용된 예가 보인다.

- (51) 절디로 이런 괴괴한 일을 바리고 <24a>

동사에 ‘-어 하-’가 결합한 ‘미더 하야(24a, 33b)’가 보인다. 중세어의 ‘-어 하-’의 용법(이현희 1985, 장경준 1998)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구더이 하야(21b), 미더이 보이고(54b)’ 등이 보이기 때문에 다른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미더이’이는 ‘밋비’를 수정한 것이고, 위의 ‘밋어 하야(33b)’는 『어제

46) ‘줏집-’에 대해서는 6.2. 참조.

소학언해』에 ‘민비 녀겨’로 되어 있다. 또한 이 ‘밋어 햏’은 본래 ‘밋어이 여겨’를 수정한 것이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았을 때, 여기서 ‘미더 햏-’은 ‘-어 햏-’가 결합한 것이 아니라, ‘미답-’에 부사형어미 ‘-이’가 결합한 형태에서 ‘-이’가 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구더이’는 ‘미더이’에 유추된 형태가 아닌가 싶다.

6. 여휘

당시 일상생활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방언형들이 보인다. 제4장에서 음운 변화를 설명하며 제시한 예들은 최대한 제외하고 몇 가지 여휘를 철자순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6.1. 방언형

1) 가거-	17) 놀니- (驚)	33) 부녁 (廚)	49) 작지 (棒)
2) 가군 (家君)	18) 높프- (高)	34) 부리지- (叫)	50) 잔치 (宴)
3) 가작(皮)	19) 눅- (臥)	35) 비름 (崖)	51) 줌치 (輦)
4) 가작-(近)	20) 다시-/짜시- (暖)	36) 삶- (臼)	52) 지니- (過)
5) 거 (者)	21) 당사기 (褻器)	37) 습- (易)	53) 짜운 (咸)
6) 결리 (族)	22) 덩- (暑)	38) 실금/시리 (飢)	54) 찌르- (短)
7) 광어리(筐)	23) 들- (授)	39) 십- (苦)	55) 차와 (寒)
8) 그럭~그럿 (器)	24) 찌걸 (塵)	40) 씨우- (質)	56) 처마 (裳)
9) 기퓨도다 (深)	25) 만나- (逢)	41) 씨처기 (洗)	57) 침 (唾液)
10) 길거햏-/길겁-(快)	26) 말갑-(制)	42) 아버지/어마시(父/母)	58) 하고잡-(欲)
11) 꼬지 (串)	27) 맛지- (臍)	43) 앓- (奪)	59) 햏나지/햏나지 (一番)
12) 속- (插)	28) 무어 (何)	44) 어논 (何)	60) 호불어미 (獨婦)
13) 꾸지- (罵)	29) 미여햏-/미여지- (憎)	45) 어드옴 (得)	61) 혼차 (獨)
14) 나모리-(叱)	30) 민들- (作)	46) 우 (上)	62) 흘치- (票)
15) 낫- (愈)	31) 바리- (望)	47) 이어고 (系)	
16) 녀겨 (爾)	32) 발- (吐)	48) 일그논 (讀)	

몇 가지 특징적인 방언형만 살펴보겠다.

‘1) 가거-’는 『소학제가집주』의 ‘女之資裝’의 언해로 ‘녀자 식집갈 제 가거는 지물이라’로 언해하며 나온 단어이다. ‘裝’에 해당하는 것인데, ‘가져가다’와 ‘가서 걸다’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 단어의 형태로는 ‘가서 걸다’ 쪽이 더 그럴 듯하지만 ‘가다’라는 단어가 굳이 사용되는 이유를 찾기 힘들다. ‘가져가다’라고 볼 경우에는 ‘가-(去)’가 ‘거’로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3) 가작(皮)’은 방언조사에서 보이지 않는 단어이다. ‘4) 가작-(近)’은 『경남 방언 사전』에 따르면 양산, 울산에서 쓰이는 방언형이다. 『방언조사자료집』에는 경남, 경북 모두 ‘가작-’형은 보이지 않는다. 경남 방언으로 ‘개작다’와 ‘가죽다’가 보이는데, ‘가작(皮)’은 ‘가작-(近)’과의 관계 속에서 형태의 변이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상상을 해 본다.

‘것’의 구어적 표현·준말 등으로 풀이되고 있는 ‘5) 거’는 주격형이나 계사 통합형 ‘거이, 게’로부터 재분석을 통해 형성된 형태로 알려져 있다(이현희 2019). ‘걸로(걸노)’는 18세기부터, ‘걸’, ‘거도’ 등의 형태는 19세기 말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거를’은 20세기 이후에 나온 형태인 듯하다. 『경판 송동본 심청전』에 ‘거를’이 보인다. 『녀사소학』에도 ‘거를, 거와, 거로써’가 보인다. 단, 주격 조사가 결합한 형태인 ‘거가’는 보

이지 않고 ‘것이’는 많이 보인다. 오규환(2018:200)은 ‘거’가 하나의 독립된 형태로 완전히 자리 잡고 난 이후 ‘거로’, ‘거가’, ‘거를’ 등의 형태가 같은 시기에 등장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녀사쇼학』에서 ‘거’는 보이지 않지만 ‘거로, 거를, 거와’ 등이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세기 초엽이 ‘거’가 독립된 형태가 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거가’는 ‘것이, 게’가 확고한 사용역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늦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8) 무어’ 또한 마찬가지로의 설명이 가능할 것인데, ‘무어이, 무어을, 무어로써’가 보인다.

‘6) 걸리’는 ‘겨레’의 방언형이다. 『한민족언어정보화』 프로그램에는 ‘겨레’의 평안도, 황해도 방언형으로 ‘걸레’가 올라가 있다.

‘7) 광어리’는 ‘광주리’의 방언형으로 함안에서 ‘광아리’가 함양, 산청에서 ‘강어리, 강아리’가 조사된 바 있다. ‘8) 그럭’은 ‘그룻’의 방언형인데, 두 형태가 혼효된 것처럼 보이는 ‘그럭슬(30b)’이라는 어형도 보인다.

‘9) 기푼도다, 18) 눅프고, 41) 씨처기, 45) 어드움, 47) 이어고, 48) 일그논(닐거기)’ 등은 모두 어간 말음에 ‘-’가 첨가된 형태이다. 현대 한국어 방언에서 ‘-’ 첨가는 주로 유기음이나 경음을 말음으로 가지는 어간 뒤에서 잘 일어난다(백은아 2013). 그러나 『녀사쇼학』에 나타나는 위의 예에서는 그런 경향이 보이지는 않는다.

‘10) 길거ㅎ-/길겁-’은 영남 방언형으로 ‘즐겁-’에서 고모음화와 구개음화의 과도교정을 순차적으로 경험하여(질겁- > 길겁-) 형성된 형태이다. ‘길거ㅎ-’는 『어제소학언해』의 ‘깃거ㅎ-’에 대응하는 어형으로, ‘깃거ㅎ-’와 ‘길겁-’의 혼효형으로 보인다.

‘13) 꾸지-, 34)부러지-’는 유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방언형으로 보인다. ‘꾸져, 꾸지며, 꾸지시니, 꾸디지’ 등이 보인다. ‘꾸디지’는 ‘꾸지지’에서 수정된 것인데 과도교정형으로 보이므로, 모음과 매개모음어미 앞에서 ‘꾸디-’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부러져, 붙어져’가 보이므로 모음어미 앞에서 ‘부러지-’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중세어형은 각각 ‘구진-/구짓-’과 ‘브르지지-’이므로 두 형태 모두 ‘꾸지져’, ‘브르지져’에서 일종의 동일 음절 탈락에 의해 ‘지’가 탈락된 형태로 재구조화되었다.

‘14) 나모리-, 17) 놀니-, 25) 만나-, 31) 바라-, 52) 지니-’는 본래 “ㅏ”로 끝나던 어간으로, 어말에 ‘ㅣ’를 하나 더 가지고 있다. 이런 변화는 17세기부터 나타나던 것으로 그 원인을 파악하기 힘들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제기된 바 있다. 임석규(2002:333)에서는 명사형의 주격형이 음라우트된 형태(“바래미”)가 재분석되어 동사형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 바 있고, 김경아(2016:62)는 ‘그래서, 이래서, 파래서’ 등 ‘-아/어 ㅎ-’ 결합형의 ‘-아/어’ 결합형으로부터의 유추일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어 외적인 이유로 ‘이’가 첨가된 것이라고 보는 최전승(2020:317-327)의 견해도 있다. 박창원(1992:67)은 새로 생겨난 전설모음의 기능부담량을 확대하기 위해 어간말 모음이 전설모음화하였다고 보고 있다.

‘15) 낫-, 43) 앓-’은 중세어의 ‘ㅏ’이 ‘ㅓ’으로 반사된 형태로, ‘나슬/나사시니(23b)’, ‘아사(44b)/아사함은(45a)와 같이 규칙 활용을 하고, ‘19) 눅-, 22) 답-, 36) 삶-’은 중세어의 ‘병’이 ‘ㅓ’으로 반사된 형태로 ‘눅어서(17a), 살바(31a), 답우나(39b)와 같이 규칙 활용을 한다.

‘16) 너거’는 ‘너희’의 방언형으로 ‘너+기(所)로 소급한다.

‘21) 당사기’는 현대 경남 방언에서 ‘당시기’로 조사된 것으로, ‘고리버들의 가지나 대오리를 엮어 만든 상자 같은 물건’을 뜻한다. ‘筥’의 번역어이고 『소학언해』에서는 ‘설’으로 나타난다.

‘24) 찌결’은 ‘드틀/티끌’이 음변화와 혼효를 겪은 어형으로 보인다. 김영태(1975:227)에 ‘때끈불’이 관련이 있는 어형일지도 모르겠다.

‘26) 말갑-’은 ㅂ 불규칙 활용을 하는 ‘말가와’(53a)로 나타나는데, ‘制’의 번역어로 『소학언해』와 『어제소학언해』의 ‘믈르서흘-’로 언해되었던 것이다. ‘믈르서흘-’은 ‘믈르-(裁)’와 ‘서흘-(幸)’의 합성어인데, 이 중 ‘믈르-’만을 가져온 것이다. 영남 방언에서 이와 완전 일치하는 어형은 발견되지 않지만, 경북 경산, 영천, 월성 등 경북 남부 방언에서 ‘말가, 말거’ 등이 보인다. 혹 ‘말가 와’로 분절될 가능성도 있다.⁴⁷⁾

『녀사쇼학』에서는 ‘밧다’의 동사형으로 ‘29) 미여하-’가 주로 쓰인다. 중세어의 ‘미-’의 직접적인 후대형 인지, ‘미워하-’에서 /w/ 탈락 후 /j/가 첨가된 것인지 알 수 없다. 방언조사 자료에서 이와 관련된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

‘33) 부넉’은 ‘부역’에서 수정된 형태이다. 유사한 형태는 방언 자료집에서 보이지 않는다.

‘40) 씨우-’는 ‘質’의 번역어로 『소학언해』, 『어제소학언해』의 ‘마기오-’이다. 경남 방언형으로 ‘시우다, 서우다, 씨우다’ 등이 보인다. 『역어유해』의 ‘세우다 말라(不要爭)’(下49b)가 참고된다.

중앙어의 ‘짜다’와 ‘차다, 춰다’는 영남 방언에서는 각각 ‘째다’와 ‘찰다’이다.⁴⁸⁾ 이 단어가 규칙 활용을 하는지 불규칙 활용을 하는지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짜다’는 경남 거창, 경북 칠곡, 봉화 상주 등에서 불규칙 활용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규칙 활용을 한다. ‘찰다’는 경남 거창, 밀양, 함양, 하동, 함안, 경북에서는 봉화, 영양, 영덕, 영일, 칠곡, 고령 등에서 불규칙 활용을 한다.⁴⁹⁾ 중앙어의 ㅂ 불규칙 활용 단어들은 대체로 경남 서부에서는 불규칙 활용을 하고 경남 동부는 규칙 활용을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불규칙 활용을 하는 ‘53) 싸운, 55) 차와’가 나타났다는 것은 조금 특이하다. 그러나 창녕의 주변부인 밀양, 함안 등에서 불규칙 활용이 규칙 활용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으므로, 창녕에서도 비슷한 양상이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58) 하고접-’은 ‘하고자 하-’와 ‘하고 싶-’이 혼효를 일으킨 형태이다.

‘첫째’에 대해 ‘59) 헉나지/하났지’라는 형태가 보인다. 단순한 실수인지, 유추에 의한 재구조화인지 판단하기 힘들다. 정인승(1960:190-192)에는 ‘하나채’와 동의어인 ‘하나째’가 있다고 하였으나, 이 예는 분명히 ‘첫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Martin(1992:178)은 방언에서 ‘한 째’가 사용된다고 하고 있으나 어떤 방언 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62) 흘치-’는 ‘黻’의 번역어로, 『소학언해』와 『어제소학언해』에서는 ‘티-’로 언해되었던 것이다. 표준어로 ‘흘치다’가 있는데, 그의 모음 교체쌍이다.

6.2. 난해어

현대 경남 방언에서 반사형을 찾기 힘든 예들도 보인다.

(1) 낫씨

『소학제가집주』의 ‘妊娠之初 感化之際 一寢一坐一立一食一視一聽 實清濁美惡之機括 智愚賢不肖之根柢也 為人親者 其可忽慢而不敬畏哉’(1:2b)를 ‘이러함이 다 아히 비여실 씨 자고 안고 서고 묵고 보고 드를 제 조심 두고 조심 두지 아니하는 디 낫씨 나느니 부모 되는 사람이 엇지 공경(恭敬)치 아니리오(1b)’로 언해하는 데 사용된 단어이다. 해당 구절이 축자번역 되어 있지 않아 대응하는 한자를 찾기는 힘든데, ‘感’을 언해한 것이 아닌가 싶다. ‘늦겨’의 움라우트형인 [니껴/니껴] 정도를 표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47) 원문은 ‘量入以爲出’이고, 『소학언해』와 『어제소학언해』에서는 ‘믈르서흐러 드는 거술’으로, 『녀사쇼학』에서는 ‘말가와 슈입되는 것술’로 언해되어 있다.

48) 『녀사쇼학』에서도 한 번은 중세어의 ‘치워하-’에 대응하는 번역으로, 한 번은 ‘차’에 대응하는 번역으로 나타났다.

49)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짜갑다, 짜굽다’라는 형태도 나타난다.

볼 때, ‘뵈’의 ‘뵈’ 또한 ‘뵈’를 표기하기 위한 표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4.1.1.2 참조). ‘옴니다’(12b)가 ‘옴니다’로 수정된 것도 참고된다.

(2) 뇌우-

『소학언해』의 ‘힘 뉘어’가 ‘힘 뇌워(8b)’로 언해한 예가 보인다. 대당되는 한자는 ‘賴’인 것으로 보아 ‘힘 입어’ 정도의 의미이다. 『녀사소학』의 표기 경향으로 보아 [뇌워(어)/니워(어)] 정도를 표기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현대 방언에서 ‘입-(着)’이 불규칙 활용을 하는 지역은 없다.

(3) 혈노 싸며

稽古②의 ‘躡躍築埋’이 『녀사소학』은 ‘뽀늘며 **혈노 싸며** 무듬 못는 모양을 흐시거늘’(6a)로 언해되어 있다. 한자 ‘築’을 언해한 것으로 『소학언해』의 ‘봄노소스며 **달고 다아** 문논 양흐시거늘’(4:3b), 『어제소학언해』의 ‘뽀늘며 **다으며** 문논 양을 흐거시늘’(4:4a)이라는 언해가 참고된다. 이는 ‘땅을 다지다’라는 뜻인데, ‘싸며’는 ‘築’을 직역인 ‘쌓다’의 모음 완전 순행 동화형으로 보이고, ‘혈노’는 ‘달구’ 정도에 해당하는 의미로 보인다.

(4) 당흐-

稽古③의 ‘社而賦事烝而獻功’가 ‘봄날에 사제하고 농사를 당흐면 길삼일을 맞치고 기을 날이 증제하고 그 공을 나라에 드리느니’로 언해되어 있다. 『소학언해』와 『어제소학언해』에는 모두 동일하게 ‘사제하고 일을 맞디며 쪼제하고 功을 바터’로 되어 있다. ‘농사를 당흐면’과 ‘길삼일’ 등은 『녀사소학』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된 부분으로 『소학제가집주』의 ‘至若春日社祭之時 則各賦其農桑之事’(4:23b)의 ‘農桑’을 언해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는 힘들다. ‘맞치고’ 또한 ‘말디다’의 구개음화형인지, ‘마치다(終)’의 의미로 쓰인 것인지 위의 구조에서는 불분명하다.

(5) 노허허-

『소학언해』와 『어제소학언해』의 ‘怒허야’가 ‘노허허야’(18b)로 되어 있다. ‘노여워하다’ 계통의 방언으로 보이는데 방언 조사 자료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6) 손 질가

敬身④의 ‘毋嚙羹’가 ‘손 질가 시국을 마시지 말며’로 언해되어 있다. 『소학언해』에는 ‘국거리를 입으로 후려 먹디 말며’(3:23b)로, 『어제소학언해』에는 ‘羹을 嚙디 말며’로 되어 있다. 『소학제가집주』의 주석에는 『소학집해』의 주석인 “羹之有菜 宜用挾 不宜以嚙取食之也(3:17b)”가 인용되어 있는데, 『녀사소학』에 ‘시국’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시국’이 나물이 들어간 국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 주석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지는 주석에 ‘손 질가 뼈을 썬저 기를 주면(毋投與狗骨)’에서 한 번 더 나온다. 그러나 ‘손 질가’가 무슨 의미인지, ‘손질 가’인지 ‘손 질가’인지 혹은 ‘손 질 가’인지, 뒤에 있는 ‘시’가 ‘시국’을 의미하는 것인지 어느 것도 명확하지 않다.

(7) 위씨다(33b)

『녀사소학』은 善行⑤의 ‘莫不酸鼻’를 ‘코을 위씨지 아니리 없더라(33b)’로 언해하고 있다. 이는 『소학언

해』와 『어제소학언해』에서 각각 ‘고홀 식여 아니리 업더라’, ‘코홀 식여 아니리 업더라’로 언해되었던 것이다. 善行㉔는 열녀의 이야기로 남편이 죽은 후 재가하기를 거부하며 자해를 한 여인을 가족들이 보고 느낀 감정을 표현한 부분이다. 여기에서 ‘위씨지’는 ‘酸’을 번역한 것으로 ‘코가 시큰하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데, 현대 방언형에서 이와 유사한 단어를 찾기는 힘들다.

(8) 좃집-(26b)

善行㉔의 ‘欲爲菴理’가 ‘다사리 좃집고저 हु디’로 번역되어 있다. 『소학언해』에는 ‘슈리호-’로, 『어제소학언해』에는 ‘쓰리-’로 언해되어 있다. ‘수리하다’라는 의미인데, ‘좃-’과 ‘집-’의 비통사적 합성어로 보인다. ‘집-’은 “*깁-”의 구개음화된 방언형으로, ‘주워 기우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7. 결론

생략

<참고문헌>

곽충구(1994), 『함북 육진방언의 음운론-20세기 초 러시아의 Kazan에서 간행된 문헌자료에 의한-』, 태학사.

김경아(2016), 『국어 음운론 연구: 패러다임과 재구조화』, 한국문화사.

김소영(2013), 「폐쇄음 앞 동일 조음 위치의 비음 첨가 현상에 대하여」, 『방언학』 17, 57-77.

김영송(1963), 「경남 방언의 음운」, 『경상남도지 中』, 경상남도 도지 편찬위원회, 967-984.

김영진(1987/2001), 「동남방언 자료 『아학편』」, 『국어사 연구』, 이회, 103-125.

김영태(1975), 『경상남도방언연구(I)』, 진명문화사.

김예니·김명주(2014), 「19세기 후기~20세기 전기 경상 방언을 반영한 문헌어의 음운 현상 연구」, 『국어학』 71, 93-125.

김정대(1992), 「<수경옥낭좌전>에 반영된 경상도 방언 문법적 요소에 대하여」, 『가라문화』 9, 77-111.

김주원(1984ㄱ), 「18세기 경상도 방언의 음운 현상」, 『인문연구』 6, 31-56.

김주원(1984ㄴ), 「통사적 변화의 한 양상-경상도 방언의 “겔다” 구문의 경우-」, 『언어학』 7, 47-66.

김태엽(1990), 「의존명사 {것}의 문법화와 문법변화」, 『대구어문론총』 8, 177-198.

김태우(2019), 「중세한국어에서 목적어에 결합하는 ‘로’에 대하여」, 『인문논총』 76(3), 101-128.

김한별(2021), 「19세기 대격 조사 ‘-을’은 왜 개음절 뒤에도 분포하였을까-그리고 보조사 ‘-은’은 왜 그리 하지 않았을까-」, 『국어학』 100, 203-242.

박정수(1999), 『경남방언 분화연구』, 한국문화사.

박창원(1992), 「경남방언의 모음변화와 상대적 연대순-필사본 <수경옥낭좌전>을 중심으로-」, 『가라문화』 9, 43-76.

백두현(1984), 「금릉지역어의 형태소경계간 음운현상」, 『용언어문논집』 2, 101-123.

백두현(1988), 「영남삼강록의 음운론적 고찰」, 『용언어문논집』 4, 85-119.

백두현(1992), 『영남 문헌어의 음운사 연구』, 태학사.

- 백두현(1998), 『『국한회어』의 음운 현상과 경상방언』, 『방언학과 국어학』, 태학사, 693-712.
- 백두현(2007), 「애국지사 김태린이 지은 『동몽수독천자문』(童蒙須讀千字文) 연구」, 『어문학』 95, 55-93.
- 백은아(2013), 「용언 어간 말 ‘一’ 삽입 현상」, 『한글』 299, 49-75.
- 소신애(2010), 「파찰음 앞 /ㄴ/ 삽입 현상에 관하여」, 『국어국문학』 154, 5-32.
- 송민(1986), 『전기근대국어 음운론 연구-특히 구개음화와 ㆍ음을 중심으로-』, 탑출판사.
- 송철의(2004), 「‘ㅎ’ 변칙과 ‘어’ 변칙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 『조선어연구』 2, 213-236[송철의(2008), 『한국어 형태음운론적 연구』, 태학사, 155-185.”에 재수록]
- 신정엽(2009), 「조선시대 간행된 소학 언해본 연구」, 『서지학연구』 44, 409-448.
- 오규환(2018), 「의존명사 ‘것/거’의 조사 결합형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 『국어학』 87, 185-210.
- 오세준(1933), 「사투리조사행영, 온성, 해주」, 『한글』 1(9), 371-375.
- 오종갑(2009), 「국어 방언에 반영된 ‘ㆍ’의 변화」, 『어문학』 100, 65-115.[오종갑(2021), 『국어 방언에 반영된 음운론적 변화』, 역락, 27-71.”에 재수록]
- 유소연(2022), 「19세기 말~20세기 서천 지역어 후설 모음 체계의 특징-『초학요선』과 『한국방언자료집』을 중심으로」, 『한글』 83(1), 5-40.
- 이기갑(2003), 『국어 방언 문법』, 태학사.
- 이기문(1977), 『국어음운사연구』, 탑출판사.
- 이상규(2013), 「을유본 《유합》에 나타나는 김해 방언」, 『방언학』 17, 229-308.
- 이익섭(2021), 「강릉방언자료에서 얻는 상념 몇몇」, 국어사학회 월례강독회 석좌강의, 2021. 03. 20.
- 이진호(2013), 「국어 평파열음과 비음의 상호 대응에 대한 통시적 고찰」, 『진단학보』 117, 235-257.
- 이현희(1985), 「중세국어의 용언어간말 ‘-ㅎ-’의 성격에 대하여」, 『국어학 신연구』, 탑출판사, 367-379.
- 이현희(1987), 「중세국어 ‘둔겁-’의 형태론」, 『진단학보』 63, 133-150.
- 이현희(2019), 「‘르로’는 조사 ‘로’의 이형태인가?」, 『인문논총』 76(3), 11-24.
- 임석규(2002),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한 곡용 어간의 재구조화」, 『형태론』 4(2), 319-338.
- 장경준(1998), 「‘-어 하(ㅎ)-’의 통합 현상에 관한 연구-현대 국어와 15세기 국어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윤희(2002), 「현대국어 ‘르-말음’ 용언의 형태사」, 『어문연구』 30(2), 61-83.
- 장하연-김태우(2020), 「한국어 방언의 비음-저해음 관련 현상의 검토」, 『언어학』 88, 167-195.
- 정석태(2019), 「소눌연보와 소눌문인록-『선부군편년』 초역과 『자암계첩』 원문」, 『동양한문학연구』 54, 197-275.
- 정인승(1960), 『(의문-해설) 한글강화』, 신구문화사.
- 정호훈(2014), 『조선의 『소학』: 주석과 번역』, 소명출판.
- 최명옥(1976), 「서남경남방언의 부사화접사 ‘-아’의 음운현상」, 『국어학』 4, 61-82.
- 최전승(1986),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음운현상과 그 역사성」,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전승(1987), 「언어변화와 과도교정(hypercorrection)의 기능」, 『국어학신연구 II』, 340-359. [최전승(1995), 『한국어방언사연구』, 태학사, 429-449.”에 재수록]
- 최전승(1989/1995), 「국어 i-umlaut 현상의 기원과 전파의 방향」, 『한국언어문학』 27, 27-61. [최전승(1995), 『한국어방언사연구』, 태학사, 203-243.”에 재수록]
- 최전승(1989/1995), 「비어두음절 모음 ‘으’의 변화의 공간적 차원과 철자식 발음」, 『이용주박사 회갑기념논문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707-737. [최전승(1995), 『한국어방언사연구』, 태학사, 397-427.”에

재수록]

최전승(2020), 「공시적 음운현상들의 표면적 수렴과 상이한 역사적 내적 과정-소위 전설모음화 ‘-르>-리’의 형성을 중심으로-」, 『근대국어 방언사 탐구』, 역락, 275-359.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3), 『한국방언자료집(8)-경상남도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홍윤표(1985), 「『역대전자문』과 서부 동남방언」, 『선오당김형기선생팔지기념 국어학논총』, 어문연구회, 585-605.

Martin, S.(1992), *A Reference Grammar of Korean*, Rutland and Tokyo: Charles E. Tuttle Company.

Vovin, A.(2003), Once again on lenition in Middle Korean, *Korean Studies* 27, 85-107.

“『녀사쇼학』의 종합적 연구” 토론문

김봉국(부산교대)

이 글은 국어사 자료이자 방언 자료인 『녀사쇼학』의 소개하고 이에 대한 국어학적 가치를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여 소개하고, 그 가치를 논의하였다는 것 자체가 이 발표문의 의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국어사를 전공한 것이 아니어서 국어사적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보다는 방언 자료를 바라보면서 생각해 본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 드려 보고자 합니다.

첫째, ‘모음의 중화.합류’에서 ‘중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 ‘중화’라는 개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화’와 ‘합류’가 같은 의미인지 다른 의미인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둘째, 중철 표기와 관련하여 (9ㄱ)의 예를 들고 있는데, (9ㄱ)의 예들은 크게 ‘ㅅㅅ’ 연쇄(맛슬, 웃웃슬), ‘ㄴㄴ’ 연쇄(모친이신니, 전녁), ‘ㄹㄹ’ 연쇄(날룰, 갈로되), ‘ㅁㅁ’ 연쇄(이럼무로, 함물며)로 나눌 수 있는데, 이 표기들은 음운론적으로 동일한 동기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지요?

셋째, 모음 ‘으’와 ‘어’의 합류와 관련하여 ‘으’와 ‘어’의 혼기에 대해서 음운론적인 환경을 어두/비어두로만 나누어서 분류했는데, 형태소 내부/경계나 선행하는 자음의 종류에 따른 분류가 없는 듯합니다. 음운론적 환경을 세밀히 분류하면 ‘으’와 ‘어’의 합류가 어떤 환경에서 먼저 시작되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어 음운사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으’와 ‘어’의 혼기 즉 ‘으→어’, 또는 ‘어→으’로 바뀐 예에 집중하게 되는데, ‘으→으’로 나타나는 비율과 ‘으→어’로 나타나는 비율, ‘어→어’로 나타나는 비율과 ‘어→으’로 나타나는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혼기 양상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넷째, ‘중자음 뒤의 전설모음화’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전설모음화는 치찰음 계열 뒤에서 나타나는데, 이 자료에서는 (27)의 예에서 보듯이 ‘되름(?)’, ‘짜리느’처럼 ‘ㄴ, ㄹ’ 뒤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지역은 전설모음화의 적용 영역이 치찰음 계열보다 더 넓은 중자음 계열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현재 대부분 방언에서는 치찰음 계열에서의 전설모음화가 일반적이고, 창녕 지역도 마찬가지로 일텐데, 창녕 지역은 전설모음화의 적용 영역이 중자음에서 치찰음 계열로 좁아졌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진역(夕)’은 ‘전녁’으로 교정되어 있으며, ‘ㅈ’의 구개음화로 인해 실제 발음은 ‘ㅊ’ 또는 ‘ㅊ’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ㅊ’가 아니어도 전설화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면 ‘으’와 ‘어’가 대립되는 지역에서의 ‘지녁, 지역’들도 전설모음화의 예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토끼전>에 나타난 한자어의 사용 양상 및 한자음의 특징
- <필사 72장본>을 중심으로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런명지에

-목차-

1. 들어가며
 2. 한자어 사용 양상
 3. 한자음의 특징
 - 3.1 근대 국어 음운론적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자어 표기
 - 3.2 중세 국어 한자음과는 달라진 한자어 표기
 4. 나오며
- ※ 참고문헌

1. 들어가며

본고의 목적은 <토끼전>에 나타난 한자어의 사용 양상을 파악하여 한자음의 특징을 살피는 데에 있다.

이 글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문헌은 <토끼전>이다. <토끼전>은 조선 후기 설화, 판소리, 소설본으로 향유의 저변을 넓혀간 작품군 중 하나이다. 판소리 수궁가는 18세기까지 설화의 형태로 전승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토끼전 이본은 성균관대 임형택 교수가 소장하고 있는 필사 72장본 <토끼전>이다. 이 이본은 여타 판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이야기가 많이 삽입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토끼가 육지에 돌아온 이후의 부분은 전혀 색다른 모습으로 개작되어 있다. 이러한 <토끼전>의 모습은 판소리의 소설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판소리계 소설 한글본은 한자어가 상당한 양으로 다양하게 실려 있어 근대국어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국어학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토끼전>과 같은 19세기 소설이 고전소설 분야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연구되어 왔듯이 언어학적 관점에서도 한자어와 한자음의 근대국어의 양상이나 통시적 변화를 검토하는 데 매우 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근대국어 한자음은 중세국어 한자음을 그대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변화한 과정을 거쳐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근대국어의 표기체계를 반영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근대국어 한자음에 대한 연구는 당시 한국어의 중요한 어휘체계로 자리를 잡은 한자어에 대한 우리의 접근을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토끼전>에 대한 연구는 여태 근원 설화를 중심으로 한 설화 연구, 주제와 구조의 의미를 도출하려 한 연구, 이본 연구, 전승과 계보에 관한 연구 등 다각도의 접근과 시도가 있었지만, 국어학적인 연구는 많지 않았다. 지금까지 근대 국어 한자어에 관한 접근은 주로 初學書·諺解書·韻書·字典 등을 대상으로 한 한자음 연구에서 집중되어 있었다. 대표적인 논의로는 이돈주(1977, 1979, 1997), 河野六郎(1968), 南廣佑(1973) 등이 있었고 근대국어 한자음 관련해서는 신아사(2006), 이준환(2007) 등의 한자음 전반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고전 작품에 나타난 한자음의 특징을 기술한 대표적인 연구는 주로 이준환(2011, 2012, 2014, 2015, 2017), 이현주(2016)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기존 연구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근대 국어 문학작품에 나타난 한자어를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 접근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문과 국어에서 문법적 성격이 어떤 방식으로 국어화 되었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토끼전>에서 필자가 추출한 한자어 1600여 개를 추출하여 정리하였다. 추출한 한자어를 대상으로 한자어의 사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중세국어 한자음과 비교하여 중세국어 한자음보다 다양한 특징을 지닌 이 시기 한자음의 특성이 한자음 체계 내의 문제인지, 근대국어 표기법 규칙에 따라 또는 근대국어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관한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2. 한자어 사용 양상

조남호(1997:114)에 따르면 한자어의 지속적인 증가는 근대국어 어휘를 거론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중세국어 당시에 사용되던 한자어는 대부분 근대국어 시기에서도 쓰였을 것이고 한문 중심의 문자 생활이 지속되면서 한자어의 차용은 더욱 늘어났다.

한자어의 형태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음절 개수를 기준으로 <토끼전>에 나타난 1600여 개 어휘를 살펴보면 1음절 어휘부터 7음절 어휘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 중에 2음절 어휘가 가장 많은 양으로 차지하고 3음절 어휘와 4음절 어휘도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① 1음절 어휘¹⁾

1) 漢字語는 고유어, 외래어와 함께 국어 어휘의 주요 범주에 속한다. 그런데 국어 사용자들이 점차 한자어를 한자어로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한자어를 구성하는 한자 形態素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인식되고 있다. 지금처럼 한글전용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이전의 문자 생활을 보면 웬만한 일음절 한자어는 그 한자어가 가지고 있는 성질에 따라 명사성이 있으면 조사가 붙어 명사로 사용되고, 서술성이 있으면 접사 '하다'가 붙어 서술어로 사용이 가능하였다(양명희2008:64 참고).

1음절 어휘: 금(金), 화(火), 복(僕), 양(樣), 용(龍), 구(句), 저(), 한(恨), 등(等), 표(表), 영(令), 난(難), 와(蛙), 퇴(兎), 담(痰) 등

1음절 한자+하다: 토(兎)하다, 이(利)하다, 상(傷)하다, 통(通)하다, 중(重)하다, 갈(渴)하다, 가(可)하다, 칭(稱)하다, 청(請)하다, 명(命)하다, 인(因)하다, 면(免)하다, 거(居)하다, 처(處)하다, 발(發)하다 등

1음절 한자+히: 극(極)히

위에 제시한 어휘는 <토공전>에 나타난 1음절 한자어 어휘의 일부이다. 순수한 1음절 어휘 같은 경우는 이미 15세기부터 한글 문헌에서 많이 보여서 어휘로서의 쓰임을 이미 갖게 된 지 오래되었다. 그렇지만 안예리(2013:115)에서는 15~19세기 자료에 나타난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의 목록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동음이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 문헌에서는 동음이의어 현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²⁾

② 2음절 어휘

명사:용연(龍硯), 즈고(自古), 모일(某日), 선관(仙官), 우객(羽客), 빈도(貧道), 비별(拜別), 묘법(妙法), 금기(禁忌), 모색(毛色), 간경(肝經), 북풍(北風), 결초(結草), 체증(滯症), 춘빙(春氷) 등

동사: 적상(積傷)하다, 즈진(自盡)하다, 회싱(回生)하다, 간특(奸慝)하다, 유전(遺傳)하다, 만발(滿發)하다, 양명(揚名)하다, 방식(防塞)하다, 상승(上升)하다, 분비(分飛)하다, 성취(醒醉)하다 등

형용사: 긴절(緊切)하다, 묘연(妙然)하다, 소연(蕭然)하다, 화창(和暢)하다, 득의(得意)하다, 연면(連綿)하다, 영농(玲瓏)하다, 무양(無恙)하다, 불명(不明)하다, 상연(爽然)하다, 상활(爽活)하다 등

위에 제시한 한자어들은 2음절 어휘들의 예시이다. 이들은 ‘용연(龍硯), 즈고(自古), 모일(某日)’ 등과 같이 독립적으로 쓰인 경우도 있었고, 주로 접사 ‘-하다’와 결합하여 동사나 형용사로 파생된 ‘적상(積傷)하다, 긴절(緊切)하다, 묘연(妙然)하다’ 등과 같이 어근과 파생접사가 결합한 형태로 쓰인 경우도 있었다.

③ 3음절 어휘

지명: 곤륜산(崑崙山), 영주산(瀛洲山), 한산(寒山寺), 방장산(方丈山), 기린각(麒麟閣), 동정호(洞庭湖), 쇼상강(瀟湘江), 오덕산(五台山), 요지연(瑤地淵), 심양호(鄱陽湖), 핑녀수(彭蠡水), 백사장(白沙場), 두즈강(斗紫江), 홍요촌(紅寮村), 포덕틱(布德

2) 15~19세기 자료에 나타난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의 목록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동음이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즉, ‘亡하다, 妄하다, 忘하다, 望하다, 罔하다, 罔하다’처럼 어기의 한자는 제각기 다르지만 한자음이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안예리 2012:115).

澤) 등

특수명사: 손호필(珊瑚筆), 혼열증(寒熱症), 청심환(淸心丸), 연수단(延壽丹), 장생초(長生草), 경옥고(瓊玉膏), 구갈증(口渴症),麒麟각(麒麟閣), 치미곡(采薇曲), 춘뉴곡(春遊曲), 만조정(滿朝廷), 유리벽(琉璃壁) 등

인명: 한무제(漢武帝), 당태종(唐太宗), 원참군(元參軍), 너와시(女媧氏), 밍상군(孟嘗君), 낭소유(楊少遊), 월중선(月中仙), 주공근(周公瑾), 진시황(秦始皇), 천승군(千乘君), 염나왕(閻羅王), 횡어스(行御使), 장신군(長信君) 등

3음절 어휘는 대부분 ‘2음절어+1음절어’나 ‘1음절어+2음절어’ 식으로 결합되어 있다. 성분을 보면 이들은 모두 ‘[단어+어근]N’나 ‘[어근+단어]N’의 형태 구조가 된다. <토공전>에서 3음절 어휘는 상당한 양으로 나타났는데 현대국어와 대조한 결과 거의 사용되지 않는 어휘들이었다. 이 중에서 지명, 인명 또는 특수 명사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④ 4음절 어휘

일천지하(一天之下), 희후상봉(邂逅相逢), 손근처식(山間處士), 구년지수(九年之水), 일망무제(一望無際), 읍풍녕월(吟風詠月), 천양지간(天壤之間), 풍상고락(風霜苦樂), 천스만악(千山萬壑), 심스궁곡(深山窮谷), 화불단행(禍不單行), 천고지후(天高地厚), 무가너히(無可奈何), 주궁궐궐(珠宮貝闕), 우순풍조(雨順風調), 시화연풍(時和年豐), 객지고종(客地孤蹤), 극난세계(極樂世界), 국태민안(國泰民安), 덩동장군(征東將軍), 예부시랑(禮部侍郎), 턱을선관(太乙仙官), 명왕성주(明王聖主) 등

위와 같이 4음절 어휘³⁾는 ‘일천지하(一天之下), 손근처식(山間處士), 구년지수(九年之水)’ 등과 같은 이야기의 내용을 상세히 논술할 때에 두루 쓰였던 어휘, 또는 ‘덩동장군(征東將軍), 예부시랑(禮部侍郎), 턱을선관(太乙仙官)’ 등과 같은 등장인물을 가리키는 어휘가 많았다. 그리고 ‘화불단행(禍不單行), 천고지후(天高地厚), 무가너히(無可奈何), 우순풍조(雨順風調)’ 등과 같은 사자성어로 분류할 수 있는 어휘들도 많이 나타난다.

다음으로 사자성어도 주로 접사 ‘-하다’와 결합하여 동사나 형용사로 파생된다. 사자성어는 ‘익회망극(愛會罔極)하다, 방성통곡(放聲痛哭)하다, 명심불망(銘心不忘)하다’ 등과 같이 ‘-하다’와 결합하여 동사로 파생되어 쓰인 경우와, ‘일망무제(一望無際)하다, 견집불통(堅執不通)하다, 충효겸전(忠孝兼全)하다’ 등과 같은 형용사로 파생되는 사자성어도 쓰인 것으로 관찰된다. 하지만 검토해 보면 4음절 한자어와 ‘-하다’가 결

3) 남미혜(2007: 141)에 따르면 한자어 四音節語는 四字語와 四字成語로 나눌 수 있다. 四字語는 네 글자 형태가 나타나는 類度가 높기는 하지만 내부 結合力이 높지 않고 이에 반하여 成語는 내부 結合力이 높다. 分析 可能性은 漢字 四字語의 일부인 前後行의 2字語가 자립적인 쓰임을 가질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자립적인 쓰임은 어떤 형태가 名詞나 語根의 기능을 갖는 것이다.

합하여 동사와 형용사로 파생된 사자성어의 사용 빈도는 명사형보다 뚜렷이 낮은 것으로 관찰된다.

⑤ 5음절 이상 어휘

5음절: 금목수화토(金木水火土), 간심비폐신(肝心脾肺腎), 제즈백가어(諸子百家語), 녹양춘습월(綠陽春三月), 녹양천만스(綠楊千萬絲), 오쵸동남딕(吳楚東南坻), 세간지적양(世間之災殃), 북방일육수(北方一六水), 지우현불쵸(知愚賢不肖), 묘창희일속(渺滄海一粟)

6음절: 장생불노지술(長生不老之術), 숨쳐구류지법(三處九流之法), 세세식녹지신(世世食祿之臣), 스즈불가부싱(死者不可復甦), 스시음양지이(四時陰陽之里), 어두구면지졸(魚頭鬼面之卒), 불공딕천지쉬(不共戴天之仇), 풍운변화지법(風雲變化之法)

7음절: 풍마우지불상급(風馬牛之不相及), 다모다간월중토(多謀多奸月中兔), 선가선무수중화(仙歌仙舞水中花), 흥너논어상청천(行路難於上青天), 동방갑을습팔목(東方甲乙三八木), 남방병정이칠화(南方丙丁二七火), 서방경신스구겸(西方庚申四九金)

위⑤는 <토공전>에 나타난 음절 개수가 많은 한자어들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나타난 음절 개수가 많은 어휘는 어휘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성분을 검토해 보면 실제로는 문장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들은 한자어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으면 읽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근대국어에 한자어의 침투가 폭넓게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한문을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성격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3. 한자음의 특징

3.1 근대국어 음운론적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자어 표기

전광현(1997)에 따르면, 근대국어 음운 변동은 대략 대치, 탈락, 첨가, 축약 등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발견한 근대국어 표기와 음운적인 특징의 규칙을 고려하여 참고하면서 <토공전>의 한자어 표기에 접근해보도록 하겠다.

3.1.1 두음법칙

두음법칙은 주로 한자어에서 발생하였고 /ㄹ/두음법칙과 /ㄴ/두음법칙 두 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ㄴ/ 로 바뀌는 현상은 어두에 사용된 /ㄹ/가 /ㄴ/로 바뀌는 1차 변화에서 일어난 것이며, ㄹ의 변화는 ‘i, y’ 앞에서 /ㄴ/이 ㄹ로 바뀌는 2차 변화에서 나타난

다(송기중 1992: 27). <토공전>에 나타난 한자어 표기 중에 두음법칙에 해당하는 예시가 상당수 발견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ㄹ/ 관련:

‘ㄹ→ㄴ’: 뉴혈(流血)<3ㄱ>, 왕너하다(往來)<3ㄱ>, 장생불노지술(長生不老之術)<5ㄴ>, 일누준명(一縷殘命)<7ㄴ>, 육병(六病)<9ㄱ>, 냉면(冷麵)<9ㄱ>, 연낙하다(宴樂)<9ㄴ>, 유리존(琉璃盞)<12ㄴ>, 양류(楊柳)<13ㄱ>, 명나수(泊羅水)<15ㄴ>, 충농씨(祝融氏)<16ㄱ>, 영농하다(玲瓏)<17ㄴ>, 육뵝(六魄)<18ㄴ>, 극난세계(極樂世界)<23ㄴ>, 육가(陸賈)<24ㄴ>, 육부(六腑)<29ㄱ>, 북방일육수(北方一六水)<30ㄴ>, 백노(百僚)<37ㄱ>, 팔노(八路)<40ㄱ>, 정논(正論)<43ㄱ>, 손님천택(山林川澤)<44ㄱ>, 혈노호면(現露)<59ㄴ>, 염나왕(염라왕)<59ㄱ>, 천니행역(千里行役)<70ㄴ>

‘ㄹ→∅’: 광이왕(廣利王)<1ㄱ>, 풍유(風流)<6ㄱ>, 용열하다(庸劣)<11ㄱ>, 골용포(袞龍袍)<17ㄱ>, 갈약홀(幹略)<39ㄱ>, 사시음양지이(四時陰陽之里)<30ㄱ>, 삼여대부(三閭大夫)<15ㄴ>

위의 예시 중에 눈에 띄는 것은 ‘幹略하다’가 중세 국어에서는 ‘간략하다’로 표기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서 순행적 유음화과 역행적 유음화 현상을 한 단어에서 동시 일어나서 /ㄴ/가 /ㄹ/로 또는 /ㄹ/가 ∅로 표기되면서 발음대로 ‘갈약’으로 표기된 현상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現露하다’는 중세 국어에서는 ‘현로하다’로 표기되어 있었지만 유음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ㄹㄹ’표기와 ‘ㄹㄴ’표기를 혼기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혈노하다’로 표기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② /ㄴ/ 관련:

‘ㄴ→∅’: 열여(烈女)<12ㄱ>, 필련(筆硯)<9ㄱ>, 역연스백(歷年四百)<62>ㄱ,

‘∅→ㄴ’: 니윤(伊尹)<4ㄴ>, 경년(慶宴)<10ㄴ>, 뉴여하다(餘裕)<12ㄱ>, 춘뉴곡(慶宴)<13ㄱ>, 혼인뉴객(閑人遊客)<13ㄱ>, 뉴순함(柔順)<15ㄱ>, 뉴신(有信)<15ㄱ>, 음풍녕월(吟風詠月)<17ㄱ>, 뉴악(帷幄)<20ㄱ>, 뉴현(幽顯)<20ㄱ>, 낭쇼유(楊少遊)<21ㄱ>, 녀선문(於善文)<21ㄱ>, 주옥(珠玉)<21ㄱ>, 백보천양(百步穿楊)<23ㄱ>, 뉴공불급하다(唯恐不及)<55ㄱ> 불스찰님(不辭察任)<38ㄱ>.

위의 예시는 일부의 두음법칙에 해당하는 예들이 있다. 이 중에 ‘ㄹ→ㄴ’로 바뀌는 예가 가장 많다. 그러나, ‘예모/네모(禮)’, ‘뜯인뉴심/뜯인유심’, ‘육/육(六)’등과 같이 한자어 내부에서도 두음법칙 혼기가 나타난 예도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 문헌에는 두음법칙에 대한 다양한 혼기 현상뿐 아니라 같은 한자어의 내부에서도 혼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3.1.2 ‘ㅅ, ㅈ, ㅊ’아래의 이중모음 표기와 ㄷ구개음화

허용(1986)에 따르면 15세기에서는 당시의 치조음 ‘ㅅ,ㅈ,ㅊ’에 후행하는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표기는 서로 최소대립쌍을 형성할 정도로 혼한 표기였음을 알 수 있다. 즉 근대 국어의 ‘ㅅ,ㅈ,ㅊ’ 아래에서 나타나는 이중모음의 음가 문제는 이러한 현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토끼전>에는 마찰음 ‘ㅅ’로 나타난 한자어가 전혀 보이지 않지만 이와 같은 마찰음 /ㅅ/와 파찰음 /ㅈ,ㅊ/ 아래의 단모음이 이중모음으로 표기되는 등의 혼기 현상이 두루 나타난다.

마찰음 ‘ㅅ’: 숭산(崇山)<1ㄱ>, 안서(安徐)<1ㄴ>, 음양순수(陰陽術數)<1ㄴ>, 화순(和順)<5ㄱ>, 소삭(消索)<5ㄱ>, 슈전증(手顫症)<6ㄴ>, 연쇼(年少)<6ㄱ>, 극성(極盛)<7ㄱ>, 소기운(素氣運)<8ㄱ>, 창송(蒼松)<12ㄴ>, 세우(細雨)<13ㄱ>, 서기(瑞氣)<17ㄴ>, 불선(不選)<58ㄱ> 등

파찰음 ‘ㅈ’: 죠판(肇判)<1ㄱ>, 죠강(槽糠)<2ㄴ>, 파종(破腫)<3ㄱ>, 죠종(祖宗)<8ㄴ>, 영주산(瀛洲山)<9ㄱ>, 정호(鼎湖)<15ㄴ>, 관중(關重)<29ㄱ>, 장종비적(藏蹤秘跡)<33ㄱ>, 전별하다(餞別)<33ㄴ>, 낭중취물(囊中取物)<41ㄱ>, 적본화장(賊反荷杖)<55ㄱ>, 전정만리(前程萬里)<58ㄱ>, 방방정정(方方正正)<62ㄱ> 등

파찰음 ‘ㅊ’: 천문지리(天文地理)<1ㄴ>, 추월정신(秋月精神)<2ㄱ>, 청필(聽畢)<3ㄴ>, 분수츠평(汾水秋風)<5ㄴ>, 화쇼(花草)<16ㄴ>, 촌단(寸斷)<18ㄴ>, 천촉하다(喘促)<18ㄴ>, 단천하다(短淺)<22ㄴ>, 취품하다(取粟)<26ㄴ>, 자출하다(自出)<47ㄱ>, 총독하다(總督)<40ㄱ>, 예촌탁지(予寸度之)<51ㄱ> 등

위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이러한 치찰음 아래의 이중모음화는 이 시기 문헌에서 매우 생산적이다. 치찰음 아래의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분별은 15~17세기 문헌에서는 매우 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18세기 문헌에서도 규칙적으로 유지되어 나타난다(오가현 2011:31). 그러나 다른 모음과 다르게 후설 모음 ‘ㅓ’과 결합한 ‘발호장군(跋扈將軍)<22ㄱ>, 일장설파(一場說破)<18ㄱ>, 천금상(千金賞)<34ㄴ>, 성상(聖上)<37ㄴ>, 천병만창(千兵萬創)<30ㄴ>, 만경창희(萬頃滄海)<35ㄱ>’ 등은 중세 국어 한자음과 차이 없이 그대로 표기되고 있다. 즉 <토끼전>에서 나타난 한자어는 후설 모음 ‘ㅓ’과 결합한 어휘들은 모두 이중모음화 현상에서 제외되어 소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ㄷ/구개음화는 근대국어에서도 음운적인 현상 중에 가장 널리 다루어져 온 것 가운데 하나이다. 구개음화 현상은 원래 /ㄷ[t], ㅌ[tʰ]/이었던 것들이 /i/ [i], j/ 앞에서 /ㅈ[tʃ], ㅊ[tʃʰ]/로 변화하는 것이다. <토끼전>에 나타난 구개음화의 예들은 다음과 같다.

구개음화 완성: 옥체(玉體)<6ㄱ>, 스지(死地)<10ㄱ>, 동정호(洞庭湖)<11ㄱ>, 일천지하(一天之下)<15ㄱ>, 중산(中山)<24ㄱ>, 천기(天氣)<18ㄱ>, 천상(天上)<17ㄴ>, 흉중(胸中)<27ㄴ>, 지중하다(至重)<38ㄱ>, 지질(痔疾)<53ㄱ>

구개음화 미완성: 도장(朝獎)<32ㄱ>, 덩비(定配)<52ㄴ>, 덩제하다(整齊)<42ㄱ>, 덩심(正心)<65ㄱ>, 야광유(夜光珠)<67ㄱ>

구개음화 혼기: ① 酒: 듀식(酒色)<6ㄱ>, 듀춘(酒饌)<67ㄴ>, ② 重: 중하다(重)<14ㄱ>, 보중하다(保重)<71ㄱ>, ③ 奏: 출반듀왈/출반주왈(出班奏曰)<11ㄱ>, ④ 征: 정동장군/덩동장군(征東將軍)<39ㄴ>

<토공전>에 사용된 대부분의 한자어는 구개음화가 적용되었고, 4개의 한자어가 혼기 현상을 보였다. 이준환(2007)에서는 설두음과 설상음으로 나누어 한자어 구개음화 현상을 비교하고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같은 기준으로 위의 예들을 분석한다면 구개음화 완성 어휘 중에 설두음에 속하는 것은 ‘옥체(玉體), 스지(死地), 동정호(洞庭湖), 일천지하(一天之下), 천기(天氣), 천상(天上)’이고 설상음에 속하는 것은 ‘중산(中山), 흉중(胸中), 지중하다(至重)’이다. 구개음화 미완성 어휘 중 설두음에 속하는 것은 ‘덩비(定配)’ 하나 밖에 없는 것이고 설상음에 속하는 것은 ‘도장(朝獎), 덩제(整齊), 덩심(正心), 야광유(夜光珠)’ 4개이다. 따라서 이런 경향에 비추어 보면 이 문헌에서 구개음화의 원인을 설상음과 설상음 때문에 생기는 구분의 규칙으로 보면 현상이 뚜렷하지 않아서 쉽게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整’과 ‘正’의 중세 국어 한자음은 둘 다 ‘정’인데 이 문헌에서 다 ‘덩’으로 적혀 있다. 그것은 한자음 변화 때문이 아니라 근대 국어 표기 규칙에 따라 오기로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9세기 대표적인 한글 소설 <홍길동전> 경판 36장본에 나타난 ‘天’자가 있는 어휘들은 ‘天’의 표기는 ‘턴’과 ‘첸’으로 혼기 현상이 나타났지만 <토공전>에서는 ‘天’자가 모두 구개음화 현상이 완성되어 ‘첸’으로 적혀 있는 것이다. 또한, 위의 예시에서도 구개음화 혼기 현상이 빈번히 나타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9세기 문헌 연구를 통해서 각 문헌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구개음화 현상이 보편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자료라도 혼기 양상이 존재한다는 공통점이 확인된다.

3.1.3 조사 ‘ㅣ’와 결합

근대 국어에서 주어는 명사나 대명사 등 체언이나 명사 구절에 주격 조사가 붙어 나타낸다. 주격 조사는 앞서는 명사의 음성적 특성에 따라 대개 ‘이’나 ‘ㅣ’로 표현되었다. 그래서 근대 국어에서는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 뒤에 주격 조사로 ‘이/ㅣ’가 수의적으로 쓰였다(홍중선, 1997:145). 이를 바탕으로 아래 예시들이 어휘와 주격 조사 ‘ㅣ’의 결합형인지 검토해 보았다.

ㄱ. 맞춤 뒤왕의 환휘(患候) 중히시를 듯좁고 이의 일으러스오니 아지 못게라

- (마침 대왕이 환후가 중하심을 듣잡고 이에 이르렀사오니 알지 못할지라)
- ㄴ. 회포(懷抱) 무궁하느 운산(雲山)니 용용(溶溶)하고 압같이 밧분지라<9ㄴ>
(회포 무궁하나 운산이 용용하고 앞실이 바쁜지라)
- ㄷ. 지신(知臣)은 먹여취(莫如主)라<10ㄴ>
(지신은 먹여주라)
- ㄹ. 저 식는 즈고(自古)로 서왕모(西王母) 스직(使者)라<9ㄴ>
(저 내는 자고로 서왕모의 사자라)
- ㅁ. 손호필(珊瑚筆)노 교초(交抄)의 흔 툇기를 기려너니 완연흔 월중퇴(月中兎)라<9ㄱ>
(산호필로 교초에 한 토끼를 그려내니 완연한 월중토라)

고영근(1996:95)에 따르면 중세 국어 문법에서는 ‘이, ㅣ, ø’는 주격 조사이고 ‘이라, ㅁ라, ø라’ 결합형은 서술격 조사이다. 당시 하향 이중모음의 음운 체계가 존재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이형 분포는 음성학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한국말과 같은 교착어의 문법적 형태소는 앞뒤에 부착된 다른 형태소에 의해 다양한 변이형이 발생하기 쉬운 것이다. 따라서 위에 제시한 바와 같이 ‘ㄱ, ㄴ’은 주격 조사 ‘ㅣ’와의 결합이고 ‘ㄷ, ㄹ, ㅁ’은 서술격 조사 ‘ㅣ라’와 결합한 것이다. 특히 이야기의 주인공인 토끼의 명칭이 전편에 ‘토’라는 별도의 글자로 나오면 전부다 ‘퇴’로 표기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김현주(2016:12)에 따르면 중세 국어에서도 후기 중세국어에는 副母音이 /j/인 하향이중모음들이 존재하였고 ‘해’, ‘개’, ‘내’, ‘내’ 등의 ‘ㅣ’가 副母音 /j/를 나타낸다는 것이 학계의 통념이다⁴⁾. 또한 <토끼전>에 여러 번 나타난 ‘도화(桃花)⁵⁾, 덕화(德化)⁶⁾, 양화(殃禍)⁷⁾ 등과 같은 경우는 근대 국어 문헌에 빈번히 쓰인 것이라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격 조사 ‘ㅣ’가 副母音 /j/로 나타낸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1.4 /ㅎ/ 탈락

근대국어에서는 /ㅎ/가 용언 어간의 말음인 경우에 공명음 사이에서 탈락했음을 보

- 4) 주격조사의 실현도 그러한 구조에 보조를 맞추었는데, 예를 들어 “소”처럼 개모음으로 끝나는 명사에 주격조사가 오면 주격조사는 체언의 끝소리인 모음 /ㄴ/에 딸린 副母音 /j/로 실현되어 결국 “쇠”가 된다. 다만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이더라도 한자로 적혀 있으면 ‘내’, ‘내’, ‘해’, ‘개’ 등처럼 적을 수 없기 때문에 “孔子ㅣ”와 같이 칸을 내려 따로 적었다.
- 5) 전 알패 벽 도화 성이 띄엇더니 <구운몽 서울대학교소장필사본(228)>
든 아니 흐리라 월향 왈 쇼저의 말슴은 부탕 도화라도 흐오리니 명되로 흐오리다<쌍주기연(경관33장본)(51)>
썸의 잉 도화 썸러지고 보든 몸 거울이 한복판이 썸여졌거 <춘향전_경관17 장12b>
- 6) 님금의 덕화 다시 흥하야 죽나라히 가운데 와 니러나니라 <1832 십구 1:58ㄴ>
일출여구히 대원슈 덩턴흥의 덕화 삼군 당스의 덩혀 바라미 <명주보월빙(필사본11)38>
우리 천치 성신문무 흐스 덕화 아니 밋친 곳이 업거늘 너의 무슴 연고로 <정세비태록(경관32장본)(32)>
- 7) 나쁜 경신 잇고 적불선지가에 받드시 나쁜 양화 잇느니라 닐너시니 <1796 경신 30ㄱ>
그런 일을 만히 흐여 양화 이쳐로 밋쳐시나 아모리 급흔들 무슴 낫츠로 <현수문전(경관65장본)>
부처를 속이게 되여스니 장칫 큰 양화 이슬지라 이런 고로 슬혀 흐노라 청이 청파 <심청전(경관24장본)21>

여주는 표기를 흔히 발견할 수 있고 적어도 19세기 후반에는 공명음 사이에서 용언 어간의 발음 /ㅎ/이 발음되지 않았음을 알려준 언급 바와 같이(전광현 1997:48) <토공전>에 나타난 한자어 결합에서도 이런 현상이 보인다.

천스만악(千山萬壑)<18ㄴ>

또한, ‘2음절 어휘+히’와 같은 접미사와 결합에서 /ㅎ/ 탈락이 뚜렷이 나타났다.

돈연이(頓然히)<8ㄴ>, 졸연이(猝然히)<7ㄱ>, 범범이(泛泛히)<24ㄴ>, 완구이(完具히)<15ㄱ>, 쥔련니(猝然히)<15ㄴ>, 표연이(飄然히)<34ㄱ>

위에 제시한 바와 같이 ‘完具히’ 하나만 제외하면 모두 공명음 사이에서 용언 어간의 발음 ‘ㅎ’가 발음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猝然히’은 두 번 등장했지만 표기 방식이 같지 않았다. ‘쥔련니(猝然히)’은 발음대로 연찰 표기로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이것도 혼기 현상이 발생한 경우의 하나이다.

3.1.5 모음 ‘·’, ‘ㅁ’, ‘ㄱ’, ‘ㄴ’ 표기

중세 국어에서 이중모음이었던 ‘·’, ‘ㅁ’, ‘ㄴ’ 등은 근대 국어에서도 초기에는 이중모음으로 쓰였다. 근대 국어에서는 ‘·’와 ‘—’의 혼기는 물론, ‘·’, ‘ㅁ’, ‘ㄴ’의 혼기가 17세기와 18세기에 걸쳐 확대되고, 동시에 그 음운론적 제약 조건을 보이기도 하였다(전광현 1997: 31).

이와 관련 <토공전>에 나타난 한자어의 표기는 다음과 같다. ‘可’, ‘家’, ‘子’ 등 몇 가지 한자어를 제외하면 대부분 ‘·’로 쓰고 있다. 이에 따라 ‘·’와 ‘ㅁ’는 혼기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이 문헌에서는 ‘ㅁ’ 표기는 아예 안 나타나고 모두 ‘·’로 표기된 것으로 관찰된다. ‘ㄱ’은 위와 서술한 바와 같이 이중모음화 현상이 거쳐서 ‘ㄱ’로 표기된다.

그리고 ‘ㄴ’ 표기는 하나만 존재한다. ‘氣’, ‘奇’, ‘記’등 見母 止攝에 속하는 한자가 모두 ‘ㄴ’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세 국어와 달리 없이 그대로 발음이 이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3.2 중세 국어 한자음과 달라진 한자어 표기

3.1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토공전>의 한자음 중에는 근대 국어 음운론적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자어 표기로써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자음들이 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성모와 운모의 정보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새로운 모습의 현실 한자음이 아래와 같이 반영되어 있다.

3.2.1 성모의 양상이 달라진 경우

1) 국어의 음운 변화에 따라서 달라진 것

① 관인(完人)[完:山合一平桓匣(胡官切)]<7ㄱ>, ‘完’의 중세국어 한자음은 ‘완’이지만 胡官切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完’자가 ‘관’으로 쓰인 예시는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국대국어에서는 아음에서 /ㄱ/으로 대응하고 후음에서 /ㅎ/으로 대응하는 성모에서 나타나는 이런 특성은 아음의 성모에서는 /ㅎ/으로 대응하는 이례적인 예들이 있는 반면에 후음에서는 /ㄱ/으로 대응하는 이례적인 예들이 있다는 것에서도 존재한다(이준환 2007:210). 이런 아음과 후음이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② 양기(張氣)[張:宕開三平陽知(陟良切)]<4 ㄱ>, ‘張’자는 중세 국어 문헌에서 각각 ‘L당’, ‘L당’, ‘R당’, ‘?냥’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세 국어에서는 ‘ㄷ→ㄴ’의 복수적 대응으로 보이는 한자음이다. 그렇다면 ‘ㄷ→ㄴ→∅’으로 두음법칙의 영향이 받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③ 팔괘(八卦)[卦:蟹合二去卦見(古賣切)]<4 ㄱ>, 근대국어 한자음에서는 見母·溪母·羣母가 연구개 평과열음인 /ㄱ/으로 대응하고 일부만 /ㅋ/으로 대응하는 양상을 보이는 체계적 편중 양상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체계상의 대응 양상은 중세 한자음과 동일한 것이며, 근대 한자음에서도 변함이 없었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이준환 2007:208). 이에 따라 /ㄱ/가 /ㅋ/로 표기된 것으로 추정한다.

④ 갈약하다(幹略)[幹: 山開一平寒見(干小韻), 略: 宕開三入藥來(略小韻)]<39 ㄱ>: 위의 서술한 바와 같이 순행적 유음화과 역행적 유음화 현상을 한 단어에서 동시에 일어나서 /ㄴ/가 /ㄹ/로 또는 /ㄹ/가 ∅로 표기되면서 발음대로 ‘갈약’으로 표기된 현상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⑤ 흥용하다(洵洵)[洵: 通開三平鍾曉(許容切)]: ‘洵’이 중세 국어 한자음에서는 ‘흥’인데 여기서 혼기 양상으로 나온다. 이는 유성음 사이에서 /ㅎ/ 탈락 현상이 있는 것에 대한 인식으로 본음을 혼동한 결과가 아닌가 싶지만 <落泉登雲>(1651)에서도 ‘흥용’으로 쓰인 흔적이 관찰되어 이 문헌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⑥ 동원/동위(同類)[類: 止合三去至來(力遂切)]: ‘類’의 중세국어 한자음은 ‘류’인데 ‘ㄴ→∅’으로 두음법칙의 영향이 받는 것은 1차 변화이고 삼중모음으로 2차 변화를 거친 특이한 현상이다. 근대 국어 시기 다른 문헌들을 보면, ‘同類’은 ‘동뉴⁸⁾’, ‘동뉴⁹⁾’, ‘동유¹⁰⁾’로 다양하게 표기되고 있는데 여기 제시한 것은 이 문헌에서만 보이는 특이한 현상이다.

8) 남지면 불의지사(不義之事)를 가르쳐 동뉴(同類)를 삼고 위인이 연약하여 <완월회맹연>(1015)

9) 내 엇디 이 뉴로 더브러 동뉴(同類) 되며 구구히 벼슬의 붓자퍼 날마다 <후슈호던03>t(580)

10) 기리 강기히고 머리를 두다려 일반 동유(同類)을 보미 죄명을 아지 못하고 <완월회맹연>(23092)

2) 국어 음운 변화와는 무관하게 원음인 한어의 어느 음운 정보를 반영한 것

① 피파(琵琶)[琵: 止開三平脂A並(蒲巴切)]<13ㄱ>: 남광우(1993)에서는 이 현상에 대해서 ‘바, 파’의 激音化로 해설한 바 있다. 분포를 보면 이런 /ㅂ~ㅍ/의 차이는 문헌에 따라 보인 현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한편, <廣韻>에서 ‘琵’는 毗韻에 속하고 <洪武正韻牋> “爬, 蒲稟切”이라는 기재도 있고 발음은 /pʰi/로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헌에서는 ‘琵琶’의 표기는 ‘비파’로 나타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혼기 양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② 영향(映窓)[窓: 江開二平江初(楚江切)]<30ㄴ>: ‘窓’의 중세국어 한자음은 ‘창’이지만 楚江切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映窓’자가 ‘영향’으로 쓰인 예시는 찾기 어려웠다. 그리고 통시적인 양상을 고려하면, /ㅈ/가 /ㅎ/로 변동하는 현상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리하여 이것은 이 문헌에 나타난 특이한 오기로 추정한다.

3.2.2 운모의 양상이 달라진 경우

1) 국어의 음운 변화에 따라서 달라진 것

① 희뢰이상(喜怒哀傷)[怒: 遇開一上姥泥(奴古切)]<5ㄱ>, 고락영괴(苦樂榮枯)[枯: 遇開一平模溪(苦胡切)]<5ㄱ>, 천추만괴(千秋萬古)[古: 遇開一上姥見(公戶切)]<2ㄴ>, 건곤일야부(乾坤日夜浮)[浮: 流開三平尤並(縛謀切)]<16ㄴ>, 마귀선녀(麻古仙女)[古: 遇開一上姥見(公戶切)]<16ㄱ>, 호스다미(好事多磨)[磨: 果合一平戈明(莫婆切)]<14ㄱ> 횡늬논어상청천(行路難於上青天)[路: 遇開一去暮來(洛故切)]<19ㄴ>, 공회(功效)[效: 效開二去效匣(胡教切)]<29ㄱ>, 일면이여귀(一面而如舊)[舊: 流開三去宥羣(巨救切)]<31ㄴ>: 遇攝의 ‘怒’, ‘枯’, ‘古’, 流攝의 ‘浮’, ‘舊’, 果攝의 ‘磨’, 效攝의 ‘效’는 핵모음 다음에 /-j/를 지니는 경우는 없다. 그런데 여기서 보듯이 /-j/의 첨가하는 많은 것들이 관찰된다. 하향성/-j/가 첨가된 예들이다. 한어 음운사에는 이와 관련된 변화는 없어서 국어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 변화된 음으로 볼 수 있다.

② 으기양양하다(意氣洋洋)[意: 止開三去志影(於記切)]<24ㄱ>, 신의(信義)[義: 止開三去寘B疑(宜寄切)]<32ㄱ>: 止攝의 ‘意’와 ‘義’의 중세 국어 한자음은 모두 ‘의’이다. 이는 자음 아래에서의 /-ㄴ />/-ㄴ /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③ 무로/무류하다(無聊)[聊: 效開四平蕭來(落蕭切)]<37ㄱ>: ‘聊’는 중세국어 한자음은 ‘료’인데 이처럼 ‘류/로’로 보이는 혼기가 있다. 效攝의 한자음 가운데에서는 운모가 /ㅍ/로 대응하는 것은 없다. <전운치전>에서도 ‘무류’로 쓰인 예가 보인다.

④ 싱치(生菜)[蟹開一去代清(倉代切)]<9ㄱ>: 16세기에 제2음절 이하의 /·/가 /-/로 변화하였는데, ‘칙’의 모음 /·i/도 이러한 변화의 영향으로 /-i/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하여 ‘칙’이 ‘칙’로 바뀐 이후 /ㅈ/ 다음에 오는 이중모음 /-i/가 /-i/로 변화

여 ‘치’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⑤ 척은(惻隱)치[惻: 曾開三入職初(初力切)]: ‘惻’은 중세국어 한자음 ‘측’과 달리 ‘척’을 보이는데, 이 것은 치찰음 아래서 /-/가 /l/로 변동하는 전설모음화 현상으로 보인다.

⑥ 예촌탁지(予寸度之)[予: 遇開三平魚以(以諸切)]: 여기는 근대 국어 음운 변동 규칙에 따라 반모음 /-j/가 첨가된 예로 보인다.

⑦ 난방불게(亂邦不居)[居: 止開三平之見(居之切)]: ‘居’은 중세국어 한자음 ‘거’과 달리 ‘게’도 보이는데 여기도 위와 같이 하향성/-j/가 첨가된 예들이다.

2) 국어 음운 변화와는 무관하게 원음인 한어의 어느 음운 정보를 반영한 것

① 슈이시(燧人氏)[人: 臻開三平眞日(如鄰切)<4>, 무후하(問候)[問: 臻合三去問明(亡運切)]<27>, 하서고락(寒暑苦樂)[寒: 山開一平寒匣(胡安切)]<10>, 만반지수(滿盤珍饈)[珍: 臻開三平眞知(陟鄰切)]<31>: 山攝의 ‘하寒’과 臻攝의 ‘이’, ‘問’, ‘지珍’는 양성 운미 /-ㄴ/이 탈락한 한자음을 보이는 것이다. 19세기 다른 문헌들을 보면, <전운치전>에서는 山攝의 ‘變’자가 ‘며變’로 표식되는 예시를 보이고 <홍길동전>에서도 臻攝의 ‘憤’자가 ‘憤부’로 양성 운미 /-ㄴ/이 탈락한 한자음이 보인다. 그러므로 근대 국어에 山攝과 臻攝에 속해 있는 한자의 한자음은 양성 운미 /-ㄴ/이 탈락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규칙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② 음양순수(陰陽術數)[術: 臻合三入術船(食聿切)]: ‘術’은 중세국어 한자음 ‘술’과 달리 ‘순’을 보이는데, 이것은 ‘ㄴ’비음화 현상이 한자어 내부에서 생긴 예로 보인다.

③ 칭(稱)하(稱)[稱: 曾開三平蒸昌(處陵切) || 曾開三去證昌(昌孕切)]<11>: ‘稱’은 중세국어 한자음 ‘칭’과 달리 ‘층’을 보이는데, 19세기 이전의 『녹신록』에서 ‘稱층’이 관찰된 바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대 한어에서 蒸韻이 耕韻, 登韻과 더불어 庚靑韻[-əŋ]이 된 것과는 잘 대응하고 있어서 근대 한어적 층위를 반영한 음일 수 있다 (이준환2017:443).

4. 나오며

이상으로 19세기 판소리계 소설 <토공전>에서 추출한 한자어 1600여 개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관찰함으로써 근대국어 한자어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한자어의 형태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음절 개수를 기준으로 <토공전>에 나타난 1600여 개 어휘를 살펴보았다. <토공전>에서는 1음절 한자어부터 7음절 한자어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 중에 2음절 어휘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3음절 어휘와 4음절 어휘도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2음절 어휘부터 4음절 어휘는 주로 명사와 접사 ‘-하다’와 결합하여 동사나 형용사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음절 개수가 많은 한자어들을 보면 근대국어에 한자어의 침투가 폭넓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한문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성격을 가졌음도 알 수

있었다.

또한, 3.1에서는 한자음의 특징을 근대국어 음운론적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자어 표기와 중세 국어 한자음과 달라진 한자어 표기, 두 가지로 분류하여 논의하였다. 근대 국어 음운론적 양상에 따라 한자어 표기는 두음법칙, 이중 모음화, 구개음화, 조사 ‘ㄴ’와 결합, ‘ㅎ’ 탈락 그리고 모음 ‘ㅣ’, ‘ㅞ’, ‘ㅟ’, ‘ㅢ’ 표기에 해당하는 어휘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경우들을 정리하였다. 결과적으로 <토공전>에는 /ㄹ/두음법칙과 /ㄴ/두음법칙 현상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었고 두음법칙에 대한 다양한 혼기 현상뿐 아니라 같은 한자어의 내부에서도 혼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치찰음 아래의 단모음과 이중모음화 현상이 일어났지만 <토공전>에서 나타난 한자어 중 후설 모음 ‘ㅓ’와 결합한 어휘들은 모두 이중모음화 현상에서 제외되어 그대로 소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특징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보면 19세기에 구개음화 현상이 널리 퍼져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구개음화를 완성한 경우와 미완성한 경우들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혼기 양상이 존재한다는 보편적인 현상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3.2에서는 중세국어 한자음과 달라진 한자어 표기는 성모와 운모 두 가지 부분으로 논의하였다. 국어의 음운 변화에 따라서 달라진 것은 대략 근대국어 음운 변동 규칙으로 접근해 보았고 국어 음운 변화와는 무관하게 원음인 한어의 어느 음운 정보를 반영한 것도 한어의 음운 특징과 중세국어 한자음의 특징과 함께 고려하여 접근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이 시기의 문헌에 속해 있는 한자어에 반영된 한자음과 국어 음운사적인 면에서 의미 있는 것들이 많다. 그러나 한자 어원을 정확히 알고 여러 원인을 고려해야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다양한 관점으로 한자어의 실용적인 면에서 근대국어의 양상이나 한자음의 통시적 변화를 검토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서 자료를 추출하고 앞으로도 많은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영근(1996), <표준 중세국어 문법론>, 집문당
 權仁瀚, 『中世韓國漢字音訓集成』, 제이앤씨, 2005
 權仁瀚, 『中世韓國漢字의分析의研究』, 박문사, 2009
 김진영, 차충환, 김돈건(2004), 역주 <토끼전>. 민소원.
 남미혜(2007), 「사자성어(四字成語)의 유형과 문법」, 어문연구(語文研究) 35.1 139-163.
 신성철(2018), 「ㄹ 두음법칙의 통시적 고찰」, 국어학 0.85: 151-179.
 신성철(2019). 「어두와 어중 ㄹ→ㄴ 현상의 통시적 고찰: ㄹ 비음화와 통계적 방법론」, 국어문학 71.- (2019): 63-95.
 신성철(2020). 「조선 전기 한글 편지에 나타난 ‘ㄹ’ 두음법칙과 ‘ㄹ’ 비음화의 통시적

고찰」, 어문론집, 81, 43-74.

안예리(2013),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의 통시적 변화」, 한국어학 58.-: 107-133.

양명희(2008) 「이음절(二音節) 한자어(漢字語) 뒤에 오는 일음절(一音節) 한자어(漢字語)에 대하여」, 어문연구(語文研究) 36.3 : 63-85.

오가현(2011), 「19세기 후기 국어의 표기법과 음운현상」, 국내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이준환(2007), 「고유어와 한자어 구개음화의 상관성」, 『국어학』 49, 국어학회, 33~68면

이준환(2008), 「근대국어 한자음의 체계와 변화」,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이준환(2011(a)), 「16세기 후반·17세기 國語 漢字音 韻母의 대응 양상 및 특징(1)」, 『한국어학』 51, 한국어학회, , 189~219면

이준환(2011(b)), 「16세기 후반·17세기 國語 漢字音 韻母의 대응 양상 및 특징(2)」, 『大東文化研究』 74,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 255~286면

이준환(2012), 「18세기 국어 현실 한자음의 대응 및 변화 양상」, 『口訣研究』 28, 口訣學會, 191~233면

이준환(2015), 「17~18세기 고전 산문 작품 속의 국어 한자음의 모습」, 『언어와 정보사회』 26, 서강대 언어정보연구소, 343~384면

이준환(2017), 「19세기 고전 산문 작품에 반영된 국어 한자음의 모습」, 大東文化研究 0.99 419-456.

이준환(2020). 「음운론적인 면에서 살펴본 중세국어 한자어의 성격」, 국어사연구 0.30: 5-39.

이진오(2014), 「토끼전의 계통과 지향」, 국내박사학위논문 高麗大學校 大學院, 서울

이현주(2016), 「『어체속자성편(언해)』 이음절(二音節) 한자어의 특징」, 한국학 39.4 : 127-150.

임동석(2011). 「한국(韓國) 한자음(漢字音)의 두음법칙(頭音法則)과 문제점(問題點) 고찰(考察)」. 중국언어연구, 36(0), 1-19.

전광현(1997). 「근대 국어 음운」,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2 : 7-54.

韓榮均(2008). 「현대(現代) 국한(國漢) 혼용(混用) 문체(文體)의 정착(定着)과 어휘(語彙)의 변화(變化) - ‘단음절(單音節) 한자(漢字)+하(하)-’형 용언(用言)의 경우」, 국어학 0.51: 229-256.

홍종선(1997). 「근대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2 : 143-190.

“<토끼전>에 나타난 한자어의 사용 양상 및 한자음의 특징” 토론문

한수정(부산대)

이 연구는 필사 72장본 <토공전>에서 한자어를 추출하여 한자어의 사용 양상과 한자음의 특성을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자어를 음절수로 분류하고, 한자어에서 발견되는 음운 현상의 특징, 한자음의 변화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구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한자어의 형태론적 구성, 한자어에서 발견되는 음운 현상의 특징, 한자음의 변화 셋 중 하나에 집중하여 논문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연구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은 필사 72장본 <토공전>인데, 이 자료가 작성된 시기와 필사자의 정보 등이 궁금합니다. 자료의 성격을 알고 있어야 이 자료에 나타난 한자어의 특징을 좀 더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4쪽에서 3음절 한자어를 [단어+어근]N, [어근+단어]N로 분석했습니다. 단어를 단어의 구성요소로 분석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는 표의문자로 한자어의 모든 음절이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형태소로서의 지위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도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갈증(口渴症)’에서의 ‘증(症)’처럼 의미를 갖고 있지만, 한국어에서 자립적으로 쓰이지 않는 한자어는 어근과 접미사 중 무엇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5쪽에서 “근대국어에 한자어의 침투가 폭넓게 이루어졌다”는 결론을 내리셨는데, <토공전>의 한자어의 어떤 특징으로 이런 결론을 내리셨는지 궁금합니다.

3.1.1에서 두음법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두음법칙은 주로 한자어에서 발생하였다기보다 고유어와 한자어 모두에서 발생했습니다. 6쪽 ①에서 제시한 ‘ㄹ→ㄴ’의 두음법칙의 예 중에서 ‘뉴혈(流血), 늑병(六病), 냉면(冷麪), 유리존(琉璃盞), 늑백(六魄), 늑가(陸賈), 늑부(六腑)’만 해당될 뿐 그 외에는 두음법칙이라기보다 ‘ㄹ’의 비음화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ㄹ’이 탈락한 예도 모두 2음절 이하에서 탈락한 예이기에 두음법칙의 예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②에서 ‘ㄴ’ 탈락으로 제시한 예도 2음절 이하이기 때문에 두음법칙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ㄴ’이 첨가된 예에서도 ‘니운(伊尹), 뉴신(有信), 녀션문(於善文), 뉴공불급헛다(唯恐不及)’만 첫 음절에서 ‘ㄴ’이 첨가된 예입니다.

7쪽의 ‘ㅅ, ㅆ, ㅈ’ 아래에서의 이중모음 표기에서 ‘ㅅ’ 아래에서의 이중모음 표기와 ‘ㅆ, ㅈ’ 아래에서의 이중모음 표기는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ㅆ, ㅈ’의 조음위치가 치조에서 구개로 이동한 이후라면 ‘ㅆ, ㅈ’ 아래에서의 j계 이중모음은 표기만 이중모음일 뿐 단모음으로 발음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2쪽의 반모음 'j'가 첨가되는 예 중에서 마지막 음절에 'j'가 첨가된 '고락영괴(苦樂榮枯), 천추만괴(千秋萬古), 건곤일야뵤(乾坤日夜浮), 마귀선녀(麻古仙女), 호스다미(好事多磨), 공회(功效), 일면이여귀(一面而如舊)'는 3.1.3에서 논의한 것처럼 주격조사 '이'가 결합된 형태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한자어가 나타난 구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3.1은 근대국어 음운론적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자어 표기와 3.2.1, 3.2.2의 1) 국어의 음운변화에 따라서 달라진 것은 겹치는 바가 있습니다. 일관된 분류 체계에 따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문법화를 통한 품사 통용의 통시적 해석

허월영(제주대) · 최대희(제주대)

차 례

1. 머리말
2. 품사 통용의 앞선 연구
3. 역문법화에 의한 품사 통용
 - 3.1. 조사-부사 통용 : 보다
 - 3.2. 부사-대명사 통용 : 언제
 - 3.3. 수사-명사 통용 : 하나
4. 맺음말

1. 머리말

이 연구는 역문법화를 통해 품사 통용을 통시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품사 통용¹⁾이란 한 단어에 둘 이상의 품사가 포함되는 현상을 말한다. 구본관(2010: 191)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품사 통용은 현상에 대한 해석을 보류함에 따라 공시적인 결과만을 기술한다. 이러한 공시적 기술은 품사 통용이 품사 체계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부정적 견해를 양산하였다. 다시 말해 현상에 대한 원인이 적극적으로 규명되지 않아, 현상 자체가 부정되어 버린 것이다. 물론 품사 통용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이마저도 대개 품사 분류를 품사 통용의 원인으로 설명하며, 결과론적인 해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품사 통용은 여전히 그 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규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때의 원인 규명은 기존의 공시적 관점이 아닌 통시적 관점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당연하게도 한 단어에 둘 이상의 품사가 포함되는 것은 언어 변화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때의 언어 변화는 문법화와 역문법화로 설명되는 것이다.

문법화와 품사 통용을 연관 짓는 연구는 이미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다. 반면 역문법화로서 품사 통용을 해석하려는 시도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역문법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품사 통용의 몇 가지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품사 통용을 통시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1) 품사 통용은 홍기문(1927/1946)에서 처음 논의된 개념이며, 이후 남기심·고영근(1985/2019)에 수용된 학교 문법의 용어이다. 품사 통용은 최현배(1937/1991)에서 품사 전성으로, 송철익(1992)에서 영파생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2. 품사 통용의 앞선 연구

하나의 단어는 하나의 품사에 소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일부 단어에서는 둘 이상의 품사가 포함되어 여러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확인된다. 홍기문(1927: 100)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1) 同一한 말이 이 品詞 저 品詞로 通用될 境遇가 있다. 이런 때는 文章構造上 그의 任務를 보살피어 分간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홍기문(1927: 100)에서는 한 단어가 여러 품사로 쓰일 수 있음을 언급한다. 이후 남기심·고영근(1985/2019)에서 위의 논의를 수용하여 품사 통용이라는 용어를 보급하고, 이를 한 단어에 둘 이상의 품사가 포함되는 현상으로 정의하였다. 남기심·고영근(2019: 181)에서는 품사 통용의 예로 다음의 것들을 제시한다.

- (2) ㄱ.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명사> / 나도 그 사람만큼 할 수 있다. <조사>
 ㄴ. 그 애는 열을 배우면 백을 안다. <수사> / 열 사람이 백 말을 한다. <관형사>
 ㄷ. 오늘은 달이 매우 밝다. <형용사> / 벌써 날이 밝는다. <동사>
 ㄹ. 바람이 정말 많이 분다. <부사> / 정말! 큰일 났네. <감탄사>

(2ㄱ)의 ‘만큼’은 명사와 조사, (2ㄴ)의 ‘열’과 ‘백’은 수사와 관형사, (2ㄷ)의 ‘밝다’는 형용사와 동사, (2ㄹ)의 ‘정말’은 부사와 감탄사가 통용되는 것이다. 현재 학교 문법과 사전 기술에서도 이러한 해석을 따르고 있으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위의 예를 포함한 18가지 유형을 품사 통용으로 처리하고 있다.²⁾

한편 전통 문법에서는 위의 현상을 품사 통용이 아닌 품사 전성으로 정의해 왔다. 최현배(1991: 719)에서는 품사 전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3) ㄱ. 이미 이루어 진 씨 또는 씨줄기(語幹)가, 다른 아무것을 더하지 아니하고, 그 본형(本形) 그 대로, 다른 씨줄기 또는 다른 씨로 몸바꾸는(轉成하는) 것이니: 이는 곧 쓰힘(用法)이 달라짐에 말미암음이다.
 ㄴ. 이미 이루어 진 씨 또는 씨줄기(語幹)에 씨가지를 더하여서(더러는 규칙적으로, 더러는 불규칙적으로) 다른 씨로 몸바꾸는 것이니: 이는 곧 그 꼴(形式)이 달라짐에 말미암음이다.
 ㄷ. 이미 이루어 진 씨 또는 씨줄기(語幹)가, 다른 이미 이루어 진 씨 또는 씨줄기하고 어울려서, 그 본대 어우른 씨들과는 다른 씨로 몸바꾸는 것이니: 이는 대개 그 뜻(意義)의 달라짐에 말미암음이다.

품사 통용이 공시적 관점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전제하지 않는 것과 달리, 품사 전성은 통시적 관점에서 품사의 차이를 품사의 이동으로 본다. 이를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한정환·한희정(2013: 447-448)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표제어 중 두 가지 품사가 통용되는 유형을 ‘명사-관형사’, ‘명사-부사’, ‘명사-감탄사’, ‘명사-조사’, ‘대명사-관형사’, ‘대명사-부사’, ‘대명사-감탄사’, ‘수사-관형사’, ‘수사-명사’, ‘부사-감탄사’, ‘부사-조사’, ‘관형사-감탄사’, ‘형용사-동사’ 등 13개로 분류했으며, 세 가지 이상의 품사가 통용되는 유형을 ‘부사-감탄사-명사’, ‘부사-관형사-명사’, ‘명사-부사-감탄사’, ‘수사-관형사-명사’, ‘수사-관형사-명사-부사’ 등 5개로 분류했다.

- (4) ㄱ. 품사 통용 : 한 단어에 둘 이상의 품사가 포함되는 현상. / 공시적 관점 / [-방향성]
 ㄴ. 품사 전성 : 기본 품사에서 다른 품사로 이동하는 현상. / 통시적 관점 / [+방향성]³⁾

다만 품사 전성으로 해당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몇 가지 문제가 따른다. 우선 품사 전성은 한 단어가 다기능어로 처리되는 것을 동음이의적 관점에서 해석한다. 이러한 해석대로라면 (2)의 단어들은 사실 형태만 같을 뿐, 서로 다른 단어인 것이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는 의미적인 변별력이 없고, 형태마저 같기 때문에 서로 다른 단어로 보기 어렵다. 또한 품사 전성은 변화 양상을 형식화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만약 (2)의 사례를 품사 전성으로 본다면, 이를 형식화할 때에 변화 전과 후의 품사를 상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최현배(1991: 721)에서 “두 가지의 씨 사이에 어느 것이 밑(本)이 되고, 어느 것이 끝(末) 곧 된 것(轉成된 것)이 되는지? 이것이 저것으로 된 것 같기도 하고, 저것이 이것으로 된 것 같기도 하여서, 얼른 결정하기 어렵다.”고 한 것처럼 품사 전성은 기준이 되는 품사를 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학교 문법에서는 품사 전성이 아닌 품사 통용의 해석을 따른다.

그렇다고 하여 품사 통용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품사 통용은 주로 [-방향성]이라 설명되지만,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비판적으로 고찰될 필요가 있다. 품사 통용은 현상에 대한 해석을 유보하고, 그 결과만을 기술한다. 즉 품사 통용은 해당 현상을 공시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닌, 해석을 유보함에 따라 공시적인 기술이 강요되는 개념이다. 결국 품사 통용은 방향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 자체를 전제하지 않는다. 나아가 기존의 논의에서는 품사 통용이 [+방향성]으로도 해석될 가능성을 보인다. 우선 남기심·고영근(1985/2019)을 포함한 다수의 논의에서는 ‘명조류’, ‘조부류’ 등을 통시적 변화 과정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의 유형에 한하지만, 이들의 원인을 통시적 관점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명조류’, ‘조부류’에 속하는 사례들은 [+방향성]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또한 이때의 ‘○○류(類)’라는 명칭은 영문법의 기호화가 참고된 것인데, 이는 앞에 표시되는 품사를 기준으로 삼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즉 이러한 기호화 역시 통용되는 품사 사이에 위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방향성]의 성격을 보인다.

물론 품사 통용에는 방향성을 논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위의 이유들로 품사 통용을 [+방향성]의 개념이라 주장하는 것도 무리이다. 허원영(2019)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집중하여 품사 통용을 [±방향성]으로 재기술한 바가 있다. 허원영(2019)에서 재기술하는 품사 통용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 (5) 품사 통용 : 한 단어에 둘 이상의 품사가 포함되는 현상 / 범시적 관점 / [±방향성]

이처럼 품사 통용은 공시적으로 기술되는 개념이지만, 현상에 대한 해석을 유보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시적 관점에서만 규정하는 것은 문제이다. (5)에서 품사 통용을 [±방향성]으로 재기술하는 것 또한 품사 통용에 대한 통시적 해석의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한편 기존의 논의에서는 품사 통용을 품사 분류의 부수적인 현상으로 본다. 즉 품사 통용은 품사 분류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남기심·고영근(1985/2019), 고영근·구본관(2008/2018), 구본관(2010) 등에서는 품사 통용의 원인을 품사 분류에서 찾고, 이를 세분화했다. 다음은 품사 통용의 원인으로 제시되는 것들이다.

3) 김호중(2014: 7)에서 참고.

- (6) 남기심·고영근(2019: 185)에서 제시하는 품사 통용의 원인
- ㄱ. 분류 작업에는 늘 경계 범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 ㄴ. 통시적 변화 과정의 결과 때문이다.
 - ㄷ. ‘기능’에 중점을 두어 품사를 분류하는 경향 때문이다.
- (7) 고영근·구본관(2018: 54)에서 제시하는 품사 통용의 원인
- ㄱ. 임의적인 품사 분류.
 - ㄴ. 통시적인 변화 과정.
 - ㄷ. 의미상의 특성.
 - ㄹ.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경우.
- (8) 구본관(2010: 193)에서 제시하는 품사 통용의 원인
- ㄱ. ‘의미’보다 ‘분포’나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분류했기 때문.
 - ㄴ. 낱말의 의미가 품사를 분화한 경우.
 - ㄷ. 통시적인 변화를 공식적으로 분류했기 때문.

위의 분류들은 기술만 조금 다를 뿐, 결국 품사 통용이 품사 분류에서 비롯되었다는 공통된 견해이다. 이때 품사 분류를 품사 통용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공식적이며, 결과론적인 해석이다. 품사 통용어는 전체 단어의 수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즉 품사 분류에서 품사 통용의 원인을 찾을 경우 나머지 단어들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결국 품사 통용어가 어떻게 서로 다른 품사를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그 단어가 원래부터 여러 기능을 갖고 있었다는 식의 해석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시적 변화 과정을 품사 통용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주요하다. 하나의 단어가 여러 기능을 갖는 것은 결국 단어의 통시적 변화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다만 위에서 제시하는 통시적 변화 과정은 ‘명사-조사’, ‘조사-부사’ 등의 유형만을 제한적으로 설명할 때 사용된다. 하지만 단어의 통시적 변화는 거의 모든 품사에 걸쳐 확인되며, 품사 분류를 원인으로 삼는 유형들도 단어의 통시적 변화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허원영(2022)에서 품사 통용을 통시적으로 해석한 것이 참고된다. 허원영(2022)에서는 품사 통용을 문법화와 연관 지어 설명하였는데, 품사 통용은 문법화에 놓인 단어가 탈범주화(decategorialization)⁴⁾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더불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확인되는 18가지의 품사 통용 유형 중 11가지 유형을 문법화에 의한 것으로 분류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문법화에 의한 품사 통용의 목록⁵⁾

품사 통용 유형	품사 통용어
명사-부사	오늘, 어제 ¹ , 내일(來日), 잘못, 조금 ¹ , 사실 ⁴ (事實) 등
명사-관형사	전 ⁷ (前), 전전 ² (前前), 타 ¹ (他), 주 ¹ (主), 만 ⁶ (滿), 수 ²³ (數)
명사-감탄사	경례(敬禮), 차려, 기준 ³ (基準), 만세 ⁴ (萬歲), 안녕(安寧) 등

4) Hopper & Traugott(1993: 103-113)에 따르면 문법화 과정에서 범주가 이동하는 현상을 탈범주화(decategorialization)라고 한다.

5) 허원영(2022: 155)에서 참고.

명사-조사	만큼, 만치, 마치4, 마콤
대명사-관형사	아무1, 아무아무, 모12(某), 모모2(某某)
대명사-감탄사	뭐, 머, 무어1, 어디1
수사-관형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3, 백4(百), 몇 등
부사-감탄사	아무리, 어찌면, 왜2, 아차1, 가만, 그러게 등
부사-조사	같이, 마저
관형사-감탄사	까짓1
명사-부사-감탄사	정말1(正말), 참1, 참말

이렇듯 품사 통용은 [-방향성]의 개념으로 한정되지 않는 것이며, 그 원인 역시 통시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허원영(2022)에서는 그 가능성을 문법화에서 찾았으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유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허원영(2022: 154)에서는 <표 1>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두 품사 통용의 유형 중 ‘동사-형용사’ 통용을 제외한 ‘수사-명사’, ‘부사-대명사’, ‘조사-부사’ 통용을 역문법화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아직 미비하다.

3. 역문법화에 의한 품사 통용

관련 사례들을 검토하기 전에 우선 역문법화(degrammaticalization)의 개념을 정리하려 한다. 역문법화를 알기 위해서는 문법화(grammaticalization)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문법화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지만, 일반적으로 Jerzy Kuryłowicz(1975)의 정의를 따른다. Jerzy Kuryłowicz(1975: 52)에서는 문법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9) 문법화란 한 형태소가 어휘적 지위에서 문법적 지위로, 혹은 파생형에서 굴절형으로의 변화처럼 덜 문법적인 것으로부터 더 문법적인 것으로 범위가 증가되는 현상이다.⁶⁾

초기의 문법화론에서 문법화는 변화의 결과가 문법소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반면 현대의 문법화론은 이를 보다 유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시작하는데, 그 결과 문법화는 덜 문법적인 것이 더 문법적인 것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통칭하게 된다.

역문법화는 이러한 문법화의 역방향적 현상이다. 즉 문법화가 ‘어휘적 범주 > 문법적 범주’의 변화라면, 역문법화는 ‘문법적 범주 > 어휘적 범주’의 변화이다. 따라서 문법화와 역문법화를 구분 짓기 위해서는 어휘적 범주와 문법적 범주의 구분이 선행되어야 한다. 허원영(2022)에서는 문법화에 의한 품사 통용을 설명하기 위해 국어의 9품사를 문법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였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문법성의 정도에 따른 품사 구분⁷⁾

6) Jerzy Kuryłowicz(1975: 52), 이성하(2016: 23)에서 재인용.

문법성의 정도	품사 범주	근거
1	명사/동사/형용사	-의미적 분류 : 내용어 -형태·통사적 제약 ① 피수식의 여부 : 자유로움. ② 문법소의 결합 여부 : 자유로움. ③ 문장에서의 위치 : 자유로움.
2	대명사/수사	-의미적 분류 : 내용어에 가까움 -형태·통사적 제약 ① 피수식의 여부 : 관형사의 수식을 받지 못함. ② 문법소의 결합 여부 : 자유로움. ③ 문장에서의 위치 : 자유로움.
3	부사	-의미적 분류 : 내용어와 기능어의 중간 단계 -형태·통사적 제약 ① 피수식의 여부 : 부사에게만 수식 받음. ② 문법소의 결합 여부 : 일부 보조사만 결합함. ③ 문장에서의 위치 : 자유로움.
4	관형사	-의미적 분류 : 내용어와 기능어의 중간 단계 -형태·통사적 제약 ① 피수식의 여부 : 다른 품사의 수식을 받지 못함. ② 문법소의 결합 여부 : 문법소의 결합을 허용하지 않음. ③ 문장에서의 위치 : 항상 체언 앞에 위치함.
5	감탄사	-의미적 분류 : 기능어에 가까움 -형태·통사적 제약 ① 피수식의 여부 : 다른 품사의 수식을 받지 못함. ② 문법소의 결합 여부 : 문법소의 결합을 허용하지 않음. ③ 문장에서의 위치 : 항상 독립적인 형태로 문장에서 위치함.
6	조사	-의미적 분류 : 기능어 -형태·통사적 제약 ① 피수식의 여부 : 다른 품사의 수식을 받지 못함. ② 문법소의 결합 여부 : 문법소의 결합을 허용하지 않음. ③ 문장에서의 위치 : 항상 의존적인 형태로 문장에서 위치함.

이처럼 국어의 품사를 문법성의 정도에 따라 나눈다면, 단일방향성 가설(unidirectionality hypothesis)⁸⁾에 의해 ‘명사/동사/형용사 > 대명사/수사 > 부사 > 관형사 > 감탄사 > 조사’의 경로를 상정할 수 있다. 반면 역문법화는 이에 대한 역방향적 변화이므로, ‘조사 > 감탄사 > 관형사 > 부사 > 대명사/수사 > 명사/동사/형용사’의 경로를 가지게 된다.

즉 이러한 경로로 문법화 혹은 역문법화될 때 나타나는 품사의 변화가 곧 품사 통용의 원인이 된다. 문법화에 의한 품사 통용의 사례는 <표 1>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으며, 역문법화에 의한 품사 통용의 사례는 ‘조사-부사’ 통용의 ‘보다’, ‘부사-대명사’ 통용의 ‘언제’, ‘수사-명사’ 통용의 ‘하나’가 전부이다. 여기서는 이 세 가지 사례를 검토하기로 한다.

7) 허원영(2022: 152-153)에서 참고.

8) 단일방향성 가설은 문법화의 경로가 ‘구체적 > 추상적’, ‘자립적 > 의존적’, ‘어휘적 > 문법적’이며, 이때의 변화 방향은 항상 고정된다고 보는 것이다.(Bybee et al, 1994: 12-13)

3.1. 조사-부사 통용 : 보다

‘조사-부사’ 통용어로 볼 수 있는 것은 ‘보다’가 유일하다. 물론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같이’, ‘마져’ 또한 조사와 부사의 통용어로 처리하지만, 이들은 ‘부사 > 조사’의 문법화 사례라는 점에서 ‘부사-조사’ 통용어로 분류해야 한다. 물론 ‘보다’는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품사 통용어가 아닌 동음이의어로 처리된다. 다만 이는 허월영(2021: 233-234)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관된 처리 방식이 아니다. 오히려 동음이의어로 처리된 두 단어가 의미적으로 변별되지 않으니, 편찬 지침에 따라 품사 통용어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 다음은 ‘보다’의 용례이다.

- (10) ㄱ. 내가 너보다 크다. <조사>
- ㄴ. 보다 높게. <부사>

(10ㄱ)의 ‘보다’는 ‘~에 비해서’의 뜻을 나타내는 격조사이고, (10ㄴ)의 ‘보다’는 ‘어떤 수준에 비하여 한층 더’의 뜻을 갖는 부사이다. 이 경우 일반적인 문법화의 과정을 고려한다면, 부사에서 조사로 탈범주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문헌에서 ‘보다’는 조사의 쓰임이 먼저 확인된다.

- (11) ㄱ. 고뢰 축출 문회보다 당헌이보다 나으니이다 (낙십이, 192)
- ㄴ. 그 스랑흔 정을 의론컨대 7장 긴하니 사림이 벗보다 더하고 친함이 겨레보다 더하야 못츨내 다른 스랑으로써 가히 풀 길이 업느니라 (성경직희, 23a)
- ㄷ. 아침에 일즉 이러나서 히 돛논 景致를 보논 것보달 더 爽快흔 일은 업소오리이다 (신정심상소학, 4b)

(11)과 같이 ‘보다’는 18~19세기 문헌에서 ‘비교’를 나타내는 격조사로 쓰인다. 안주호(2001: 103)에서는 ‘보다’가 20세기에 와서 ‘보다 많은’처럼 부사로 쓰였으며, 이는 조사 ‘보다’에서 분화되어 나온 것이라 언급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보다’는 의존적 형태가 자립적 형태로 변하고, 문법적 범주가 어휘적 범주로 변화한 역문법화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때의 ‘보다’는 조사를 기본 품사로 갖는 것이며, 역문법화 과정에서 부사로 탈범주화됨에 따라 부사로서의 기능을 갖게 된 것이다.

3.2. 부사-대명사 통용 : 언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언제’만이 유일하게 ‘부사-대명사’ 통용어로 수록되어 있다. 다음은 ‘언제’의 용례이다.

- (12) ㄱ. 언제 한 번 만나자. <부사>
- ㄴ. 휴가가 언제부터지? <대명사>

(12ㄱ)의 ‘언제’는 ‘잘 모르는 때’ 혹은 ‘막연한 때’를 뜻하는 부사이다. 반면 (12ㄴ)의 ‘언제’는 부사 ‘언제’와 같은 의미를 갖지만 대명사로 쓰인 예이다. 이 경우 일반적인 문법화의 과정을 고려한다면, 대명사에서 부사로 탈범주화되었다고 보이지만, 문헌에서는 부사 ‘언제’의 쓰임이 먼저 확인된다.

- (13) ㄱ. 貪欲이 언제 업스로 흐더니 (석상, 24:26b)
 ㄴ. 어느 제 쯔 諸有를 내시리잇고 (능엄 4:33b)
 ㄷ. 어느 저긔 숲잔을 다시 자브려뇨 (두시-초 23:6b)

(13)과 같이 ‘언제’는 15세기부터 ‘언제’, ‘어느 제’, ‘어느 저긔’ 등으로 표기되었으며, 그 의미는 동일하다. 이때 ‘어느 저긔’는 ‘어느 + 적 + 의’의 구성인데, 이때의 ‘-의’는 부사격조사이다. 즉 ‘어느 저긔’라는 부사어와 동일한 의미, 기능을 갖는 ‘언제’의 품사가 부사인 것은 당연하다. 반면 대명사 ‘언제’는 다음과 같이 17세기 문헌에서 확인된다.

- (14) 네 더 썸에 므슴 瘡고 아디 못째라 므슴 瘡인디 언제브터 낫뇨 (박언, 상:13b)

(14)에서의 ‘언제브터’는 (12ㄴ)처럼 대명사 ‘언제’에 보조사 ‘-브터’가 결합된 것이다. 즉 이때의 ‘언제’는 대명사이다. 이처럼 ‘언제’는 문헌에서 부사의 쓰임이 먼저 확인된다. 이에 따라 대명사 ‘언제’는 부사 ‘언제’가 역문법화 과정에서 탈범주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사-대명사’의 품사 통용이 실현된 것이다.

3.3. 수사-명사 통용 : 하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하나’만이 유일하게 ‘수사-명사’ 통용어로 수록되어 있다. 다음은 ‘하나’의 용례이다.

- (15) ㄱ. 필통에서 연필 하나를 꺼냈다. <수사>
 ㄴ. 뜻을 하나로 모으다. <명사>

(15ㄱ)의 ‘하나’는 ‘수효를 세는 맨 처음 수’를 뜻하는 수사이고, (15ㄴ)의 ‘하나’는 ‘일치(一致)’의 뜻을 갖는 명사이다. 이 역시 명사가 수사보다 덜 문법적인 범주에 속하므로, 명사에서 수사로 문법화한 것이라 여길 수 있지만, ‘하나’의 품사는 기본적으로 수사이다. 이는 ‘하나’의 옛말인 ‘하날’의 쓰임을 통해서 확인된다.

- (16) ㄱ. 一은 하나히라 (훈언, 13b)
 ㄴ. 신 찻 사르미 法華經 一 偈 듣고 隨喜한 功德에 근디 몬하야 百分 千分 百千萬億分에 하나토 몬 미츠리니 算數譬喩로 몬 아룸 배라 (석상, 19:5a)
 ㄷ. 그제사 그디 내 이 네 바리를 받즈브라 흐더니 이제 時節이로다 ㅎ고 四天王이 各各 하나콰 가져와 받즈본대 (월석 4:57ㄴ)

(16)과 같이 ‘하나’는 15세기 문헌에서부터 ‘하날’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때의 ‘하날’은 오늘날의 수사 ‘하나’와 같다. 명사 ‘하나’의 경우 20세기 이전의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아마 현대에 와서 쓰이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하나’는 통시적으로 수사의 쓰임이 먼저 확인되는 것이므로, 그 기본 품사를 수사로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하나’는 수량을 나타내는 양수사인데, 같은 양수사인 ‘둘, 셋, 넷, …’ 등은 모두 수사로만 쓰인다. 따라서 양수사의 연속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 ‘하나’의 품사만 명사로 처리되는

것은 어색하다. 결국 ‘하나’의 기본 품사를 수사로 본다면, 명사 ‘하나’는 수사 ‘하나’가 역문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역문법화 과정에서 명사로 탈범주화됨에 따라 명사로서의 기능을 갖게 된 것이다.

4. 결론

품사 통용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공시적 관점에서 그 결과만을 기술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최근까지도 품사 통용을 부정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까닭은 어쩌면 이러한 공시적 기술의 한계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품사 통용의 원인 중 하나로 역문법화를 제시함으로써 통시적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해석을 시도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품사 통용에 대한 앞선 연구를 살펴봤다. 품사 통용은 한 단어에 둘 이상의 품사가 포함되는 현상이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이에 대한 해석을 유보한 채로 공시적인 결과만을 기술한다. 이에 따라 품사 통용은 [-방향성]의 개념으로 정의된다. 품사 통용이 현상에 대한 해석을 유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의는 문제가 된다. 더불어 품사 통용의 유형 중에서는 [+방향성]으로 해석되는 부분도 있으니, 기존의 공시적 해석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한편 품사 통용은 그 원인이 품사 분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역시 공시적이고, 결과론적인 해석이다. 품사 통용어는 전체 단어에 비하면 극히 일부인데, 품사 분류를 원인으로 삼을 경우 나머지 단어가 해당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결국 품사 통용은 통시적 관점에서의 해석을 필요로 한다.

3장에서는 품사 통용의 유형 중 역문법화의 사례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살피고, 이를 통해 역문법화를 품사 통용의 원인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이때의 역문법화는 더 문법적인 것이 덜 문법적인 것으로 변화하는 현상이며, 문법화에 반대되는 언어 변화이다. 품사 통용의 유형 중에는 ‘조사-부사’ 통용의 ‘보다’, ‘부사-대명사’ 통용의 ‘언제’, ‘수사-명사’ 통용의 ‘하나’가 역문법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처럼 역문법화의 사례들에 한해서는 품사 통용을 통시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품사 통용을 통시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과정을 통해 품사 통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영근(2020), 『표준 중세 국어 문법론』, 집문당.
- 고영근·구본관(201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구본관(2010), 「국어 품사 분류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 『형태론』 12-2, 형태론, 179~199쪽.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 김영석(2015), 『영어 형태론』, 한국문화사.
- 김호중(2014), 「국어 명사와 대명사, 명사와 수사의 품사 통용」,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기심·고영근 외(2019), 『표준 국어문법론』, 한국문화사.
- 남수경(2011), 「품사 통용의 몇 가지 문제」, 『개신어문연구』 33, 개신어문학회, 105~127쪽.
- 문 용(1998), 『영어품사론』, 한국문화사.
- 박지영(2017), 「문법화에 의한 품사 통용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태룡(2000), 「국어 형태론에 기초한 통사론을 위하여」, 『국어학』 35, 국어학회, 251~285쪽.
- 서태룡(2006), 「국어 품사 통용은 이제 그만」, 『이병근선생 퇴임 기념 국어학논총』, 태학사, 359~389쪽.
- 서태룡(2013), 「명사는 동사를 위한 존재다」, 『국어학』 66, 국어학회, 109~135쪽.
- 서태룡(2016), 「품사 분류 기준의 우선순위와 감탄사 통용」, 『국어학』 80, 국어학회, 3~34쪽.
- 송철의(1992), 『국어의 파생어형성 연구』, 태학사.
- 안주호(1997), 『한국어 명사의 문법화 현상 연구』, 한국문화사.
- 안주호(2001), 「한국어의 문법화와 역문법화 현상」, 『담화와 인지』 8-2, 담화·인지언어학회, 93~112쪽.
- 안주호(2002), 「한국어에서의 역문법화 현상에 대하여」, 『언어학』 10-4, 대한언어학회, 23~40쪽.
- 이금희(2017), 「한국어에 나타나는 문법화와 어휘화 현상에 대하여」, 『국어학』 81, 국어학회, 91~114쪽.
- 이성하(2016), 『문법화의 이해』, 한국문화사.
- 이정택(2012), 「품사분류와 “품사의 통용”」, 『인문논총』 24,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57~69쪽.
- 이지양(2003), 「문법화의 이론과 국어의 문법화」, 『한국학』 26-3, 한국학중앙연구원, 211~239쪽.
- 이현희(2011), 「범주로서의 품사와 품사 전형성 : 명사와 그 중복 범주를 대상으로」, 『한국학 연구』 39,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359~384쪽.
- 전정례(2005), 『언어변화이론』, 박이정.
- 조정식(1990), 『영어학사전』, 신아사.
- 최현배(1991),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최형용(2016), 『한국어 형태론』, 역락.
- 한정한·한희정(2013), 「국어사전에서의 품사 통용 정보 기술 방안」, 『한국어어미학』 40, 한

국어의미학회, 441~468쪽.

한희정(2013), 「국어 품사 통용의 사전 기술 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 응(1983), 『우리 옛말본』, 샘 문화사.

허원영(2019), 「국어 품사 통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원영(2021), 「품사 통용어의 사전 기술에 관한 일관성 고찰 -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표제어를 중심으로 -」, 『한말연구』 62, 한말연구학회, 215~239쪽.

허원영(2022), 「통시적 관점에서의 품사 통용 연구 - 문법화 현상을 중심으로 -」, 『영주어문』 50, 영주어문학회, 137~172쪽.

흥기문(1927), 「조선문전요령」, 『역대한국문법대계 제1부 제15책』, 탑출판사.

흥기문(1946), 「조선문법연구」, 『역대한국문법대계 제1부 제15책』, 탑출판사.

Bybee, Joan L, William Pagliuca & Revere D. Perkins(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enry Sweet(2014), *A new English grammar : logical and historical*, Cambridge University Press.

Paul J. Hopper & Elizabeth Closs Traugott(1993),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역문법화를 통한 품사 통용의 통시적 해석(허원영·최대희)” 토론문

이용규(서울대 국문과 박사과정 수료)

이 발표문은 공시적인 관점에서 기술되어 왔던 품사 통용을 설명하기 위해 범시적인 관점을 도입하고, 문법화와 역문법화라는 기제를 통해 품사 통용 현상을 해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간 국어사 논의에서는 품사 통용의 예가 문법화나 어휘화의 과정에서 층위화 현상을 보이는 예들이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논의를 해왔는데, 발표문에서는 목록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역문법화 예를 보여줌으로써 품사 통용 현상이 발생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읽는 동안 많은 공부를 하였습니다. 선생님의 발표와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쭙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역문법화의 사례 목록을 추출하신 방법에 대해 여쭙습니다. 발표문(6쪽)에서는 “역문법화에 의한 품사 통용의 사례는 ‘조사-부사’ 통용의 ‘보다’, ‘부사-대명사’ 통용의 ‘언제’, ‘수사-명사’ 통용의 ‘하나’가 전부이다”라고 하셨는데, 문법화와 역문법화가 갖는 특성상 층위화 현상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법화와 역문법화를 겪는 단어들은 모두 일정 시기에 품사 통용 현상을 보였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역문법화의 예로 논의되어 온 단어들도 역문법화에 의한 품사 통용의 예로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세 단어로 한정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ㄱ) 역문법화의 유형과 그 예들(문병열 2015: 318)

가. 범주의 변화만 겪은 경우

예) ‘때문’, ‘나름’ / ‘초(超)’, ‘급(急)’, ‘개’

나. 의미 변화와 범주 변화를 겪은 경우

예) ‘마저’, ‘보다’ / ‘증(證)’, ‘끼(氣)’, ‘꾼(軍) / ‘드립’, ‘덕후’

다. 형태 변화와 범주 변화를 겪은 경우

예) ‘개’

라. 의미 변화, 형태 변화, 범주 변화를 모두 겪은 경우

예) ‘설(說)’

2. (1ㄱ)의 역문법화 예들 가운데 ‘마저’는 선생님의 발표문 <표1>(5쪽)에서는 문법화의 예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문병열(2015)에서는 조사 ‘마저’의 쓰임이 부사 ‘마저’에 비해 역사적으로 선행하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마저’를 문법화에 의한 품사 통용을 보이는 예로 판단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역문법화의 예를 제시할 때 변화의 동인이 쉽사리 설명되지 않는 상태에서 문헌에 등장하는 시기와 자립성의 변화만을 고려하여 역문법화의 예로 파악할 수 있을지 조심스럽습니다. 가령, 보조사 ‘보다가’의 경우 ‘視’의 번역 차용된 것일 가능성이 있는데(박진호 2008 참조), 부사 ‘보다’가 이로부터 역문법화된 것인지 아니면 김영옥(1995)의 주장처럼 동사 ‘보-[見]’로부터 문법화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문법화나 역문법화에 의한 품사 통용의 예들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문법화와 역문법화 과정을 조금 더 상술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3. 층위화(layering)와 품사 통용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습니다. 대부분의 품사 통용의 원인이 문법화나 역문법화와 같은 통시적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파악한다면, 탈 범주화되는 과정의 중간지점에 놓인 단어들이 품사 통용이라는 현상으로 포착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층위화와 품사 통용을 지칭하는 범위가 일치하게 되거나 혹은 층위화 내에 품사 통용이 속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개념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문헌

- 김영옥(1995), 『문법형태의 역사적 연구변화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박이정.
문병열(2015), 한국어의 역문법화 현상에 대하여, 『국어학』 75, 국어학회, 295-330.
박진호(2008), 비교 기준 표지 ‘-보다’의 기원과 차등 비교 구문의 유형론, 제67차 한국어통사
론연구회 발표요지.

<연구윤리 규정>

국어사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국어사학회 연구윤리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사학회 회원이 준수하여야 할 연구에 관한 윤리 및 그에 대한 위반 시의 제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논저자의 연구윤리

제3조(표절 금지) 논저자는 논문이나 저술에 사용된 연구 자료, 내용, 방법 등에서 자신이 직접 행하지 않은 것을 자신이 행한 것처럼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연구 자료, 내용, 방법 등을 인용하거나 참조할 경우 반드시 그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 업적의 인정과 기여도 표시)

1. 논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논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자신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저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순수하게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순위를 정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논저자 중에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제1저자로 하거나, 연구 및 저술에 실질적인 기여가 없음에도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려서는 안 된다.
3. 논저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연구에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 게재 및 이중 출판의 금지) 논저자는 이미 간행되었거나 게재 예정 또는 심사 중인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전재 또는 개정 및 번역하여 출판할 경우에는 이 사실을 편집자나 발행인에게 분명히 밝혀야만 한다.

제6조(인용 및 참고 표시의 의무)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비공개 자료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자료 제공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글 또는 아이디어를 인용 또는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를 달아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3장 학회지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 제7조(공정성의 의무) 학회지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투고자의 성별, 연령, 출신 지역 및 학교, 소속과 지위 등과 관련한 선입견이나 친분 관계와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 제8조(심사위원 선임 조건) 투고자와 사적인 친분이 많거나 그와 반대로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은 선임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편집위원회 관련당사자의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출판이사, 출판 간사 등 편집위원회 관련당사자가 학회지에 투고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 의뢰 및 게재 여부 등을 의결할 때에는 관련당사자를 꺾지 않는 가운데 행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 유지의 의무) 학회지 편집위원 및 편집간사와 심사위원은 논문 투고자의 인적사항, 투고 내용, 심사 결과 등 심사와 관련된 일체 사항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 제11조(심사 부적합 통지의 의무) 선임된 심사위원이 자신이 심사자로서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성실 심사의 의무)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논지를 충분히 이해한 후 평가를 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의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대상 논문을 저평가하거나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 제13조(평가 근거의 명시 의무) 심사서에는 심사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자신의 판단을 밝히고,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14조(정중한 표현)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인격과 독자성을 존중하여 심사서에 투고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피하고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 제15조(심사 논문 유출 금지) 심사위원은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의하여서는 안 되며, 심사 논문이 학회지에 수록 출판되기 전까지 논문의 내용을 유출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윤리규정의 시행 및 제재

- 제16조(윤리규정의 준수 의무) 학회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7조(윤리규정 위반 행위의 제보) 학회 회원 또는 학회지 투고자나 심사자가 윤리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 사실을 인지한 제보자는 학회의 사무소 또는 임원

에게 직접 또는 전화나 서면, 전자우편으로 제보할 수 있다. 제보자의 자격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제보할 때에는 구체적인 증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8조(제보의 접수) 학회의 사무소 또는 임원이 윤리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으면 지체없이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장은 보고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윤리위원회의 소집으로써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윤리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 내용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둔다. 윤리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이 호선한다.

제20조(윤리위원회의 조사) 윤리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윤리위원회가 소집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시 1회에 한하여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사안이 이미 발행한 학회지 게재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 게재와 관련된 경우에는 윤리위원장이 편집위원회에 제보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 논문에 대한 조사 및 사후조치를 위임한다.

제21조(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는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조(판정 및 통보) 윤리위원회는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윤리위원 2/3 이상의 동의로 판정한다. 판정이 이루어지면 윤리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때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피조사자에 대한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회장은 판정 결과를 보고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판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피조사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회장과 윤리위원은 해당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4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보고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의 정지 또는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5장 학회지 논문의 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심사 및 조치

제25조(투고 논문의 제재)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이 표절 또는 중복 게재로 판단될 때에는 윤리위원회에 제보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 등을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때로부터 7일 내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26조(사후심사)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이 표절 및 중복 게재로 의심되어 윤리위원회에 제보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사후심사를 한다.

제27조(사후심사의 절차) 윤리위원회에서 논문의 사후심사를 의뢰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의뢰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사후심사를 진행한다. 사후심사는 다음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1.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여 의뢰받은 논문에 대한 표절 및 중복 게재 여부를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토대로 편집위원회에서 예비 결정을 내린다. 예비 결정은 심사를 의뢰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편집위원장은 예비 결정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논문 필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논문 필자는 통보받은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 필자가 기한 내에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예비 결정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편집위원장은 소명서를 제출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의뢰받은 논문에 대한 표절 및 중복 게재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리고,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장에게 알린다.

제28조(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조치) 편집위원회에서 사후심사한 논문이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최종 판정된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학회 홈페이지 및 차호 학회지에 그 사실 관계 및 조치 사항들을 기록한다.
2. 학회지 전자판 및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3. 해당 논문 필자에 대하여 제명 조치를 하며, 이로 인해 제명된 자는 향후 5년간 학회에 재가입할 수 없고, 학회지에도 투고할 수 없다.

부칙

제1호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08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호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08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3호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윤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